발 간 등 록 번 호
11-1290472-000011-08

ISSN 1598-317X

軍史

제 81 호 2011. 12

- 高句麗 倭 連和와 阿旦城 전투
- 7세기 삼국 고대 전투모습의 재현
- 조선 세종대 진법서 편찬과 훈련체계의 개편
- 임진왜란 중 선조 직계가족의 피난과 항전
- 兩湖都巡撫營 指揮部와 日本軍 간의 갈등
- 남북전쟁의 성격에 관한 연구
- 6 · 25전쟁의 승패인식 재조명
-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지상군 철수결정 시 북한 군사력 평가에 관한 연구
- 스뜨렐비쯔끼 대령 – 조선주재 초대 러시아 육군무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표지그림 : 壯襄公(李鎰)征討時錢部胡圖(육군박물관 소장)

軍史

第 81 號
2011. 12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軍史

第 81 號
2011. 12

目　　次

● 高句麗 倭 連和와 阿旦城 전투 …… 서영교(1)

● 7세기 삼국 고대 전투모습의 재현 …… 김주성(43)

● 조선 세종대 진법서 편찬과 훈련체계의 개편 …… 윤훈표(75)

● 임진왜란 중 선조 직계가족의 피난과 항전 …… 신명호(115)

● 兩湖都巡撫營 指揮部와 日本軍 간의 갈등 …… 신영우(151)

● 남북전쟁의 성격에 관한 연구
- 북부의 총력전을 중심으로 - …… 박계호(187)

단양 온달산성의 모습

- 6 · 25전쟁의 승패인식 재조명 ..... 한관수(227)
-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지상군 철수결정 시 북한 군사력 평가에 관한 연구: 국방부 및 군부의 평가 변화를 중심으로 ..... 조관행(261)
- 스뜨렐비쯔끼 대령 - 조선주재 초대 러시아 육군무관 ..... 김종헌(297)

부록

1. 연구소 동정
2. 자료기증 및 자료이용 안내
3. 신간 도서 소개
4. "軍史" 誌 투고안내
5. 연구윤리예규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高句麗 倭 連和와 阿旦城 전투

서 영 교*

1. 머리말
2. 阿旦城 戰役의 時空間 검토
3. 587~8년 고구려에 온 倭使
4. 倭의 신라 견제
5. 新羅王京 要塞化
6. 阿旦城 전투 그리고 신라의 반격
7. 맺음말

1. 머리말

551년 고구려는 羅·濟同盟軍의 공격으로 한강유역을 상실했다. 553년 신라는 백제가 점령한 한강 하류마저 차지했다. 이후 한강유역은 통일기까지 계속해서 신라의 영역이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었다.

이러한 학설은 역사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다. 필자도 신라 진흥왕대 한강유역 석권이 삼국통일의 기반이 되었고, 한강유역의 영유가 백제-고구려-신라 순이라 도식적으로 배웠다.

* 중원대 박물관장

하지만 관련 사료에는 신라의 한강유역 영유가 진흥왕 이후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는 흥미로운 사실이 보인다. 643년 당의 사신으로 고구려에 간 상리현장(相裏玄奬)이 연개소문에게 더 이상 신라를 공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연개소문의 답변은 이러하다. "옛날에 수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신라가 틈을 타고서 우리의 땅 500리를 침략하였는데, 스스로 우리에게 침략하였던 땅을 되돌려 주지 않으니 아마도 그칠 수는 없을 것이오."[1]

위 '隋人入寇時'에 대해 이병도는 551년의 10군 상실을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았다.[2] 물론 이병도가 이렇게 본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삼국사기』를 보면, 수대(581년~618년) 고구려와 신라의 전쟁기사는 590년대초, 603년, 608년(2회) 등 총 4회이다. 모두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한 기록이고, 신라의 고구려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은 확인되지 않는다. 때문에 이병도는 신라가 고구려와 수나라 전쟁기(598~615)에 고구려 땅 500리를 차지했다는 기록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이병도의 회의는 충분히 이해되는 면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학계의 정설로 받아졌고, 역사교육에 있어서도 영향을 주어 앞서 언급한 도식적 이해를 낳게 했다는 점은 재고의 필요가 있다. 사료에 분명히 나오는데도 한 학자가 직관으로 부정한 견해를 30년 넘게 충분한 재검토 없이 그대로 통설로 따르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일례로 노태돈은 연개소문이 당의 사신 상리현장에게 "사실과 어긋난 바"를 말했다고 했다. 6세기 중반 고구려가 내분에 이은 북제 및 돌궐의 외침의 위기에서 신라에게 한강유역 상실한 사실을 짐짓 연개소문이 당의 사신 상리현장에게 수대에 있었던 것처럼 말한 것 같다고 했다.[3]

하지만 10년 전에 이미 이병도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당시 긴장

---

1) 『자치통감』 권197, 정관18년(644) 봄 정월 조 "相裏玄奬至平壤, 莫離支已將兵擊新羅, 破其兩城, 高麗王使召之, 乃還. 玄奬諭使勿攻新羅, 莫離支曰〔昔隋人入寇, 新羅乘釁侵我地五百裏, 自非歸我侵地, 恐兵未能已.〕"
『삼국사기』 권21, 보장왕 3년 정월 조에 같은 내용이 전한다.

2) 이병도, 『譯註 三國史記』, 을유문화사, 1977, p.325, 註1.

3)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 출판부 2009, 76쪽.

속에서, 고구려 집권자인 연개소문이 당의 사신 상리현장을 맞이하여 외교 담판과정을 하는 과정에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수의 침입은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데서 불과 멀리 떨어진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의 착오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다.[4)]

연개소문의 주장에 대한 상리현장의 답변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 하고 있다. 『구당서』와 『신당서』 고려전에 양자의 같은 대화의 내용이 전하고 있어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5)]

당은 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세계제국'이었다. 특히 당태종대 당은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군사력 운용으로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었다. 북방의 광대한 초원을 재패하고 실크로드의 요충지인 토욕혼과 고창국을 장악했다. 연개소문이 상리현장을 만날 당시 당은 고구려를 침공하려 하고 있었다.

노태돈이 지적한 바와 같이 641년 5월 고구려를 방문했던 당의 직방랑중 진대덕은 요하를 건너 평양으로 가는 도중의 주요 산천과 성곽 및 교통요지를 두루 살폈고, 고구려에 포로가 되어 남은 과거 수나라 병사들을 통해 고구려 사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였다.[6)]

626년에 이미 당고조는 고구려와 신라·백제에 사신 주자사를 파견하여 서로 화친토록 했다.[7)] 당제국은 삼국의 치열한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도 각국으로부터 들어 이미 알고 있었다.[8)]

---

4) 서영일, 「6~7世紀 高句麗 南境 考察」, 『고구려연구』 11, 2001.

5) 『구당서』 권199, 고려전 "十七年, 封其嗣王藏爲遼東郡王、高麗王. 又遣司農丞相裴玄獎齎璽書往說諭高麗, 令勿攻新羅. 蓋蘇文謂玄獎曰「高麗、新羅, 怨隙已久. 往者隋室相侵, 新羅乘釁奪高麗五百裏之地, 城邑新羅皆據有之. 自非反地還城, 此兵恐未能已.」玄獎曰「旣往之事, 焉可追論?」蘇文竟不從."
『신당서』 권220, "於是遣司農丞相裴玄獎以璽書讓高麗, 且使止勿攻. 使未至, 而蓋蘇文已取新羅二城. 玄獎諭帝旨, 答曰〔往隋見侵, 新羅乘遭奪我地五百裏, 今非盡反地, 兵不止.〕玄獎曰〔往事烏足論邪? 遼東故中國郡縣, 天子且不取, 高麗焉得違詔?〕不從."

6) 노태돈, 앞의 책 57~58쪽.

7) 『삼국사기』 권4, 진평왕 48년 조. 같은 책 권20, 영류왕 9년 조.

8) 일례로 『구당서』 권199, 신라전의 다음 기록은 주목된다. "高祖旣聞海東三國舊結怨隙, 遞相攻伐, 以其俱爲藩附, 務在和睦, 乃問其使爲怨所由, 對曰 先是百濟往伐高麗, 詣新羅請救, 新羅發兵大破百濟國, 因此爲怨, 每相攻伐. 新羅得百濟王, 殺之, 怨由此始."

이병도설에 문제를 제기했던 견해에 의하면 신라가 오백리를 차지한 시점을 수나라군대가 쳐들어 왔을 때라고 한 것으로 보아, 고구려는 수와 처음 전쟁이 있었던 598년이나 아니면 본격적인 침입이 있었던 612년 이전에 551년에 상실한 땅를 회복했었다고 할 수 있고, 구체적인 회복 시기로 주목되는 때는 온달이 출정하였던 590년대 초라고 한다.[9]

만성적인 전쟁이 지속되던 시기에 고구려 신라 사이에 국경변화가 없었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 고구려는 신라가 6세기 중반에 점령한 지역의 상당부분을 일시 회복했고, 고수전쟁기에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순리적이라 생각된다.

552~3년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 밀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10] 진흥왕대 맺어진 그것은 진흥왕대에 파기되었고, 15년 이상을 가지 않았던 것 같다. 568년 신라가 북한산주를 폐치하고 남천주(南川州: 경기 이천)를 설치하고 동해안 방면에서도 비열홀주(比列忽州)를 폐치하고 달홀주(達忽州: 강원도 고성)를 설치했다.[11] 한강 유역과 동해안 방면에서 신라가 후퇴하였다. 또한『삼국사기』온달전을 보면 590년 초반 평원왕의 아들인 영양왕대에 가서 고구려가 아단성(阿旦城)을 공격하기도 했다.

온달이 탈환하고자 했던 지역은 '한북의 신라군현'으로 이는 '계립현과 죽령이서' 지역에 해당된다. 즉 551년 고구려가 상실한 10군 및 6군에 해당되는 전 지역이다. 10군의 범위는 철령에서 죽령에 이르는 현재 강원도 일대에 해당되고 6군은 현재 서울과 양주를 비롯한 한강 하류 주변으로 추정된다.[12]

온달의 전사가 의미하듯 고구려가 10군 및 6군을 모두 접수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작전의 규모가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3]

---

9) 서영일,「6~7世紀 高句麗 南境 考察」,『고구려연구』11, 2001.

10) 노태돈,『고구려사 연구』사계절, 1999, 433쪽.

11)『삼국사기』권4, 新羅本紀 4 진흥왕 29년조.

12) 서영일,『신라 육상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177~179쪽, 231~235쪽.

13) 노중국은 고구려가 한강유역에 대한 관심이 크고 또 그것의 탈환이 중요 과제였으며, 온달의 종군은 이것이 현실화된 것이라 지적했다(盧重國,「高句麗·百濟·新羅 사이의 力

이병도설을 반박한 설은 '연개소문의 언급'에 대한 논증과 온달의 아단성 전투의 목표에 대한 설득력 있는 견해를 제시했다. 하지만 아단성 전투를 신라와 고구려 사이의 국경분쟁으로 한정해 보았다는 아쉬움이 있다.[14]

아단성 전투를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589년 수(隋)가 중국을 통일했다. 591년 11월 왜가 병력 2만을 구주(九州) 축자(筑紫)에 집중시켰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온달이 남진했다. 수의 통일, 왜의 축자출병, 아단성 전투 세 사건은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井上光貞은 아단성 전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수의 통일과 왜의 축차출병이 상호 연관성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591~595년 왜군의 군사행동은 수나라의 통일이 일으킨 파문의 하나이며, 595년 왜군이 구주 축자에서 철수하는 그 전년에 신라 진평왕이 수에 조공을 하여 낙랑군공신라왕으로 책봉되는 등 한반도 삼국이 수나라의 책봉체제 안에 들어감으로써 삼국의 국제관계에도 안정이 찾아오면서 다음해 왜가 축자에서 군대를 철수하게 되었다고 보았다.[15]

井上光貞이 거시적 시각에서 왜의 군사행동을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그가 한반도 삼국이 수나라의 책봉체제 안에 들어감으로서 안정이 찾아왔다고 보는 것은 동의 할 수 없다. 상황이 급변하는 만성적인 전쟁 상태에서 책봉이 안정을 가져다주는 만병통치약이라 할 수 있을까.

사서에는 조공국이 중국왕조에 대해 예(禮)를 가지고 접대해도 이런저런 이유가 붙어 어려움에 처해지고 멸망으로 내몰린 사례가 산견(散見)된다. 중국황제에 의한 덕화는 관념적으로 경계가 없기 때문에 항상 병탄의 위기에 방치되었다. 그러므로 주변 나라들은 중국 이외의 세력과도 외교관계를 가지고 때로는 군신관계를 맺었다.[16] 신라와 고구려, 백제와 왜, 신라와 백제, 고구려와 돌궐, 고구려와 왜 관계도 그러했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아단

關係變化에 대한 一考察」, 『東方學志』 28, 1981, 87~88쪽).

14) 서영일이 당시 수와 고구려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막연하다.

15) 井上光貞, 「推古朝外交政策の展開」 『聖德太子論集』 平樂寺書店 1976, 31쪽.

16) 辻正博, 「中國王朝의 外交政策」(서용석 譯) 『東國史學』 46, 2009, 271쪽.

성 전투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검토해 보았다.

첫째, 아단성 전투의 시공간에 대한 여러 견해를 검토해 보았다.

둘째, 587~8년 왜 사신의 고구려 방문이 수의 돌궐제압 및 중국통일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셋째, 591년~595년 왜군의 축자출병과 신라의 왜전(倭典)설치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넷째, 왜의 군사적 견제에 신라가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고찰해 보았다.

다섯째, 아단성 전투이후 신라가 고구려에 빼앗긴 영토 재탈환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본고에서는 시야를 동아시아 전체로 넓혔다. 하지만 시간은 좁혔다. 6세기말 7세기 초 초원과 중원 그리고 한반도 삼국과 왜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세밀하게 쪼갠 아주 짧은 동 시간대에 배치하여 선후관계를 엄밀하게 검토했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택한 것은 당시 국제상황의 급변 때문이다. 거대제국 수나라의 흥망의 시간은 너무나 짧았다. 수는 급격히 팽창했고 급격히 수축·소멸했다. 진동의 파장은 거대했고, 국제상황도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었다.

현재에 와서 보면 결판이 난 과거의 사실이지만,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한치 앞도 알 수 없었다. 그 기간 동안 신라왕으로 재위해 있었던 진평왕(579~632)의 경우를 보자. 수의 돌궐 제압과 통일 그리고 고구려침공실패로 인한 패망, 수말의 내란을 극복하고 일어선 당이 유목제국을 파탄시키고 동아시아의 패권을 잡는 급격한 변동의 과정을 그가 상상이라 할 수 있었겠는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대였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있었다. 중원과 초원의 우열 변동이 동아시아의 모든 정세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모든 것은 대립하는 수당제국과 돌궐제국의 승패의 결과에 달려있었다. 언제나 초원의 유목제국이 힘을 잃을 때 고구려에 거대한 전쟁의 파고가 밀려왔고, 왜와 백제 그리고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국제정치가 본격적으

로 가동되었다. 본고에서는 돌궐이 수에게 제압된 584년 이후 고구려와 왜의 연화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2. 阿旦城 戰役의 時空間 검토

590년 당시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은 동쪽으로 기울어진 비스듬한 남북의 선을 그리고 있었던 것 같다. 대체로 임진강에서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 원산만에 이르는 선으로 볼 수 있다.[17]

온달이 공격한 아단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크게 서울 성동구설과 단양 영춘설로 나뉘어져 있다. 둘 중 어디인가에 따라 고구려군대의 작전규모가 달라진다. 전자를 따른다면 고구려군대는 임진강을 넘어 가까운 서울의 성동 지역을 공략한 것이 되고, 후자를 따른다면 강원도 영서지역을 통과하여 소백산맥 부근의 충북 단양까지 남하한 것이 된다.

전자의 경우 행군거리 짧아 현실성이 있고, 후자의 경우 행군의 거리가 너무 길다. 안정복의 『동사강목』 제2하, 을묘(475) 조를 보면 고구려 장수왕대 백제의 수도 한성(漢城)을 쳐 함락시키고 백제왕을 사로잡아 처형한 장소가 아단성(阿旦城)이라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덧붙였다. "잘 모르겠다. 혹 지금의 영춘이라 이른다(未詳 或云 今 永春)." 물론 여기서 말한 한성의 아단성은 아차성이다. 그는 미상이라 하면서도 당시 일설로 전해지는 영춘설을 소개했다.[18] 그의 잘못된 주석과 일설의 소개는 현대의 연구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안정복이 '阿旦城'을 '阿旦城'으로 혼동했던 것과 같이 한자로 볼 때 둘은 유사하다. 19세기 말 「광개토왕비문」 비문이 발견되고 세상에 공개되면서

17) 서영일, 「6~7世紀 高句麗 南境 考察」, 『고구려연구』 11, 2001.

18) 아차성을 아단성으로 잘못 보았지만, 안정복은 乙阿旦으로 전해온 영춘을 阿旦城으로 본 최초의 인물이라는 견해가 있다(金顯吉, 「溫達과 阿旦城」, 『온달의 발자취』 15회 온달문화축제 기념 학술대회 2011, 10, 7(단양평생학습센터), 41쪽, 註17).

그 유사점은 힘을 얻었다. 영락 6년(396)에 광개토대왕이 아단성을 점령한 후 한성을 공격하여 백제왕에게 항복을 받았고,[19] 대왕의 수묘인들 가운데도 아단성 출신이 보인다.[20] 아단성이 서울의 아차산성이라는 설이 굳어졌다.[21]

단순히 지명이 유사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도 있었다. 松島惇, 池內宏, 이병도 등의 선학들이 안정복이 소개한 아단성 단양 영춘 비정을 몰랐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들은 아단성을 단양 영춘으로 볼 경우 발생되는 문제를 인지했을 것이다. 590년대 초 고구려군대가 신라 영토에 너무 깊숙이 들어온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차성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영락 6년(396)에 광개토왕이 점령한 아단성을 아차성으로 본다면 백제는 강 건너 고구려의 요새에서 빤히 보이는 자리에 475년까지 수도를 두고 있었던 것이 된다고 한다.[22] 물론 대안도 제시했다. 그 근거는 영춘면의 고구려 때 지명이 을아단(乙阿旦縣)이며,[23] 을아단의 을은 '웃(上)이라는 뜻이고 아(阿)는 한강을 가리키는 아리수(阿利水)의 아리의 축음이 되며, 단(旦)은 성곡(城谷)의 뜻이다. 을아단은 한강 상류의 성곡이라는 의미가 되며 하류

---

19) "六年丙申王躬率▨▨軍討伐殘國軍▨▨首攻取寧八城臼模盧城各模盧城幹氐利城▨▨城閣彌城牟盧城彌沙城▨舍蔦城**阿旦城…**."

20) "新來韓穢沙水城國烟一看烟一牟婁城二家爲看烟豆比鴨岑韓五家爲」看烟勾牟客頭二家爲看烟求底韓一家爲看烟舍蔦城韓穢國烟三看烟廿一古模耶羅城一家爲看烟」炅古城國烟一看烟三客賢韓一家爲看烟**阿旦城**雜珍城合十家爲看烟…."

21) 松島惇,「阿旦城址考」,『朝鮮』136, 1926.
池內宏,「眞興王 戊子巡境碑 新羅 東北境」,『滿朝史硏究』上世2冊, 吉川弘文館, 1960, 26쪽.
이홍직 外『國史新講』일조각 1958, 56쪽.
이병도,『한국사』고대편, 진단학회(을류문화사), 1959, 458쪽.
이기백,『韓國史新論』일조각, 1967, 67쪽.
한우근,『韓國通史』을유문화사, 1970, 58쪽.
이병도,「廣開土王의 雄略」,『韓國古代史의 硏究』1976, 84-86쪽.
이기동,「貴族國家의 形成과 發展」『韓國史講座』Ⅰ古代編, 일조각, 1982, 167쪽, 198쪽.

22) 이도학,「永樂 6년 廣開土王의 南征과 國原城」,『손보기정년논총』1988, 92-93쪽.

23)『삼국사기』권35, 지리2 명주 나성군 조, "영현이 셋이었다. 子春縣은 본래 高句麗의 乙阿旦縣이었는데…"

의 아단에 대응하여 생겨난 지명이라 것이다. 그러니까 아단성은 하류와 상류 두 곳에 있었는데, 이들을 서로 구별하기 위해 한강 상류의 아단성을 을아단으로 일컬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24]

한걸음 나아간 신설이었다. 이후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는 아단성을 단양 온달산성으로 보았고,[25] 여기에 동의하는 견해들이 이어졌다.[26] 근자에 아차산성 발굴조사 결과 「북한(北漢)」, 「한산(漢山)○」 등의 명문기와가 출토되어 이곳이 북한산성일 가능성이 제시되었고 성벽의 축조 시기는 출토된 토기를 보아 7세기 전반을 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한다.[27]

신라가 아차산성을 축조하기 이전 백제나 고구려에 의하여 사용된 방어시설이 출토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아차산성이 북한산성이었다면 아차산성을 온달이 전사한 아단성으로 보기 어렵다. 북한산주 거점은 아차산성일 가능성이 크며, 아단성의 위치도 단양일 가능성이 높아졌다.[28]

필자도 아단성의 단양 비정설에 동의 한다. 물론 그것은 기존의 연구와 고고학적 발굴성과를 따르기 때문이라기보다, 기존과 자료를 보는 시각 차이 때문이다. 『삼국사기』에 보이는 아단성은 『삼국사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 안목이다. 금석문에 보이는 그것은 논외의 대상이라 생각한다.

414년 「광개토왕비문」에 기록된 아단성과 1145년에 편찬을 시작한 『삼국사기』의 그것을 구분해 보아야 한다. 731년이란 장구한 시간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는가. 『삼국사기』도 나름대로의 논리와 체계가 있다. 『삼국사기』 온달전에 보이는 아단성과 유일하게 일치하는 것이 같은 책 지리지 단양 영춘의 을아단현이다.

---

24) 이도학, 앞의 논문 98~99쪽.
25)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온달산성 지표조사보고서』, 1989.
26) 김영관, 「三國爭覇期 아단성의 위치와 영유권」, 『고구려연구』 5, 1998, 127쪽.
서영일, 「6~7世紀 高句麗 南境 考察」, 『고구려연구』 11, 2001.
27) 임효재 · 최종택 · 윤상덕 · 장은정, 『아차산성 시굴조사보고서』, 서울대학교 박물관, 2000, 212쪽.
28) 서영일, 앞의 논문.

그렇다고 해서 선학들이 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의문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고구려군이 충북의 단양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영서지역을 자치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고구려군이 영서지역의 신라요새들을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남하하여 현 충북 단양의 지역까지 공격한 것이 된다.

아단성의 단양 비정설이 그 자체 다탕성이 있는 논증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이 없어 그 연구 성과가 반감된 느낌이 강하다. 이기백과 노태돈이 590년대 초 고구려의 남진은 인정하고 있지만 온달이 공격한 지역은 오늘날 단양지역이 아니라 서울지역(아차성)으로 본 것도 이 때문이라 생각된다.[29]

온달의 아단성 전투를 603년 고구려의 북한산성 공격과 연계하여 보는 견해까지 나왔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온달이 출정한 것은 영양왕 이후이며 동왕 14년에 신라의 북한산성을 공격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이다.[30]

아단성 전투의 시점을 기존과 완전히 다르게 본 견해였다. 하지만『삼국사기』온달전을 보면 "양강왕(영양왕)이 즉위하자 온달이 상주하였다(及陽岡王卽位, 溫達奏曰)."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급(及)'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양왕이 즉위(590년) 후 14년이 지난 603년에 온달이 아단성을 공격하였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이기백과 노태돈이 590년대 초로 보았던 것도 이러한 표현 때문일 것이다.[31]

고구려군대의 남하와 590년 고구려의 대수 현실외교는 상호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위협을 받던 고구려가 일단 수에 사죄하는 유화책을 선택했고, 수는 그해 10월 영양왕을 책봉하였으며, 591년 봉왕을 요청하자 이를 받아

---

29) 이기백,「溫達傳의 檢討」『白山學報』3 백산학회, 1967.
노태돈,『고구려사 연구』사계절, 1999 431쪽.

30) 여호규,「6세기말~7세기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역사와 현실』46, 2002, 31~32쪽.

31) 이기동은 '영양왕 초'로 보았다(李基東,「貴族國家의 形成과 發展」『韓國史講座』Ⅰ古代編, 일조각, 1982, 198쪽.).

들였다.

그것은 '다른 나라를 어지럽히지 말라'는 수문제의 주문에 대한 고구려의 화답이며, 고구려가 외견상 제 3국에 대한 세력을 확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고, 그것만 지켜진다면 수가 고구려의 안위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라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32]

앞서 西嶋定生도 이 시점(590)에 수로서는 아직 고구려에 대한 무력적 정벌은 정책화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이 위기는 영양왕(嬰陽王)대 화목(和睦)이 성립되어 '상개부의동삼사·요동군공·고구려왕'에 책봉됨으로 해서 양국의 긴장관계는 '일단' 해소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33]

西嶋定生의 지적대로 영양왕이 책봉됨으로서 긴장관계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당시 수나라의 고구려에 대한 무력정벌이 정책화되지 않았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약자인 고구려가 수나라와 전쟁을 피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은 아닌 것 같다. 본질적인 긴장감은 책봉외교문제로 해결될 성격이 아니었다. 역사상 책봉을 받고도, 양국의 결혼동맹이 이루어지고도 곧바로 전쟁을 한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한다. 본질적 긴장감 해소는 무력의 우위밖에 없다.

책봉체제는 현실의 국제적 역학관계 위에 구축된 외피이다.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책봉체제 그 자체도 변동한다. 결국 동아시아에서 역학관계로서의 국제관계는 원칙적으로 책봉관계라는 외피 입은 것을 통해 스스로 실현하는 것이고, 책봉관계의 논리자체가 역학관계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었다. 두 말 할 것도 없이 피책봉국이 예를 다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언제나 중국황제였다. 가령 그가 예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그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는 그때의 정치정세에 따른다. 유사한 경우에도 전혀 다른 대응을 취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34]

---

32) 여호규, 「6세기말~7세기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 현실』 46, 2002, 27쪽.

33) 西嶋定生, 『日本歷史の國際環境』 東京大出版會 1989, 87쪽(鄭孝雲, 『古代韓日政治交涉史硏究』 학연, 1995, 44쪽 재인용).

34) 辻正博, 「中國王朝의 外交政策」(서용석 譯) 『東國史學』 46, 2009, 269쪽.

당시 고구려의 입장에서 수나라와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몰랐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를 보면 "(평원)왕은 진(陳)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여 군사를 훈련시키고 군량을 쌓아서 방어할 계책을 세웠다."[35] 라고 하고 있다.

589년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자 고구려는 전쟁준비에 들어갔고, 이듬해 수문제는 고구려에 서신을 보내 고구려가 번국이라고 칭하지만 정성과 예절을 다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였다. 그해 평원왕이 죽었다.[36] 당시 고구려의 전력은 요동에 집중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영양왕이 수에 책봉을 받은 590년 이후 고구려가 방어할 계책을 세우는 것을 멈추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영양왕이 수나라와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이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쪽에 전력을 투사하여 아단성까지 진격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 신라에 대한 공략을 앞둔 590년 고구려가 수에 대해서도 외교를 했지만 앞서 倭와도 모종의 관계를 가졌던 것 같다.

590년 고구려의 대수외교와 이로 인한 서북방면에서 거란말갈에 대한 세력 확장을 중지한[37]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공략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38]

3. 587~8년 고구려에 온 倭使

589년에 수가 남조의 진을 멸하고 중국 통일을 달성했다. 그것은 수가 북방의 돌궐을 격파한 결과이다. 발단은 582년 5월 23일 수문제가 북주의

35) 『삼국사기』 권19, 평원왕 32년(590) 조.
36) 앞의 주와 같음.
37) 이성제, 「嬰陽王 9年 高句麗의 遼西 攻擊」 『震檀學報』 90, 2000, 6쪽, 9쪽.
38) 임기환, 「고구려와 수당전쟁」, 『한국사』 4, 한길사, 1995, 155쪽 참조.
서영일, 「6~7世紀 高句麗 南境 考察」, 『고구려연구』 11, 2001. 참조.

정제(靜帝)를 살해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39] 사건은 돌궐이 수를 침략하는 빌미가 되었다. 동돌궐 이쉬바라 가한을 비롯한 5명의 가한이 이끄는 40만의 유목기병과 북제의 잔당인 고보령(高寶寧)의 군대가 장성을 넘었다.[40] 처음 전황은 수에게 불리했다. 수문제의 황태자 용(勇)이 함양(咸陽)에 군대를 주둔하여 대비할 정도로 위험했다.[41]

동에서 고보령이 유주(幽州)를 위협하고, 서에서는 타르두쉬 가한과 번라(藩羅)가한이 공격해왔다. 582년 12월 홍화(弘化)에서 방어하던 수군의 부장 달계장유(達溪長儒)가 패하고 난주(蘭州)도 함락되어 그 지역이 심한 약탈을 당했다.[42] 이는 수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혔고, 수도권지역까지 위협받는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다. 돌궐 서군의 주력을 이룬 서돌궐의 타르두쉬 가한이 본거지로 철수했고, 중군(中軍)의 이쉬바라 가한 역시 막북으로 귀환했다. 타르두쉬는 그가 중원의 전쟁에 개입한 사이에 예기치 않은 배후의 공격을 받았다.

그가 수의 주천(酒泉)을 공격할 때 중앙아시아 방면의 호탄, 이란의 사산조 페르시아, 남러시아의 에프탈 등이 서돌궐의 본거지를 공격해 왔다.[43] 서돌궐이 중국 원정에 나선 틈을 타 서방에서 3개의 거대한 군대가 움직였던 것이다. 북방의 키르기즈도 돌궐의 사비설(沙毗說)을 공격했다.[44]

동돌궐의 이쉬바라 가한은 몽골초원 북쪽의 키르키즈와의 싸움에서 패배했다. 돌궐이 중국을 공격하는 사이에 사산조 페르시아, 에프탈, 호탄은 서쪽에서, 키르키즈는 북쪽에서 각각 협공을 가했다. 적들의 동시다발적인 공격으로 돌궐은 크게 동요할 수밖에 없었다. 불리한 상황은 돌궐 가한들의

---

39) 이하 수의 통일과정에 대해서는 정재훈의 다음 글을 참고했다. 丁載勳, 「隋文帝(581~604)의 統一指向과 對外政策—西北民族에 대한 對策을 중심으로—」, 『中國史硏究』 13, 2001, 78~84쪽.

40) 『자치통감』 권175, 진기9 선제 태건 14년(582) 조.

41) 『책부원귀』 권990, 외신부 備禦 조.

42) 『수서』 권84, 돌궐전

43) 『수서』 권84, 돌궐전

44) 『수서』 권84, 돌궐전

권위를 실추시켰고, 내부의 반란으로 이어졌다. 583년 돌궐에 복속된 부족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초원에는 기근이 일어나는 악재가 겹쳤다.

아마도 이 시기에 고구려 평원왕이 말갈기병을 동원해 동돌궐 이계찰(移稽察)의 군대를 격파했던 것 같다.[45] 앞서 돌궐의 팽창으로 거란과 말갈에 대한 영향력이 위축된 고구려에게 만회의 기회였을 수도 있다.

돌궐이 궁지에 몰리자 수문제는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한다. 583년 4월에 백도천(白道川)에서 이쉬바라 가한을 크게 무찌르고, 직후 막북에서 벌어진 돌궐 가한들의 내홍(內訌)에 개입했다. 584년 돌궐에 내분이 본격화되었다. 그것은 20년 내전의 초반에 불과했다.

북중국과 초원에서 수가 패권을 잡아가고 있었다. 돌궐이 약화된 상태에서 수가 중국 통일을 이룩할 것이고, 그것은 고구려에게 이익이 되지 못할 터였다. 이 시기부터 주변 세계에 대한 고구려의 국제정치력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 아닌가 한다.

584년 이후 말갈과 거란에 대한 세력 확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46] 왜국에 대한 외교도 가동되었던 것 같다. 587~588년 고구려에 왜국의 사신이 왔다. 『속일본기』에 관련 기록이 보인다.

> "壬子, 從五位下狛朝臣秋麻呂言, 本姓是阿倍也, 但當石村池邊宮御宇聖朝, 秋麻呂二世祖比等古臣使高麗國, 因卽号狛, 實非眞姓, 請復本姓, 許之"[47]

711년 12월이었다. 박조신추마려(狛朝臣秋麻呂)가 천황에게 자신의 本姓을 찾기를 청원했다. 본래 성은 아배(阿倍)인데 석촌지변궁(用明天皇 587~588)대에 그의 2世祖인 비등고신(比等古臣)이 고구려에 사신으로 간 까닭에 '박(狛)'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허락을 받아 본래의 성으로 돌아갔다.

---

45) 『수서』 권84, 돌궐전
46) 임기환, 「고구려와 수당전쟁」, 『한국사』 4, 한길사, 1995, 154쪽.
47) 『속일본기』 권5, 和銅 4年(711) 12月 壬子 조.

『속일본기』의 이 기록을 통해 아배비등고신 등이 587-588년 고구려사신으로 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박조신추마려의 이야기는 『일본서기』에서 587~588년을 전후한 시기에 고구려와 왜 교류기록들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587~588년 왜의 고구려 견사는 양국의 어두운 과거를 생각해 볼 때 결코 쉽지 않은 행보였다. 앞서 570년 573년, 574년 3차례에 걸쳐 고구려 사신이 왜국에 갔다.[48]

西嶋定生은 570년 왜가 고구려 사신에게 극진한 환대를 베푼 목적은, 임나가야멸망 후 왜와 백제의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이며, 임나가야부흥을 위해 고구려와 전략적 연대가 절실했다고 보았다.[49]

하지만 570년 당시 왜는 고구려 사신을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은 것 같다.[50] 왜 조정이 고구려 사절의 도착을 안 것은 570년 4월이었다.[51] 왜 조정이 고구려 국왕의 국서를 접수한 시기는 25개월이 지난 572년 5월이었다.[52] 573년 5월에 두 번째 고구려사절단이 왜국에 도착했지만 奈良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송사(送使)를 달려 보냈다.[53]

574년 5월에 고구려의 사신이 또 다시 왜국에 도착했다.[54] 그들은 573년

---

48) 570, 573, 574년 고구려가 왜국에 사신을 파견한 것을 신라의 팽창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보기도 했다(李弘稙, 「日本書紀所載 高句麗關係 記事考」, 『韓國古代史의 硏究』 신구, 1971).

49) 西嶋定生, 「6~8世紀の東アジア」 『岩波講座 日本歷史』 2, 岩波書店 1962. 앞서 여기 대해 김선민은 사료 상 한반도에서 고구려와 왜가 공동으로 신라와 대치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570, 573, 574년 왜가 고구려사신을 환대한 것은 멸망 후 왜가 대륙문물의 수입처로서 고구려에 관심이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김선민, 「六세기 후반 倭의 高句麗 인식-『日本書紀』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日本歷史硏究』 22, 2005, 16쪽, 18-19쪽). 하지만 당시 왜는 고구려에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 없고, 587년 政變으로 蘇阿씨가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야 양국은 우호적 관계로 전환되었다.

50) 이성제, 「고구려의 대왜외교와 양국관계의 추이」, 『고대 환동해 교류사 1부-고구려와 왜-』 동북아재단 2010, 37~40쪽 참조.

51) 『일본서기』 卷19, 欽明天皇 31年(570) 4月 조 "乘輿至自泊瀨柴籬宮. 遣東漢氏直糠兒. 葛城直難波迎召高麗使人."

52) 『일본서기』 卷20, 敏達天皇 元年(572) 5月 丙辰 조 "天皇執高麗表疏授於大臣."

53) 『일본서기』 卷20, 敏達天皇 2年(573) 5月 丙寅朔 戊辰 조 "高麗使人泊于越海之岸. 破船溺死者衆. 朝庭猜頻迷路. 不饗放還. 仍勅吉備海部直難波送高麗使."

54) 『일본서기』 卷20, 敏達天皇 3年(574) 5月 甲子 "高麗使人泊于越海之岸."

왜의 송사와 함께 귀국하던 2척의 배 가운데 1척만이 고구려에 도착했다고 하고 사건을 조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고구려사신의 행방불명과 그에 대한 처리문제는 논외로 하자.

교섭에 더 큰 관심을 보인 것은 사신을 3차례 걸쳐 왜에 파견한 고구려였다. 573년 고구려에 도착한 왜의 송사는 크게 환대받았다. 대도수반일(大嶋首磐日)·협구수간협(狹丘首間狹) 등에게 정식 사신의 예에 준하는 잔치를 베풀어 주었고, 고구려 국왕이 별도로 두터운 예로 대접했다고 한다.[55] 일개 송사에게 그러한 환대를 한 것에는 왜국과 교섭을 원했던 고구려 평원왕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당시 북중국에 변화가 있었다. 무성제 고담(高湛, 537~568)이 죽은 후 무능한 군주 후주(後主)가 즉위하면서 강국이었던 북제가 급속히 쇠퇴하고, 수나라의 전신인 북주 우위가 확고해지고 있었다. 고구려를 둘러싼 국제상황이 예측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577년에 가서 북주의 실권자게 된 양견(수문제)이 북제를 멸망시고 북중국을 통일한다.

587~588년 왜국사절의 고구려 공식방문을 이끌어내기 위해 평원왕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를 둘러싼 국제상황이 더 악화되어 있었다. 다시 말하지만 584년 수가 돌궐을 제압하고 초원과 중원의 패권을 잡았다.

아마도 587~588년 직전에 고구려의 사절이 왜국에 갔고, 왜국의 사절단은 귀국하는 사절을 따라 고구려에 들어갔으며, 직후 고구려 사절의 배를 타고 왜국으로 귀국했을 것이다. 동해를 왜국 단독으로 항해하기 쉽지 않다. 앞서 573년 왜국에 왔던 고구려 사절은 왜의 송사 대도수반일·협구수간협 등을 데리고 고구려로 갔고, 574년 귀국길에도 왜의 송사는 고구려사절의 배에 함께 승선했다.

왜의 고구려 견사(遣使)를 이루어내기 위해 평원왕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

55) 『일본서기』 卷20, 敏達天皇 3年(574) 7月 戊寅 조, "高麗使人入京奏曰.臣等去年相逐送使罷歸於國.臣等先至臣蕃.臣蕃卽准使人之禮.禮饗大嶋首磐日等.高麗國王別以厚禮禮之.旣而送使之船至今未到.故更謹遣使人幷磐日等.請問臣使不來之意.天皇聞卽數難波罪曰.欺誑朝庭.一也.溺殺隣使.二也.以玆大罪不合放還.以斷其罪."

는지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왜의 고구려 견사가 그 내부의 정치변화와 무관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587년 7월 숭불파 소아마자숙네(蘇阿馬子宿禰)가 불교수용 반대파인 물부수옥대련(物部守屋大連)을 죽이고 정권을 잡았다.[56] 숭불파의 득세는 왜의 외교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불교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기치 아래 배불파인 물부씨를 타도하고 집권한 소아씨는 외국으로부터 다양한 불교문물을 가져와야 했다. 소아대신(소아마자숙네)이 집권한 이후 고구려와 왜의 외교관계는 급물살을 탔던 것으로 보인다.

소아대신이 백제일변도의 왜국 외교를 다각화 하려했던 것은 고구려가 백제와는 또 다른 거대한 선진문물의 창구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57] 왜사신의 고구려 방문 시기는 왜국에 정변이 있던 587년 7월 직후일 가능성이 높다.

4. 倭의 신라 견제

소아대신은 한반도와 만주에 걸쳐 있는 대국 고구려에게도 원조를 받아 그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려 했을 것이다. 물론 그는 고구려와 백제가 숙적관계란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경쟁심을 이용해 양국으로부터 더욱 많은 원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뒤에 언급했지만 고구려에 왜사가 왔던 거의 같은 시기인 588년에 백제는 왜에 상당한 불교문물을 증여했다.

井上光貞은 590년 백제를 다녀온 승려들을 통해 왜국은 당시 급격히 변

56) 『일본서기』 卷21, 用明天皇 2年(587) 秋7月 "蘇我馬子宿禰大臣勸諸皇子與群臣. 謀滅物守屋大連.…略…射墮大連於枝下. 而誅大連幷其子等. 由是. 大連之軍忽然自敗. 合軍悉被皂衣. 馳獵廣瀨勾原而散之. 是役大連兒息與眷屬. 或有逃匿葦原改姓換名者. 或有逃亡不知所向者."

57) 연민수, 「7세기 東아시아 정세와 倭國의 對韓政策」 『新羅文化』 24, 2004, 5쪽, 참조.

화된 국제정세를 파악했고 한다.[58] 하지만 이보다 앞서 고구려를 통해 그러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백제에 다녀온 승려들을 통해 이미 짐작하고 있던 사실들을 확인했을 것이다.

584년 수나라를 견제해 오던 돌궐이 분열로 치닫고 있었고, 양자강 유역에 있는 陳은 약체였다. 당시 남조 진의 지배하에 있던 호수는 약 50만, 인구 200만 명에 불과했다. 중국의 중심은 여전히 화북 중원이었다. 화북에 강력한 통일정권이 나타나면 강남의 할거정권은 언제까지나 독립을 보전하기 어려운 형세였다.

남조의 멸망은 이미 시간문제로 보였다. 남조 진에게 불행한 것은 어리석은 후주(後主, 叔寶: 재위 582~589)가 상속한 것이었다. 그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측근으로 중용하여 국가의 초석인 무장들을 억압하였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락을 즐기는 청년 천자 후주는 궁전을 꾸미고 놀이에 열중했다. 589년 수는 진을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했다. 그 직후인 591년 왜국은 구주에 병력을 집중시켰다.

591년 8월 소아씨가 지배하는 奈良의 왜조정이었다. 숭준천황(崇峻天皇)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신하들과 대면했다.

> 천황이 군신에 조칙을 내려 "짐이 임나(任那)를 세우고자 생각하는데 경들은 어떠한가?"라고 말했다. 군신들이 "임나관가를 세워야 한다는 것은 모두 폐하께서 조칙한 바와 같습니다."라고 아뢰었다.[59]

천황은 '임나회복'의 구호를 다시 꺼내들었다. 여기에서 대해서 야마토정권이 임나를 지배해 왔다는 점을 전제로 한 상투적인 기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일본서기』 기사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일관성을 엿볼

---

58) 井上光貞, 「推古朝外交政策の展開」『聖德太子論集』 平樂寺書店 1976, 30쪽.

59) 『일본서기』 卷21, 崇峻天皇 4年(591) 8月. "秋八月庚戌朔.天皇詔群臣曰.朕思欲建任那.卿等何如.羣臣奏言.可建任那官家.皆同陛下所詔".

수 있다. 임나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왜의 의지이다. 이는 흠명천황에서 추고천황까지 4대에 걸친 숙원사업이다. 다른 건 몰라도 『일본서기』가 자기네 천황들의 의지표명까지 굳이 조작해 넣었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60]

591년 겨울 11월 기남마려숙네(紀男麻呂宿禰)·거세원신(巨勢猿臣)·대반설연(大伴噛連)·갈성기내량신(葛城烏奈良臣)으로 대장군을 삼고, 각 씨(氏)의 거련(臣連)으로 비장과 부대를 삼아 2만여 군사를 이끌고 구주 축자에 주둔하게 했다.[61]

일본학계에서는 이 출병이 소위 신라로부터 왜가 '임나의 조(調)'를 수납받기 위한 조처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일본서기』의 맥락대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임나의 조'란 561년 임나(가야)지역을 차지한 신라에 대해 왜조정이 자신들의 임나에 대한 과거 연고권을 주장하면서 일종의 調를 요구한 것이다. 야마토정권 내부의 위기와 모순을 타개하기 위해 이 '임나의 조'의 실현을 필요한 정책으로 채택하였으며, 따라서 축자에 출병을 강행했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 신라가 왜의 축자출병에 대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럼에도 4년간이나 축자 주둔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둔만 한 사실은 왜 조정의 '임나의 조'요구의 구도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62] 임나의 조는 논외로 하더라도 신라가 왜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수긍이 되지 않는다. 이점에 대해서는 뒤에 언급하겠다.

591년에서 595년 사이에 왜군이 신라에 대해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왜군의 축자 주둔은 천황이 피살되는 정변에도 불과하

60) 이희진, 「가야의 멸망과정과 '任那調', '任那復興'의 의미」 『한국고대사 속의 가야』,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1.

61) 『일본서기』 卷21, 崇峻天皇 4年(591) 11月 "冬十一月己卯朔壬午.差紀男麻呂宿禰.巨勢臣比良夫.狹臣.大伴噛連.葛城烏奈良臣.爲大將軍率氏氏臣連爲裨將部隊.領二萬餘軍.出居筑紫."

62) 金鉉球, 『大和朝廷の對外關係硏究』 吉川弘文館 1985. 273~278쪽.

고 일관성 있게 지속되었다.

592년 11월 3일 왜국의 실권자 소아마자숙네가 사람을 시켜 천황을 죽였다.[63] 왜 조정 내부의 충격이 있었다. 2일 후 사람을 축자에 보내 내란에 의해서 외사(外事)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64]

구주에 파견된 왜군들에게 신라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특명을 내린 것은 천황도 갈아 치울 수 있는 실권자 소아마자숙네의 의지였다.[65]

소아대신은 국교를 새롭게 튼 고구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일관성 있게 수행해야 했다. 고구려와의 연화는 왜국이 신라에도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양호한 환경 조성이기도 하다.[66] 왜의 구주 축자 병력집중은 백제와 숙원(宿怨)이 있으며, 고구려 온달장군의 침공을 받고 있던 신라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없다.

591년 왜는 축자출병과 함께 길사금(吉士金)을 신라에 보냈다. 그가 신라조정에 어떠한 멧시지를 전해 주었고, 신라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 권4, 진평왕 13년(591) 2월의 기록은 주목된다.

> 봄 2월에 영객부(領客府)에 영(令) 2인을 두었다.

영객부는 외국의 사신을 응접하는 관청이다. 『삼국사기』 권38, 직관 상

63) 『일본서기』 卷21, 崇峻天皇 5年(592) 10月 壬午 "蘇我馬子宿禰聞天皇所詔.恐嫌於己招聚儻者謀弑天皇"

64) 『일본서기』 卷21, 崇峻天皇 5年(592) 11月 丁未 "遣驛使於筑紫將軍所曰.依於內亂莫怠外事."

65) 末松保和는 소아씨가 천황을 시해하기 위해 中央 諸氏의 병력을 미리 九州로 배치했다고 추측하기도 했다(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1956, 200쪽).

66) 591년 倭는 筑紫出兵과 함께 吉士金을 신라에 보내 뭔가를 요구했을 것이다. 『일본서기』 卷21, 崇峻天皇 4年(591) 11月 "遣吉士金於新羅.遣吉士木蓮子於任那.問任那事." 수가 중국을 통일하자 남북조시대 전개되었을 법한 술수는 제약되었고, 삼국에서 왜가 차지하는 전략상 위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간 것으로 이성시는 보았다. 또한 595년 고구려 승려 혜자의 왜 도착이후, 양국의 긴밀한 통교가 있었다고 한다(李成市, 「高句麗と日隋外交」, 『思想』 1990~9: 「古代東アヅアの民族と國家」 岩波書店 1998, 294~297쪽).

영객부 조에는 진평왕 43년(621)에 왜전을 영객전으로 고쳤다 하였고, 진덕왕 2년(651)에 영객부에 令 2인을 두었다고 하여 신라본기와 차이를 보인다. 직관지에 의하면 왜전이 영객전으로 개칭된 것이 621년이다. 그렇다면 위의 사료에서 말하는 영객부는 왜전일 가능성이 높다. 영을 2인 두었다는 것도 651년의 사실일 수가 있다.

591년에 왜전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67] 이전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왜전 내부에 인원을 더 충원했다고 볼 수 있다. 591년 신라로 파견된 왜국의 사절단장 길사금은 왜전에서 응대를 받았을 것이다.

591년 2월 왜전의 설치나 인원증설은 이전에 신라는 왜의 움직임을 포착했던 것을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 591년 11월 왜가 2만의 군대를 구주에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그 준비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전국적인 인력과 물자의 징발이 있어야 하며, 소식은 누구나 다 아는 왜국의 일반적인 사안이 된다.

5. 新羅王京 要塞化

지금까지 왜군의 축자출병과 여기에 대응하는 신라의 움직임이 『삼국사기』에 부재했다고 믿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왜군의 축자 주둔에 대한 신라의 반응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十三年 秋七月 築南山城 周二千八百五十四步. 十五年秋七月 改築明活城 周三千步 西兄山城 周二千步."[68]

신라는 591년부터 남산성을 축성하고, 593년 명활산성(증축)과 서형산

67) 李成市도 591년에 倭典이 설치되었다고 보고 있다(李成市, 「고구려 승려 혜자와 쇼토쿠 태자」, 『고대 환동해 교류사 1부-고구려와 왜-』 동북아재단 2010, 53쪽).

68) 『삼국사기』 권4, 진평왕 13년(591)~15년(593) 조.

성[69]을 쌓았다. 남쪽의 남산신성, 동쪽의 명활산성, 서쪽의 서형산성은 수도 경주를 방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신라역사상 이토록 수도방어를 위한 축성을 집중적으로 한 사실은 기록상 찾아보기 힘들다.

신라조정이 왜의 침공에 대한 위기를 느끼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井上光貞은 왜군이 축자에 주둔하자. 591년 593년 신라가 수도경비 강화의 일환으로 축성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70]

「남산신성비」는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자료이다. 비석은 591년(진평왕 13) 남산에 신성(新城)을 쌓고 그에 관여한 지방관 및 지방민들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다. 현재까지 10개가 발견되었으며, 모두 비의 첫머리에 "591년(신해) 2월 26일 남산 신성을 쌓을 때, 법에 따라 쌓은 지 3년 만에 무너지면 죄로 다스릴 것을 널리 알려 서약케 한다."라는 공통된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다.

2,800여 보에 달하는 남산신성축조에 전국적으로 인력이 동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남산신성 제1·2·3비를 보아도 지금의 의령, 함안, 옥천, 상주, 선산 등에서 온 인력들이 온 것으로 보인다. 남산신성 제1·2·3비에 나타난 평균 거리를 평균화 하면 13보 2척 6촌 정도가 되고 천체의 길이 2,800여보를 나누면 대략 200이상이 된다. 성 축조에 200여 개의 집단이 동원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71]

그 동원인원과 관련하여 산술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삼국유사』 권2 효성왕 조를 보자.

> 개원 10년 임술 10월에 처음으로 관문을 모화군(毛火郡)에 쌓았다. 지금의 모화촌이며, 경주 동남쪽 경계에 속한다. 이는 일본을 방어하는 변경의 울타리가 되었다. 주위는 6,792보(步) 5척(尺)이고 노역에는 3만 9,262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를 지휘한 것은 원진각간(元眞角干)이었다.[72]

---

69) 西兄山城은 『삼국사기』에 673년(신라 문무왕 13)에도 증축했다고 한다. 성의 남서쪽은 가파른 자연지형이고, 북쪽과 동쪽에 성벽이 있다. 둘레 약 2.9㎞이다.

70) 井上光貞, 「推古朝外交政策の展開」 『聖德太子論集』 平樂寺書店 1976, 30~31쪽.

71) 秦弘燮, 「南山新城碑의 綜合的 考察」 『歷史學報』 26, 1965, 410쪽.
李種旭, 「南山新城碑를 통해본 신라의 地方統治體制」 『歷史學報』 64, 25쪽.

72) 『삼국유사』 권2 효성왕 조.

722년 성덕왕은 일본과의 관계가 험악해지자 지금의 울산항에서 경주로 오는 길목인 모화에 관문성을 쌓았다. 울산항에 상륙한 일본군의 왕경 침공을 염두에 두고 쌓았던 요새였다. 근 6,800보에 달하는 성을 완성하는데 4만명 가량의 사람들이 노역에 동원되었다.

물론 공사기간이 비슷하다면 여기에 30%가량의 길이에 해당하는 남산신성 축성에는 1만 2천명이 동원된 것으로 단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3천보에 달하는 명활산성 개축도 1만 명 이상이 동원된 것으로, 2천보에 달하는 서형산성수축에 1만 명 미만이 동원된 것으로 추정해볼 수도 있다.

특히 명활산성은 왜의 침공을 받은 적이 있었다. 『삼국사기』 권3, 실성왕 4년(405년) 조에 왜병이 명활산성을 공격했다는 기록이 보이고,[73] 431년(눌지왕 15)에도 왜적이 이 성을 포위 · 점령하려 하였다.[74]

확실히 명활산성은 왜의 침략이 우려되는 시점에 개축되었다. 신라 역사에는 '倭'의 그림자가 짙게 투영되어있다. 『삼국사기』신라 본기에 1대 신라왕인 혁거세 8년(기원전 50)부터 소지왕 22년(500)까지 총 59회의 왜 관련 기록이 보인다. 그 가운데 신라에 대한 왜의 침략기록이 압도적으로 많다. 교빙 · 구혼 · 인질 · 절교 등의 외교기록을 제외하면 36회가 그에 해당된다. 왜가 내습한 지점, 신라가 내습한 왜와 싸운 장소, 혹 왜의 침구에 대비하여 성을 쌓은 곳으로 출목도(木出島) 1회 · 금성(金城) 4회 · 사도(沙道) 1회 · 사도성(沙道城) 1회 · 일예부(一禮部) 1회 · 장봉성(長峯城) 1회 · 장봉진(長峯鎭) 1회 · 풍도(風島) 2회 · 토암산(吐含山) 1회 · 독산(獨山) 3회 · 부현(斧峴) 1회 · 명활성(明活城) 2회 · 월성(月城) 1회 · 활개성(活開城) 1회 · 삽량성(歃良城) 1회 · 오도(五道) 1회 · 임해진(臨海鎭) · 장봉진(長嶺鎭) 1회 등이 보인다.

바다를 건너온 왜인들은 주로 신라의 수도와 그 주변 지역을 침공했다.

---

73) 『삼국사기』 권3, 실성니사금 4년 조 "夏四月. 倭兵來攻明活城. 不克而歸. 王率騎兵. 要之獨山之南. 再戰破之. 殺獲三百餘級."

74) 『삼국사기』 권3, 눌지마립간 15年 조 "夏四月, 倭兵來侵東邊, 圍明活城, 無功而退."

신라 왕경 주변의 3개의 요새 수축은 왜국의 위협에 대한 신라의 반응이 확실하다. 물론 신라의 입장에서 고구려의 전격적인 남침과 최악의 경우 백제의 협격에 대비한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588년 백제는 왜에 상당한 문물의 수혜를 베풀었고, 591년 九州에 2만 병력을 집중하고 있던 왜가 언제 쳐들어올지 몰랐으며, 고구려 온달군대가 신라를 공격하고 있었다.

축자출병 직전에 소아대신은 백제로부터 불교 관련 문물을 제공받았다.[75] 왜군의 축자출병을 백제와 야마토 정권의 우호관계가 회복된 후 최초로 나온 군사행동이라는 점에서 백제와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소아씨가 실권을 장악한 후 백제의 기대에 부흥한 것이며, 백제를 위해 축자 지역을 강화하여 신라를 견제함으로써 고구려와 대결 중인 백제를 측면에서 지원하고자 한 것이 이 출병의 진상이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595년 혜자와 혜총 등 려제 양국의 승려가 법흥사에 동시에 주석하게 된 것은 양국의 안정을 의미하며, 왜군이 그해 筑紫에서 철군[76]한 것은 이 때문이라 한다.[77]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견해이다. 소아씨의 축자출병 단행은 백제와 무관하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 백제 위덕왕의 왜에 대한 원조는 막대했고, 또한 백제와 신라양국은 공존할 수 없는 숙적이었다. 하지만 왜군이 축자에 주둔하여 신라를 위협하고 있을 때 백제가 신라에 취한 어떠한 군사행동도 기록상 보이지 않고, 직전에 신라가 백제를 위협했다는 기록이 없어 이 견해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신라와의 전쟁에서 아버지(聖王)를 잃고, 아들을 먼저 보낸 위덕왕이 자신의 사적 슬픔과 고뇌를 극도로 절제하고 와신상담을 통해 백제의 국력을 축적해 나갔다고 본 견해가 오히려 주목된다.

---

75) 『일본서기』 卷21, 崇峻天皇 元年(588) "是歲. 百濟國遣使幷僧惠總. 令斤. 惠寔等. 獻佛舍利.百濟國遣恩率首信. 德率益文. 那率福富味身等進調.幷獻佛舍利.僧聆照律師.令威.惠衆.惠宿.道嚴.令開等.寺工太良未太.文賈古子.鑪盤博士將德白昧淳.瓦博士麻奈文奴.陽貴文陵貴文.昔麻帝彌.畫工白加.蘇我馬子宿禰請百濟僧等.問受戒之法.以善信尼等付百濟國使恩率首信等.發遣學問.壞飛鳥衣縫造祖樹葉之家.始作法興寺.此地名飛鳥眞神原.亦名飛鳥苫田."

76) 『일본서기』 卷22, 推古天皇 3年(595)七月 "秋七月.將軍等至自筑紫."

77) 金鉉球, 『大和朝廷の對外關係硏究』 吉川弘文館 1985, 276~278쪽.

당시 위덕왕이 백제의 미래를 위해 익산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익산의 왕궁리유적 건설이 위덕왕대 후반에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고고학계의 견해에 주목하고, 익산 왕궁리유적은 그 동편 도로로 연결된 '제석사지'로 미루어 볼 때 왕의 집무처인 '왕궁'으로 건설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익산의 개발은 금강 중상류 일대를 북방성(웅진성), 동방성으로 방어했던 것과 비견되는 조치로서, 익산~전주 권역의 방어를 위해 권력의 중추를 새롭게 만들어 신라에 대응한다는 매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는 것이다.[78]

당시 백제 위덕왕은 신라와의 전쟁은 때가 이르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수나라와 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고구려는 백제와 입장이 달랐다. 梅原猛은 591년 이후 왜군의 축자출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수나라와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자 고구려왕은 자꾸 왜에 사신을 보냈다. 적극적으로 기술자와 승려를 보내어 경제적·문화적 원조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원조를 보증이라도 하는 듯이 숭준 5년과 추고 4년에 각각 2만 명 및 2만 5천 명의 군대를 축자에 파견했다. 이 신라 토벌을 이유로 하는 두 번에 걸친 군대 파견은 수의 침공에 대비하여 전부터 사이가 나쁜 신라군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며, ……".[79] 직관이지만 탁견이라 할만하다.

---

78) 윤선태, 「위덕왕의 와신상담」『박물관사람들』 2011년 가을 35호 6-7쪽. 또한 윤선태는 이러한 방어구도로 볼 때 백제의 남방성은 전주 남쪽 남원에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602년에 가서 백제 무왕이 4만 대군을 동원하여 지리산 운동 팔량치에 위치한 아막성을 공격한다. 이때 남원이 백제의 남방의 거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윤선태, 「무왕과 미륵사」『미륵사지 국제학술대회 발표요지』 국립문화재연구소 주최, 고궁박물관 2010년 5월).

79) 梅原 猛 저, 정성환 편역, 「양제」『인물로 보는 중국역사』 3, 신원문화사, 1994, 122쪽. 『일본서기』를 보면 정확히 숭준 4년(591)부터 추고 3년(595)까지 2만, 추고 10년(602)에서 추고 3년(603)까지 2만 5천의 병력을 왜가 筑紫에 집결했고, 앞서 추고 8년(600)에는 1만의 왜병이 신라에 쳐들어와 5개성을 함락시켰다. 필자는 당시 국제정세에 대한 글을 발표한 바 있다(서영교, 「백제 무왕대 아막성 전투와 왜」, 『제9회 동국대 동아시아 연구소 학술발표요지』, 2011년 7월 2일).

591년~595년 2만의 군대를 구주에 주둔시켜 근 4년 동안 신라를 위협했던 기남마려숙녜 · 거세원신 · 대반설련 · 갈성오나량신 등 왜의 대장군들 가운데 2명은 고구려와 관련된 인물이었다는 점은 주목된다. 거세원신은 흠명기 31년(570) 7월 시월 조에 근강(近江)에 도착한 고구려사신을 인도하는 임무를 맡았다.[80]

『일본서기통증』에는 일서에 그가 어렸을 때 선사(船史) 왕진이(王辰爾)에게서 수업하였으며, 뒤에 백제에서 온 박사 왕유귀(王柳貴)에게 배웠다고 하는 기록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81] 거세원신은 당시 외교세계의 공용어인 한문교육과 한반도 언에 대해 배워 고구려사신을 접견할 수 있는 자질이 있었다.

570년은 고구려사신이 왜국에 최초로 온 해였다. 이때부터 고구려 사신을 접견한 거세원신은 직후 2차례에 걸쳐 왜국에 온 고구려사신을 접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어쩌면 587~8년 왜국이 고구려에 사신을 파견할 때 동행했을 수도 있다.

대반설련은 소아씨가 물부씨를 타도하고 권력을 장악하는데 중요한 공을 세운 인물이다. 그는 601년 고구려에 파견되어 이듬해 백제를 통해 귀국했다.[82] 대반설련은 이전에 고구려와의 외교에 중요한 임무를 맡았을 가능성이 있다.

특정국가와 인연이 있었던 외교관이 계속해서 그 국가를 담당하는 사례가 있다. 640년 10월 당에서 유학했던 고향흑마려(高向黑麻呂)가 신라를 거쳐 倭에 귀국했다. 여기에는 신라의 사신도 동행했다.[83] 그의 신라와의

---

80) 『일본서기』 卷39, 欽明天皇 31年(570) 7月 "壬子朔.高麗使到于近江." "是月.遣許勢臣 猿與吉士赤鳩發自難波津."
김현구 · 박현숙 · 우재병 · 이재석 共著,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Ⅲ, 일지사, 2004, 27~36쪽 참조.

81) 김현구 · 박현숙 · 우재병 · 이재석 共著, 앞의 책.

82) 『일본서기』 卷22, 推古天皇 9年(601) 3月 "甲申朔 戊子. 遣大伴連囓于高麗. 遣坂本臣糠手于百濟. 以詔之曰. 急救任那."
『日本書紀』 卷22, 推古天皇 10年(602) 6月 "丁未朔己酉. 大伴連囓. 坂本臣糖手. 共至自百濟."

83) 『일본서기』 卷23, 舒明天皇 12년(640) 10月 乙亥 조 "冬十月乙丑朔乙亥.大唐學問僧淸安.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646년 9월 고향흑마려는 신라에 파견되었고,[84] 이듬해 고향흑마려은 신라의 대신 김춘추와 함께 왜국으로 향했다.[85]

640년 당에 입국한 고구려의 태자 환권을 요서(遼西) 유성(柳城)까지 마중나간 진대덕은 환권이 귀국할 때도 동행 했다. 그는 당의 답례사로 환권을 따라 고구려에 입국하여 수많은 정보를 수집했다.[86] 그것을 정리한 것이 '고려기'라고 한다.[87]

6. 阿旦城 전투 그리고 신라의 반격

왜국이 축자출병으로 신라의 병력은 남쪽에 묶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군대가 단양까지 남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로써 가능했다. 관련한 유일한 기록을 보자. 『삼국사기』 권45, 열전 5 온달전을 보자.

> "양강왕(필자: 영양왕)이 즉위하자 온달이 아뢰기를 〔신라가 우리 한북(漢北)의 땅을 빼앗아 군현(郡縣)을 삼았으니 백성들이 통한(痛恨)하여 일찍이 부모의 나라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원하건대 대왕께서는 어리석은 신하를 불초(不肖)하다 마시고 군사를 주신다면 한번 가서 반드시 우리 땅을 도로 찾아오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허락하니 떠날 때 맹세하기를 〔계립현(雞立縣)과 죽령이서(竹嶺以西)의 땅을 우리에게 귀속(歸屬)시키지 않으면

學生高向漢人玄理傳新羅而至之.仍百濟.新羅朝貢之使共從來之".

84) 『일본서기』 卷25, 大化 2年(646) 9月 조 "遣小德高向博士黑麻呂於新羅而使貢質."

85) 『일본서기』 卷25, 大化 3年(647) 是歲 조 "新羅遣上臣大阿湌金春秋等.送博士小德高向黑麻呂.小山中中臣連押熊.來獻孔雀一隻. 鸚鵡一隻. 仍以春秋爲質. 春秋美姿顔善談咲."

86) 『책부원구』 권974, 外臣部19 褒異1 唐太宗 貞觀 14년 12월 乙卯 조. "高麗長子桓權來朝遣職方郎中陳大德迎勞於柳城."
『자치통감』 권196, 정관15년(641) 8월 기해일(10일) 조 "上遣職方郎中陳大德使高麗. 八月, 己亥, 自高麗還. 大德初入其境, 欲知山川風俗, 所至城邑, 以綾綺遺其守者, 曰〔吾雅好山水, 此有勝處, 吾欲觀之.〕守者喜, 導之遊曆, 無所不至, …"

87) 吉田光男, 「翰苑註所引高麗記について」 『朝鮮學報』 85, 1977.

돌아오지 않겠다.〕 하였다. 나가 신라 군사들과 아단성 아래서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 넘어져 죽었다."

온달의 출정 시기는 왜가 구주에 병력을 집중시킨 591년 11월 전후의 일로 추측된다. 온달의 전쟁 목적은 전략적으로 수나라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세력을 회복하고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있었다.[88] 그는 '계립현과 죽령 이서' 지역, '한북의 신라 군현'을 회복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계립현과 죽령이서' 지역은 551년 고구려가 상실한 10군 및 6군에 해당되는 전 지역이다. 10군의 범위는 철령에서 죽령에 이르는 현재 강원도 일대에 해당된다. 현재의 지명으로 제천, 영월, 원주, 가평, 화천, 김화, 양구, 회양 등으로 추정된다. 6군은 죽산, 여주, 이천, 하남, 과천, 부천, 서울 등으로 추정된다. 온달이 되찾으려는 '한북의 신라 군현'은 남한강에서 북한강 사이의 지역과 서울 일대로 볼 수 있다.[89]

고구려 군대가 소백산맥 부근 단양까지 남하하여 아단성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그것은 강원도 영서지역에 신라가 병력과 물자를 집중할 수 없었던 상황을 여실히 반영한다.

온달이 단양지역에 도달하기 위해서 선택한 교통로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603년에 북한산성은 신라의 소유였다. 고구려군대는 한강 하류를 관통하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철원-춘천-홍천-원주-제천-단양으로 이어지는 교통로가 주목된다. 현재 중앙고속도로와 대략 일치되는 후일 신라의 수약주(牛首州, 首若州 또는 朔州)에 해당되는 군현이 온달의 주 공략 대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통일신라기의 삭주로와 대체로 일치한다.

---

88) 임기환, 「고구려와 수당전쟁」, 『한국사』 4, 한길사 1995, 155쪽 참조.
89) 서영일, 『신라 육상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177~179쪽, 231~235쪽.

<사진> 단양 온달산성의 모습, 아단성으로 비정하기도 하는 견해가 있다.
(사진 : 단양군청 제공)

온달이 단양을 안정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철원·춘천은 물론 홍천·원주까지 점령을 해야 한다. 이곳에 대한 안정적인 점령이 이루어져야 단양에 대한 공략이 가능하다. 590년대 홍천·원주권에 대한 고구려의 점령 사실을 전하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다. 하지만 그곳을 점령하지 않고 온달의 고구려군대가 단양까지 남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전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깊숙이 진격한 군대는 포위를 당해 전멸할 가능성이 있다.

왜군의 筑紫 주둔 4년째인 594년 5월 10일 고구려에서 파견된 인물이 왜 조정에 도착했다.

> 추고(推古) 3年 5月 무오삭(戊午朔) 정묘(丁卯)에 고려승(高麗僧) 혜자(惠慈)가 귀화하였다. 그래서 성덕태자(皇太子)의 스승이 되었다.[90]

90) 『일본서기』 卷22, 推古天皇 5年(595) 5月 "戊午朔 丁卯. 高麗僧惠慈歸化. 則皇太子師之."

이성시(李成市)의 지적대로 혜자는 왜에 대한 고구려의 전략적 외교와 결부되는 인물이다. 고구려 승려 혜자는 왜에 파견되어 20년 동안 머물면서, 섭정 성덕태자(聖德太子)에게 불교사상을 가르친 인물로 유명하다. 혜자의 체재기간(594~615)과 수나라의 4회에 걸친 고구려 침공 기간(598~614)은 일치한다.

수와의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맞이한 고구려의 왜에 대한 외교는 특별한 것이었다. 고구려 영양왕대(590~617)의 많은 인적·물적 교류는『일본서기』추고기에 잘 나타나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인물이 승려 혜자였다. 또한 그에 의하면 고구려의 대왜외교는 "신라와 전쟁을 하면서 수나라를 대비한다."는 새로운 전략구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으로, 점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한다.[91]

고구려의 승려 혜자가 왜 조정에 도착한 그해 신라 진평왕이 '낙랑군공신라왕'으로 책봉되었다.[92] 고구려의 공격과 왜의 견제로 신라가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사신을 통해 수나라에 알려 졌을 수도 있다. 수와의 외교관계 재정립은 동맹세력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특히 수와 국경을 접하지 않는 신라와 백제의 경우 그러했다.

604년 신라의 북진을 위한 군사적 움직임이 포착된다.『삼국사기』권4, 진평왕 26년 조 기록은 다음과 같다.

> 남천주(南川州)를 폐하고 북한산주(北漢山州)를 다시 설치하였다.

신라가 남천주에 주둔해 있던 남천정(南川停)을 북한산주로 이동시켰다. 신라 서북방면의 주력 사단인 남천정이 북쪽으로 전진 배치되어 한산정으로 개명되었다. 먼저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2년 전인 602년 8월에 신라가

---

91) 李成市,「高句麗と日隋外交」,『思想』1990~9:「古代東アヅアの民族と國家」岩波書店 1998. ------,「고구려 승려 혜자와 쇼토쿠 태자」,『고대 환동해 교류사 1부-고구려와 왜-』동북아재단 2010, 47~53쪽.

92)『수서』권81, 동이 신라전.
『삼국사기』권4, 진평왕 16년 조.

지리산 운봉의 아막성전투에서 백제군 주력 4만을 궤멸시켰기 때문이었다.

타격을 입은 백제는 당분간 잠잠할 터였다. 1년 전인 603년 고구려가 북한산성을 대대적으로 공격하였고, 신라진평왕이 1만의 원군을 이끌고 직접 가서 성공적으로 구원할 수 있었던 것도[93] 아막성에서 승리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다.[94]

신라가 주력을 고구려와 인접한 곳으로 전진배치 시킨 3년 후인 607년 돌궐 계민가한의 아장(牙帳:천막궁정)에서 고구려 사신을 만난 수문제는 진노했고, 수와 고구려 관계가 냉각되었다.[95] 이듬해인 608년에 진평왕은 고구려가 신라를 자주 침공하는 것을 걱정하여 수나라에게 군사를 청하는 글을 원광에서 쓰게 했다.[96] 수나라와 긴장관계 있던 고구려가 직전에도 신라에게 군사적 압박을 가해왔던 것 같다. 이어 그해 2월 고구려가 신라 북쪽 변방을 공격하여 8천명을 사로잡아 돌아갔고, 4월에 신라의 우명산성을 함락시켰다.

611년 수와 고구려의 2차 전쟁발발 직전이었다. 수나라의 100만 대군이 고구려를 침공하기 위해 지금의 북경부근이 탁군에 집결하고 있는 가운데 진평왕은 수양제에게 청사표(請師表)를 봉(奉)했고, 양제가 이를 허락했다고 『삼국사기』 신라본기는 기록하고 있다.

백제 무왕도 수양제가 고구려를 치려고 하자 611년 2월에 사신 국지모(國智牟)를 파견하여 행군기일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수양제는 사신 석율(席律)을 백제에 보내 무왕과 서로 모의하게 했다. 공격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갔다.[97] 애초 수양제가 기대한 것은 신라의 출사보다 백제의 그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백제는 말과 행동이 달랐다. 『수서』 권81, 동이 백제전은 "이듬해

93) 『삼국사기』 권4, 진평왕 24년·25년 조.
94) 서영교, 「백제 무왕대 아막성 전투와 왜」, 제9회 동국대 동아시아 연구소 학술발표요지, 2011년 7월 2일.
95) 『수서』 권81, 동이 고려전.
96) 『삼국사기』 권4, 진평왕 30년.
97) 『수서』 권81, 동이 백제전.

(612) (수나라의) 육군(六軍)이 요수(遼水)를 건너니, (백제) 무왕(璋)도 군사를 (고구려의) 국경에 배치하고 수군을 돕는다고 공공연히 말하면서 실제로는 양단책(兩端策)을 쓰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다.

611년 10월 신라 서쪽의 전략적 요충지 가잠성을 백제가 공격했다. 백제는 신라가 고구려와 싸움에 주공을 투사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다. 진평왕이 이를 구원하기 위해 신라의 신주정(북한산정), 상주정, 하주정을 원군으로 파견되었다. 7년 전 북쪽 북산산주로 전진 배치된 신주정(북한산정)까지 가잠성을 백제군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남하했다.

하지만 신라의 3개 사단은 백제군과 정면충돌을 피하고 철수하였다. 포위된 가잠성을 지키던 성주 찬덕(讚德)은 분개하여 병졸에게 말했다. "3주(州)의 군대와 장수가 적이 강함을 보고 진격하지 않고, 성이 위태로운데도 구하지 않으니 이는 의리 없는 행동이다. 의리 없게 사는 것보다 의리 없게 죽는 것이 낫겠다."[98] 찬덕은 성을 끝까지 사수하다 성 내부에 있는 큰 느티나무(槐)에 머리를 쳐 박고 자살했다.

신라의 원군이 철수하자 가잠성은 함락되었다. 만성적인 전쟁상태에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 삼국의 왕들에게 엄습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신라가 가잠성을 포기한 것은 백제와의 싸움에서 소모를 피하고자 했던 대국적인 결정이었다.

진평왕은 612년 수나라와 전쟁상태인 고구려를 공격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613년 수나라의 사신이 신라의 왕경에 도착했다. 그해 2월 수양제는 다시 천하의 군대를 모집하고 현 북경 부근의 탁군에 집결시킨 후 4월 친히 요하 동쪽으로 진격하는 와중이었다. 『삼국사기』 권4, 진평왕 35년 조 기록은 다음과 같다.

> 가을 7월에 수나라 사신 왕세의(王世義)가 황룡사에 이르자 백고좌회(百高座會)를 열었는데 원광 등의 법사를 맞이하여 강설하였다.

98) 『삼국사기』 권47, 혜론전.

수나라의 사신은 앞서 수에 군사를 청하는 걸사표를 지은 원광이 주재하는 황룡사의 백고좌회에 참석했다. 신라는 594년 수에 사신을 보내어 책봉받은 이래 자주 견사 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4 진평왕 조를 보면 596년, 600년, 602년, 604, 605년, 608년, 611년, 613년에 그러한 기록이 있다.

하지만 『수서』에는 615년의 견사 사실만 명기되어 있다. 이는 수가 신라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다만 『수서』 권81, 신라전에 "大業以來 歲遣朝貢"라고 하여 수양제 이래에 해마다 조공을 했다하고 있는데 이는 세력이 미미한 해(奚)나 실위(室韋) 등에서도 확인된다.[99] 신라왕경에 수 사신 왕세의 등장은 이전에 관심이 많지 않았던 신라에 대한 수양제의 새로운 반응이었다. 신라가 고구려 남쪽 지대를 공격·점령하여 약속을 지키자 수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수서』 권81, 고려전에서 삼경(三京)과 관위(官位)에 대한 설명 가운데 갑자기 삽입 된 기록은 이러하다. "신라와는 늘 서로 침공하고 약탈하여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수나라대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 만성적인 전쟁을 시사하고 있다.

당시 신라에게는 고구려로부터 상실한 한강유역 일부 지역들을 회복하려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 특히 한강 상류를 관통하는 철원-춘천-홍천-원주-제천으로 이어지는 선을 회복해야 하류에 대한 지배가 공고해지며, 경기만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하다.[100] 북진과 한강유역 확보·유지만이 고구

99) 여호규는 수가 신라와의 관계자체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고 보았다. (여호규, 「6세기 말~7세기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 현실』 46, 2002, 9~10쪽·註30).

100) 중국의 경우 양자강 북쪽의 왕조가 남쪽을 정복해야 할 때 항상 양자강의 상류인 四川을 먼저 점령해야 했다. 秦, 晋, 隋, 元 등이 그러했다. 상류에서 보급품을 모아 하류로 이동시키기 용이하다. 전쟁에서 언제나 상류점령이 관건이었다. 함안성산산성에서 출토된 목간들은 6세기 말 경북의 중상류 여러 지역에서 낙동강을 타고 하류 함안으로 운반된 수취 물자들의 부찰이라 한다(윤선태, 「함안 성산산성 출토 新羅木簡의 用途」 『진단학보』 88, 1999). 「광개토왕비문」에서 대왕이 아단성 등 많은 성을 점령한 후 아리수(한강)를 건너 漢城을 깨고 백제왕의 항복을 받았다고 적고 있다. 아단성 등 많은 성들은 한강중상류에 위치한 乙阿旦이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백제왕경 漢城이 유지되는 근간 가운데 하나는 중상류에서 물길을 타고 내려오는 물자였을 것이다.

려·백제·왜에 3면 포위된 신라가 중원의 통일국가와의 끈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다.

일찍이 今西龍은 1929년『思想と生活』6권 제7·9에 그가 기고한「圓光法師傳」에서 진평왕대 당시 신라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진평왕 치세가 되면 삼국이 모두 한 단계 진보하여 특히 신라의 강성에 대해 고구려와 백제의 압박이 가해졌다. 일본도 임나부흥문제로 언제 신라를 공격해 올지도 몰랐다."[101]

591년에서 611년까지 20년 사이에 해당되는 확인 가능한 여러 관련기록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신라는 612년에 수와 함께 고구려를 협공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것은 신라가 수를 도와 외교적 신뢰를 쌓겠다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기회가 왔을 때 591~595년 고구려에게 상실한 땅을 탈환하겠다는 현실적인 목적도 있었다. 하나의 움직임으로 복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행에 옮겨질 확률도 높다.

얼마 후 중원에서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들어섰다. 629년 새로 일어난 당이 대륙의 패권을 잡아가고 있을 때였다. 신라가 고구려의 낭비성(娘臂城)을 공격했다.[102] 기존에 낭비성을 청주의 상당산성으로 비정해 왔지만 근자에 와서 그곳을 경기도 포천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설득력 있게 제기되었다.

낭비성이 청주이고 고구려군대가 그곳까지 점령한 상태라면 당시 신라가 한강하류의 북한산성을 주요 거점으로 삼고 있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낭비성은 현 포천인 고구려 비성군(臂城郡)에서 비롯된 명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낭비성은 비성군에 위치한 고구려의 성, 현 포천 지역으로 보는 것이 순리적이다.[103]

---

101) 今西龍 著, 이부오·하시모토 譯,『新羅史研究』, 서경, 2008, 330쪽.

102)『삼국사기』권3, 진평왕 51년 가을 8월 조. "五十一年秋八月 王遣大將龍春·舒玄 副將軍庾信 侵高句麗娘臂城 麗人出城列陣 軍勢甚盛 我軍望之懼 殊無鬪心 庾信曰 吾聞振領而裘正 提綱而網張 吾其爲綱領乎 乃跨馬拔劒 向敵陣直前 三入三出 每入或斬將或搴旗 諸軍乘勝 鼓噪進擊 斬殺五千餘級 其城乃降."

103) 서영일,「高句麗 娘臂城考」『史學志』28, 단국대 사학회 1995;『신라 육상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235~248쪽.

신라 진평왕은 이번에도 중국에서 강력한 통일제국이 들어섰을 때 고구려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629년은 당을 눌러왔던 동돌궐이 내분과 자연재앙에 휩싸이면서 힘을 잃었고, 당이 패자로 부상하는 해이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를 보면 그해 영류왕이 당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의 봉역도를 바치고 동돌궐의 힐리극한을 사로잡은 것을 축하하는 서한을 올렸다.

629년 고구려가 긴장했던 것은 확실하며, 주력을 요동지역에 집중 배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신라는 이틈을 타서 방어가 전보다 약화된 고구려 남쪽지역인 낭비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던 것으로 생각된다.[104]

진평왕대 북진은 여기서 멈추지 않은 것 같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7, 철원도호부 조를 보자.

> 누정 고석정(孤石亭): "부의 동남쪽으로 30리에 있다. 바윗돌이 우뚝이 서서 동쪽으로 못물을 굽어본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신라 진평왕(眞平王)과 고려 충숙왕(忠肅王)이 일찍이 이 정자에서 노닐었다고 한다. ○ 고려의 중(僧) 무외(無畏)의 기문에, "철원군의 남쪽으로 만여 보를 가면 고석정(孤石亭)이 있는데, 큰 바위가 우뚝 솟았으니 거의 3백 척이나 되고 둘레가 십여 길이나 된다. 바위를 타고서 올라가면 하나의 구멍이 있는데 기어 들어가면 방과 같다. 층대(層臺)에는 여남은 명이 앉을 만하다. 그 곁에 신라 진평왕이 남긴 비석이 있다…."
>
> "고석성(孤石城) : 고석정(孤石亭) 옆에 있는데 돌로 쌓았다. 둘레가 2천8백92척이다. 지금은 폐지되었다."

서영일, 「6~7世紀 高句麗 南境 考察」, 『고구려연구』 11, 2001.

104) 서영일은 "백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강유역을 지키기 위해 629년 낭비성 공격을 감행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서영일, 앞의 책 249쪽). 서영일의 지적은 신라가 수도와 멀지 않은 남강유역을 백제가 잠식해오는 와중에도 신라가 한강유역을 안정적으로 고수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상기시켜주고 있다. 624년 백제는 지리산을 넘어 신라의 영토였던 남강유역을 점령했다. 신라는 안방에 위협을 받는 와중에도 기회만 있으면 북진을 했다. 상황은 수대와 같이 반복되었다. 당시 고구려, 백제, 왜 3국의 포위망 속에서 신라가 손을 내밀 곳은 당나라밖에 없었다. 그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당과 통할 수 있는 경기만을 지켜내야 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철원, 포천, 서울 북부지역, 강화도에 이르는 선을 유지해야 했고, 춘천에 우수정을 배치하여 방어를 강화해야 했다.

고려의 승려 무외(無畏)는 철원 고석정에 진평왕이 비석을 세운 것을 목격하고 기록으로 남겼고, 그것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리게 되었다. 629년 이후 진평왕이 사망하는 632년 이전까지, 왕은 포천 낭비성을 근거지로 하여 철원에 있는 고구려군대를 북쪽으로 몰아내고 고석성 옆에 비석을 세운 것으로 추측된다.[105]

신라는 629년에 가서 의정부를 지나 포천을 점령하고, 진평왕이 사망하는 632년 이전에 철원을 차지하여 영서지역을 장악한 것으로 생각된다. 진평왕의 철원 점령은 그 동남쪽에 위치한 춘천지역의 신라편입을 의미한다. 지형상으로 그러하다는 것이다. 신라의 철원의 점령은 춘천의 고립을 의미한다. 언제나 북쪽에서 영서지역으로 향하는 군대는 철원을 거쳐 금화·화천을 지나 춘천으로 들어간다.

『삼국사기』 지리지 삭주 조를 보면 선덕여왕 6년(637)에 우수주를 설치하고 군주를 두었다고 하는 기록이 보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106] 우수주의 주치인 춘천에 군주(軍主)가 부임했다는 것은 신라가 육정(六停)의 하나인 우수주정(牛首州亭)이란 소위 사단급 부대를 그곳에 창설했거나 동해안 고성 이북 방면에서 이동 배치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107]

신라가 중요한 전략적 지점인 춘천을 637년에 가서야 고구려로부터 회복했다고 할 수는 없다. 철원과 마찬가지로 춘천 또한 고구려 침공루터의 길목이었던 곳으로 비워 둘 수 없었다. 신라가 철원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영서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춘천에 중요 사단이 주둔해 있어야 했다. 어쩌면 직전에 철원을 고구려로부터 상실하고 춘천에 전력을 집중시킨 조

---

105) 고석성이 신라에 의해 세워졌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다만 고려시대 이전의 성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진평왕이 철원에 있는 신라의 지배거점인 城과 가까운 곳에 비석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 서영일, 「高句麗 娘臂城考」 『史學志』 28, 단국대학교 사학회 1995; 『신라 육상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249쪽 참조.

106) "朔州 賈耽《古今郡國志》云 句麗之東南 濊之西 古貊地 盖今新羅北朔州 善德王六年 唐貞觀十一年 爲牛首州置軍主."

107) 『삼국사기』 권40, 직관 하 무관 조 "四曰牛首停, 本比烈忽停, 文武王十三年, 罷比烈忽停, 置牛首停, 衿色綠白."

치였을 수도 있다.

629년 신라의 포천점령과 이어진 철원의 점령 그리고 춘천에 우수정 설치는 다음 세 가지로 해석된다. 먼저 591년 신라가 아단성 전투를 즈음하여 고구려에게 상실한 영토를 612년 고수전쟁기에 완전히 회복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완전히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수 멸망 후 고구려의 역공세를 받고 그 지역을 일부 상실 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629년에 상황이 유리해지자 신라가 다시 북진을 했고, 다시 고구려의 반격으로 철원을 상실하고 637년 춘천에 우수정을 배치했을 수도 있다.

우수정 설치로부터 5년 후인 642년 대야성이 백제에 의해 함락되고 김춘추가 평양을 찾았다. 김춘추가 청병을 하자 고구려 측에서는 죽령 서북의 영토반환하면 그것을 들어주겠다고 했다. 수침공기부터 632년 이전까지 신라 진평왕이 잠식한 고구려의 남방영토를 반환하라는 요구였을 수도 있다.

7. 맺음말

6세기 말 7세기 초 모든 동아시아 정세변화의 축은 대립하는 중원과 초원의 승패의 결과에 달려있었다

582년 중원에서 변화가 있었다. 수나라의 주인 양견(수문제)은 돌궐에 평화를 조건으로 해마다 무상증여했던 엄청난 양의 비단을 끊었다. 비단을 페르시아와 동로마제국 등에 유통시켜 거리의 이익을 취했던 동서돌궐이 군대를 일으켰다.

동서 돌궐의 칸이 이끄는 40만 유목기병과 북제의 잔당인 고보령의 말갈·거란의 기병이 만리장성을 넘었다. 전황은 수에게 불리했다. 수문제의 황태자 용이 함양에 군대를 주둔하여 대비할 정도로 위험했다. 582년 12월 난주가 함락되어 수나라의 수도권지역까지 위협받았다.

상황이 반전되었다. 서돌궐의 중국원정을 틈타 이란의 사산조 페르시아,

남러시아의 에프탈 등이 그 본거지를 공격했다. 서돌궐의 타르두쉬 가한이 중국에서 철수했다. 동돌궐의 이쉬바라칸 역시 초원으로 귀환했다. 돌궐 북방의 키르키즈와 만주방면에서 고구려가 공격해왔기 때문이다.

『수서』에 고구려 평원왕이 말갈기병을 동원해 동돌궐 이계찰의 군대를 격파한 기록이 보인다. 돌궐에게 잠식당한 거란과 말갈에 대한 고구려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

불리한 상황에 놓인 돌궐에 자연재앙까지 겹쳤다. 초원에 한발은 기근을 가져왔고, 내분으로 이어졌다. 584년 수 문제는 돌궐 칸들의 내분에 개입했다. 이로서 초원에 대한 수나라의 우위가 확보되었다.

고구려 평원왕은 돌궐의 약화가 수의 중국 통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지했다. 고구려의 국제정치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584년 고구려가 거란과 말갈에 대한 세력을 확장했고, 587~588년을 전후하여 고구려의 사신이 왜국에 갔고 왜국의 사신 아배(阿倍比等古臣) 등이 고구려에 왔다. 고구려는 전부터 신라와 사이가 좋지 않은 왜가 구주에 대군을 집중시킬 것을 요청한 듯하다.

587년 7월 왜국에 정변이 있었다. 숭불파인 소아씨가 배불파인 물부씨를 타도하고 정권을 잡았다. 소아씨는 불교문물을 원조받기 위해 고구려의 요청을 들어주어야 했다.

당시 수는 이제 막 중국통일을 눈앞에 누고 있었다. 남조 진은 약체였다. 그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호수 약 50만, 인구 200만 명에 불과했다. 화북에 강력한 통일정권이 나타나면 강남(江南)의 할거정권은 언제까지나 독립을 보전하기 어려운 형세였다. 수나라의 욱일승천을 본 진나라의 황제 진숙보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락에 열중했다.

587~588년 고구려에 왔던 왜국 사신이 귀국했을 즈음 진은 멸망했다. 수가 중국을 통일한 직후인 591년부터 595년까지 4년 넘게 왜국은 구주에 병력 2만을 집중시켰다.

위기를 느낀 신라 진평왕은 수도의 요새화작업에 들어갔다. 591년 남산성을 축성하고, 593년 명활산성과 서형산성을 쌓았다. 거대한 인력동원이었

다. 3천보에 달하는 남산신성과 명활산성축성에는 각각 1만 2천명, 2천보에 달하는 서형산성수축에 1만 미만이 동원된 것으로 단순 추정된다.

왜국이 신라의 병력을 남쪽에 묶어 놓으려 하자 북쪽에서 고구려군이 남하했다. 『삼국사기』는 그 선봉 온달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다. "계립현과 죽령이서의 땅을 되찾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 나아가 신라 군사들과 아단성 아래서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다." 고구려 군대가 단양까지 깊숙이 들어와 전투가 벌어졌다.

온달의 출정 시기는 왜가 구주에 병력을 집중시킨 591년 11월 전후의 일로 보인다. 온달은 철원-춘천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원주부근의 영서지역까지 점령하고, 그곳을 전진기지로 삼아 단양 영춘면의 을아단을 공격한 듯하다. 철원-춘천-홍천-원주-제천-단양으로 이어지는 현재 중앙고속도로와 일치되는 루터이다. 왜의 견제로 강원도 영서지역에 신라가 병력을 집중할 수 없었던 상황을 여실히 반영한다.

남쪽에서 신라의 역량을 소진시킨 고구려는 598년에 말갈기병 1만을 동원해 수나라의 요서지역을 공격했다. 이전부터 수나라가 말갈과 거란의 제부족의 이탈을 부추겨 왔기 때문이다. 말갈과 거란은 고구려의 주요 기병 자원이기도 했다.

그해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해왔다. 『수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원(영양왕)이 말갈의 무리 1만여 명을 이끌고 요서를 침입하였다.… 고조(수양제)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한왕 경(瓊)을 원수(元帥)로 삼고 수군과 육군을 총동원하여 고려를 치게 했다. … 이때 군량수송이 중단되어 먹을 것이 떨어지고 또 군사가 임유관을 나와서는 전염병을 얻어 기세를 떨치지 못하였다."

수나라의 군대가 기세를 떨치지 못한 것은 군량수송 차질과 전염병 문제만이 아니었다. 그때 동서 돌궐이 수의 북방영역을 침공했다. 고구려 침공에 나섰던 한왕 양, 고경 등 수나라 장군들은 요동에서 군대를 이끌고 초원으로 향해야 했다. 수나라 장군 두언(杜彦)이 돌궐의 남하를 막는 북방 최전선 삭주의 총관으로[108] 양소(楊素)는 영주(靈州)행군총관으로 임명되

었다. 서돌궐 달두 가한과 동돌궐 도람 가한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였다.[109]

일본열도에서 몽골초원에 이르는 방대한 지역에서 치밀한 공작을 펼치는 고구려였다. 『수서』를 보면 고구려에 사신으로 가기를 청했던 육지명(陸知命)은 이렇게 말했다. "고구려는 북방(燕垂)을 이리처럼 탐욕스럽게 엿보고 있습니다."[110]

적어도 598년부터 615년까지 고구려는 수나라와 전쟁으로 요동전선에 군대가 집중시킬 수밖에 없었다. 신라가 이 틈을 타고 북진해와 온달장군에게 잃었던 땅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수서』 권81, 고려전은 전한다. "신라와는 늘 서로 침공하고 약탈하여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604년에 북한산주로 주력사단(한산정)을 전진 배치시킨 신라는 611년 백제가 가잠성을 공격하자 그곳에 3개주의 군대를 보냈다. 그 가운데 신주정(한산정)도 있었다. 하지만 원군은 백제와 정면 대결을 피하고 가잠성을 포기했다. 고구려와 더 큰 싸움을 앞두고 전력을 소모할 수 없었다. 612년 진평왕은 고구려가 수와의 전쟁에 병력을 집중하자 북진을 단행했다. 고구려에게 상실한 영토를 상당히 회복했던 것 같다.

629년에도 돌궐은 내분에 휩싸였고, 수가 망하고 등장한 당나라가 패권을 잡았다. 그러자 신라는 다시 고구려의 영토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김춘추의 아버지 김용춘이 이끄는 신라군대가 현 포천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는 고구려 낭비성을 함락시켰고, 632년 이전에 철원을 장악하고 637년 춘천에 우수정을 설치 또는 배치했다.

629년 신라의 포천 낭비성 점령과 이어진 철원의 점령과 춘천에 우수정 설치는 다음 세 가지 경우로 해석된다. 먼저 591년 신라가 아단성 전투를 즈음하여 고구려에게 상실한 영토를 612년 고수전쟁기에 완전히 회복했다

---

108) 『수서』 권55, 杜彦전.

109) 『수서』 권48, 楊素전.

110) 『수서』 권66, 陸知命전 請使高麗, 曰 : "臣聞聖人當扆, 物色劬勞, 匹夫奔踶, 或陳狂瞽. 伏願暫輟旒纊, 覽臣所謁. 昔軒轅馭歷, 旣綏夙沙之誅, 虞舜握圖, 猶稽有苗之伐, 陛下當百代之末, 膺千載之期, 四海廓淸, 三邊底定, 唯高麗小豎, 狼顧燕垂. 王度含弘, 每懷遵養者, 良由惡殺好生, 欲諭之以德也. 臣請以一節, 宣示皇風, 使彼君臣面縛闕下."

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완전히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수 멸망 후 고구려의 공세를 받고 그 지역을 일부 상실 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신라가 637년 우수정을 춘천에 두게 된 것은 고구려의 공격으로 철원을 상실한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642년 김춘추가 평양에 오기 5년 전의 일이었다. 연개소문은 현실지향적인 신라를 믿을 수 없었다. 김춘추는 세계제국 당과 전쟁을 직전에 둔 고구려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평양에 온 것이 아닌가.

김춘추가 돌아간 이듬해인 643년 연개소문은 신라를 공격했다. 직후 연개소문을 만난 당의 사신 상리현장은 신라에 대한 공격중지를 요구했다. 『구당서』·『신당서』·『자치통감』에 전하는 연개소문은 답변의 내용은 이렇다. "옛날 수(隋)가 수 침공시 신라가 고구려의 땅 500리를 침탈했는데, 그것을 돌려주지 않으니 전쟁을 중지할 수 없다." 일관성이 있는 주장이다.

(원고투고일 : 2011. 9. 30, 심사수정일 : 2011. 11. 10, 게재확정일 : 2011. 11. 18)

주제어 : 嬰陽王, 眞平王, 淵蓋蘇文, 溫達, 阿且城, 阿旦城, 乙阿旦, 椵岑城, 蘇阿氏, 筑紫出兵,

<ABSTRACT>

Sui, China-Goguryeo War & Japan

Seo, Young-kyo

In 584 the powerful country, Sui(隋) faced China unification. Goguryeo couldn't avoid the war against Sui(隋) in the near future.

If war broke out between Goguryeo and Sui(隋) it would be unambiguous that Silla would attack the south of Goguryeo. Goguryeo needed the partner to prevent Goguryeo from the attack of Silla.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Goguryeo began in earnest.

In 587 The envoy of Goguryeo were sent to Japan and the envoys of Japan were sent to Goguryeo. Goguryeo was seeking to counterbalance Silla through Japan. Japan posted a massive concentration of 20,000 soldiers on Kyusu(九州) for four years from 591 to 595.

Silla was afraid of the invasion of Japan and started to construct a fortress. Three fortresses were built in the capital of Silla from 592 to 593. The main-force units were sent to the eastern coast to prevent the attack of Japan.

When Silla put a massive concentration of soldiers on the south line Goguryeo invaded and occupied the south of Silla in the early 590.

Key Words : Kogureyo King, Yeungyang, Silla King, Jinpyeong, Yeon-gaesomun, General Ondal, Acha Fortress, Adan Castle, The Upper Adan, Kajam fortress, Soga Clan, The Dispatch of Japanese Troops to Kyūshū.

7세기 삼국 고대 전투모습의 재현*

김 주 성**

1. 머리말
2. 행군속도
3. 성곽전과 지상전
4. 지휘·연락체계
5. 맺음말

1. 머리말

전쟁과 전투는 비슷한 용어이기도 하지만 의미가 다르다. 전쟁은 전략에 바탕한 군사작전이라면, 전투는 전술적 차원에 바탕한 무력충돌이다. 즉 전투는 전쟁기간 중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일어난 무력충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투현장을 재현한다는 것은 가변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일반화시키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투는 전투원에게는 생과 사를 결정짓는 순간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지략과 체력을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27-A00015).

** 전주교대 교수

모두 불사르는 순간이다. 따라서 인간의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드러내는 순간으로 인문학의 성격이 짙은 역사학의 중요한 대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전투보다는 전쟁을 보다 중요시하였다. 즉, 전쟁은 정치외교사를 포함한 장기간의 거대사라고 한다면, 전투는 단기간의 미시사이다. 전쟁은 각국의 정치사를 포함하여 주변 여러 나라와의 외교사를 주 대상으로 삼아 역사의 진전과정을 밝히는데 유용했기 때문이다. 독일의 전략가 칼 폰 클라우제비츠는 "전투야말로 본래의 군사적 활동이며, 다른 모든 것은 전투를 성립시키게 하는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1]라고 한 것처럼 하나 하나의 전투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거대사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전투를 재현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전투 모습도 각 시대에 따라 달리 나타났을 것이다. 오늘날은 각종 무기의 발달로 원거리전투가 중심이라고 한다면 고대의 전투는 근거리 중심이었다. 근거리전투도 지형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띄었을 것이다. 지상전투는 기병전술이 위주가 되었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산악지형에서는 기병전투보다는 보병위주의 攻城戰이 대세를 이루었을 것이다. 무기도 전투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장창은 기병들과 대적하는 보병이 사용하고, 중장기병은 보병의 밀집대형을 깨뜨리는 용도, 경장기병은 도망하는 보병의 추격용으로 이용되었다. 삼국에서는 특히 활이 발달하였다. 성곽전투 위주의 산악지형에서는 활이 가장 유용한 무기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투의 양상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연적인 요소가 결정적일 수가 있게 된다. 553년 관산성전투에서 백제 성왕의 죽음 같은 경우이다. 때로는 우수한 무기와 훈련된 병사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우연한 요소가 전투의 승패를 가르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관산성전투의 승패만을 알고 있고, 그 구체적인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

1) 클라우제비츠, 『전쟁론』, 이종학 역, 1974, 일조각, 102쪽

이 논문에서는 사료에서 검출 가능한 7세기 전투양상을 재현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세기를 택한 이유는 이때 가장 많은 전투가 행해졌으며, 또 가장 많은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먼저 전투의 진행과정에서 직접 군대가 충돌하기 직전 전투를 준비하는 단계에 고려되는 행군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투를 치루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이동경로이다. 공격목표가 정해지면 공격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상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그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요소는 적정, 구체적으로 상주하고 있는 군대 수는 얼마인가, 지휘자는 누구이며, 군대의 통솔과 사기는 어느 정도인가, 성곽의 구조는 어떠한가 등을 알아야 한다. 이와 동시에 어느 경로를 통해서 목표에 접근할 것인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의 병력을 동원해야 하는가, 어떤 대형으로 이동하는 것이 유리한가, 치중부대는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가, 기병과 보병은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가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중에서도 이동경로와 함께 행군속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공격목표에 이르기까지의 이동경로를 어떻게 정했을까. 국경선 부근의 전투에 있어서는 아군의 영토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동상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660년 백제와 신라간의 전투에서 신라는 이동경로를 어떻게 결정했을까. 662년 신라의 당군을 위한 군량수송 작전에서 김유신은 평양까지의 이동경로를 어떻게 정했을까 등이 궁금해지는 것이다. 적진 깊숙이 공격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동경로 설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되었을 것이다. 사신으로 파견된 사람의 경험, 지리를 잘 아는 포로를 이용할 수도 있고, 적정을 탐지한 간첩이 만든 지도, 정찰대와 척후병을 이용한 근접 이동거리 확인 등이 얼른 상상될 수 있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이동을 위해서 행군속도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었을까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상호간의 군대가 맞붙었을 때 전투유형은 크게 성곽전과 지상전으로 나눌 수 있다. 성곽전은 공성전과 함께 대개 영성고수(嬰城固守)했다는 수성전을 합쳐서 부르기로 한다. 성곽의 위치가 평지성인 경우보다는

구릉지대에 위치해있을 가능성이 커 성곽전의 경우 거의 산악전의 형태를 띄우게 된다. 성곽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성문을 통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였다고 하겠다. 성문의 중요성은 죽죽전에 나오는 대야성전투에 잘 묘사되어 있다. 성곽전에서 지금까지는 별로 언급되지 않았던 성밖의 전투도 주목된다. 수성을 위해서 성 밖에 진지를 구축하고 적의 진입을 막기 위한 어떤 방어시설과 이를 둘러 싼 전투가 상정된다.

이런 전투를 지휘하기 위해서는 지휘자의 목소리만으로는 전장에서는 불가능하다. 지휘자의 지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지휘전달 방식이 있었을 것이다. 전투시 지휘관에게 주어진 권한과 명령을 하달하는 방식과 전투 진영에서의 피아를 구분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황산벌전투[2], 매소성전투[3], 석문전투[4]나 비록 후삼국시기이지만 일리천전투[5], 공산전투[6]의 경우 몇 편의 전문논문들이 발표되기도 했다. 하지만 전투의 양상을 재현하는 측면보다는 전투의 배경과 경과 등을 당시의 외교적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본 논고가 많다. 전투의 구체적인 측면인 행군속도, 진행과정, 지휘·연락체계 등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이에 남아있는 자료들을 좀 더 치밀하게 살펴보면서 전투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많은 질정을 빈다.

---

2) 徐程錫, 「百濟 山城을 통해 본 황산벌전투의 현장」, 『歷史敎育』 91, 2004
심정보, 「백제사상 황산벌전투와 三營 설치에 대하여」, 『충청학과 충청문화』 10, 2010
3) 민덕식, 「買肖城址考」, 『孫寶基博士 停年紀念論叢』, 지식산업사, 1988
閔德植, 「羅·唐戰爭에 관한 考察:買肖城 전투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40, 1989
安國承, 「買肖城硏究」, 『경기향토사학』 2, 전국문화원연합회, 1997
李相勳, 「唐의 軍事戰略을 통해 본 羅唐戰爭期의 買肖城 戰鬪」, 『新羅文化』 29, 2007
4) 서영교, 「나당전쟁기 石門전투」, 『東國史學』 38, 2002
5) 鄭景鉉, 「高麗 太祖의 一利川 戰役」, 『한국사연구』 68, 1990
金甲童, 「高麗太祖 王建과 後百濟 神劍의 전투」, 『滄海朴秉國敎授停年論叢』, 1994
柳永哲, 「一利川戰鬪와 後百濟의 敗亡」, 『大丘史學』 63, 2001
윤용혁, 「936년 고려의 통일전쟁과 개태사」, 『韓國學報』 114, 2004
신성재, 「일리천전투와 고려태조 왕건의 전략전술」, 『한국고대사연구』 61, 2011
6) 閔丙河, 「申崇謙과 公山桐藪 戰鬪」, 『軍史』 29, 1994
류영철, 「공산전투의 재검토」, 『鄕土文化』 9·10合, 鄕土文化硏究會, 1995

2. 행군속도

전투를 하기위해서는 고대나 현대에서도 공통적으로 결정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우선 얼마만큼의 병력이 이동할 것인가, 어느 통로를 사용할 것인가, 목표는 어디인가, 치중부대는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김유신은 평양으로 당군에게 식량을 수송해주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 庾信旣受命 至懸鼓岑之岫寺齋戒 卽靈室閉戶 獨坐焚香 累日夜而後出 私自喜曰 吾今之行 得不死矣(『三國史記』 42 김유신 중)

절의 靈室에서 문을 닫고 여러 날 후에 나왔다는 것이다. 그동안 김유신은 작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그것에는 병력이동, 행군로, 수송수단, 중간목적지 등의 요소가 고려되었을 것이다. 이에 구상을 마치고 나서 김유신은 작전성공을 예감하였다.

김유신이 사찰의 영실에 앉아 작전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적의 지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사전에 적의 지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 二十四年 帝以我太子入朝 遣職方郎中陳大德答勞 大德入境所至城邑 以綾綺厚餉官守者 曰吾雅好山水 此有勝處 吾欲觀之 守者喜導之 遊歷無所不至 由是悉得其纖曲(『三國史記』 20 영류왕 24년)

당 태종이 645년 고구려침공을 위하여 641년부터 진대덕이 고구려의 지리를 탐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삼국 간에 많은 첩자를 파견하였던 것은 다름 아닌 적정을 살피기 위해서였다.[7] 신라도 첩자를 이용하여 고구려의

---

7) 삼국 간의 첩자에 대한 연구는 심심치 않게 진행되어 왔다.
강준식, 『우리가 몰랐던 삼국시대 스파이』, 아름다운책, 2004

지형을 잘 숙지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전투의 승패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행군속도이다. 손자병법 軍爭篇에 "그러므로 갑옷을 걷어 올리고 달려, 밤낮을 쉬지 않고, 길을 갑절로 하여 행군 백리에서 이를 다투면 곧 세장군은 포로가 되고, 강한 자는 앞서고 약한 자는 뒤져 1/10만 이르게 된다. 50리에서 이를 다투면 곧 상장군은 전사하고 1/2만이 이르게 된다. 30리에서 이를 다투면 곧 2/3가 이른다. 그러므로 군에 치중이 없으면 곧 망하고, 양식이 없으면 곧 망하며, 저축이 없으면 곧 망한다."라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고대 병력이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30리, 대략 12km로 보는 견해도 있다.[8] 이를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660년 7월 9일 김유신은 황산벌전투에 승리했다. 김유신은 7월 9일 밤을 지새우면서 부대를 정비했을 것이다. 7월 10일 당의 소정방 군대는 기벌포에서 백제군을 대파하고 군영을 마련하였다. 7월 10일 김유신부대는 황산벌을 출발했을 것이다. 다음 날인 7월 11일 김유신부대는 당의 군영에 도착하였다. 거의 이틀이 걸린 셈이다. 그러니까 황산벌에서 출발한 김유신부대가 사비남의 당 군영까지 도착하기까지 이틀이 걸렸다는 것이다. 사비남이 지금의 어디인지 정확히 꼭 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석성 부근으로 짐작된다. 대동여지도에 의하면 황산벌이 있는 연산에서 석성으로 통하는 길은 노성 혹은 은진을 거치는 두갈래 길이 있다. 두 갈래 길 모두 60여리이다. 김유신부대가 60여리 길을 이틀에 걸쳐 진군했다면, 하루에 대략 30여리 길을 행군한 셈이다.

다음으로 우리가 행군거리를 추정해볼 수 있는 자료로 김유신이 661년 12월 10일에 출발하여 마침내 662년 2월 평양의 소정방에게 군량을 전달해

金福順, 「三國의 諜報戰과 僧侶」, 『가산이지관스님화갑논총』 1992
김영수, 「고대 첩자연구 시론」, 『白山學報』 第77號 2007
김영수, 「김유신의 첩자활용과 첩보술에 관한 일연구」, 『軍史』 第62號 2007
直木孝次郎, 「古代朝鮮における間諜について」, 『疆原考古學硏究所論集』 5 1979

8) 노태준 역해, 『손자병법』, 홍신신서, 1983, pp.154~155; 이병도 국역『三國史記』 p.452에서도 하루 군대의 행군거리를 一宿, 一舍라 하고, 대략 30리로 보았다.

주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김유신은 2월 1일 장새에 도착하였다. 장새는 오늘의 황해도 수안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새에서 평양까지 36,000보라고 하였다. 이 거리를

A-1) 裂起以步騎監輔行, 進而言曰, 某雖駑蹇, 願備行人之數, 遂與軍師仇近等十五人, 持弓劒走馬, 麗人望之, 不能遮闕, 凡兩日致命於蘇將軍, 唐人聞之, 喜慰廻書, 裂起又兩日廻, 庾信嘉其勇, 與級飡位, 及軍還(『三國史記』47 열기)

A-2) 渡七重河至蒜壤, 貴幢弟監星川軍師述川等遇賊兵於梨峴, 擊殺之, 二月一日, 庾信等至獐塞, 距平壤三萬六千步, 先遣步騎監裂起等十五人, 赴唐營 六日至楊隩 庾信遣阿飡良圖·大監仁仙等 致軍粮 贈定方以銀五千七百分 細布三十匹 頭髮三十兩 牛黃十九兩 定方得軍粮便罷還(『三國史記』6 문무왕 2년)

유신의 명을 받은 열기 등 15인이 말을 타고 2월 1일 장새에서 평양으로 먼저 가 소정방에게 식량이 도착하였음을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장새에서 평양까지의 거리 36,000보는 대략 47.5km정도가 된다.[9] 열기는 이 거리를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이 걸렸다. 대략 하루 행군거리는 24km인 60리 정도가 된다. 굉장히 빠른 속도이다. 그런데 열기는 15인이 궁검만으로 무장하고 말을 달려갔다고 했다. 기껏해야 경기갑 정도였을 것이다. 거의 척후병 수준으로 이동했다고 보인다. 이들도 하루에 24km 정도밖에 이동하지 못했다. 김유신의 본대는 2월 1일 장새에서 2월 6일 양오(평남 평양시 강동군)에 도착하였다. 열기가 왕래한 시간을 이용하여 본대는 당군 진영으로 계속 진군하였다. 47.5km을 6일에 걸쳐 이동하였다. 본대의 하루 이동 속도는 8km, 즉 20여리 남짓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쌀 4천섬, 조 22,250섬의 군량을 싣고 적의 수도 가까이 까지 이동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9) 보는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로 1보는 6척이므로 1척을 고구려척인 22cm로 계산하면 약 1.32m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36000보는 47.5km로 100리가 조금 넘는 거리이다.(역주 『三國史記』 4,791쪽)

더욱 더딜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행군속도를 김유신이 남천정(이천)에서 출발하여 황산벌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三國史記』 5 태종무열왕 7년 6월 21일조에 의하면 무열왕이 태자 법민을 보내 덕적도에 머무르고 있는 소정방을 만나게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기록은 애매한 점이 있다. 법민이 소정방을 만나기 위해 출발한 날이 6월 21일이었는지 아니면 소정방을 만났던 날이 6월 21일이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6월 18일 남천정에 도착한 무열왕이 곧이어 소정방을 만나기 위해 법민을 파견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보아 6월 21일은 법민이 소정방을 만났던 날로 파악하고자 한다. 6월 21일에 소정방을 만나 7월 10일 백제 남쪽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법민은 다시 남천정으로 돌아와 그 사실을 알렸다. 법민이 다시 남천정에 도착한 날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덕물도에서 남천정까지 대략 이틀 일정으로 보아 6월 23일 경이라고 추정된다. 그러니까 김유신군이 군대를 재정비하고 황산벌로 출발한 날짜는 대략 6월 24일경이었다고 추정된다. 남천정에서 황산벌까지 대략 보름정도 걸렸다고 추정된다.[10] 정영호가 추정한 김유신 행군로를 따르면 남천정→삼년산성→산계리토성→장군재→옥천→금산→탄현→황산벌이라는 것이다. 이 행군로를 네이버 지도에서 찾아보면 대략 300여km가 나온다. 하루 20여km라는 셈이다. 하루에 대략 50여리를 행군하였던 셈이다.[11] 앞의 30여리와 큰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적진이 아닌 아군지역이라는 점이다. 특별한 경계없이 행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물론 군대의 행군에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 지형지물의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

10) 신라군이 남천정까지 굳이 갔었던 점에 대해 군사학적인 관점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행군로를 상주에서 부여로 상정한 견해도 있다.(이종학, 「『삼국사기』의 군사사적 인식 서설」, 『한국군사사연구』, 2010, 224~229쪽) 한편으로 일리있는 견해로 생각되지만, 분명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으며, 후삼국시기 일리천전투의 경우도 왕건의 경우 그대로 전주로 직진하면 되는데 굳이 일리천을 거쳐 황산까지 이동했던 점을 고려하면 기록대로 따르는 것이 옳다고 본다.

11) 정영호도 행군로를 추정할 때 하루 이동거리를 40~50리로 계산하였다.

李世勣進至遼東城下 帝至遼澤 泥淖二百餘里 人馬不可通 將作大匠閻立德 布土作橋 軍不留行度澤東(『三國史記』21 보장왕 4년 5월)

요택 습지 200여 리 길을 대군이 통과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이런 지형을 만났을 때 행군의 어려움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바로 적군의 기습공격을 예상하고 항상 대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수의 별동대가

述等且戰且行至薩水 軍半濟 文德進軍 擊其後軍 殺右屯衛將軍辛世雄 於是 諸軍俱潰不可禁止 (『三國史記』44 을지문덕)

살수를 도하하고 있을 때 고구려군의 기습을 만나 대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고약한 지형에서 대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당 태종도 안시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퇴군할 때 다시 요택을 만나게 되었다. 수의 패배를 기억하고 있는 당 태종은

世勣·道宗將步騎四萬爲殿 至遼東 度遼水 遼澤泥潦車馬不通 命無忌將萬人 翦草塡道 水深處 以車爲梁 帝自繫薪 於馬鞘以助役 冬十月帝至蒲溝 駐馬督塡道 諸軍度潡錯水 暴風雪 士卒沾濕 多死者 勑燃火於道 以待之涉(『三國史記』21 보장왕 4년)

후군을 든든하게 마련하고 도하를 시도하였다. 도하를 시도하고 나서도 위치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불을 피우는 것을 삼갔다가 폭풍과 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을 피우도록 했다는 것이다. 행군상 고약한 지형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행군이 지체되고 또 위험한가를 알려주는 사료이다.

또 행군시 대형을 유지하는 것이 행군속도를 더디게 하는 한 요소이다. 612년 평양을 직공한 수군이 회군하면서

見士卒疲弊 不可復戰 又平壤城險固 度難猝拔 遂因其詐而還 述等爲方陣而行 我軍四面鈔擊 述等戰且行(『三國史記』20 영양왕 23년 6월)

고구려군의 수시 공격을 막아내기 위하여 방진을 치면서 행군하였다. 이런 경우 행군이 얼마나 더디게 진행되었을까는 충분히 짐작되는 일이다. 이에 비해 살수에서 패배한 수군이

九軍將士奔還 一日一夜 至鴨淥水 行四百五十里(『三國史記』 44 을지문덕)

압록강까지 450리를 만 하루만에 도망하였다는 것이다. 지휘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대형을 유지할 수도 없었고 죽자고 북쪽으로 도망하였을 때 450리를 이동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행군속도는 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적의 기습에 대비하여 대형을 갖추고, 치중부대와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동했을 상황이다.

3. 성곽전과 지상전

전투의 유형은 성곽전과 지상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유형별 전투를 사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재구성이 가능하다. 먼저 성곽전을 재구성해보도록 하겠다.

1) 성곽전

성곽전은 성곽을 공격하기 위한 공성전과 방어를 위한 수성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성을 위한 공격군이 목표로 한 성곽의 어느 지점까지 진군하여 거점을 설치했을까. 이것은 지형과 공성을 위한 무기의 사정거리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결정되었을 것이다. 사료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로는 612년 수의 우문술이 살수를 건너 평양성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산을 의지하여 진을 쳤으며,[12] 648년 9월 설만철은 박작성 남쪽40리 되

12) 『三國史記』 20, 영양왕 23년 5월

는 곳에 진영을 마련하였다.[13] 660년 당은 백제를 공격할 때 도성으로부터 一舍(하루 이동거리인 대략 30여 리)의 거리를 두고 진영을 쳤으며, 672년 석문전투 직전 백수성전투에서는 당군이 백수성 500보[14] 전방에 진영을 마련하였다.[15] 4개의 예 중에서 2개가 30여 리 전방, 40여 리 전방이 하나, 500보 전방이 하나이다. 대략 30~40여 리 전방에 진영을 마련하여 공격을 시도했다고 보여진다.

공성전과 수성전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동전의 양면인 까닭에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전투를 위해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물과 식량이다. 공격하는 사람들도 물과 식량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역시 물과 식량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무기이다. 물의 중요성은

> 王然之入尉那巖城固守數旬 豆智曰 漢人謂我巖石之地 無水泉 是以長圍 以待吾人之困 宜取池中鯉魚 包以氷草 兼旨酒若干 致犒 (중략)於是 漢將謂 城內有水 不可猝拔(『三國史記』14 대무신왕 11년 7월)

이라 하여 돌로 된 성이라 물이 부족할 것으로 여기고 장기전으로 들어간 한병을 당해내기 어려워 을두지가 잉어를 잡아 바치는 꾀를 내었다는 것에서 찾아진다. 다음으로 식량의 중요성을 알아보자.

> 至是爲內應 燒其倉庫 故城中兇懼 恐不能固守(『三國史記』47 죽죽)

642년 8월 윤충이 대야성을 공격하자 검일은 처를 빼앗긴 복수를 위해 대야성내의 창고를 불질렀다는 것이다. 창고에는 곡식과 무기가 쌓여있었을 터인데 이를 불태워버리자 성곽을 방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 661년 5월 9일 고구려와 말갈이 북한산성을 공격하자

---

13) 『三國史記』22, 보장왕 6년 9월
14) 앞의 고구려척의 계산을 준용하면 대략 660m이다.
15) 『三國史記』7, 문무왕 12년 8월

城主冬陁川能激勵少弱 以敵强大之賊 凡二十餘日 然糧盡力疲 至誠告天 忽有大星 落於賊營 又雷雨以震 賊疑懼解(『三國史記』5 태종무열왕 8년 5월 9일)

성주 동타천이 20여 일 동안 잘 방어하였으나 식량이 떨어지자 하늘의 도움을 얻어 겨우 물리쳤다는 것이다. 물과 식량이 전투에 있어서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였음을 알 수 있다.

성곽을 방어하는 측에서는 물과 식량을 확보한 다음 성곽을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성곽을 높이 쌓고 해자를 깊이 판 다음 굳게 성을 고수했다. 즉 深溝高壘와 嬰城固守했다는 것이다. 한의 침략을 맞은 고구려의 명임답부가 제시한

今漢人千里轉糧 不能持久 若我深溝高壘 淸野以待之 彼必不過旬月 饑困而歸 我以勁卒迫之 可以得志 王然之 嬰城固守 漢人攻之不克 士卒饑餓引還(『三國史記』16 신대왕 8년 11월)

방어책에 잘 드러나 있다.

공성을 위한 첫 단계는 우선 적군의 기세를 죽이고 아군의 사기를 살리기 위한 요란한 기싸움이 있었다.

B-1) 賊高聲唱 曰雖蕞爾小城 兵食俱足 士卒義勇 寧爲死戰 誓不生降 庾信笑曰 窮鳥困獸 猶知自救 此之謂也(『三國史記』42 김유신 중)

B-2) 李世勣攻遼東城 晝夜不息旬有二日 帝引精兵會之 圍其城數百重 鼓噪聲振天地(『三國史記』21 보장왕 4년 5월)

B-1)은 661년 9월 25일 신라군이 백제 부흥군이 옹산성에서 항거하자 이를 함락할 때의 모습이다. 작은 성이지만 무기와 식량이 충분해 싸울만 하다고 하여 식량의 중요성을 여기서도 확인된다. 부흥군이 큰 소리로 외쳤다거나 김유신이 웃으면서 말했다거나 하는 것은 공격하기 전 기싸움의 모

습을 엿볼 수 있다. B-2) 사료에서는 이세적이 요동성을 12일 동안 공격하였으나 함락을 못하고 있을 때에 당 태종이 합세하자 북과 고함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다고 한다. 결국 태종의 합세로 새로운 공격을 할테니 빨리 항복하라는 의미의 기싸움인 셈이다.

이렇게 기싸움을 벌리고 난 이후에는 당연 해자를 메워 성벽 접근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당 태종이 요동성 공격을 본격화하기 위해

> 帝自將數百騎至遼東城下 見士卒負土塡塹 帝分其尤重者 於馬上持之從 官爭負土 置城下 李世勣攻遼東城 晝夜不息 旬有二日 帝引精兵會之 圍其城數百重 鼓噪聲振天地(『三國史記』 21 보장왕 4년 5월)

해자를 메꾸기 위하여 태종이 솔선수범하자 시종관들이 다투어 해자를 메우기 위해 흙을 날랐다는 것이다.

해자를 메꾼 다음에는 포차에서 돌을 날려 보냈다. 661년 고구려와 말갈이 북한산성을 침공할 때

> 北漢山城 列抛車飛石 所當陴屋輒壞 城主大舍冬陁川 使人擲鐵蒺藜於城外人馬不能行(『三國史記』 5 태종무열왕 8년 5월 9일)

포차로 돌을 날려 보내니, 돌을 맞은 성곽이 부서졌다는 것이다. 포차의 사정거리는

> (李世)勣列砲車 飛大石 過三百步 所當輒潰 吾人積木爲樓 結絙罔 不能拒 以衝車撞陴屋碎之時(『三國史記』 21 보장왕 4년 5월)

300보 정도였다. 맞는 것마다 부서질 정도로 위력이 있었다. 방자측에서는 포차의 飛石으로 부서진 곳에 적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마름쇠를 뿌렸다. 그리고 부서진 곳을 목책과 그물로 대신하였다. 앞 사료에 보이는 積木爲樓 結絙罔이 그것이다. 북한산성 전투에서 보이는 安養寺의 창고를 헐어

그 재목을 실어다가 성의 무너진 곳마다 樓櫓를 만들어 굵은 줄로 망을 얽고 牛馬의 가죽이나 솜옷 등속을 걸어 매고 그 안에다 弩砲를 준비하여 지켰다는 것도 좋은 예이다.[16] 또 안시성전투에서 衝車와 돌쇠뇌로써 그 城堞을 파괴하니 城中에서도 따라 木柵을 세워서 빈 곳을 막았다는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17]

공자측에서는 부서진 곳으로 성곽을 뚫기 위하여 충차를 동원하여 다시 성곽을 공격하였다. 이런 공격 후 승리를 굳히기 위해서는

C-1) 南風急 帝遣銳卒登衝竿之末 燕其西南樓 火延燒城中 因揮將士登城 我軍力戰不克(『三國史記』21 보장왕 4년 5월)

이라 하여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여 화공을 가하면 적이 불을 끄는 사이에 성곽을 넘어 들어가 성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화공을 통한 성곽점령은

C-2) 賊乘風縱火 攻城突入 匹夫與上干·李宿·謀支·美齊等 向賊對射 飛矢如雨 支體穿破 血流至踵 乃仆而死(『三國史記』47 필부)

C-3) 帥兵三萬 來圍王都漢城 王閉城門 不能出戰 麗人分兵 爲四道夾攻 又乘風縱火 焚燒城門 人心危懼 或有欲出降者 王窘不知所圖(『三國史記』25 개로왕 21년 9월)

이라 하여 성곽공격에 결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화공은 가장 효과적인 공격 방법이나 바람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것이었다. 화공을 못한 경우에는 충제를 이용하여 성위에서 공격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충제에 올라 탄 극소수 병력만이 가능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곽 높이만큼 흙을 쌓은

16) 『三國史記』5, 태종무열왕 8년 5월 9일
17) 『三國史記』21, 보장왕 4년 5월

帝遣造布囊百餘萬口 滿貯土 欲積爲魚梁大道 闊三十步 高與城齊 使戰士登而攻之 又作八輪樓車 高出於城 夾魚梁道 欲俯射城內(『三國史記』20 영양왕 24년 4월)

이라는 어량대도를 만들어 그 곳에서 공격하기도 하였다.[18] 물론 방자라고 마냥 공격만 당했던 것은 아니고 때때로 공격을 감행하기도 하였다. 성안에서의 방어는 물론이고, 성 밖으로 나와 공자를 공격하는 예도 찾아볼 수 있다.

是夜我軍數百人縋城而下 帝聞之 自至城下 召兵急擊 我軍死者數十人 餘軍退走(『三國史記』21 보장왕 4년 5월)

고구려군 수백 명이 밤에 줄을 타고 성곽을 내려왔으나, 태종에게 들켜 수십명이 죽고 나머지는 도망갔다는 것이다. 이와는 약간 경우가 다르기는 하지만 당군의 사비성 공격시 태자 효의 아들 문사가 좌우를 거느리고 밧줄에 매달려 성밖으로 내려왔다는 것도 흥미롭다.[19] 여기에서 삼국시대 읍성에는 아직 암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20] 성곽이 공격을 받을 때 비상통로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했기 때문에 성안과 밖의 연락은 상당히 힘들었다는 것도 확인된다.

이런 공격이 진행된 후 공격군이 성곽을 넘어들어 오게 되면 양측이 백병전을 벌리게 된다. 『三國史記』47 눌최전에

---

18) 공성전의 모습을 과장을 섞어 실감있게 표현한 『당유인원기공비』에는 백제부흥군이 유인원군을 공격하는 장면을 "성읍(城邑)을 모두 무너뜨리고 점차 중부(中部)로 들어가 우물을 메우고 나무를 베며, 집들을 무너뜨리고 태워버려서 지나는 곳마다 초토화시켜 남아있는 것이 없게 하였다. 흉악한 위세가 이미 드러나서 사람들이 모두 위협당해 복종하며 성채를 벌여놓고 영을 늘어세워 놓아 오래 머물러 있는 우리 군대를 공격해서 포위하였다. 운제(雲梯)로 굽어보고 지도(地道)로 환히 들여다보며, 돌과 화살이 유성처럼 떨어지고 비처럼 쏟아지며, 밤낮으로 계속해서 싸우고 아침 저녁으로 세력을 믿고 침범하면서도…"라고 하였다.

19) 『三國史記』28 의자왕 20년

20) 암문시설은 주로 산성에 설치된다. 그 설치시기를 대성산성에 16개의 암문이 설치되어 있어, 장수왕대에는 암문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손영식, 『한국의 성곽』, 주류성출판사, 2009, 609쪽)

奴張弓挾矢 在訥催前 射不虛發 賊懼不能前 有一賊出後 以斧擊訥催 乃仆 奴反與鬪俱死

이라 하듯이 화살을 이용한 접전이 벌어지다가 결국 칼과 도끼 등의 단거리 무기로 백병전이 벌어지고 성곽은 점령되게 되었다.

공자는 성곽에 깃발을 꽂음으로써 점령을 상징화시켰다. 요동성 함락 이후 백암성 성주 손대음은 스스로 항복을 청하여 성위에 깃발을 세우니

(孫)代音立幟 城中人以爲唐兵已登城 皆從之(『三國史記』 21 보장왕 4년 5월)

성안 사람들이 성이 점령된 것으로 알고 모두 손대음을 따랐다고 하였다. 당의 사비성 공격에서도 이를 찾을 수 있다.

定方令士超堞 立唐旗幟 泰窘迫開門請命 於是 王及太子孝 與諸城皆降(『三國史記』 28 의자왕 20년)

소정방이 성곽에 깃발을 세우자 왕자 태가 성문을 열고, 다른 성들도 항복하였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깃발이 성곽에서 나부낀다는 것은 이제 성곽이 완전히 점령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 지상전

지상전의 예로 우선 황산벌전투를 들 수 있다.

D-1) 階伯 百濟人 仕爲達率 唐顯慶五年庚申 高宗以蘇定方爲神丘道大摠管 率師濟海 (중략) 遂盡殺之 至黃山之野 設三營 遇新羅兵將戰(『三國史記』 47, 계백)

D-2) 至唐顯慶五年庚申 王出師 與唐將軍侵百濟 以官昌爲副將 至黃山之野 兩兵相對(중략) 官昌 曰唯 卽上馬橫槍 直擣敵陣 馳殺數人 而彼衆我寡 爲

賊所虜 (『三國史記』 47 관창)

D-3) 秋七月九日 庾信等進軍於黃山之原 百濟將軍階伯擁兵而至 先據嶮 設三營以待 庾信等分軍爲三道 四戰不利 士卒力竭,(『三國史記』 5 태종무열왕 7년)

D-4) 盤屈 曰謹聞命矣乃入陣力戰死(신라본기 5 태종무열왕 7년 7월9일)

D-5) 秋七月至 黃山 之原値百濟將軍 階伯 戰不利 欽春 召子 盤屈 曰爲臣莫若忠爲子莫若孝見危致命忠孝兩全 盤屈 曰唯乃入賊陣力戰死(『三國史記』 47 김영윤)

660년 7월 9일 계백이 도착한 곳을 黃山之野(D-1),D-2)),黃山之原(D-3))으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관창전에 黃山之野에서 兩兵相對했다는 표현으로 보아 성곽을 두고 양측이 대립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양측이 진을 치고 대립했다고 보인다. 양측이 진을 치고 대립했기 때문에 관창이 말을 타고 直擣敵陣할 수 있었다. 반굴 역시 '乃入敵陣'이 가능했었던 것도 지상전이었기 때문이다.[21] 이런 점들로 미루어보아 황산벌전투는 지상전이었다.

지상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 營을 설치했다. 계백이 3영을 설치한 것을 보고, 김유신도 이에 맞서 군사를 셋으로 나누었다. 이를 3道, 혹은 3軍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각 영은 단위부대로 구분되었음을 알겠다. 각 영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라군이 조천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양산 아래에 영을 구성하였는데

抵百濟之地 營陽山下 欲進攻助川城 百濟人乘夜疾驅 黎明緣壘而入(『三國史記』 47 김흠운)

이라 하여 영의 외측에는 적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쌓은 '壘'라고 불리는 간단한 시설이 찾아진다. 혹은 적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깊은 구덩

21) 서정석, 「의자왕의 전략과 황산벌전투」, 『황산벌전투 조명 학술대회』, 2009, 논산문화원 87쪽

이를 파놓은

庾信 時爲中幢幢主(중략)迺跨馬拔劒 跳坑出入賊陣(『三國史記』 41, 김유신)

'坑'이라고 불리운 시설도 있었다.[22] 사실 누와 갱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이다. 갱을 만들기 위해 파여진 흙을 쌓으면 누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누의 존재는 649년 8월 도살성 아래에서 영을 설치했던[23] 김유신의 부대에서도 찾아진다.

今日必有百濟人來諜 汝等佯不知 勿敢誰何 又使徇于軍中曰 堅壁不動 待明日援軍至(『三國史記』 42 김유신 중)

위 사료의 堅壁不動의 벽은 바로 누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 추정된다.[24] 이런 壘와 갱은 공격을 위한 행군도중에 본대를 기다리면서도 마련되었다. 645년 5월 요택을 먼저 건넌 강화왕 도종은 신성과 국내성 보기 4만명과 부딪혔다. 이때 深溝高壘하여 황제 본대를 기다리는 것이 낫다는 건의가 있었으나 도종은 이를 무시하였다. 이처럼 부대가 잠시 머무르는 곳이면 방어를 위한 시설로 누와 갱을 만들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누와 갱의 안쪽에 각 제대 별로 진을 구성하기 용이한 대형을 갖추면서 숙영시설이나 취사시설 등이 설치되었을 것이다. 각 제대별로 지휘소를 갖추었을 것이며, 영의 중앙이나 지휘에 용이한 곳을 택해 총지휘부

22) 옥산서원본이나 정덕본에는 모두 '玩'으로 새겨져 있으나, 문장의 의미를 중시하자면 '坑'이 맞을 것이다. 이병도 교감 『三國史記』에서도 이를 坑으로 판독하였다.

23) 김유신이 영을 설치했던 장소가 도살성의 안이었는지 밖이었는지에 따라 지상전이었는지 성곽전이었는지가 결정될 것이다. 앞의 사료에서 陽山下라고 되어있듯이 道薩城下의 표현은 도살성의 성안이 아닌 성밖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정적인 것은 김유신의 지휘소로 사용된 곳을 幕으로 표현된 점이다. 막이란 임시적인 시설물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안이라면 내구적인 건물을 지휘소로 사용했을 것이다.

24) 이 사료의 해석을 이병도는 성벽으로, 정구복 외 역주 『三國史記』에서는 신라본기를 역주한 사람은 성벽으로, 김유신열전을 해석한 사람은 진지로 해석하여 각각 다르다. 필자는 후자, 즉 임시로 구축된 진지의 벽으로 보고자 한다.

도 세워졌을 것이다. 김유신이 649년 8월 은상의 석토 등 7성 공격에 지원군으로 참전했을 때 10여일의 전투를 치른 후 재전투를 위해 도살성 아래에서 주둔하였다. 이때

> 於是屯於道薩城下 歇馬餉士 以圖再擧 時有水鳥東飛 過庾信之幕 將士見之 以爲不祥(『三國史記』42 김유신 중)

라고 하여 김유신의 장막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것은 황산벌전투에서 관창이 사로잡혀 계백의 앞으로 끌려갔다는 사실에서도 유추될 수 있을 것이다. 계백의 앞으로 끌려갔다는 의미는 계백의 총지휘소 앞으로 끌려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루와 막사의 존재를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는 전투도 있었다. 613년 수 양제의 고구려 침공시 양현감의 반란으로 양제가 철군할 때 요동성의 고구려군이 살펴보니

> 軍資器械攻具 積如丘山 營壘帳幕 案堵不動(『三國史記』20 영류왕 24년 4월)

군수품과 무기가 산처럼 쌓여있고 보루와 지휘소가 예전 그대로 였으나 수군이 그대로 줄행랑을 쳤다는 것이다. 보루와 지휘소가 지상전을 수행하기 위한 軍營의 상징으로 여겨졌다고 하겠다.

이렇게 진영을 갖춘 양측은 본격적으로 전투에 돌입한다. 일단 전투가 시작되기 전 양측의 장수들이 나와 자기소개를 하였던 것 같다. 이것은 일본서기에서 관산성전투 직전 백제의 왕자인 창이 고구려장수와 함께 통성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 찾아진다.[25] 그 이후 전투가 행해졌을 것이다. 전투가 벌어지면 거의 전면전투가 행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황산벌전투에서 양군은 전면적으로 4번을 싸웠다. 하루에 4번의 전면전투가 있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한 번의 전투는 대략 한시간 정도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양측이 대형을 정비할 시간을 가진 다음 다시 전투를 시작했다고 보여진다.

---

25) 『日本書紀』19, 欽命紀 14년(553) 冬 10월

이런 전면전투 후 정비시간에 반굴이나 관창의 개인적인 무용 전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전면전투에서 선봉에 서서 무공을 세우면 무장으로서 인정을 받았던 것 같다. 온달이

> 時後周武帝 出師伐遼東 王領軍逆戰於拜山之野 溫達爲先鋒 疾鬪斬數十餘級 諸軍乘勝擊大克 及論功 無不以溫達爲第一 (중략) 賜爵爲大兄(『三國史記』45 온달)

후주와의 전투에서 선봉에 서서 승전으로 이끌자 국왕이 온달을 자신의 사위로 인정하며 대형 벼슬을 내렸다는 것이다.

지상전은 지형이 전투 승패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계백이 10:1의 병력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4번의 신라군 공격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험한 지형을 선점하고 있었던 지형적 이점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반굴이나 관창의 장렬한 죽음을 목격한 신라군의 분기탱천한 공격까지 감당해내기에는 중과부족이었다.

지상전에서는 역시 병력운용, 즉 전술과 진법이 전투의 승부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다. 고구려의 15만 대군이 당 태종의 3만의 병력에 여지없이 깨뜨려졌었다. 병력운용이 전투의 승부에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15만 대군이 3만의 병력에 어찌 그리 힘없이 무너졌는지는 의문이지만, 여하튼

> 延壽等獨見 李世勣軍少 勒兵欲戰 帝望見無忌軍塵起 命作鼓角擧旗幟 諸軍鼓噪並進 延壽等懼 欲分兵禦之 而其陣已亂(『三國史記』21 보장왕 4년 5월)

이세적군을 쫓던 고연수 등이 갑자기 장손무기와 태종의 군을 맞게 되어 군진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시기를 놓치자 군진이 순간적으로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다.[26] 군진이 병력운용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가를

---

26) 병력운용으로 군진만큼 중요한 것은 찾을 수 없지만, 한번의 전투 패배가 곧 그 전투의

여실히 보여주는 예이다. 병력 수보다는 운용이 중요했다는 예로 또 신라와 백제의 아막산성 전투를 들 수 있다. 이 전투에서 신라의 甲卒 1천에게 백제의 4만 병력이 전멸하다시피 했다.[27] 고대의 전투 승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던 듯싶다. 그리고 단기간에 치러진 전투에서도 승패의 기복이 매우 심하였다. 아막산성전투의 경우 백제의 패색→신라의 패색→신라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현존하는 자료상에 의하는 한 전투 승패의 요인으로 사기만큼 또 중요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김유신이 불리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방법으로 나이 어린 화랑들의 희생을 강요하여 병사들의 전투의욕을 북돋아 죽음을 무릅쓴 사생결단의 승부를 강요했던 것은 너무나 유명하다.

평지전은 성곽전과는 달리 전면전투가 이루어져 전투가 며칠동안 지속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루 아니면 이틀의 짧은 기간에 승부가 결정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했기 때문에 군사의 사기와 지형, 병력운용과 진법 등이 단기간에 승부를 결정짓는 지상전에서는 더없이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고 하겠다.

4. 지휘·연락체계

전장으로 떠나는 총지휘관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졌을까. 김유신은 고구려의 唐營으로 떠나기 전 국왕으로부터

종국적인 승패로 연결되었다기 보다는 대야성전투와 같이 여러 차례의 승패의 반복으로 전투의 결과가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연수 등이 대군을 거느리고서도 그렇게 한 차례의 패배로 항복을 청했다는 것은 얼른 이해되지 않는다.

27) 帥步騎四萬 進攻其四城 新羅將軍 乾品·武殷 帥衆拒戰 解讎不利 引軍退於泉山西大澤中 伏兵以待之 武殷乘勝領甲卒一千 追至大澤 伏兵發急擊之 武殷墜馬 士卒驚駭 不知所爲 武殷子貴山 大言曰 吾嘗受敎於師 曰士當軍無退 豈敢奔退 以墜師敎乎 以馬授父 卽與小將箒項揮戈力鬪以死 餘兵見此益奮 我軍敗績 解讎僅免 單馬以歸(『三國史記』27 무왕 3년 8월)

將行王以手書 告庾信 出彊之後 賞罰專之可也 (『三國史記』 42 김유신 중)

이라 하여 상벌권을 부여받았다. 그 권한에 의해 전장에서 열기와 구근에게 각각 급찬을 부여해 주었다. 이런 권한부여는 전장으로 떠나는 장군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권한이라고 하겠다.[28] 지휘관은 이 상벌권으로 지휘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권한도 한계가 있었다. 벌을 주는 것은 즉결처분권이 주어졌으리라 추정되기 때문에 한계가 없었지만, 상을 주는 것은 그렇지 않았다. 평양성 부근의 소정방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연락병 임무를 수행한 열기와 구근에게 김유신은

時裂起以步騎監輔行進 裂起又兩日迴(중략) 庾信嘉其勇 與級湌位(『三國史記』 42 김유신 중)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에 따라 급찬을 사여해주었다. 김유신은 귀환 후 왕에게 다시

及軍還 庾信告王曰 裂起·仇近天下之勇士也 臣以便宜 許位級湌 而未副功勞 願加位沙湌 王曰沙湌之秩 不亦過乎 庾信再拜曰 爵祿公器 所以酬功 何謂過乎 王允之(『三國史記』 47 열전 7 裂起)

열기와 구근에게 사찬을 수여해주도록 건의하였다. 이로 보아 전장의 김유신에게 주어진 최대의 권한은 급찬을 사여해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찬 이상은 국왕의 재가를 얻어야 했음을 알 수 있다.

전장에 나가는 대장군에게 국왕이 편의적인 상벌의 권한(편의종사권)을

28) 이를 중국사에서는 便宜從事權이라고 하였다. 편의종사권에 대한 언급은 김한규, 「남북국시대의 중국적 세계질서와 고대 한국의 막부제」, 『한국고대의 국가와 사회』, 1985, 159~160쪽 참조. 신라 장군은 전시 출정의 상황에서 용병·작전 등의 일반적인 지휘권과 더불어 상벌의 권한까지 내포된 군령권을 행사하는 존재이다.(이문기, 『신라병제사연구』, 1997, 302쪽)

주었다면, 예하부대의 장군들에게는 어떠한 권한이 주어졌을까. 이를 적기 해준 기록은 없지만, 단편적인 다음의 기록을 통해서 유추해보도록 하자.

> 唐高宗大怒 遣師來討 唐軍與靺鞨 營於石門之野 王遣將軍義福春長等禦之 營於帶方之野 時長槍幢獨別營 遇唐兵三千餘人 捉送大將軍之營 於是諸幢共言長槍營獨處成功 必得厚賞 吾等不宜屯聚 徒自勞耳 遂各別兵分散 唐兵與靺鞨乘其未陣擊之 吾人大敗 將軍曉川義文等死之(『三國史記』43 김유신 하)

이 기록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장창당이 독자적으로 진영을 갖추었다는 것은 이해된다. 장창당을 비롯한 예하부대의 진영을 갖추는 것은 대장군의 의도하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장창당의 전과에 고무되어 다른 예하부대가 대장군의 명령없이 각기 진영을 독자적으로 갖추어 병력을 분산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 기록은 김유신의 아들 원술이 석문전투에서 죽지 못한 까닭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단계로 서술된 부분이다. 특별하게 패전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엿보이지 않는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우선 기록에 한정하는 한 예하부대의 장군이 특수한 상황에 처하면 독자적인 판단하에 부대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예하부대의 장군에게 임기응변의 독자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 夏五月初 諸將之東下也 帝戒之曰 凡軍事進止 皆須奏聞待報 無得專擅 遼東數出戰 不利 乃嬰城固守 帝命諸軍攻之 又勑諸將高句麗若降 則宜撫納 不得縱兵 遼東城將陷 城中人輒言請降 諸將奉旨 不敢赴期 先令馳奏 比報至 城中守禦亦備 隨出拒戰 如此再三 帝終不悟 旣而城久不下 (『三國史記』20 영양왕 23년 5월)

이라 하여 전투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지휘관의 결단을 요구하는 동안 적에게 숨돌릴 시간을 주게 되어 오히려 전투에 역효과를 내게 하는 결

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로 보아 대장군 휘하의 예하부대 장군들에게는 전투시 나름의 독자적인 부대운용 권한이 주어졌을 사료로 이해하고 싶다. 석문전투의 경우 장군들의 독자적인 부대운용은 때로는 병력을 분산시켜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자초하기도 하였다. 어찌되었던 총지휘관의 명령을 받는 지휘관급 장군들도 군대를 지휘하기 위한 일정한 권한을 총지휘관으로부터 위임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으로 적을 공격하기 앞서 군영을 차리고 있었을 때 적과 아군을 구분해줄 어떤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앞 장에서 살펴본 공격이나 방어간에 설치한 군영 출입시 서로를 전부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정한 검문·검색이 필요했다고 생각된다. 649년 석토 등 7성 전투에서 도살성 아래에서 재집결한 김유신군이

> 今日必有百濟人來諜 汝等佯不知 勿敢誰何 又使徇于軍中曰 堅壁不動 待明日援軍至(『三國史記』 42 김유신 중)

백제인 첩자 침투를 예견하고 誰何를 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誰何가 바로 검문이다. 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약속이 있었을 것이다. 약속에는 비표, 암구호, 공인신분증 등 다양한 방법을 추정해볼 수 있다.

부대가 행군할 때도 어떤 형태로든지 서로 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612년 수의 군 출동시에 보이는

> 日遣一軍 相去四十里 連營漸進 終四十日發乃盡 首尾相繼 鼓角相聞 旌旗亘九百六十里(『三國史記』 20 영양왕 23년 1월)

부대간의 거리가 40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간에 접촉을 유지하기 위하여 鼓角이 서로 들릴 수 있게끔 수미를 유지하였다. 이것은 행군시 부대와 부대 사이의 연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아군끼리는 미리 연락방법을 정하여 어떻게든 지휘계통을 확립할

수 있었지만, 나당연합군처럼 연합군의 경우 서로간에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 김유신이 평양으로 군량을 수송해줄 때, 군량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리고 연합작전의 의도를 묻는 연락병을 파견하자.

> 庾信先遣 然起·兵川等二人 問其會期 唐帥蘇定方 紙畫鸞犢二物迴之 國人未解其意 使問於 元曉法師 解之曰 速還其兵 謂畫犢畫鸞 二切也 於是庾信迴軍 (삼국유사 1 태종춘추공)

난새와 송아지를 그려 보냈다고 하였다. 이것은 비록 설화적 형태로 남아 전해지는 것이지만, 글로 표현하면 만약의 경우 적에게 군사작전을 알려주는 염려를 고려한다면 상당히 흥미로운 자료이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글이나 그림으로 연합군끼리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 실제 전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어떤 방법으로 명령을 하달하고 수행되었을까를 살펴보자. 전투가 진행되는 과정과 명령하달과정을 다음 사료에서 너무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 金鼓旗麾總讚 금고기휘총찬
> 兩軍相接(양군상접) 양군이 어울려 싸우면
> 煙塵漲天(연진창천) 먼지가 하늘을 가린다.
> 呼吸之間(호흡지간) 숨 한번 쉬는 사이에
> 機變倍天(기변배천) 수없는 변화가 생긴다.
> 左右進退(좌우진퇴) 좌로 우로 앞으로 뒤로
> 紛紛紜紜(분분운운) 눈코 뜰 새 없다.
> 令之莫及(영지막급) 호령도 통하지 않고
> 叫之莫聞(규지막문) 고함도 들리지 않는다.
> 毫釐或差(호리혹차) 털끝만큼만 틀려도
> 千里是違(천리시위) 천리의 차이가 난다.
> 何以整之(하이정지) 무엇으로 정돈 하는가
> 金鼓旗麾(금고기휘) 금고와 기휘로다.

進之以鼓(진지이고) 나아갈 때는 고를 울리고
退之以金(퇴지이금) 물러설 때는 금을 친다.
麾之角警(휘지각경) 휘로서 지시하고 각으로 경고하여
萬夫一心(만부일심) 많은 사람의 마음을 한데 모은다.
善陣不戰(선진부전) 진을 잘 치면 싸우지 않아도 이기고
善敗不亡(선패불망) 계획성 있게 패하면 망하지 않는다.
陣無常形(진무상형) 진은 일정한 모양이 없으니
後賢詳之(후현상지) 뒷 사람은 자세히 살필지어다.

이 사료는 조선초기 정도전의 삼봉집에서 인용한 것이다. 시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고대의 전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인용하였다. 전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병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앞으로 달려드는 적을 제압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이때 명령을 받아드릴 경황도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 명령을 하달해야만 하는 지휘관은 어떻게 했을까. 아무리 큰소리를 내는 기구라 할지라도 평상시 접해보지 못한 소리라면 효과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평상시 거듭된 훈련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소리라야 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고기휘가 전투시 명령하달에 사용되었다. 고는 북소리이다. 북소리는 사람에게 전투의욕을 불러일으킨다. 당연 전투의 시작과 전진을 알리는 신호이다. 금은 징소리이다. 날카로운 징소리는 거의 정지와 후퇴명령에 사용되었다. 북소리를 군대가 전진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많이 찾아진다. 대표적인 사례로 황산벌전투에서

品日執其首 流血濕袂 曰吾兒面目如生 能死於王事幸矣 三軍見之 慷慨有死志 鼓噪進擊 百濟衆大敗 堉伯死之(『三國史記』5 태종무열왕 7년 7월 9일)

품일이 그의 아들 관창의 목을 들어보이면서 군대를 격려하자 신라군이 鼓噪進擊했다는 것이다. 징소리의 사례는 찾기 힘들다. 중국측의 사례를 살피면

陵至浚稽山 與單于相直 騎可三萬圍陵軍 軍居兩山間 以大車爲營 陵引士出營外爲陳 前行持戟盾 後行持弓弩 令曰 聞鼓聲而縱 聞金聲而止 (漢書 54 李陵)

漢書에서 李陵이 계곡에서 흉노에게 포위되어 있을 상황에서 북소리에 공격하고 징소리에 멈추라는 예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전투에서 규칙으로 어떤 기구의 소리를 가지고 공격과 후퇴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었다. 다음 예를 보자.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여러 장수(將帥)를 불러서 타위법(打圍法)을 강(講)하게 하였다. 그 법(法)에 이르기를, "타위(打圍)할 때 호랑이 · 스라소니 · 돼지 · 사슴 등을 보고 여러 위(衛)에서 다투어 잡다가, 만약 황룡기(黃龍旗) · 교룡기(交龍旗)를 세우면, 본소(本所)로 돌아가고, 초요기(招搖旗)를 세우면 장수(將帥)가 와서 교룡기(交龍旗) 아래에 서는데, 여러 장수(將帥)가 모두 온다."하고 또 여러 장수에 명하여 휘하(麾下)에 3인을 거느리고 뜰에 나누어 주둔(駐屯)하여, 혹은 징〔金〕소리에 나아가고 북〔鼓〕소리에 물러가기도 하고, 혹은 북소리에 나아가고 징소리에 물러가면서 변율(變律)의 법(法)을 익히게 하였다.(조선왕조실록 세조 43권, 13년 8월 5일(무술))

북소리와 징소리의 변율법을 익히게 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그러하다. 각각의 전투에서 미리 약속을 해놓으면 되는 것이다.

지휘관은 어느 곳에서 전투를 지휘했을까. 사방을 감제할 수 있는 곳으로 전투장소보다는 약간 높은 지형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료는

其後帝自將步騎四千 挾鼓角偃旗幟登山 帝勑諸軍 聞鼓角齊出奮擊(『三國史記』 21 보장왕 4년)

으로 당 태종이 산에서 旗幟와 鼓角으로 지휘를 하여 고혜진과 고연수의

15만 대군을 무릎꿇렸다는 것이다. 높은 곳에서 깃발을 휘날려 진형을 변형시켰으며, 고각을 통하여 군대의 진퇴를 지휘하였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사료상에 드러나는 7세기 전투모습을 재현하기 위하여 복원 가능한 행군속도와 전투유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상과 전투시 지휘와 연락체계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7세기 전투시 행군속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황산벌전투와 김유신이 당군에게 식량을 수송하기 위한 평양성 수송작전 사료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대략 하루 30여리 정도의 이동속도를 추정해볼 수 있었다. 군대의 행군속도를 일률적으로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행군에 어려운 지형을 만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이동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살수에서 패배한 수군이 만 하루만에 450리를 이동한 경우도 있었다. 하루 30여리의 행군속도는 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적의 기습에 대비하여 대형을 갖추고 치중부대와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동했을 상황에 해당된다.

전투의 유형을 크게 성곽전과 지상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성곽전을 대비한 본진은 일반적으로 대략 목표지점 30~40여리 전방에 설치되었다. 성곽전투시 공자와 방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과 식량이었다. 전투를 시작하기 전 양측은 적군의 사기를 죽이기 위하여 기싸움을 벌였다. 기싸움 이후에는 성벽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자를 메웠다. 이어 포차와 충차공격을 하였으며, 화공 또는 충제와 어량대도를 이용한 공격이 행해졌다. 이렇게 성벽을 확보하면 최후로 백병전이 벌어지고 성곽에 깃발을 꽂아 전투가 끝났음을 상징화시켰다.

지상전을 치루기 위해서도 먼저 본영이 설치되었다. 본영에는 각 제대별로 독립된 소영을 설치하였다. 각각의 영에는 누와 갱을 설치하여 적군의

접근을 차단시켰다. 그리고 소영을 지휘하는 지휘소와 본영을 지휘하는 총지휘소가 설치되었을 것이다. 짧은 시간에 승패를 결정지었던 지상전은 군대의 사기와 지형, 병력운용과 진법이 승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전장으로 나아가는 총지휘관에게는 국왕으로부터 한정된 편의종사권이 부여되었다. 총지휘관의 명령을 받는 지휘관급 장군들도 군대를 지휘하기 위한 일정한 권한을 총지휘관으로부터 위임받았을 것으로 짐작하였다. 지휘를 위한 연락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검문·검색을 위한 일정한 약속이 있었으며, 행군시에도 고각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게 하여 지휘·연락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면 먼지가 하늘을 가리고 호령과 고함이 들리지 않는 실제 전투에서는 어떻게 지휘할 수 있었을까. 금고기휘가 그 해답이었다. 일반적으로 북소리에 진격하고 징소리에 퇴각하고 깃발로 진형을 변형시켰다.

(원고투고일 : 2011. 9. 15, 심사수정일 : 2011. 11. 10, 게재확정일 : 2011. 11. 18)

주제어 : 행군속도, 전투유형, 성곽전, 지상전, 지휘체계, 편의종사권, 연락체계, 금고기휘

<ABSTRACT>

The Exploration of Ancient Battles in the 7th Century in the Three Kingdoms

Kim, Joo-sung

The present study is designed to explore the various patterns of battles and commanding as well as communication systems that became different depending on the marching speed and types of actions employed in the 7th century warfare in an attempt to revive them in compliance with the available historical record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marching speed in the 7th century warfare, a survey was made into the materials showing the transportation strategies in the Hwangsanbeol Battle and in the Pyeongyang Castle to which Kim, Yushin tried to deliver food for the soldiers from Tang Dynasty, China. Judging from the geographical conditions, it might be possible to presume that the soldiers moved approximately 30 ri or 12 km a day, although no general rule could be applied to the marching speed of soldiers because it could differ should there be rugged mountain range difficult or impossible to crossover. In an extreme case, for example, the Naval Forces defeated at Salsu River moved even as far as 450 ri in just a day. The marching speed of about 30 ri a day can be normally attained under the assumed situation in which a military unit moves in a battle formation preparing for any attack from the enemy while maintaining a certain distance from the supply unit.

The types of battle were divided into the castle and ground warfare for examination here. The commanding post was usually positioned about 30~40 ri in advance apart from the target in preparation for castle

warfare. Water and food were crucial for both attacking as well as defending sides in the castle warfare. Before start of warfare, both parties were usually engaged in a pre-stage of sprit war to dishearten the enemy soldiers. After the spirit war is over, the attacking force began to fill up the moat to ease approach to the castle. Thereupon, attack started by means of gun carriages, pushing vehicles, fire and mounts of clay bags. Once a castle was occupied by the attacks, fighting with swords and bayonets raged in the final stage of the warfare, with the winner hoisting the flag on the castle to declare sign of its victory.

For the ground warfare, a commanding camp too was established in the first place and independent unit of lesser scale was affiliated with it for each echelon. Each camp was protected by a tower with lookout and a pit to keep away the enemy. There must have been the chief commanding post to take command of small camps. The moral of soldiers, ground condition and strategies to operate military force and battle array might be a key to decision of victory or defeat in the ground warfare that did not take long to its closure.

The commanding chief of staff who was about to go to the battle field was given by the king a limited free hand to exercise subject to situation. It might also be assumed that the commanding chief delegated some portion of his authority to the commanders under his control to enable them to operate their units respectively. There were certain agreements for check-up and search to ensure correspondence between the commanding post and commanded units. During a march, there was a rule to maintain certain distance between units to allow supervision and liaison without a hitch. How could it be possible to direct military units in actual battle where dust clouds shut the sky and orders were overshadowed by yells and shouts? The answer is drum and flag; that is, soldiers marched forward at the sound of drum, retreated at the sound of gong and changed their echelon formation by signal of flag.

Key Words : The Marching Speed, the Types of Battle, the Castle Warfare, the Ground Warfare, the Commanding System, a Limited Free Hand to Exercise Subject to Situation, the Liaison System, Drum and Flag

조선 세종대 진법서 편찬과 훈련체계의 개편

윤 훈 표*

1. 머리말
2. 표준화 시도와 1421년 진도법의 공포
3. 계축진설의 편찬과 훈련체계의 개편
4. 맺음말

1. 머리말

세종대 제도 문물의 정비 작업이 일대 전기를 맞이하였다. 군사 분야에도 많은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진법서의 편찬이 포함되었다. 두 차례 이루어졌으며 그에 의해 훈련 체계도 개편되었다.

진을 치는 일은 전근대 전투에서 가장 기본에 속했던 것으로 그 중요성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측 진을 지키고 적진을 분쇄하는 것이 승부의 관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갑자기 되는 일은 아니고 평상시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했다. 나아가 조직 편제도 그에 적합하게 구축해 놓아야 실전에 임해 혼란 없이 전개시킬 수 있

* 경찰대학교 강사

었다. 그러므로 우수한 진법 교범의 편찬과 함께 효율적인 훈련 체계의 수립이 긴요했다.

이미 고려 말기부터 어지러움을 극복하고자 했던 조선 태조는 진법을 온전히 갖춰 훈련시키는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의 재위 시절 정도전이 중심이 되어 수립했던 진법과 훈련 체계는 후대의 이정표가 될 정도로 의미가 컸다. 하지만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 등이 제거당했던 것과 함께 군제 개편의 방향이 바뀌면서 개정이 불가피했다. 이어 등장했던 태종 정권도 요긴함에 대해 공감했으나 성격상 계승이 곤란했기 때문에 별도로 장만해야 했다.

그런데 세종대에 이르러 전과 차원이 다른 정비 작업이 추구되었다. 앞선 성과들을 종합하는 가운데 전군을 망라할 수 있는 일원화된 새로운 표준안의 마련에 힘을 쏟았다. 단순히 기존의 것을 적당히 손질하여 답습하는 정도가 아니라 초창기의 것부터 철저히 검토해서 가감하되 적어도 원리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중국의 고전적인 것도 과감히 수용하였다.

세종대 2차례에 걸쳐 진법서가 나왔는데 이는 새로운 표준안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본고에서는 그 각각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무슨 연유로 2차례나 이루어졌는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동시에 실전에 활용됨을 전제로 삼았는데 이는 훈련을 통해 검증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새로운 진법서는 어떤 형태로든 훈련 체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한 검토를 통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해명해 보려고 한다.

흔히 세종대의 진법서는 전기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오위진법』의 모체로 평가된다.[1] 당연히 『오위진법』의 제대로 된 이해를 위해서도 세종대 나온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모체에 해당되는 것의 분석 없이 제대로 된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종대 것에 대한 고찰은 자체의 이해를 높이는 것뿐 아니라 전기 진법과 그 훈련 체계의 성격을 밝히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세종대에 간행된 진법서는 현재까지 실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단

1) 정해은, 『전통병서의 이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4, 76쪽.

지 원문이 『세종실록』에 실려 있을 뿐이다. 지금 상태로는 전체를 온전하게 해명하는 것은 곤란하며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 그칠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본고의 한계가 분명하다. 일단 기존 연구에 따라 1차로 1421년(세종 3)에 나온 것을 陣圖法으로, 1433년(세종 15)에 편찬된 것을 『癸丑陣說』로 명명한다.[2] 그리고 그에 입각해서 논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진법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일차로 전기의 대표적인 진법서들이 번역되었다는 사실이 각별하다.[3] 이로 인해 텍스트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졌다. 더불어 각각, 또는 『오위진법』에 이르기까지의 발전 추이, 나아가 후대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해명 작업도 추구되었다.[4] 한편 그 동안의 성과에 힘입어 전통 시대의 병서에 대한 해제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세종대 진법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것도 나왔다.[5] 아울러 진법 훈련에 대해서도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졌다.[6]

이상의 성과들로 기본적인 사실 관계의 파악 및 그 의미 등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밝혀졌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진법서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초창기 정도전의 『진법』이 역사적으로 재평가되면서 심도 높은 고찰이 이루어졌으나 그 이외의 것들은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7] 더불어 그들이 훈련 체계의 개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진 바가 없다. 그러므로 조선전기 진법 및 훈련 체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고찰이 필요하다. 특히 제도 문물의 정비에 일대 전

2) 유재호·성백호·임홍빈 역,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兵將說·陣法』, 1983
3) 유재호·성백호·임홍빈 역,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兵將說·陣法』, 1983
4) 許善道, 「〈陳法〉考-書名 〈兵將圖說〉의 잘못을 바로잡음-」 『歷史學報』 47, 1970; 黃秉國, 「조선조의 진법 고찰」 『軍史』 15, 1987; 河且大, 「朝鮮初期 軍事政策과 兵法書의 發展」 『軍史』 19, 1989; 최홍록, 「리조초기의 첫 군사훈련교범인 '진도'와 정도전의 '진법'에 대하여」 『력사과학』 1992; 김광수, 「鄭道傳의 「陣法」에 대한 고찰」 『육사논문집』 50, 1996; 盧永九, 「宣祖代 紀效新書의 보급과 陣法 논의」 『軍史』 34, 1997; 김동경, 「정도전의 『진법(陣法)』과 태조대 군사력 재건」 『한국문화』 53, 2011
5) 정해은, 「진도법」·「계축진설」 『전통병서의 이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4
6) 閔賢九, 「陣法訓鍊의 强化」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硏究院, 1983; 곽낙현, 「조선전기 習陳과 군사훈련」 『동양고전연구』 35, 2009; 김동경, 「조선초기의 군사전통 변화와 진법훈련」 『軍史』 74, 2010
7) 정도전의 진법에 관해 주4)의 河且大, 김광수, 김동경 등의 연구가 주목된다.

기가 되었던 세종대의 그것에 대한 해명은 시급하다.

이제 세종대 편찬된 진법서와 그와 연관해서 훈련 체계의 개편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하되 제1장에서는 표준화가 새롭게 시도된 이유와 과정, 그리고 그 결실인 1421년 진도법의 공포 문제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1절에서는 세종대에 들어와 표준화를 시도했던 이유와 그 모델로서 五行陣法을 새롭게 조명하는 작업을 주도했던 卞季良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절에서는 그 결실로 1421년에 공포된 진도법의 내용과 그로 인해 훈련 체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는 세종대 첫 번째 표준화 시도였던 진도법의 의미를 해명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2장에서는 진도법을 수정, 보강해서 『계축진설』을 편찬하게 된 연유와 내용, 그 의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1절에서는 『계축진설』의 내용 파악을 통한 수정 및 보강의 성격을, 2절에서는 그에 따른 체계 개편과 의미 등을 다루고자 한다.

이로써 전기 진법 체계를 이해하는 단서를 찾는 동시에 앞 시기의 성과들과 그 결정판인 『오위진법』을 연결시키는 고리를 파악하고자 한다.

2. 표준화 시도와 1421년 진도법의 공포

1) 시도의 배경과 변계량의 진법설 원리

왕자의 난으로 집권한 태종 계열은 사병 혁파를 계기로 본격적인 군제 개편에 나섰다. 정국 안정과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다. 그 때 역점을 두었던 사안 중의 하나는 장수와 병사 사이에 오래 전부터 내려왔던 사적인 영속 관계를 철폐하고 공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일이었다. 시대 상황과 관련이 깊어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 과정에서 강조되었던 것은 전력을 증진시키는 방도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종래에는 병사들이 혈연이나 지연 등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았다. 이

는 사적인 관계를 조장하는 폐해가 없지 않으나 위급한 순간에는 위력을 발휘했다.[8] 하지만 공적인 지휘 체계를 위협하는 요소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철폐시켜야 했다. 문제는 그 대안이다. 공적인 질서가 유지되면서도 결정적일 때 마치 한가족처럼 서로 구원할 수 있어야 했다.

태종 정권에서는 그 방도를 지휘관 양성 방식의 변모와 훈련 체계의 개편에서 찾았다. 전자는 무과 실시라든가 새로운 시취 병종의 설치 등으로 표현되었다.[9] 후자에 대해서는 특히 진법 훈련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중앙 중심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전국에 걸쳐 체계화되지 못했다.[10] 일단 표준화된 진법을 만들고 중외에 걸쳐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다. 아울러 제대로 연습했는지를 점검하는 장치의 갖춤도 필수였다. 이것이 없다면 지난 시절에 만들었던 방안을 다시 손질해서 내놓는 것에 불과할 것이었다.

우선 표준화된 진법을 만들어야 했는데 그 원리를 오행진에서 찾았다. 중국 병서인『李衛公問對』에 나오는 方·圓·曲·直·銳의 다섯 종류의 진형에 근거하되 상대방이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에 따라 능동적으로 변형하여 대처하는 것을 도입하고자 했다. 이는 특히 옛부터 익숙했던 음양오행설에 의거하여 움직였기 때문에 五行陣法이라고 했다.[11]

그러나 곤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조선은 제후국을 자처했기 때문에 三軍으로 편성되었다는 사실이다. 삼군을 오행진법에 맞춰 연습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제기되었다. 태종 후반기부터 검토하면서 세종 초기에 본격적인 정리 작업이 추진되었다. 그 때 상왕인 태종은 변계량에게 진법서를 완성하도록 명했는데, 1421년 5월 경에 완료했던 것 같다.[12] 그리고 곧 바로 시험에 들어갔다. 일단 대열 의식을 통해 관료들부터 시범적으로 연습시켰

8)『태종실록』권13, 태종 7년 1월 갑술
9) 車文燮,「鮮初의 甲士考(上,下)」『史叢』4, 5, 1959, 1960; 尹薰杓,「朝鮮初期 武科制度 硏究」『學林』9, 1987; 沈勝求,「朝鮮初期 武科制度」『北岳史論』1, 1989
10) 尹薰杓,「麗末鮮初 軍事訓鍊體系의 改編」『軍史』53, 2004, 208~210쪽.
11) 河且大, 앞의 논문, 106~107쪽.
12)『세종실록』권12, 세종 3년 5월 기묘

다.[13] 이어 삼군으로 확대하였다.[14]

하지만 곧 바로 확정해서 공포하지 못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세종실록』에 진도법의 원문이 수록된 것은 2개월이 지난 7월이었기 때문이다.[15] 아마도 그 사이에 편찬을 주도했던 변계량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진법을 놓고 상당한 논쟁이 오갔던 모양이다. 그런 사실이 변계량이 정리했던「陣說問答」에 수록되었다.

변계량은 益齋(李齊賢), 三峯(鄭道傳), 浩亭(河崙) 등의 설을 종합하여 오행진법을 구체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삼봉이 말한 '전충은 움직이지 않고 후충이 먼저 나가 적을 유인한다'는 설을 채택하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러 논자들은 우리나라의 지형은 평탄한 곳이 적은 반면에 험악한 곳이 많으므로 적을 만났을 때 후충을 먼저 나가게 하고 싶어도 되지 않으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가했다. 나아가 익재와 호정의 진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음에도 굳이 삼봉의 것을 따른 이유에 대해 따졌다. 변계량은 삼봉의 진법이 아군의 방어를 굳히는 치밀한 계책으로 고인이 제정한 진의 본뜻을 잘 이해했으며 다른 학설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16]

변계량의 주장은 그 의미하는 바가 컸다. 아마도 익재로부터 진법서 편찬이 본격화되었을 것이다. 뒤이어 삼봉의 것이 나왔는데 당연히 태조 때 기본으로 채택되었다. 그와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호정의 것은 태종 때 주목을 받았을 것이다. 태종이 정치를 주도하였던 세종 초창기였음에도 호정의 체계보다 삼봉의 설을 채택했던 것은 그 장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변계량은 고전적인 병법 이론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고전 이론을 완벽히 소화한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자연히 변계량이 주도했던 진도법은 이론적인 분위기가 짙을 수밖에 없었다.[17]

---

13)『세종실록』권11, 세종 3년 4월 병오
14)『세종실록』권12, 세종 3년 5월 기사
15)『세종실록』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16)『春亭集』권5,「雜著・陣說問答」
17) 河且大, 앞의 논문, 123쪽.

그리고 지형상의 문제로 후충이 먼저 나가 적을 유인한다는 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에 대해 변계량은 척후군을 제대로 운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그것이 五陣本法의 핵심이므로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장황할 정도로 진법 운용에 있어 오행설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오행에 구애되어도 곤란하지만 오행을 폐지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18]

그러자 다른 사람들은 삼봉의 후충이 먼저 나간다는 설을 따르면서도 또 적군과 먼저 부딪친 부대가 前隊가 된다고 해서 익재와 호정의 주장까지 아울러 취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졌다. 이는 상호 입론을 달리했던 진법 체계를 적당히 조화, 절충한데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혼란을 지적한 것이다. 변계량은 후충이 먼저 나간다는 것은 적군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진법이고 먼저 부딪치는 부대가 전대가 된다는 것은 갑자기 상대편을 만났을 때 상황 변화에 따라 대응하는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19] 상황의 변화에 맞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20] 하지만 그로 인해 양상이 복잡해졌다. 전충이 수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공격까지도 겸해야 했기 때문이다. 자연히 훈련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 진법 훈련에서 부대를 지휘하는 신호체계는 그 성패를 좌우할만큼 중요한 요소였다. 그런데 신호체계의 핵심인 旗와 麾에 대해 변계량은 양자를 확실히 구분하였던 삼봉의 체계를 따르지 않고 군사의 눈에 익숙하다는 이유로 익재와 호정에 따라 기만을 채택하였다. 5위마다 방위의 색깔에 따르는 方色旗가 있고 다시 각위마다 5所가 있는데 거기에도 해당 기가 있

18) 『春亭集』 권5, 「雜著 · 陣說問答」
19) 『春亭集』 권5, 「雜著 · 陣說問答」
20) 후충이 먼저 나아간다는 설과 적군과 먼저 부딪친 부대가 전대가 된다는 변계량의 주장에 대해 세종조차 납득하지 못했다. 오히려 中衛의 主將이 임시로 布置하여 혹은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기도 하며, 혹은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변계량은 오진본법과 제가의 진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둘 것을 청했다.(『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5월 신사). 대개 세종이 현실적인 이유로 의문을 제기했던 것에 대해 변계량은 고전 이론에 의거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론과 현실의 우위 문제가 세종대 진법 마련에서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음으로 말미암아 전체적으로 깃수가 너무 많아진다는 것이다. 군대의 이목이 가뜩이나 어지러운데 여기에 휘까지 더하면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익재와 호정의 것을 따랐다는 것이다.[21] 이에 이르러 변계량이 마련한 진법의 절충적인 면모가 확연해진다.

다음으로 기존의 三陣法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左軍과 前軍을 一陣으로 삼아 왼쪽에 두기도 하고, 右軍과 後軍을 일진으로 삼아 오른쪽에 두는가 하면, 혹은 좌군과 후군을 일진으로 삼아 왼쪽에 두고 우군과 전군을 일진으로 삼아 오른쪽에 두기도 했다. 그러나 변계량은 반드시 좌군과 전군을 일진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즉 진법은 반드시 오른쪽이 앞으로 움직여 방향을 회전해야 하기 때문에 直行할 경우에는 우군이 앞으로 나가고 좌군이 뒤로 물러서야 한다는 것이다.[22] 이로 인해 변계량이 구상한 삼진법에서는 전군이 왼쪽으로 물러가 좌군이 되고 후군이 오른쪽으로 전진하여 우군이 되어야 했다. 오위에서 삼진으로 전환하는데 종전에는 상황에 따라 전열을 형성하였으나 변계량의 체계에서는 한방향으로만 국한되도록 했다. 상황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칙에 의거해서 전열을 구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변계량의 진법은 대개 현실 상황에 대한 고려보다 고전 이론에 충실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에 충실했던 삼봉의 것이 우선 채택되어 기축을 형성했다. 익재와 호정의 것도 무시하지 않았다. 약간의 절충을 통한 조화를 꾀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고전 이론에 충실한 표준화가 추구되었다.

이로 인해 처음부터 이론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일이 문제가 되었다. 지나치게 현실은 중시하면 결국 종전의 것을 답습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고 이론에 치우치면 현실적인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다. 양자의 관계 설정이 세종대 진법 체계의 수립에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

21) 『春亭集』 권5, 「雜著 · 陣說問答」
22) 『春亭集』 권5, 「雜著 · 陣說問答」

2) 내용의 분석과 훈련체계의 정비

논란에도 불구하고 변계량의 설에 입각한 진도법이 1421년 7월 병조에 의해 보고되었다.[23] 변계량이 아닌 병조의 보고 형식을 빌려 공포되었던 것은 아마도 그 사이에 수정 내지 보완이 이루어졌던 결과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관련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진도법을 1433년의 『계축진설』과 함께 소규모부대의 기동과 전투에 대한 전술교범으로서 주로 산악전투를 연상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태종~세종 년간의 주된 관심사가 북방 여진족과의 전쟁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24]

병조에서 진도법을 올리며 첫머리에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 "陣圖의 법은 軍國의 급무이니 연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방의 군사가 전혀 진법을 연습하지 않고 있으니 실로 안 될 일입니다. 지금부터 각도의 절제사에 명하여 매번 농한기를 당하면 別牌와 侍衛, 營鎭에 속한 守城軍 등을 각기 부근에 모으고, 수령 가운데 진법에 밝고 숙달된 자로서 差使員을, 품관을 뽑아 훈도관으로 삼아서 진법을 미리 연습하게 하고, 절제사가 돌아다니면서 검찰하도록 할 것입니다. 대열할 때 검열을 받는 군사 중에서 만약 영을 범한 자가 있으면 도절제사와 차사원·훈도 등을 모두 율문에 따라 처벌할 것입니다."[25]

위에서 새로 마련된 진도법이 외방 군사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외방 군사에게 진법을 훈련시켜야 하는 이유 가운데 북방 여진족과의 전투에 대비하기 위한 것도 포함되었을 것이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이 당시 시급했던 과제는 외방 군사를 철저하게 훈련시켜 군사력을 증강하는 일이었다.

---

23)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24) 河且大, 앞의 논문, 125쪽.
25)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위 서술에서 외방 군사에 대한 훈련을 대개 두 단계로 실시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1단계는 도절제사의 지휘 아래 지방에서 실시하는 것이고, 2단계는 대열, 즉 중앙으로 올라와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1단계 지방별로 실시하는 훈련에 참가하는 병력은 별패와 시위 등과 같이 중앙의 번상군과 외방의 중핵인 수성군이었다. 즉 군액 자원 전체가 아닌 핵심에 속한 부대만 동원되었다. 그들은 당시 지방군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결코 그 수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진도법의 표준 편제는 5위 아래의 소인데 大隊 즉 50명으로 이루어졌으며, 한 위의 병력은 250명, 5위의 총병력은 1,250명이 된다고 했다.[26]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대체로 1,000명 내외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을 단위로 해서 1단계 훈련을 실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외방 군사 중에서 훈련에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의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으나 아마도 그 정도를 하나의 단위로 삼았던 것이 아닐까 한다. 즉 진법 훈련을 통해 전국에 걸쳐 군익도와 비슷한 체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27] 아울러 평상시 훈련에서 차사원과 훈도관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전시가 되면 곧 바로 지휘관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았다.

2단계는 대열로 중앙에서 하는 것인데 검열의 성격이 강했다. 1단계 각 도에서도 절제사의 검찰이 있었으나 처벌 조항은 없었다. 관리 감독의 성향이 강했다. 하지만 2단계에서 제대로 못하면 도절제사와 차사원·훈도관 등이 처벌되었다. 따라서 이는 지휘관들이 휘하의 군대를 얼마나 연습시켰는지를 검열하는 것이었다. 종래 혈연이나 지연 등의 사적 기반에 의존하는 것을 혁파하는 대신 공적인 지휘 체계를 수립하면서 진법 훈련을 통해 군사들을 철저히 단련시키려 했다. 결국 중앙에서 외방의 군사력을 확고하게 장악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였던 셈이다.[28]

---

26) 이에 근거하여 이는 국가 대란에 대비한 총동원 태세를 위한 전술 편제가 아니라 국지적인 침략을 격퇴시키기 위한 임무 부대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했다(河且大, 앞의 논문, 128쪽).

27) 이 시기의 군익도 설치 과정에 대해서는 閔賢九, 앞의 책, 231~6쪽.

28) 기존 연구에서도 진도법의 편찬 배경으로 왕을 정점으로 한 병권을 세우려는 작업이 거

앞서 검토했던 첫머리에 이어 진도법의 본문은 行陣·結陣·應敵·敎場 등의 항목 순으로 정리되었다. 본문으로는 처음 나오는 행진에 부대의 이동 방법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 各衛의 모든 행동은 오로지 中衛의 지휘에 따른다. 중위에서 角을 한 번 불고 북을 한 번 치면, 각 위에서 이에 응하여 군사를 정돈한다. 중위에서 각을 불고 행군하라는 신호의 북을 치면, 右衛가 먼저 나가서 다음은 前衛, 다음은 中衛, 다음은 後衛, 다음은 左衛가 가는데 4위가 각기 부대의 군기〔官旗〕를 세우고 천천히 행군하다가 북이 빠르게 울리면 빨리 행군하고 징을 울리면 즉시 정지한다. 만약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면 靑旗를 앞으로 指하고 白旗를 뒤로 지하며, 북을 빠르게 치면 좌·우위가 각각 그 방위에 나아가 정지하여 진형을 이루되, 적의 대열이 횡대인가 종대인가 행군의 형태를 살핀 다음 지형에 따라 변화시킨다.[29]

위 내용이 행진의 전부이다. 언뜻 보아도 최소의 내용을, 그것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정리했음을 알 수 있다. 이하 결진·응적·교장의 항목도 상황은 비슷했다.

첫 부분에 나오는 모든 행동은 오로지 중위의 지휘에 따른다는 것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중위의 북소리, 각소리 및 징소리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 내에서 모든 병력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했다. 우리의 지형을 감안하면 기의 가시거리 및 북소리의 가청 거리는 극히 짧으며 이로 인해 불과 수백 명을 통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진도법이 소규모 부대의 통솔을 위한 교범을 의미한다는 것이다.[30]

앞서 살폈던 진도법의 첫머리에서는 1단계로 외방의 중요 병력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다고 했다. 이때 오로지 중위의 지휘에 따르라는 규정은

론되었다(정해은, 앞의 책, 82쪽).

29) 『세종실록』 권12권 세종 3년 7월 기사

30) 河且大, 앞의 논문, 127~128쪽.

곧 명령 체계의 수립과 관계가 깊다. 여기서 중위의 지휘에 해당하는 존재란 중앙에서 파견된 인사일 가능성이 높다. 수령이 겸하는 차사원이 맡았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어떤 식으로든 중앙에서 파견된 인사가 중위의 지휘자가 되어 휘하의 군대를 훈련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행진은 첫머리의 내용과 연관시켰을 때 중앙에서 파견된 인사의 명령에 의해 군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구성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중위의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순서를 보면, 우위가 첫 번째로 나가고 그 뒤를 전위·중위·후위가 따르며 끝이 좌위였다. 이는 오른쪽이 앞으로 움직여 방향을 회전해야 한다는 변계량의 주장을 따른 것이다. 하지만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에 의거하지 않고 좌·우위가 각자의 방위로 나가서 진형을 이룬다고 했다. 미처 우위가 첫 번째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그에 맞게 대응하게 했다. 변계량의 주장이 지나치게 이론적이라고 간주해 미리 실전에 대비하려고 보완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원칙은 고수하나 변수가 많음을 고려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본문의 두 번째 항목인 결진에서는 전투 대형과 그 편제 방식에 대해 수록하였다. 핵심인 오행진, 곧 方·圓·曲·直·銳 등 다섯 종류의 진치는 법을 연습하는 내용부터 실었다. 일단 중위의 신호에 따라 4위 후소에 있는 遊軍騎兵이 먼저 출동하여 사방에 분산 배치한다. 이는 척후대를 보내적의 움직임을 살피는 일이었다. 이때 시작은 5위가 각기 자기의 진형을 이루는 것인데 중위는 원진, 좌위는 직진, 전위는 예진, 우위는 방진, 후위는 곡진이었다.[31] 이는 각위의 기본 진형으로 전체를 하나로 통일시키기 이전에는 대개 이런 형태를 유지하였을 것이다. 중앙에 위치한 중위는 하늘을 본뜬 원진을, 오른쪽에 위치한 우위는 지상을 뜻하는 방진, 선두에 있는 전위는 첨탑형의 예진을 취함으로써 마치 적을 향해 돌진하는 인상을 주었다.

31)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그런 뒤 중위의 신호에 따라 우위를 제외한 나머지 위들이 합쳐 움직여 일차로 방진을 구성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방진이 구축된 뒤에 중위는 원진을 이룬다는 것이다.[32] 이는 『이위공문대』에 언급했던 內圓外方을 재현한 것인데 李靖은 '方生於步 圓生於奇'라고 설명하였다.[33] 즉 고전에서 거론했던 正과 奇를 교묘하게 결합시킨 형태라 중시했다.

다시 신호에 따라 방진에서 곡진으로, 이어 직진을 거쳐 예진으로 되며 원진으로 바꾼 다음에 방진으로 변화시킨다.[34] 이것을 볼 때 정으로 시작해서 기로 변모했다가 다시 정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에서 기, 다시 기에서 정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오행진법 훈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계속해서 중위의 신호에 따라 전위와 좌위가 합하여 1진이 되어 왼쪽에 위치하고, 우위와 후위가 합하여 1진이 되어 오른쪽에 있으며, 중위는 스스로 1진이 된다고 했다.[35] 이는 5위가 3군의 대형을 이루는 것인데 지형이나 적의 상황에 따라 3군으로 바꿀 수 있었다. 넓은 평지보다 좁고 긴 계곡이나 분지가 발달했던 우리 사정에서 반드시 5위만 고집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진의 각 면에는 住隊를 잇대어 배열하도록 했는데 이는 지금의 防牌라고 했다.[36] 住隊는 『이위공문대』에서 駐隊로 표기되어 '兼車乘而出也'한다고 했다.[37] 兵車를 보유한 보병으로 보이는데 조선은 방패로 대신했던 것 같다. 그들이 제1열을 이루었던 것은 여진 기병을 필두로 한 적들의 기습적인 돌격을 일차적으로 저지하기 위함이었다.[38] 그 다음 열에는 창과 장검을 지닌 자들을 배치하였다. 그 다음 火熕과 弓弩, 다음으로 騎槍, 끝

32)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33) 『李衛公問對』 卷之中
34)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35)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36)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37) 『李衛公問對』 卷之上
38) 노영구, 「태권도 전사(前史)로서 조선시대 도수무예의 전개」 『문화로 보는 한국사 2 - 물질문화와 농민의 삶』, 태학사, 2009, 308쪽.

으로 騎射를 배열하도록 했다.[39] 이로써 5개열이 구축되도록 했다. 이는 고전에서 다섯 종류의 병장기를 지닌다는 것을 조선식으로 해석해서 편제한 것이다. 후대의 양성지의 증언에 의하면 야인들이 매양 기병을 매복시켰다가 갑자기 소리치며 충돌하는 관계로 우리측 진이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그는 吳璘의 疊陣法을 도입하여 彭湃를 앞에 두고 다음에 長槍, 그 다음 銃筒을 두어서 적들이 말을 달려 충돌할 수 없게 할 것을 건의했다.[40] 그러나 전부터 갑자기 돌격하는 야인을 막고자 방패를 제1열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았다.[41] 진도법에서는 그 다음으로 장·단병기, 원사기, 기병 등을 차례로 정열하도록 했다. 일단 적의 공격을 저지한 다음에 반격하려고 했다. 이때 한 가지 병기로 구성하지 않고 두 개를 혼합시켜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아마도 이것이 당시 조선군의 기본 배치 형태였을 것이다.

5위에는 각기 5색의 휘장과 표시를 배정하였다. 이 역시 오행진의 기본 구조인 바 중위 黃章, 전위 赤章, 좌위 靑章, 우위 白章, 후위 黑章 등으로 오방색에 의거하여 정해졌다.[42] 『이위공문대』의 지적대로 평상시 남쪽을 전면으로 하고 북쪽을 후면으로 삼는다는 것을 재현하였다.[43]

편제에 있어 5위에는 각기 5소를 두었다. 전통적인 5진법에 따르되 위아래의 단위로 소를 채택했다.[44] 다시 세부적으로 卒 한 명은 6尺 간격으로 서고 馬兵은 그 간격이 배가 되게 했다.[45] 여기서 졸의 간격이 6尺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중국 병서에서는 4步, 또는 5步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조선의 당시 실정과 맞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우리의 실정을 고려해서 6尺으로 정했다고 생각된다.

---

39)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40) 『세조실록』 권34, 세조 10년 8월 임오. 이에 관해 노영구, 앞의 논문, 307~8쪽에서 상세히 정리되었다.
41) 『세종실록』 권16, 세종 4년 7월 계유
42)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43) 『李衛公問對』 卷之上
44) 진법에서의 5진법에 대해 김동경, 앞의 논문, 2011에 상세히 정리되었다.
45)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5명씩 대오를 결성하는데 서로 뜻이 맞는 사람끼리 결성하여 伍가 되고 오 가운데는 長이 있으며, 두 개의 五가 小隊가 되고 그 중에 長이 있으며, 다섯 五가 中隊가 되고 隊에는 正이 있으며, 50명이 大隊가 되고 隊에는 校가 있다. 이 50명이 마음을 합하여 행동하게 했다. 싸울 때는 5오씩 서되 將校가 뒤에서 독려했다.[46] 전통적으로 애용했고 일찍부터 고전에서 강조했던 伍法에 입각한 편제 방식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50명으로 이루어진 대대가 항상 합심 단결하도록 하여 실전에서의 작전 단위로 기능하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싸울 때 5오씩 선다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아마도 대대 전원이 한꺼번에 싸우려면 문제가 있어 다섯 伍로 된 중대가 전투에서 실 단위로 움직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나머지 중대는 예비 내지 교대 병력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끝으로 진치는 법에는 원래 일정한 형식이 없다며 많을 경우에는 64종에 이르는데 모두 시기와 형세에 따라 변형된 것인데 그 대요만큼은 오행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47] 앞에 언급했던 방진을 이루었다가 마지막으로 원진을, 다시 방진으로 바꾸는 것 등은 훈련상의 기본에 속할 뿐 실제로는 절대적 규칙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오행이 근본임을, 그것에 충실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더불어 많으면 64종이란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으나 주역 64괘를 연상하는 것으로 변화의 무궁무진함을 의미하는 것 같다. 이 역시 이론의 충실한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셋째로 전투 대형을 짜서 적과 대처하는 방법을 기록했던 응전에서는 먼저 중위에서 북을 울리면 모든 위의 遊軍의 정찰병〔伺候〕들이 中軍의 영을 받고서 나아가 적을 관찰한 다음에 소속 위를 거쳐 중위에게 보고하게 했다.[48] 본격적인 전투에 앞서 정찰병을 시켜 적진을 염탐하는 것은 필수였다.

---

46)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47)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48)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그리고 중위의 신호에 따라 후위가 먼저 달려가서 적을 공격하도록 했다. 이어서 전위가 나가게 했다.[49] 처음에 많은 논란을 빚었던 변계량의 후충이 먼저 나가 적을 유인한다는 설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우리 지형의 특성을 무시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으나 유지했다.

그런데 만약 사면에서 적군의 공격을 당하면 각각의 위가 절차에 따라 싸우되, 중위는 병력을 나누어서 구원하게 했다.[50] 적군과 먼저 부딪친 부대가 전대가 된다는 변계량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후위가 먼저 가는 것이 원칙이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적과 부딪친 위가 전대가 되도록 했다.

이때 출진하여 적과 싸우는 군사는 일제히 10보를 나아가 흩어져 서며 기병도 50보까지 나아가 정지하고서 싸우라고 했다. 이는 『이위공문대』의 육화진 운용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51] 항상 진형을 갖춰 질서 있게 기동한다는 것이다.

적이 패주하면 기병을 출동시키고 유군과 보졸로서 지원하되 항상 대오를 잃지 않도록 했다. 거꾸로 후퇴할 때에도 대오와 진형을 잃지 않되 좌위와 전위의 유군 중 일부가 후미에서 적의 추격을 끊도록 했다.[52] 변계량의 좌위와 전위가 일진이 되어 맨 먼저 움직이는 우위의 후미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끝으로 만약 중위가 공격을 받으면 진형을 전환시켜 싸우는 것과 谷戰, 林戰, 水灌, 火攻法 등은 主將이 그 때에 맞게 처리해야 하므로 일일이 기록할 수 없다고 했다.[53] 결국 진법서에서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으므로 기본을 충분히 익힌 장수가 상황에 맞게 처리하는 것을 언급하였다.

본문 마지막으로 훈련 내용과 군법을 서술하였던 교장에서는 먼저 4개의 表를 세워 전진하거나 후퇴하게 했다.[54] 이는 『이위공문대』의 '前出四表 後

49)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50)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51) 『李衛公問對』 卷之上
52)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53)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54)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綴八旛'을 수용한 것이다.[55] 이에 중위의 신호에 따라 제1표로부터 순서대로 4표에 이르기까지 좌작진퇴 등의 훈련 내용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진을 치고 천천히 행군할 때에는 보병이 앞서며 기병이 뒤따르되 급히 갈 때에는 거꾸로 하도록 했다.[56] 이것은 합동으로 훈련할 때 보병과 기병의 속도를 감안해서 상황에 맞게 설정한 것이다.

끝으로 군대가 출동할 때 중위에서 진을 돌아다니며 방울을 흔들고 영을 내리면서 좌작진퇴의 명령과 병법, 즉 군법을 범하지 않도록 하되 만약 위반했다가 발각되는 자는 처벌한다고 했다. 이때 명령을 위반하거나 章服을 잃은 자는 참수에 처한다.[57] 이는 군기를 엄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본 조치였다.

이어서 부대원들의 상벌에 대해 정리하였다. 오에서 2인을 잃으면 구하지 않은 3인을 벌하며, 소대에서 4인을 잃으면 구원하지 않은 6인을 벌하고, 25인의 대에서 8인을 잃으면 전 대원을 벌했다.[58] 오와 소대에서는 40%의 병력을 잃으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고 여겨 나머지 인원을 벌했다. 그런데 25인, 즉 중대급에서는 40% 이하를 상실해도 처벌했다. 이는 실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상위 부대로 갈수록 서로 구원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상과 벌의 크기가 비슷하여 상쇄하는 규정도 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상을 주거나 벌을 내리는 규정도 있다. 그것은 대체로 장교에 관한 것이다. 아군이 희생되었으나 적장을 잡았다면 상쇄가 되는 것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정도에 따라 상과 벌을 내렸다.

그런데 상벌 규정이 오와 대에 한정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것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그에 국한시킨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위공문대』에서 훈련에는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로

55) 『李衛公問對』 卷之中
56)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57)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58)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기사

5인을 오로 묶어 소부대로 실시하고 이것이 끝나면 대부대로 한다고 했다.[59] 아마도 오와 대로 한정시켰던 것은 우선 1단계 훈련에 충실하기 위함이 아닌가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진도법은 입안자인 변계량의 설에 근거하였다. 그는 고전에 충실했던 삼봉의 것을 높이 평가할 정도로 골격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론에 충실하였다. 하지만 기능상 필요한 것에는 실제 운용되는 것도 받아들였다. 전자가 오행진, 5위 5소의 편제라든가 伍法 등이라면 후자는 간격 6척이라든가 병기 구성 따위를 들 수 있다.

진도법이 공포된 바로 그 달에 태종은 대열을 실시한다는 구실로 진법을 연습시킬 훈도관들을 각도에 파견하였다.[60] 이는 새로 만든 진법을 전국에 즉각 보급시키려는 조치로 이해된다. 진법서만 보낸다고 될 일은 아니었으며 내용을 숙지한 훈도관들이 파견되어 가르쳐야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동시에 병조에서는 여러 도에 진법 훈도 사목을 제정해서 발표하였다. 첫째로 진법을 연습할 때 법을 범한 수령과 3품 이상의 군관을 관찰사에게 보고하면, 관찰사가 사실을 조사하여 죄를 논하게 했다. 둘째로 23개의 진을 한꺼번에 교열하는 것이 어렵다며 방·원·곡·직·예의 다섯 종류의 진과 행진을 교습하게 했다. 셋째로 평안도의 여연·삭주·의주·강계와 함길도의 경원·경성·갑산의 군병과 마필을 만약 집합시켜 교열하면 방어가 허술해질 것이니 군관 중에 문자를 아는 사람을 불러서 교습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留後司에 作牌한 군인 가운데 마병을 뽑아서 교열하되 本司의 郎廳 한 사람으로 관장하게 했다.[61]

이는 곧 파견될 훈도관들이 지녔던 사명의 내용으로 생각된다. 그 근거로 첫째의 수령과 3품 이상의 군관을 처벌하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문무 지방관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훈련할 때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징벌할 수 있다고 했다. 자연히 훈도관에게 권위

59) 『李衛公問對』 卷之中
60)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무자
61) 『세종실록』 권12, 세종 3년 7월 무자

를 부여함으로써 훈련에서는 아무리 고위직자라도 그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함을 의미하였다. 그만큼 단기간 내에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조처였다.

둘째의 23개가 아닌 다섯 가지의 기본 진과 행진만을 교습하도록 했던 것은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처음부터 복잡한 것을 무리하게 숙달시키면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았다.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다. 더구나 외방에서는 낯설어 적응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인 것만 가르치도록 했다.

셋째로 평안도와 함길도의 국경 지방에서는 방어 문제로 군관 중에 문자를 이해하는 자만 불러 교습하게 했는데 군관을 훈도관으로 육성해서 다른 병력도 가르치게 하려고 했던 것 같다. 즉 전파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방어가 허술해지는 것을 막는 동시에 성과도 높이려 했다.

마지막으로 유후사, 즉 개성부에는 마병만 뽑아 가르치되 본사의 낭청이 담당하여 타지와 구별했다. 군의 성격과 구성에 차이가 있어 다른 지역과 똑같이 하는 것이 곤란했기 때문인 것 같다.

이것으로써 진법 훈련을 한층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체계화시켜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를 올리려 했다. 그 계기는 진도법의 공포였다. 공포와 더불어 즉각 실행에 옮겨 결실을 맺고자 했다. 하지만 병조의 사목은 훈도관의 파견에 따른 지시 사항이었지 진법 훈련의 항구적인 제도화에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 더불어 교범인 진도법이 지나치게 이론에 경도돼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 그런데 당시 내부, 특히 외방의 상황은 복잡하고 어수선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달랐겠지만 경제적으로나 그 밖의 여러 측면에서 편차가 심했다. 그런 점에서 원론에 충실한 표준화된 훈련을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일단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론에 충실한 훈련을 시킨 뒤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차 수정, 보완해가는 것이 능률적이라 인식했던 것 같다. 따라서 이미 그 내부에 개편의 단서가 내재해 있었다. 이는 교범뿐만 아니라 훈련 체계도 마찬가지였다.

3. 계축진설의 편찬과 훈련체계의 개편

1) 편찬 내용의 파악과 그 의미

1433년(세종 15년) 7월 하경복·정흠지·정초·황보인 등이 왕명을 받들어 陣書를 새로 편찬하여 올렸다.[62]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이 진서의 원본은 발견되지 않고 『세종실록』에 원문만 전할 뿐이며 『계축진설』로 불리운다.[63]

기존 연구에 따르면 『계축진설』은 먼저 나온 진도법과 거의 동일한데 다만 실전에서의 전술적 요소가 많이 보완되었다는 것이다. 그 계기는 간행 직전에 있었던 같은 해 4월의 파저강 전투를 들고 있다. 여진족과의 전투 경험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계축진설』 편찬자들의 면모를 통해 보강되었다. 먼저 하경복은 15년간 북방 방어에 종사했기 때문에 여진족과의 전투 경험이 풍부했다. 정흠지는 편찬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함길도관찰사로 부임했다. 정초는 이미 함길도관찰사를 지냈다. 황보인은 얼마 뒤 평안함길도체찰사, 함길도도체찰사 등을 역임하면서 김종서와 함께 육진 개척을 주도하였다. 이런 면모가 『계축진설』을 실전에서의 전술적 요소가 많이 가미되고 전투기법이 보강된 독특한 진법서로 만들었다는 것이다.[64] 즉, 『계축진설』은 여진족과의 전투를 의식해서 편찬한 병서였다고 했다.[65]

이에 진도법과 『계축진설』의 내용을 비교하여 실제로 얼마나 수정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항목 구성면을 보면, 진도법은 외방 군사의 진법 연습에 관한 규정을 서술하였던 첫머리를 필두로 행진, 결진, 응적, 교장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계축진설』에서는 행진, 결진, 교장, 군령,

62)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을묘
63) 정해은, 「계축진설」 『전통병서의 이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4
64) 河且大, 앞의 논문, 124~130쪽.
65) 위의 논문, 130~135쪽.; 정해은, 앞의 책, 92~93쪽.

응적 등으로 순서가 바뀌었다.

양자를 비교해 보면『계축진설』이 좀더 짜임새가 있다고 생각된다. 진도법의 첫머리는 군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고 별도로 처리해야 했다. 그리고 교장에서는 군령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했는데 성격이 다른 것들이 한데 묶여 있다는 느낌을 준다. 아마도 군령에 관한 것이 너무 적어 독립시키기 곤란했던 것 같다.『계축진설』에 이르러 군령을 대폭 보강해서 교장과 분명히 구분하여 자립케 했다. 그런 점들로 해서 짜임새가 한결 더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계축진설』에서는 응적을 맨 뒤에 배치하였다. 전투 편대를 짜서 적과 대치하는 방법을 기록했던 응적을 뒤로 보낸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행진에서 군령까지는 외부, 외적에 대한 것 보다 내부 정비가 주류를 이루었다. 외부, 외적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응적이다. 따라서 일단 내부를 단단히 정비한 다음에 외적과 맞서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靜에서 動으로의 움직임과 관계가 있다. 행진에서 군령까지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적인 것이다. 외부를 겨냥하는 강한 동작은 응적에서 비롯된다. 아무튼 몇 가지 이유로『계축진설』에서는 응적을 맨 뒤에 배치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문의 내용이 얼마나 수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선 행진부터 살펴보자.

> 各軍의 動靜은 오로지 中軍의 지휘에 따른다. 중군에서 角을 한 번 불고 북을 한 번 치면 각 군이 여기에 응하여 병력을 정돈한다. 중군이 북을 올리고 ㈎ 麾를 들어 전방을 指하면, 【白麾가 앞에 서고, 다음 赤麾, 다음 黃麾, 다음 黑麾, 다음 靑麾의 순으로 서서 모두 전방을 가리킨다.】 각 군이 차례로 응하여 右軍을 선두로, 다음은 前衝, 다음 중군, 다음은 後衝, 다음은 左軍의 순으로 旗를 들고 천천히 행진하되, ㈏ 기병이 앞서고 보병이 뒤에 서는데, 횡으로 곧바로 가는 것은 지형에 따라 변한다. 북이 빨리 울리면 빨리 가고

징소리가 들리면 정지한다. ㈐ 은밀히 매복한 기병이 五色旗를 가지고 3里쯤 먼저 가다가 만약 깊은 숲과 초목이 있으면 푸른 기를 들고 언덕이나 험한 곳이 있으면 붉은 기를, 흙벽으로 둘러싼 마을이나 막히고 협착한 곳을 만나면 누른 기, 적군의 소리나 행적이 있으면 흰 기를, 못이나 강이나 내를 만나면 검은 기를 들게 한다. 만약 위급하면 ㈑ 중군에서 각을 한 번 분 다음 靑麾를 전방으로 指하고 白麾를 후방으로 지하며, 북을 빠르게 울리고 좌우군은 각각 그 방위로 나가서 정지하여 진을 치고서 적의 움직임을 살핀다.

㈒ 무릇 행군하는 데에는 우군은 교량을 수리하고 진흙창을 메우며 좁은 길을 개척하며 좌군은 후방을 막고 비상사태를 수습한다. 먼저 믿을 만한 심복을 시켜 정예 기병과 鄕導를 거느리고 대군보다 수십 리 앞서 가서 앞뒤로 서로 연락하며 사방의 요처를 수색하게 하는데, 극히 정숙하게 하여 사람이나 말이나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하며, 항렬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

㈓ 무릇 군사가 험지나 좁은 길을 통과해야 할 때에는 물고기두름처럼 한 줄로 나가야 하는데, 每隊 50인씩으로 하되 먼저 방패 1인, 그 다음 창이나 장검을 든 1인, 다음에 화통이나 弓手 중의 1인으로 순서를 정하여 보졸 30인이 앞서고 騎槍과 騎射 20인이 그 뒤를 따르게 한다. 도로가 두 사람을 용납할 만하면 두 사람씩 나란히 가고, 세 사람을 용납할 만하면 세 사람씩 가고, 네 사람을 용납할 만하면 네 사람씩 가고, 다섯 사람을 용납할 만하면 다섯 사람씩 간다. 재촉하고 독려해서 정지하거나 뭉치지 못하게 하며 요지부터 먼저 점령하게 한다.

㈔ 輜重이 행군의 뒤에 이어 나가는데 300인마다 50인씩을 뽑아 치중을 보호하는 군대를 삼아 앞뒤로 隊를 나누어 나가게 하되, 앞과 뒤의 거리가 너무 멀거든 3리나 4리 간격마다 호송대를 한둘씩 끼어서 불의의 변을 대비하며, 또 輕騎兵을 좌우로 나누어 가게 해서 으슥한 곳과 숨을 만한 곳을 수색하게 한다.[66]

앞의 밑줄 친 부분이 『계축진설』에 추가된 것이다. 언뜻 보아도 진도법에 비해 상당 부분이 더해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처음에 나오는 각 군의 군은 위를 바꾼 것이다. 아마도 당시 삼군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66)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을묘

때문에 위 대신에 익숙한 군으로 대치했던 것 같다. 문제는 전위와 후위인데 이는 전충과 후충으로 바꾸었다. 평상시에는 삼군으로 유지하다가 훈련을 실시하면 오위에 맞추어 전충과 후충을 별도로 편성했던 것 같다. 따라서 전·후충하면 곧 임시 편성임을 알 수 있어 군사들이 혼동할 염려가 없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와 ㈑에서는 행진시 휘의 이용 방식을 보강하였다. 진도법에서는 군사들을 번거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변계량의 주장에 따라 기만 사용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단순하여 효과가 없다고 여겼는지 『계축진설』에서는 휘를 추가했다. 두드러진 변화라 할 수 있는데 그 동안 군사들의 기휘에 대한 숙달도가 높아졌음을 의미했다. 점점 더 훈련 체계가 복잡해졌다.

㈏에서 기병과 보병의 순으로 출발하도록 했다. 진도법에서는 우위, 즉 우군부터 출발하라고 했을 뿐이다. 그것은 『계축진설』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변계량의 주장을 그대로 따랐다. 대신 기병을 앞세운다고 규정함으로써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행진 속도를 고려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에서는 기병 중에 본대와 구분되는 척후대를 별도로 두고 그 역할과 기를 이용한 신호 체계를 정리했다. 진도법에는 행진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결진에서 遊軍馬兵이 먼저 출동하여 사방에 배치된다고 했을 뿐이다. 그러나 실전에서 척후대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당연히 결진 이전인 행진 단계부터 언급되어야 했다. 따라서 진도법의 지나치게 간략하다는 문제점이 『계축진설』을 통해 수정되었으며 그것이 척후대 규정을 통해 표현되었다.

㈒에서는 좌우군의 기능에 대해 정리하였다. 앞서가는 우군이 통로를 개척하고 쫓아가는 좌군은 후방을 경계하며 비상사태에 대비하게 했다. 아울러 믿을만한 인물로 특별히 최정예를 선발해서 수색대를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그 운영에 대한 주의 사항도 언급하였다. 선도 부대와 후방 병력의 기능, 그리고 수색대의 중요성까지 강조함으로써 『계축진설』의 수정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에서는 좁고 험한 통로를 지날 때의 방식과 부대 편성, 통과 순서에

대해 정리하였다. 위에 언급한 선도와 후방, 수색대 등의 수정 의미와 비슷하다.

㈏에서는 치중의 호송대에 대해 서술했다. 호송대뿐만 아니라 척후 수색대의 필요와 그 중요성도 언급하였다. 이 역시 수정의 의미가 확실했다.

행진의 수정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계축진설』을 편찬하면서 기본 토대는 그대로 두되 실전에 필요한 사항을 대폭 추가했음을 알 수 있다. 지나치게 이론적이며 간략하여 활용하기 어려웠던 것을 실전에서 즉각 적용될 수 있는 지침으로 바꾸어놓았다고 평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결진, 교장, 군령, 응적에서도 비슷하였다. 두 번째 결진의 경우에도 상당한 추가가 이루어졌으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중위, 즉 중군의 신호로 유군마병이 먼저 나가 사방에 분산 배치하는 것이나 시작할 때 5군이 각기 자기의 진형을 이루다가 신호에 따라 방진을 구성하고 이어 곡진, 직진, 예진, 원진, 그리고 다시 원진으로 돌아오는 것은 동일했다. 그 안에 휘의 사용 등 일부 바뀐 것도 있으나 핵심은 고수되었다.[67]

그리고 삼군을 이루는 방식도 동일했다. 전군과 좌군을 한 진으로 묶어 좌편으로, 후군과 우군을 한 진으로 묶어 우편으로 하며, 중군은 그대로 한 진으로 편성하는 것은 같았다. 다만 땅이 좁아서 곤란하면 각군은 형편에 따라 진형을 이루되 도저히 안 되면 따로 한 진을 세우도록 했다.[68] 우리 지형의 특성상 삼군을 모두 병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 현실적 사정을 고려해서 훈련할 때부터 지형에 맞춰 진치는 것을 익히게 했다.

이어서 각 군에 각기 5소를 둔다는 것은 동일했다. 그런데 진도법에서 보졸 1명은 6척 간격으로 하고 마병은 그 간격을 2배로 한다고 했는데 『계축진설』에서는 이를 바꿔 횡으로 5보에 1인을 세우고 종으로 4보에 1인을 세우도록 했다. 진과 진 사이에는 진 하나를 용납할만하게 하고 대와 대 사이에도 대 하나를 용납하도록 했다. 진도법의 경우 조선군이 실제로 사

67)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을묘
68)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을묘

용하던 간격을 사용했다면 『계축진설』에서는 고전의 이론을 수용하였다. 그 규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대오를 결성하는 방식, 즉 뜻이 맞는 5명씩 伍를 이루는 것, 두 伍가 小隊, 다섯 伍가 中隊, 50명이 大隊가 되는 것도 일치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추가가 이루어졌다. 1천명마다 200명씩을 遊軍으로 삼아 항상 그 軍陣의 뒤에 위치하게 했다. 그리고 행군, 결진, 合戰할 때 疑兵을 세우는 일, 보충하거나 척후하는 일은 전적으로 유군에 맡기되 만약 군의 인원이 더 많으면 이로써 비율을 삼도록 했다.[69] 다시 말해 반드시 총병력의 ⅕을 유군으로 편성해서 운용하도록 했다. 진도법에서도 유군이 나오기는 했지만 얼마나 할당해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실전에서 유군만큼 중요한 존재도 없기 때문에 『계축진설』에서 이에 대해 규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諸軍의 下營에 대한 것도 추가되었다. 진도법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계축진설』에서 비로소 규정되었다. 훈련할 때는 소홀히 할 수도 있겠으나 실전에서는 이 보다 큰 문제가 많지 않을 것이다. 간략히 살펴보면 하영할 때에는 모두 지역을 나누어 경계를 분명히 해서 통행을 금하되 길을 깨끗이 해서 대장의 명령이 없으면 다닐 수 없게 했다. 허락 받아 다닐 때에는 반드시 대오를 갖추게 했다. 밥 짓는 일을 일찍 끝내어두운 뒤에 곧 불을 끄도록 했다. 아울러 순찰자라도 큰 소리를 내지 못하게 했으며 진 밖에도 척후를 세웠다. 나아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조치도 마련해서 대비하게 했다.[70]

下營에 관한 사항을 새로 설정해서 마치 실전처럼 연습하게 해서 실제로 출동했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했다. 그런 점에서 『계축진설』의 서술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章服은 진도법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로써 결진 항목에 대한 추가의 성격이 분명해졌다. 기본 골격은 그대로 두었다. 즉 5군이 각기 자기의 진형을 이루다가 신호에 따라 방진, 곡진, 직진, 예진, 원진의

69)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을묘
70)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을묘

순으로 변하는 것, 5군 5소, 오법 등이 그것이다. 유군의 편성이나 하영 등은 추가되었다. 이는 실전에서 절실했던 것들로써 추가 작업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세 번째 항목인 교장에서 먼저 4개의 표를 세우는 것은 진도법과 동일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보강이 이루어졌다. 즉 1,200方步를 兩廂으로 나눠서 동쪽과 서쪽으로 마주 향하게 하되 중간에 서로 300步를 띄우고 매 50보마다 표를 1行씩 세워 모두 5行이 되도록 했다. 표 사이의 거리는 50보로 군사들의 진퇴하는 표준이 되게 하였다.[71] 이는 훈련장의 규격과 설비 등에 대한 규정인데 중국 고전에서 그 뜻을 취했던 것 같다. 일례로 『이위공문대』에서 이정은 大閱地로 1,200方步가 되어야 하는데 그 뜻은 6진이 각각 400보를 점하며 東西 兩廂으로 나눔으로 空地 1,200보가 있어야 敎戰所가 된다고 했다.[72] 진법을 제대로 훈련하기 위해서는 교장의 규격과 설비 등을 확실히 갖춰야 했으므로 『계축진설』에 새롭게 수록하였다.

이하 4표를 이용하는 훈련은 진도법과 다를 바가 없었다, 다만 그 뒤에 旗麾歌와 鼓進金退歌를 첨가하였을 뿐이다. 전자는 휘와 기의 다섯 가지 빛깔, 그리고 휘로 지휘하면 기로 응한다는 등의 내용을 지닌 노래가사이고, 후자는 북과 징을 치는 것에 의한 행군 방향과 속도 등을 담았다.[73] 훈련에 참여하는 병사들이 복잡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암송하기 편하게 노래가사의 형태로 만들었던 것은 이미 전부터, 특히 정도전의 진법에서 시행한 바 있었다.[74] 진도법에서는 보이지 않았는데 『계축진설』에서 부활시켰다.

교장에서 4표를 세워놓고 하는 훈련이 결진에서 진짜는 순서와 방식, 5군 5소, 伍法 등이 진도법과 그대로였던 점과 비슷하다. 골격이면서도 군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라 바꾸면 힘들어진다. 따라서 진도법에서 부족한

71)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을묘
72) 『李衛公問對』 卷之中
73)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을묘
74) 김광수, 앞의 논문, 222쪽.

부분을 추가하되 그것이 앞의 기본과 상충되지 않도록 했다.

네 번째 항목인 군령은 『계축진설』에서 새로 편성되었다. 진도법에는 교장 항목에서 다루었는데 성격상 서로 어울리지 않아 독립시켰다. 하지만 일단 진도법의 규정은 고스란히 계승하였다. 기본으로 최소 한도의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그 위에 많은 것들이 추가되었다. 우선 시작하는 부분은 동일했지만 절차가 조금 달라졌다. 진도법에서는 출병하면 중위에서 병사를 파견하여 각진을 돌면서 군령을 전달했으나 『계축진설』에서는 각 軍將들을 중군의 깃발과 북 아래로 불러서 전달하고 이윽고 돌아가서 전파하게 했다.[75] 이를 통해 지휘 체계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군령의 위엄을 과시하였다. 그리고 맨 끝에 나오는 진퇴좌작을 어기는 자와 伍에 관련된 처벌 규정은 동일했다.

그런데 진도법과 동일했던 처음과 끝 부분을 제외한 그 사이에 『계축진설』에는 많은 조항이 새로 삽입되었다. 유형으로 나누면 먼저 적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軍事를 누설한 자, 배반하고 달아난 자, 싸우지 않고 항복한 자, 적과 사사로이 통한 자 등이 이에 속했다. 다음으로 집합과 훈련에 관한 것으로, 기일에 늦은 자, 行列이 가지런하지 못한 자, 旌旗이 不正한 자, 金革을 울리지 않는 자 등이다. 계속해서 전투와 관련해서는 主將을 잃은 자, 旗鼓節鉞을 상실한 자, 난리에 임하여 서로 구원하지 않은 자, 적을 부술 때 노략질부터 하는 자 등이다. 그리고 질서 유지와 관련된 것들도 있다. 괴상한 말에 현혹되거나 음양설과 점치는 말을 망녕되이 하는 자, 이유 없이 군을 놀라게 하는 자, 병기와 장비를 버린 자, 將吏로 직무의 불공평한 것을 사정을 써서 서로 용서해준 자, 약자를 짓누르거나 노름, 술주정 등을 한 자, 사리에 순응하지 않는 자, 軍中에서 수레와 말로 질주하는 자. 更鋪의 때를 어기거나 밤에 통행금지를 어기고 군호를 모르거나 다른 막사에서 자는 자, 견고하게 지키지 못한 자, 파견에 불복하거나 직무 맡김에 불평한 자, 백성을 기만하거나 민간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부녀자를 영내로

75)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을묘

들인 자, 主將의 일시 명령을 위반한 자 등이다.[76]

이렇듯 여러 유형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훈련, 전투뿐만 아니라 평상시 근무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군령은 비상시 갑자기 엄하게 집행하는 것보다 일상화됨으로써 내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편이 효과적이었다. 이에 독립된 항목으로 설정하는 것 외에 여러 유형의 것들을 보충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수준으로 확장시켰다.[77]

마지막 항목인 응적은 앞의 네 항목과 사정이 조금 달랐다. 네 항목은 기본은 그대로 두되 그것을 좀더 원활히 운용하기 위해 추가했는데 응적에서는 기본에 해당하는 것도 수정하면서 새롭게 체계화했다. 아래에 제시된 것은 응적의 첫 부분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 중군과 전충이 열에 머물러 움직이지 않는 것을 守兵이라 하고 후충이 戰時에 당하여 먼저 나와 적을 치는 것을 正兵, 좌우군이 전시에 당하여 옆에서 나와 돌격하는 것을 奇兵이라 한다. 【무릇 적에 대응할 때 隊마다 旗를 달리하는데, 騎射隊는 靑旗, 騎槍隊는 黑旗, 火桶弓手隊는 白旗, 步槍長劍隊는 赤旗를 잡는다.】 ⓑ중군에서 북을 한 번 치면, 각군의 遊軍이 먼저 사방으로 나가 적군을 살펴 角으로 자기 군에 보고하면 그 군에서는 각으로 중군에 보고한다. ⓒ중군에서 각을 불고 赤麾를 일으켰다가 눕히면 전충이 적군을 맞이하고, 黑麾가 전방을 旨하고 북이 울리면 후충이 먼저 나가 적을 막고, 靑·白麾가 전방을 지하고 북이 울리면 좌우군이 옆으로 나가 구원한다. ⓓ 한 면이 적과 마주치면 다른 군이 이 방식에 따라서 접촉처가 전면이 되는데, 모두 중군의 휘와 북과 각의 지휘에 따라 응전할 것이며, 만약 4면에서 적과 마주치면 그 군의 기와 북과 각의 지휘를 바라보고 듣고서 싸우되 중군이 병졸을 나눠 가서 구원한다.[78]

---

76)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을묘. 새로 삽입된 것들은 주로 파저야인의 정벌을 위해 마련했던 것들에서 취했다. 실전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재정리해서 수록하였다(윤훈표, 「朝鮮前期 軍法의 適用과 軍令의 運用」『軍史』 61, 2006, 13쪽).

77) 위의 논문, 14쪽.

78)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을묘

위에 밑줄 친 것이 『계축진설』에서 추가되거나 바뀐 부분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이 첫마디인 (a)이다. 여기서 守兵, 正兵, 奇兵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원래 정병과 기병을 정해놓지 않고 그 때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낙점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최고의 수준에 이르러 가능한 것이며 훈련 단계에서는 그 형을 분명히 함으로써 군사로 하여금 체득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제대로 구현하게 하였다. 그리고 제1렬의 방패를 제외한 각 兵器隊에게 특정한 기를 배당해서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했다.

더구나 이는 단순히 개념 설명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응적의 후반부에 오행진 이외에 鳥雲陣을 서술하면서 정병과 기병의 진형을 각각 설명하고 그에 따른 각 병기대의 배치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79] 그러므로 첫머리에 수병 등과 병기대의 기를 묘사했던 것은 오행진이 아닌 조운진의 도입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종전의 진도법과 다르다는 것을 암시했다.

(b)의 경우 진도법 응적의 시작 부분과 같은데 일단 출발 원칙에 해당하므로 바꿀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c)에서는 달라졌다. 진도법에서는 변계량의 주장에 따라 중위의 신호로 후위가 먼저 나가 적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전위가 간다고 했다. 하지만 『계축진설』에서는 우선 전충이 나가고 다음으로 후충이 나가는 순으로 변경했다.

이는 상당한 의미를 지녔다. 위에 제시된 구절에 이어 조운진을 서술하면서 후충이 먼저 나가 적을 공격한다는 주장은 삭제했다. 조운진은 북방 야인들이 즐겨 쓰던 전법, 즉 새처럼 흩어지고 구름처럼 퍼져서 일정한 항오를 이루지 않으면서도 아군 병력의 적고 많음에 따라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것[80]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이때 그들의 장기인 기동력을 최대한 활용했을 것이므로 후충이 먼저 나가 공격한다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었다. 그들을 효과적으로 치기 위해 새나 구름처럼 신속히 분산되거나 집결하기도 하면서 무한한 변화가 가능했던 조운진을 도입할

79)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을묘
80) 『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4월 계유

필요가 있었다.[81] 드디어 응적에 수록하여 익히면서 전충이 먼저 나가 적을 대하게 했다. 그로 인해 (c)의 내용처럼 순서를 변경해야 했다. 원칙은 버릴 수 없지만 모든 면에 절대적으로 고수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d)에는 바뀐 것이 없다. 적과 마주친 곳이 전면이 된다는 것인데 조운진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야인이 구사하는 전법을 볼 때 반드시 정면에서 공격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조운진의 도입이었다. 이는 오행진에 속하지 않았으나 야인과의 전투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해서 넣었을 것이다. 자세하게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특히 정병과 기병에 대해 언급해서 어느 하나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적합하게 대처하게 했다.

응적은 앞의 항목들과 달리 기본 원리도 일부 수정했는데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이 『계축진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앞 항목과 응적 사이에 원리면에서 차이가 난다면 또 다른 약점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다.

진도법이 군사들에게 최소한도의 기초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 원론적인 내용을 교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면, 『계축진설』은 그에 더해 장차 일어날 수 있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면서 편찬되었다. 일례로 행진 내용의 전부를 실제로 훈련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지역에 따라 불가능한 곳도 많았다. 그럼에도 수록했던 것은 막상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미리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훈련 교범에 단지 눈앞의 것에 국한하지 않고 미리 예비하는 것까지도 포함시키려 했다.

또한 진도법은 이론에 치우쳐 간결하게 정리해서 습득하기에 편했을지 모르나 실용성이 부족하였다. 『계축진설』에 이르러 대폭 보강하여 실전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론을 소화할 뿐만 아니라 적극 숙달하는 것을 가능케 해서 효과가 증진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세부적인 것까지

81) 조운진은 중국의 『六韜』에 나오는 烏雲陣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李弘斗, 「고려의 여진정벌과 기마전」 『軍史』 64, 2007, 146쪽 주)34를 참조할 것.

추가함으로써 이론과 실용의 조화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었다.

『계축진설』은 진도법에서 한 단계 나아가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즉, 표준화된 훈련 교범의 진일보된 모습을 보였다. 오행진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였으며, 그것은 『오위진법』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2) 체계 개편의 실제와 방향

새로 간행된 진서를 곧 바로 『계축진설』로 명명하고 陣圖와 함께 인쇄해서 중외에 반포하였다.[82] 『계축진설』로 이름이 정해지기도 전에 500호 이상의 고을에 대해 모두 삼색 기휘를 갖추게 하고 도내에 병법을 아는 사람을 훈도로 뽑아 봄·가을로 무예를 연습하게 했다. 이때 군인과 인리들로 班을 짜고 관노에 이르기까지 적당한 자를 택해서 吹角을 익혀 급한 때를 대비하게 했다.[83] 무예를 연습하게 한다고 표현했지만 삼색 기휘라든가 취각 등의 표현을 미루어 진법 훈련과 연관됨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외방에서도 봄·가을의 정기적인 행해지는 훈련 체계를 수립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종전의 진도법에서는 첫머리에 주로 외방의 훈련만을 언급했는데 이번 『진도』 편찬을 계기로 중앙군의 습득도 병행하도록 강조하였다. 우선 훈련관에서 충의위·별시위·내금위·갑사·방패·취라치·별군과 같은 경군의 핵심을 소집하여 교습하였다.[84]

미진하게 여겼는지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중점을 두었던 것은 군 조직의 성격과 지역 사정이 반영된 훈련 체계를 수립하였다. 무신으로 승격될 가능성이 높은 중앙군에게는 진법 내용의 이해를 전제로 훈련을 시켰다. 즉 이론과 실기를 병행했다. 1434년 1월에 매년 봄·가을 2번에 걸쳐 병조

82)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기사
83)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무오
84) 『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7월 기미

와 훈련관 제조 등이 군사와 성중애마에게 『계축진설』을 강하여 通者는 10일의 到를 주고 略通者는 7일의 도를 주며, 到宿法이 적용되지 않는 내금위에게는 7일 혹은 10일간의 근무로 간주해서 권장했다. 그리고 『진설』만 읽고 陣圖를 익하지 않으면 진을 치는데 능숙하지 못할 것이라며 병조에서 삼군도진무·훈련관제조와 함께 四仲朔마다 넓은 땅을 택해 연습하게 했다. 외방에서는 일찍이 수교한 바에 의해 거행하고, 매년 봄·가을에 갑사를 선발해서 보충할 때 『진설』을 강하여 통자는 화살 2발 맞힌 데 준하고 약통자는 1발 맞힌 데 준하여 이를 합산하게 했다.[85] 『진설』에 의거한 훈련을 강화하되 특히 정기화했던 것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중앙군의 핵심이 되는 군사들에게 의무적으로 강의 시험을 부과하였다.

지역 사정이 가장 심각하게 고려된 곳은 북방의 야인접경 지방이다. 4군 6진의 개척이 본격화되면서 충돌이 다반사였다. 『계축진설』에 의한 훈련에서 그 사정을 크게 의식했다. 1434년 4월 세종은 함길감사에게 특별히 그곳의 지리 형세와 인심의 소향을 살펴 만일 『진도』에 의거해 시행할 수 없다면 마땅히 행할 만한 절목을 도절제사와 의논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했다.[86] 여기서 『진도』란 『계축진설』을 가리킨다.

얼마 뒤 함길 감사가 도절제사와 함께 진법을 의논하여 보고하면서 먼저 우리의 장기로 저들의 단점을 노려 공격해야 이길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아군이 야인의 장기인 활쏘기로 대응했기 때문에 여태껏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했다. 거기다가 저들이 마치 새처럼 흩어지고 구름처럼 퍼지면서 항오를 이루지 못하는 듯 하나 아군 병력의 많고 적음에 따라 교묘히 틈을 노려 침투함으로써 도리어 많은 해를 당했다고 했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出軍行兵과 進退坐作은 『진설』에 의거하지만 적과 조우했을 때에는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특히 中翼을 중심으로 左羽翼이 옆에서 나와 항오를 성글게 하되 흡사 구름이 피어오르고 새떼가 흩어지듯 하며, 서는 것은 기러기 떼가 줄지어 날듯이 좌우로 벌려 마치 에워싸는

85) 『세종실록』 권63, 세종 16년 1월 병술
86) 『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4월 병진

것처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3인이 1伍가 되어 1인은 방패 잡고 검을 차며 1인은 창을 잡되 궁검 차는 것도 허용하며 1인은 궁시를 지니고 검을 차게 했다. 다시 매 3隊 사이에 화통 일대를 두되 3인으로 오를 지어 방패 1인, 화통 2인씩을 배치하자고 했다. 그런 다음 서로 바꿔 가며 연달아 쏘게 하자고 했다. 아울러 적의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도를 미리 마련해서 연습시킬 것을 건의했다.[87] 기본적인 것은 『진설』을 따르지만 실전에서는 방식을 바꿔 대응할 것을 건의하였다. 심지어 진형을 짜는데 5인의 오를 3인 체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를 받자 세종은 즉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시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 "五伍之法은 고금을 통해 중시했던 것인데 이제 3인으로 伍를 삼자고 한다. 진법에서는 모름지기 5인의 뜻이 맞는 자들로 엮어 그 마음을 한데 묶어 접전시 1인이 위급하면 4인이 응원하고 2인이 위급하면 3인이 응원하게 했다. 鳥雲陣은 전적으로 산천이 험애하여 열을 이루지 못하는 곳에서 쓰는 까닭으로 主將이 시기에 임해 지세를 보고서 지휘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항오를 성글게 하고 흩어져서 적을 막으면 사람들이 각자 싸울 것이라 하나, 勝負와 進退의 사이에 그 항오를 잃어버리지 않고 각각 그 局勢를 회복해야만, 잠깐이라도 진이 깨지고 병졸을 잃어버리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3인을 가지고 오를 삼는다면 結陣하고 行進할 때에도 3인으로 오를 만들겠는가? 만일 결진하고 행진할 때는 5인으로 오를 삼았다가 단지 접전할 때만 3인으로 오를 삼는다면, 오를 잃고 離次하게 되어 난잡하고 계통이 없어질 것 같다. 지금 단지 접전시의 일만 아뢰고 결진하는 법을 논하지 않았으니 그 결진하는 법도 아울러 마련하여 보고하라."[88]

위에서 세종은 함길 감사의 건의에서 5인이 아닌 3인으로 오를 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평상시 훈련과 접전시의 조직 체계가 다르면 아무래도 병사들로서는 혼란을 느낄 것이었다. 만약 이것이 전투 상황

87) 『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4월 계유
88) 『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4월 계유

에서 발생한다면 싸우기 전에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었다. 이에 재검토를 지시했다.

무려 1년이나 넘긴 1435년 6월 함길 감사 등이 회보하였다. 전과 다른 부분은 다음과 같다.

> "5인이 伍가 되어 1인은 防牌를 가지고 劍을 차며, 1인은 弓矢를 차고 槍을 가지며, 3인은 궁시를 차고 검을 가지되, 만일 보병 전투를 하면 1인이 4인의 말을 지키며 主將이 말 지키는 사람을 헤아려 더두게 합니다. 매양 3隊 사이에 火炯 일대를 두되 역시 5인으로 오를 이뤄 방패를 가진 1인은 검을 차고, 화통을 가진 4인은 검을 차며, 말을 지키는 사람은 위와 동일합니다."[89]

핵심은 세종의 의도대로 3인 대신 5인으로 오를 삼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형태는 전과 같고 단지 1인이 아닌 3인이 궁시를, 2인 아닌 4인이 화통을 지닌 것이 달라졌다. 이로 인해 괜히 수만 늘이는 문제가 생길까봐 보병 전투를 하면 1인 내지 2인은 말을 지키게 했다. 과연 이런 식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며 고육지책이라는 느낌마저 준다. 세종도 어쩔 수 없었는지 그대로 받아들였다.[90]

이상 함길도의 사례를 보았을 때 전군 대상의 표준 교범인 『계축진설』에 의거해 기본 훈련은 실시하되, 지역에 따라 특히 방위 문제가 있는 곳에서는 다소 변형된 전투지침서 등을 마련한 뒤 연습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표준 교범 이외에 지역 상황이 반영된 지침서 등에 의거해서 연습하는 것을 병행했다. 그 점에서 종전의 훈련 체계에 비해 진일보했다고 사료된다.

『계축진설』의 편찬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했다.[91]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이나 종전 보다 철저히 정례화하고 감독과 보고를 강화하는 것으로 대처하였다. 마침내 1448년(세종 30)에 『진도』와 『진설』

89) 『세종실록』 권68, 세종 17년 6월 병진
90) 『세종실록』 권68, 세종 17년 6월 병진
91) 『세종실록』 권86, 세종 21년 7월 정묘; 『세종실록』 권117, 세종 29년 7월 정사; 『세종실록』 권118, 세종 29년 12월 계유

을 인쇄하여 각도에 보내며 도절제사영과 각 진에서는 당번 군사로 하여금 매월 세 번씩 진법을 연습하며, 또 봄·가을에 각기 한 차례씩 도회소에 모여 3일 동안 익히게 했다. 도절제사는 진법을 연습한 일시 및 교습의 능부를 살펴 매번 세초에 병조로 이관하여 보고하게 했다.[92] 제도상으로 그 때까지 나온 어떤 것보다 강했다. 그 배경에는 『계축진설』의 보급과 그에 따른 강력한 실천 의지가 있었다.

위 조치는 외방에 한정되지만 중앙은 훨씬 이전부터 강화했다. 1437년(세종 19)에 4중월, 즉 2월·6월·8월·11월에 실시하는 것 외에 매월 2일에 출군 군사의 다소에 따라 진법 훈련을 하게 했다.[93] 그런 양상이 마침내 외방으로 연장된 것이다. 『계축진설』의 편찬이 훈련 체계를 보다 강도 높은 것으로 개편하는데 직접 영향을 주었다.

4. 맺음말

세종대에 이르면 제도 문물의 정비가 전과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그 중에는 공적인 지휘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과 더불어 전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었다. 구체적인 방도의 하나로 진법 훈련을 강화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이전부터 시도했었으나 중앙 중심으로 진행되었을 뿐 전국에 걸쳐 체계화되지 못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표준화된 진법을 수립하는 일이 중요했는데 그 원리를 오행진에서 찾았다.

세종의 즉위 뒤 변계량의 주도로 본격적인 작업이 전개되었다. 그는 과거의 제설 가운데 비교적 고전 병법 이론에 충실했다고 평가된 삼봉의 것을 축으로 익재, 호정 등의 설도 일부 수용된 오행진법을 강구하였다. 드디어 1421년 첫 번째 표준안인 진도법이 공포되었다. 병조의 보고 형태로 공

92) 『세종실록』 권122, 세종 30년 10월 신사
93) 『세종실록』 권78, 세종 19년 9월 갑인

포되었으나 변계량의 주장이 근간을 이루었다. 그는 고전 이론에 충실한 진법서를 만들고자 했는데 진도법에서 그런 점이 두드러졌다. 행진에서 결진, 응적, 교장에 이르는 항목마다 담아야 할 최소의 내용을, 원론적인 수준에서 정리하였다.

진도법이 나오자 곧 전국적으로 보급했다. 대열을 명목으로 진법을 훈련시킬 훈도관을 각도에 파견했다. 아울러 진법 훈도 사목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특히 이를 계기로 외방 중심으로 훈련 체계를 정비했다. 곧 진법 훈련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체계화시켜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를 올리려 했다. 하지만 교범인 진도법이 이론 중심으로 내용마저 간략하여 현실성에 문제가 없지 않았다. 더구나 당시 외방의 상황은 복잡하고 어수선했다. 그럼에도 원론에 충실한 표준화된 진법에 의거하여 일률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일단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이론에 충실하게 훈련을 시킨 뒤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차 수정, 보완해가는 것이 능률적이라 인식했던 것 같다. 따라서 이미 그 내부에 개편의 단서가 내재해 있었다. 이는 교범뿐만 아니라 훈련 체계도 마찬가지였다.

1433년 하경복 등에 의해 진도법을 대체하는 『계축진설』이 편찬되었다. 그 현실적 계기를 파저강 정벌을 비롯한 여진과의 전투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 거기에서 얻은 정보가 수정 작업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계축진설』은 진도법의 골격을 일단 유지했으나 여러 부분에 걸쳐 대폭적한 추가, 또는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행진, 결진, 교장, 군령, 응적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유사한 듯 보이나 전체적인 짜임새는 한층 더해졌다.

본문 내용에서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추가 또는 수정되었다. 그 방향은 실전에서 즉각 응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변계량이 제시했던 근본 원리, 즉 후충이 먼저 나가 전을 유인해야 한다는 것도 바꾸었다. 원칙은 버릴 수 없으나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고수하기가 어려웠다.

진도법이 최소 한도의 기초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 원론적인 것을 교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면, 『계축진설』은 그에 더해 장차 일어날 수 있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었다. 내용 전부를 실제 훈련시키는 것이 곤란함에도

수록했던 것은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훈련 교범에 단지 눈앞의 것에 국한하지 않고 미리 예비하는 것까지도 포함시켰다. 그런 점에서 『계축진설』은 한 단계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오행진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였으며, 그것은 『오위진법』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진도법에서는 첫머리를 통해 외방에서의 훈련을 대개 언급했는데, 『계축진설』이 편찬된 뒤에는 중앙과 지방의 조직 성격과 사정이 반영된 체계에 따라 교습하도록 했다. 문제는 적과의 충돌이 잦았던 함길도 등이었다. 이런 곳에 대해서는 전군 대상의 표준 교범인 『계축진설』에 의거해 기본 훈련은 실시하되, 지역 방위를 고려해서 만든 전투지침서 등에 근거해 연습하도록 했다. 즉 표준 교범 이외에 지역 상황이 반영된 지침서 등을 마련해서 연습하는 것을 병행했다. 훈련 체계도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했던 진법 훈련은 『계축진설』의 배포를 계기로 다시 강화되었다. 중외를 막론하고 제도상으로 그 이전보다 강도가 높아졌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물론 감찰 기능이 거세지면서 그에 따른 책임도 한층 분명해졌다. 편찬이 훈련 체계의 개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수정 및 추가 작업에서 지나치게 세부적인 것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이론과 실용의 조화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었다. 이 점이 세종대 진법서 편찬에서 논란이 되었으며 차후 『오위진법』을 낳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세종대 작업의 역사적 의의라 할 수 있다.

(원고투고일 : 2011. 9. 30, 심사수정일 : 2011. 11. 10, 게재확정일 : 2011. 11. 18)

주제어 : 진법서, 진법 훈련, 세종, 진도법, 계축진설, 전투 지침서, 오행진법, 변계량, 오위진법, 진설

<ABSTRACT>

Compilation of Book on Battle Formation(陣法書) and Reorganization of Battle Formation Exercise System during King Sejong in the Joseon Dynasty

Yoon, Hoon-pyo

This study is what clarified its historical significance by analyzing contents of book on battle formation, which was published twice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in the Joseon Dynasty. It considered even on the reorganization of exercise system in battle formation according to the publishment of book on battle formation at the same time.

What was issued primarily in A.D. 1421(3rd year in King Sejong) is called *Jindobeop*(陣圖法). And, what was compiled in A.D. 1433(15th year in King Sejong) is called *Gyechukjinseol*(癸丑陣說). First of all, *Jindobeop* was examined. At this time, it examined understanding about Byeon Gye-ryang(卞季良)'s battle formation, which had been the background of its publication. He made great effort for accepting the classical theory rather than being worried about a problem of applying it to reality. That led to what *Jindobeop* tended to be strong in being biased to theory. It was important to uniformly carry out the standardized exercise that is loyal to theory because of the internal situation in those days.

However, as the combat got fiercer with Jurchens, the reorganization on a exercise method was inevitable. Due to this, book on battle formation was more imminent, which is conducive to the actual battle, than theory. A work of modifying *Jindobeop*, which is the existing exercise textbook, was hurriedly driven. Finally, *Gyechukjinseol*, which is the new book on battle formation, was compiled. This was book on battle formation that can be immediately applied to the actual battle. In addition, the contents were

reinforced with thinking even about a situation that can happen to the battle in the future. In such sense, *Gyechukjinseol* was *Jindobeop* that was advanced one-step further.

In the meantime, the basic exercise was carried out primarily based on *Gyechukjinseol*, which is the exercise textbook of targeting the whole army in a place where is imminent in defense like *Hamgildo* Province(咸吉道). And then, it made them exercise on the basis of combat guidebook, which was made by considering regional situation.

Furthermore, the battle formation exercise, which had failed to be activated in the meantime, was intensively carried out once more in the wake of widely distributing *Gyechukjinseol*. Through this, the compilation of book on battle formation over two times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greatly contributed to reinforcing military power.

Key Words : Book on the Battle Formation, Battle Formation Exercise System, King Sejong, *Jindobeop*, *Gyechukjinseol*, Combat Guidebook

임진왜란 중 선조 직계가족의 피난과 항전

신 명 호*

1. 머리말
2. 선조의 생가와 왕실
3. 선조의 파천결정
4. 선조 직계가족의 피난양상
5. 임해군과 순화군의 항전활동
6. 맺음말

1. 머리말

임진왜란은 조선왕조 500년간 있었던 최대의 국난 중 하나였다. 임진왜란부터 정유재란까지 장장 7년여에 걸친 전쟁으로 조선의 거의 전 국토가 유린되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조선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였고 농토는 황폐화되었다. 이 같은 국난이 발발한 초반에 국왕 선조는 도성을 버리고 파천 길에 올랐다. 또한 국왕 선조는 조선 내부의 힘만으로는 왜군을 물리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했다. 이 결과 해방 이후 임진왜란에 대한 기왕의 연구에서 선조는 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세자 광

*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해군을 제외한 선조 직계가족의 항전 활동 역시 거의 주목되지 않았다. 그에 반하여 義兵 활동, 水軍 활동, 官軍 활동 및 세자 광해군의 分朝活動 등은 임진왜란 극복의 원동력으로서 수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1)]

하지만 왕조시대에 국왕과 그 직계가족의 안위 및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임진왜란 초반 연속되는 패전 속에서 선조와 그 직계가족의 안위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였다. 신립 장군의 충주 패전이 한양에 알려진 직후에 결정된 파천 역시 근본적으로는 선조와 그 직계가족의 안위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왕조시대의 국왕과 그 직계가족은 국가와 운명을 같이하는 존재였다. 국가가 멸망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국왕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국난 시에 국왕과 왕족은 국난극복에 솔선해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임진왜란 중 선조의 파천은 단순히 국왕과 그 직계가족의 안위만이 아니라 국난 시 국왕과 그 직계가족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항전활동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선조 25년(1592) 4월 29일 한밤중에 파천이 결정된 직후, 선조는 그의 직계가족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다. 동시에 그의 아들인 임해군과 순화군을 함경도와 강원도로 보내 勤王兵을 모집하게 하였다. 이는 선조가 자신과 직계가족의 안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절박감에 더하여 국왕인 자신과 직계가족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항전활동을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결합되었기에 나타난 결과였다.

이미 선조의 가족 구성원과 파천 과정 등에 관하여는 수많은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선조의 가족 구성원 자체에 주목하였거나 파천 과정 자체에 주목하였을 뿐, 이를 국난 시 왕실의 안위 확보 및 왕실의 국난극복 솔선이라는 측면과 결합하여 검토하지는 못했다고 하는 한계가 있다.

---

1) 임진왜란의 연구사에 대하여는
오종록, 「임진왜란-병자호란 시기 軍事史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군사』 38, 1999
조원래, 「임진왜란사 연구의 추이와 과제」,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 비평사, 2000
노영구, 「임진왜란 초기 양상에 대한 기존 인식의 재검토」, 『한국문화』 31, 2003 참조.

본 연구에서는 임진왜란 발발 이후 선조가 파천을 결정하기까지의 논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선조가 직계가족의 안위를 확보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국난 시 왕실의 안위 확보 및 왕실의 국난극복 솔선이라는 측면과 결합하여 검토하였다. 아울러 선조의 파천과정에서 그의 직계가족들이 보여준 다양한 피난양상 및 항전활동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임진왜란을 극복하기 위해 국왕 선조와 그의 직계가족이 기여한 측면과 한계를 파악하고 나아가 임진왜란 극복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였다.

2. 선조의 생가와 왕실

선조는 1552년(명종 7)에 德興大院君과 河東府大夫人 사이에서 태어났다.[2] 덕흥대원군은 중종과 중종의 후궁인 昌嬪 안씨 사이에서 출생한 왕자군이었으며 永陽君의 동생이었다. 덕흥대원군의 아들인 선조는 중종의 손자로서 처음에 河城君에 책봉되었다.

덕흥대원군은 본처인 하동부대부인 정씨와의 사이에 선조를 포함하여 아들 셋과 딸 1명 등 총 4명의 자녀를 두었다. 또한 첩과의 사이에 庶女 1명을 두었다. 덕흥대원군의 자녀 5명 중에서 선조는 셋째였다. 즉, 국왕이 되기 이전 선조에게는 친형 2명과 친여동생 2명이 있었던 것이다. 河原君 李鋥이 큰 형이었고 河陵君 李鏻이 작은 형이었는데, 이들은 선조의 同母兄이었다.[3] 또한 安滉에게 시집간 여동생은 동복 여동생이었고,[4] 南忠元에게 시집간 여동생은 이복 여동생이었다.[5] 이 같은 선조의 생가를 정리하면 〈도 1〉과 같다.[6]

---

2) 『선조수정실록』 권 1, 총서
3) 『선조실록』 권 36, 26년(1593) 3월 10일(을축)
4) 『선조실록』 권 8, 7년(1574) 5월 23일(병신), "上以妹夫安滉中及第初試 喜而遺詩"
5) 『선조실록』 권 115, 32년(1599) 7월 29(병자), "南忠元妻〈今上同生蘗妹〉"
6) 선조의 가족관계는 지두환, 『선조대왕과 친인척』, 역사문화, 2002 참조

〈도 1〉 선조의 생가

중종
‖---------영양군
창빈 안씨　　덕흥대원군
‖---------하원군
하동부대부인　　하릉군
하성군(선조)
녀(안황 부인)
‖---------녀(남충원의 부인)
첩

선조는 16살 되던 1567년에 명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당시 선조는 명종에게 立後되었으므로 공식적으로는 명종과 仁順王后 심씨의 아들이 되었다. 선조는 왕위에 오른 지 2년 후인 1569년에 18살의 나이로 懿仁王后 박씨와 혼인하였다. 선조가 41살 되던 1592년 4월 13일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였고, 그로부터 정확히 보름만인 4월 28일에 광해군이 세자에 책봉되었다.[7] 이어서 2일 후인 4월 30일 새벽에 선조는 파천 길에 올랐다.

〈도 2〉 파천 직전 조선왕실의 왕위계승도

명종
‖----------선조(입후)
인순왕후 심씨　　‖----------광해군(세자)
의인왕후 박씨　　‖
세자빈 유씨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선조에게는 배우자 5명과 자녀 9명이 있었다. 배우자 5명 중에서 1명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고, 9명의 자녀 중에 5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은 이미 혼인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선조 및 선

7) 박동량,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권 1, 4월 28일, "冊封光海君 爲世子".

조의 배우자 5명과 자녀 9명 그리고 자녀 6명과 혼인한 며느리 5명과 사위 1명을 합한 총 21명이 선조의 직계가족으로서 이들이 임란발발 시 조선왕실의 핵심이었다. 이를 정리하면 〈도 3〉과 같다.

〈도 3〉 임진왜란 당시 선조의 직계가족

선조
‖----------자녀 없음
의인왕후 박씨(朴應順의 딸)
‖----------임해군(1572년 생, 당시 21세)-며느리(許銘의 딸)
광해군(1575년 생, 당시 18세)-며느리(柳自新의 딸)
공빈 김씨(金希哲 딸)
‖----------신성군(1578년 생, 당시 15세)-며느리(申硉의 딸)
정원군(1580년 생, 당시 13세)-며느리(具思孟의 딸)
정신옹주(1582년 생, 당시 11세)-사위(徐渻의 아들)
정혜옹주(1584년 생, 당시 9세)
의창군(1589년 생, 당시 4세)
숙의 김씨(金漢佑의 딸)
‖----------순화군(1580년 생, 당시 13세)-며느리(黃赫의 딸)
숙용 김씨
‖----------인성군(1588년 생, 당시 5세)
정빈 민씨(閔士俊의 딸)
‖
정빈 홍씨(洪汝諴의 딸)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선조는 명종에게 입후하여 국왕이 되었지만, 생가의 형제자매는 여전히 선조에게 가까운 가족이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던 당시 선조의 형제자매인 하원군 이정, 하릉군 이린, 안황 부인, 남충원 부인 등은 이미 혼인한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각자 따로 살았다.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선조와 함께 궁궐에서 살던 직계가족은 배우자 5명과 함께 혼인 이전의 자녀들 3명 등 총 9명이었다. 조선시대 왕의 자녀는 혼인한 후 궐 밖으로 나가 사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선조는 배우자 5명을 포함하여 혼인 전인 인성군과 의창군 그리고 딸 2명 중에서 혼인 전인 정혜옹주와 함께 궁궐에서 살았다. 나머지 혼인한 아들 5명과 며느리 5명 그리고 혼인한 딸 1명과 사위 1명 등 12명은 궁궐 밖에서 살았다.

임진왜란은 선조 25년(1592) 4월 13일에 발발했지만, 선조가 전쟁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때는 4월 21일이 되어서였다. 그날 경상도 순변사 이일이 문경에서 보낸 보고서가 도착했는데, 그 중에 "오늘날의 적은 神兵과 같아서 감당해 낼 자가 없으니, 臣은 오직 죽을 따름입니다."[8] 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런 보고를 접한 선조는 미투리 등 멀리 가는 도구를 구입하고, 또 사복시에 명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말을 정돈케 하였다.[9] 이는 만약의 경우에 파천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와 함께 선조는 궁궐 밖에 살던 12명의 자녀들과 사위, 며느리들을 궁궐 안으로 불러들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광해군의 경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이전에 유자신의 딸과 혼인하고 궁궐에서 나가 梨峴宮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광해군은 1592년 4월 28일 세자에 책봉되었는데, 그보다 3일 전인 4월 25일에 이미 궁궐에 들어와 있었다.[10] 이외에 신성군과 정원군은 물론 그들의 부인들도 선조의 파천을 수행한 것이 확인되므로[11], 그들 역시 궁궐에 들어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8) 박동량,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권 1, 4월 21일, "李鎰到聞慶馳啓曰 今日之賊 有似神兵 無人敢當 臣卽有死而已"

9) 박동량,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권 1, 4월 21일, "於是 宮中亦有不固之志 遂貿繩鞋等遠行諸具 又命司僕寺 整立馬 以待不時之用".

10) 『선조실록』 권 26, 25년(1592) 4월 28일(정사), "上微哂曰 光海君聰明好學 予欲立而爲國本 於卿等意如何 大臣以下 一時起拜曰 宗社生民之福也 申磏曰 梨峴之宮 扈衛宜當 上曰 予於春初 擇日將冊 而適其時德嬪喪事未葬 遷延至今 光海君入內 已三日矣 梨峴空宮 扈衛何益".

11) 『선조실록』 권 26, 25년 5월 8일(정묘), "信城君定遠君及其婦人兩人 則各一日三時 侍女手母下內人等 各一日兩時 自今日宣飯供饋".

또한 정선옹주의 부마로 결정된 달성위 서경주 역시 선조의 파천을 수행하였으므로[12] 그 역시 궁궐에 들어와 있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임해군과 순화군은 물론 그들의 부인들 역시 궁궐에 들어와 있었다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결국, 임진왜란이 발발한 직후 선조는 궐 밖에 있었던 아들과 며느리, 사위들을 모두 궁궐로 불러 들였던 것이다.

따라서 파천이 결정되는 4월 29일 밤 이전에 궁궐에는 선조를 비롯하여 그의 배우자 5명, 아들 7명, 딸 2명, 며느리 5명, 사위 1명 등 선조의 직계가족 총 21명이 모두 모여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선조의 두 친형인 하원군과 하릉군 역시 파천이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궁궐 안에 들어와 있었다.[13] 즉, 선조는 자신의 직계가족과 친형 등 가까운 친족들을 파천에 대비하여 의도적으로 궁궐로 불러들였던 것이다.

이외에도 선조의 파천 길에 동참한 왕실사람들이 더 있었다. 예컨대 선조의 친여동생에게 장가든 안황, 대비인 인순왕후 심씨의 동생인 심충겸, 왕비인 의인왕후 박씨의 남동생인 박동언, 선조의 사위인 서경주의 부친 서성 등이었다. 다만 이들은 양반관료로서 선조의 파천길에 동행하였다.[14]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파천 직전 입궐한 선조의 직계가족

대 상 자	신 분	나 이	입궐상황
선 조 (1명)	국 왕	41세(1552년 생)	궐 내
선조의 배우자 (5명)	의인왕후 박씨(왕비) 숙의김씨-훗날의 인빈김씨(후궁) 정빈 홍씨(후궁) 정빈 민씨(후궁) 숙용 김씨-훗날의 순빈 김씨(후궁)	38세(1555년 생) 38세(1555년 생) 미상 미상 미상	궐 내

12) 『서경주묘표』, "壬辰以扈從勞 加資義".
13) 유성룡, 『懲毖錄』 권 1, 4월 30일, "初昏 召宰執議出避 上御東廂地坐 張燈燭 宗室河原君 河陵君等 侍坐".
14) 박동량,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권 1, 4월 30일.

선조의 아들 (7명)	임해군(왕자)-공빈김씨 소생 광해군(왕자)-공빈김씨 소생 신성군(왕자)-숙의김씨 소생 정원군(왕자)-숙의김씨 소생 순화군(왕자)-숙용김씨 소생 인성군(왕자)-정빈민씨 소생 의창군(왕자)-숙의김씨 소생	21세(1572생) 18세(1575생) 15세(1578생) 13세(1580생) 13세(1580생) 5세(1588생) 4세(1589생)	입궐(기혼) 입궐(기혼) 입궐(기혼) 입궐(기혼) 입궐(기혼) 궐내(미혼) 궐내(미혼)
선조의 딸 (2명)	정신옹주-숙의김씨 소생 정혜옹주-숙의김씨 소생	11세(1582생) 9세(1584생)	입궐(기혼) 궐내(미혼)
선조의 친형 (2명)	하 원 군 하 릉 군	48세(1545생) 43세(1550생)	입 궐 입 궐

3. 선조의 파천결정

선조 25년(1592) 4월 13일에 왜군이 부산을 기습공격하면서 시작된 전쟁 소식이 조정에 알려진 때는 4월 17일 이른 아침이었다.[15] 4월 17일 당일, 선조는 왜군을 막기 위해 8도에 左右防禦使를 파견하고 아울러 이일을 경상도 巡邊使로 임명해 그날로 출발하게 했다.[16] 이런 조치는 통상적인 군사대응으로서 이는 선조가 전쟁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선조가 전쟁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때는 4월 21일이 되어서였다. 그날 경상도 순변사 이일이 문경에서 보낸 보고서가 도착했는데, 그 중에 "오늘날의 적은 神兵과 같아서 감당해 낼 자가 없으니, 臣은 오직 죽을 따름입니다."[17]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런 보고를 접한 선조는 미투리 등

15) 유성룡, 『懲毖錄』 권 1, 4월 17일, "早朝 邊報始至 乃左水使朴泓狀啓也"
16) 박동량,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권 1, 4월 17일, "遂分遣八道左右防禦等使 以李鎰爲慶尙道巡邊使 卽日拔遣"
17) 박동량,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권 1, 4월 21일, "李鎰到聞慶馳啓曰 今日之賊 有似神兵 無人敢當 臣卽有死而已"

멀리 가는 도구를 구입하고, 또 사복시에 명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말을 정돈케 하였다.[18] 만약의 경우에 파천하기 위한 조치였다.

연이은 급보와 함께 선조의 조치는 한양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여 피난 가는 자는 자들이 많았다.[19] 4월 27일에 순변사 이일이 상주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이 한양에 알려지자[20]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패배 소식을 접한 한양 사람들이 대거 성 밖으로 피난 가는 바람에 도성을 지킬 병력이 부족하였다.[21] 이런 상황에서 선조는 조정 신료들과 논의하지도 않고 파천하기로 결정한 후 은밀하게 파천 준비를 하였다. 당시의 상황이 유성룡의 『懲毖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이때에 이미 이일이 패전했다는 보고가 들어오니 인심이 흉흉해졌다. 궁중에서도 또한 파천할 뜻이 있었지만 外庭에서는 알지 못했다. 理馬 김응수가 賓廳에 이르러 영의정과 귓속말을 하고 갔다가 다시 오니 보는 사람들이 의심했다. 이는 당시 영의정이 사복시 제조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승이 이항복이 손바닥에 '永康門 안에 말을 세우라.'고 하는 여섯 글자를 써서 나에게 보였다.[22]

위에 보이는 永康門은 창경궁의 후원에 접해 있는 문으로서 조정 신료들은 접근할 수도 없는 은밀한 문이었다.[23] 선조는 신료들 몰래 파천하기 위해 이곳에 말을 대령하게 했던 것이다. 하지만 선조가 파천하려 한다는 소문은 곧 퍼졌고, 조정 신료들은 물론 종친들도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閤門

18) 박동량,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권 1, 4월 21일, "於是 宮中亦有不固之志 遂貿繩鞋等遠行諸具 又命司僕寺 整立馬 以待不時之用"
19) 박동량,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권 1, 4월 23일, "時 南報漸緊 京城小民 多有避出外方者"
20) 박동량,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권 1, 4월 27일, "李鎰到尙州 未及布陣 而一軍皆沒 是日報至"
21) 박동량,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권 1, 4월 27일, "閭巷一空 雖欲守成 已無人矣"
22) 유성룡, 『懲毖錄』 권 1, "時 李鎰敗報已至 人心洶洶 內間有去邠之意 外庭不知 理馬金應壽 到賓廳 與首相耳語 去而復來 觀者疑之 蓋首相 時爲司僕提調故也 都承旨李恒福 於掌中書立馬永康門內六字 示我"
23) 『중종실록』 권 87, 33년(1538) 2월 26일(경오), "後苑永康門 晝則常閉 夕則開之 以通巡軍者 例也 其門與大內 只隔一門 密近莫甚焉"

밖에 모인 종친들은 통곡하며 도성을 버리지 말라 요구하였고[24], 영중추부사 김귀영은 "도성을 버리자는 의론을 주장하는 자는 곧 小人입니다."[25]라는 말까지 했다. 결국 선조는 "종묘와 사직이 이곳에 있는데 내가 장차 어디로 간단 말인가?"[26]라고 하며 파천을 취소했다.

그러나 선조가 파천하려 했다는 소문은 불안한 인심을 더욱 흉흉하게 만들었다.[27] 대신들은 인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자를 세울 것을 요청하였다.[28] 이 결과 4월 28일에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되었다.[29] 세자 책봉으로 인심이 안정되는 듯 했지만, 순변사 신립 장군이 충주전투에서 전사하였다는 소식이 4월 29일에 전해지면서 한양 전체는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다. 유성룡의 『懲毖錄』에는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 신립이 떠난 후 서울 사람들은 날마다 싸움에 이긴 보고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30일) 전날(29일) 저녁에 전립을 쓴 사람 3명이 말을 달려 숭인문으로 들어오므로, 성안 사람들이 다투어 전쟁 소식을 물으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순변사(신립 장군) 군관의 종들인데, 어제 순변사가 충주에서 패전하여 죽고, 여러 군사들도 크게 무너졌으므로 우리들은 간신히 몸만 홀로 빠져 나와서, 집안사람들에게 알리어 피란시키고자 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크게 놀라서,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전하고 알려서, 얼마 안 되어 온 도성 안이 모두 놀라게 되었다. 초저녁에 임금께서 조정중신들을 불러 한양을 떠나 피란 갈 일을 의논하였는데, 임금께서 東廂으로 나오셔서 마루에 앉았으며 촛불을 켜놓고 종친 하원군과 하릉군이 그 옆에 모시고 앉았다.[30]

---

24) 유성룡, 『懲毖錄』 권 1, "宗親聚閤門外 痛哭 請勿棄城".
25) 유성룡, 『懲毖錄』 권 1, "領府事金貴榮 尤憤憤 與諸大臣入對 請固守京城 且曰 倡議棄城者 乃小人也".
26) 유성룡, 『懲毖錄』 권 1, "上敎曰 宗社在此 予將何適".
27) 유성룡, 『懲毖錄』 권 1, "然事不可爲也".
28) 유성룡, 『懲毖錄』 권 1, "大臣請建儲 以繫人心 從之".
29) 박동량,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권 1, 4월 28일, "冊封光海君 爲世子".
30) 유성룡, 『징비록』 권 1, 4월 30일조.

위의 기록대로 선조는 4월 29일 저녁에 신립의 패전 소식을 듣고 다급하게 파천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파천 논의는 격렬한 논쟁을 불러왔다. 일부는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일부는 어쩔 수 없으니 파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파천 반대의 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 충주에서의 패전 보고가 이르자, 주상이 대신과 대간을 불러 입대하게 하고 비로소 파천에 대한 말을 발의하였다. 대신 이하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당함을 극언하였다. 영중추부사 김귀영이 아뢰기를, '종묘와 園陵이 모두 이곳에 계시는데 어디로 가시겠다는 것입니까? 경성을 고수하여 외부의 원군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우승지 신잡은 아뢰기를, '전하께서 만일 신의 말을 따르시지 않고 끝내 파천하신다면 신의 집에 80노모가 계시니 신은 종묘의 대문 밖에서 스스로 자결할지언정 감히 전하의 뒤를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수찬 박동현은 아뢰기를, '전하께서 일단 도성을 나가시면 인심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하의 輦을 멘 인부도 길모퉁이에 연을 버려둔 채 달아날 것입니다.' 하고 목 놓아 통곡하니 주상이 얼굴빛이 변하여 내전으로 들어갔다.[31]

영중추부사 김귀영이 주장한 반대논리의 핵심은 종묘사직이 한양에 있으니 파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즉, 선조는 조상들을 버리고 가면 안 된다는 논리로서, 이는 유교의 효도 윤리에 입각한 반대라 할 수 있었다. 우승지 신잡의 핵심 주장은 80 노모를 버리고 자신은 도저히 피난 갈 없다는 것인데, 이 역시 유교의 효도 윤리에 입각한 반대라 할 수 있었다.

『주자가례』에서는 홍수나 화재, 도적이 들어 집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의 선후를 제시하였는데, 그 순서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

31) 『선조실록』 권 26, 25년(1592) 4월 28일(정사), "忠州敗報至 上召大臣臺諫入對 始發去邠之議 大臣以下皆涕泣 極言其不可 領中樞府事金貴榮啓曰 宗廟園陵 皆在此 去將何往 當固守京城 以竢外援 右承旨申磼啓曰 殿下若不聽臣 終至播越 則臣家有八十老母 欲自刎於宗廟大門之外 不敢從殿下去也 修撰朴東賢啓曰 殿下一出城 則人心不可保 荷輦之夫 亦將委諸路隅而走矣 仍失聲痛哭 上色變 遽還內"

> 혹 홍수나 화재, 도적이 있으면 먼저 사당을 구하고 신주와 遺書를 옮긴다. 그 다음으로 제기를 옮긴다. 그리고 난 후에 집안 재물을 옮긴다.[32]

즉, 집이 위기에 빠졌을 때, 구해야 할 순서가 사당, 신주와 유서, 제기, 가재의 순서로 된 것이었다. 『주자가례』의 이런 가르침은 파천에 직면한 선조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파천에 반대하는 신료들은 만약 한양을 버리고 가면 왜적이 한양에 들어와 종묘와 사직 그리고 능묘들을 파괴할 것이므로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집이 위기에 빠졌을 때, 제일 먼저 사당을 구해야 하듯이,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도 제일 먼저 종묘와 사직 그리고 능묘들을 지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양을 사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수찬 박동현은 파천하는 순간 인심도 잃고 나라도 잃을 것이라는 논리로 파천을 반대하였다. 수찬 박동현은 영중추부사 김귀영이나 우승지 신잡의 유교 윤리적인 반대와는 달리 지극히 현실적인 측면에서 반대논리를 제시한 것이었다. 요컨대 당시 파천에 반대하는 논리는 결국 유교 윤리론과 현실론 두 가지로 귀결되었다고 하겠는데, 이는 조선이 유교사회였기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선조실록』의 기록으로 보면, 선조는 파천 이야기를 처음 꺼냈다가 의외로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자 놀라서 내전으로 들어가 버린 듯하다. 그러나 선조는 잠시 후에 다시 신료들과 만나 파천 의사를 또다시 제기했다. 당연히 신료들은 격렬하게 반대했는데, 반대논리는 이전의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런 격렬한 반대 속에서도 끝내 파천이 결정된 이유는 이산해와 유성룡 등 대신들이 현실적인 상황을 들어 찬성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파천이 결정된 상황에서도 양사에서는 곧바로 이산해를 파면하라고 요청하는 등 여전히 파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선조는 반대여론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유교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파천에 반대하는 논리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유교 윤

32) 『주자가례』 통례, "或有水火盜賊 則先求祠堂 遷神主遺書 次及祭器 然後及家財".

리적인 측면에서 선조가 취할 수 있는 대응조치는 파천을 함으로써 종묘와 사직 그리고 능묘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사당을 구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음 단계로 해야 할 조치에 지나지 않았다. 즉 '신주와 유서'를 옮기는 것이었다. 선조는 종묘와 사직의 신주들을 모시고 오게 하여 파천 행렬에 동참시킴으로써[33], 유교 윤리적 반대에 어렵지 않게 대응 하였다.

그런데 유교 윤리적 반대논리에 대한 대응이 비교적 수월하였음에 비해, 수찬 박동현이 제기한 현실적 반대 논리에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전하께서 일단 도성을 나가시면 인심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하의 輦을 멘 인부도 길모퉁이에 연을 버려둔 채 달아날 것입니다.'라는 수찬 박동현의 언급은 당시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다.

파천 시 선조의 輦을 메게 될 인부들은 선조에 대한 충성심이 가장 강한 군사들이었다. 그런 군사들이 선조를 버리고 달아난다는 것은 곧 선조와 조선왕실에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나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선조와 조선왕실에 희망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그 같은 대응책으로 등장한 것이 왕자들을 파견해 근왕병을 모집하는 것이었다. 선조는 왕자들을 파견해 근왕병을 모집하게 함으로써 자신과 조선왕실이 전쟁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님을 과시하려 했다.

그런데 왕자들을 파견해 근왕병을 모집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왕자들을 諸道에 파견해 근왕병을 모집하게 하고, 세자는 대가를 수행하게 할 것을 요청하여 그렇게 하기로 결정되었다."[34]는 언급을 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당시 선조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으며, 그 중에 2명은 미성년이었다. 따라서 세자 광해군을 제외한다면 4명의 왕자들을 모두 파견해 근왕병을 모집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선조는 4명의 왕자를 모두 파견한 것이 아니라 임해군과 순화군 두 명의 왕자만을 각각

33) 『연려실기술』 선조조 고사본말, 임진왜란 대가서수, 4월 29일, "令祠官奉廟社主先行 世子隨後發 信城君珝定遠君陪從"

34) 유성룡, 『징비록』 권 1, 4월 30일, "因請分遣王子諸道 使呼召勤王 世子隨駕"

함경도와 강원도로 가게 했다. 당시 상황에서 다른 道에도 왕자들을 보내 근왕병을 모집할 수 있었는데, 하필 함경도와 강원도에만 임해군과 순화군을 보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무엇보다도 파천이 결정되던 당시 일차적인 파천 목적지는 개성 또는 평양이었다. 개성과 평양이 소재하는 황해도와 평안도는 장차 선조가 머물게 될 것이므로 그곳에서 왕자들이 근왕병 모집 활동을 할 필요는 없었다. 이에 따라 아직 왜적이 침략하지 않은 강원도와 함경도가 근왕병 모집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지로 판단되어 임해군과 순화군이 파견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선조가 신성군과 정원군은 자신을 수행하게 하고, 임해군과 순화군만 보내 근왕병을 모집하게 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우선 당시 임해군은 21세로서 선조의 큰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심을 많이 잃어 친동생인 광해군이 세자에 책봉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당시 상황에서 임해군과 광해군이 함께 있기는 매우 불편하였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선조는 큰아들 임해군을 함경도로 보냈다고 판단된다.

또한 15세의 신성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3세의 어린 순화군이 강원도로 파견된 이유는 선조의 개인적인 편애 때문으로 생각된다. 선조는 당시의 후궁 중에서 숙의 김씨를 가장 총애하였다.[35] 또한 아들 중에서는 숙의 김씨 소생의 신성군을 가장 총애하였다.[36] 선조는 파천 때문에 부득이하게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다. 따라서 선조는 신성군으로 하여금 자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만약의 경우에 광해군을 대신하게 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성군의 친동생인 정원군 역시 숙의 김씨 소생이었기에 선조를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근왕병을 모집하게 된 임해군이나 순화군은 상대적으로 선조의 관심 밖에 있던 왕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선조의 파천 결정은 이처럼 황급하게 이루어졌고, 파천 실행 역시 황급하게 이루어졌다. 파천 논의는 29일 저녁에 시작되었으므로 결론이 났을 때는 밤이 깊었다. 유성룡의 『懲毖錄』에 의하면, 파천 논의가 결정되고 잠

35) 유성룡, 『雲巖雜錄』, 雜記, "金氏寵冠後宮"
36) 유성룡, 『雲巖雜錄』, 雜記, "東宮未建 而信城最有寵於上"

시 후에 이일의 장계가 도착하였는데, 그때 更漏조차도 울리지 않았다고 한다. 경루는 오후 8시쯤인 초경부터 울렸으므로, 이일의 장계는 아무리 일러도 오후 8시 이후에 도착했다고 생각된다. 이일의 장계에는 왜적이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도성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선조는 그날 새벽에 황급히 파천 길에 올라야 했다. 『白沙年譜』를 인용한 『연려실기술』에서는 선조가 30일 새벽 四鼓에 파천하였다고 하였는데[37], 사고는 새벽 2시쯤 되는 시간이다. 『선조실록』에는 파천 당시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 새벽에 주상이 인정전에 나오니 백관들과 사람, 말 등이 대궐 뜰을 가득 메웠다. 이날 온종일 비가 쏟아졌다. 주상과 세자는 말을 타고, 중전 등은 뚜껑 있는 교자를 탔는데 홍제원에 이르러 비가 심해지자 淑儀 이하는 교자를 버리고 말을 탔다. 宮人들은 모두 통곡하면서 걸어서 따라갔으며, 종친과 호종하는 문무관은 그 수가 1백 명도 되지 않았다. 점심을 벽제관에서 먹는데 왕과 왕비의 반찬은 겨우 준비되었으나 동궁은 반찬도 없었다. 병조판서 김응남이 흙탕물 속을 분주히 뛰어다녔으나 여전히 어찌 해 볼 도리가 없었다. 경기관찰사 권징은 무릎을 끼고 앉아 눈을 휘둥그레 뜬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38]

위의 내용을 통해 선조의 파천은 치밀한 계획 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결정, 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곧 선조 직계가족의 피난 역시 치밀한 계획 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

37) 『연려실기술』 권 15, 선조조고사본말, 壬辰倭亂大駕西狩, "三十日曉四鼓 車駕具發"
38) 『선조실록』 권26, 25년(1592) 4월 30일(기미)

4. 선조 직계가족의 피난양상

선조는 파천 결정과 동시에 임해군과 순화군에게 근왕병 모집 역할을 맡겼다. 이에 따라 임해군과 순화군 및 그들의 부인을 포함한 4명은 파천에 앞서 선조와 헤어졌다. 이외에 선조의 두 형 중에서 하원군은 안변으로 피난하고 하릉군은 통천으로 피난하면서 이들 역시 파천에 앞서 선조와 헤어졌다.[39] 통천의 금강산으로 피난했던 하릉군은 관북지역이 왜적의 손아귀에 빠진 후 상황이 급박해지자 1592년 가을에 스스로 목을 매 죽는 비극을 당하였다.[40] 선조의 파천 길에 동행했던 가족들 역시 어려운 상황을 겪어야 했다.

4월 30일 새벽에 선조는 임해군과 순화군 및 그들의 부인들 그리고 하원군, 하릉군 등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계 가족 17명과 함께 파천 길에 올랐다. 5월 1일 저녁에 개성에 도착한 선조는 이후 평양, 영변을 거쳐 6월 23일에 의주에 도착했다. 이처럼 파천 일정이 화급하고 위험하였기에, 선조의 직계가족들 중에서 파천 행렬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제일 먼저 신성군과 정원군이 파천 행렬에서 벗어났다. 5월 1일 저녁 선조를 따라 개성에 도착했던 신성군과 정원군은 5월 3일에 파천 행렬을 떠나 먼저 평양으로 갔다. 장차 개성을 떠나 평양으로 파천하려던 선조는 먼저 신성군과 정원군을 기성부원군 유홍, 이조참판 이항복 등과 함께 평양으로 보내 성지를 수리하게 함으로써 평양을 사수할 계획을 세우는 한편, 평안도 병사들을 불러 모아 어가를 기다리게 하였다.[41] 신성군과 정원군은 선조가 5월 8일 평양에 도착함으로써 다시 파천 행렬에 합류했다. 이후 신성군과 정원군은 5월 29일에 다시 선조와 헤어져 먼저 영변으로 갔다

39) 『선조실록』 권 36, 26년(1593) 3월 10일(을축), "大駕西幸之初 上母兄河源君鋥避亂于安邊 河陵君鱗避亂于通川"
40) 『선조수정실록』 권 26, 25년(1592) 10월 1일(정해)
41) 『선조실록』 권 26, 25년(1592) 5월 3일(임술)

가[42] 6월 13일에 선조가 영변에 도착함으로써[43] 다시 만났다. 따라서 신성군과 정원군은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5일간 그리고 5월 29일부터 6월 13일까지 13일간 파천 행렬에서 벗어난 셈이 된다.

두 번째로 파천 행렬에서 벗어난 주인공은 정혜옹주였다. 5월 4일, 선조는 개성을 떠나 평양으로 향하였다. 당시 선조의 파천 길에 동행한 왕자와 옹주 중에서 혼인 전의 왕자와 옹주는 3명이었다. 그 중 가장 어린 사람은 숙의김씨 소생의 의창군으로서 4살이었다. 그 위로 정빈 민씨 소생의 인성군이 5살 그리고 숙의김씨 소생의 정혜옹주가 9살이었다. 이들 왕자와 옹주는 당연히 그들의 생모가 보살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4살의 의창군과 9살의 정혜옹주는 모두 숙의김씨 소생이었다. 화급한 파천 행렬에서 숙의김씨 혼자서 두 명의 어린아이를 돌보기는 너무나 벅찬 일이었다. 이에 따라 9살의 정혜옹주가 5월 4일에 파천 행렬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선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당시 정혜옹주가 아직 어렸는데 피난길이 어수선하고 말을 준비할 수 없었으므로, 주상이 수행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자원하여 다른 길로 데리고 가서 난리를 피하게 하면 후한 상을 내릴 것이라고 하였다. 내수사의 관원 윤백상이 명령에 호응하여 길을 바꿔 황해도 산길로 들어가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왜적을 피한 후 겨울에야 사잇길로 의주에 이르렀다. 정혜옹주는 뒤에 해숭위 윤신지에게 하가하였다.[44]

그런데 당시의 피란 행렬 중에서 가장 어린 왕족은 4살의 의창군이었다. 그럼에도 4살의 의창군 대신 9살의 정혜옹주를 다른 곳으로 피난 보낸 이유는 역시 딸보다는 아들을 중히 여겼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

42) 박동량,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권 1, 5월 29일
43) 박동량,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권 1, 6월 13일
44) 『선조수정실록』 권 26, 25년(1592) 5월 1일(경신), "時 貞惠翁主尙幼 行中紛沓不能備騎 上命從官自願率往 從他路避兵 當有重賞 內需司官尹百祥應旨 轉入黃海山路 艱關避賊 冬從間路赴義州 翁主後嫁海嵩尉"

세 번째로 피난 행렬에서 벗어난 사람은 왕비 의인왕후 박씨와 세자빈 유씨였다. 5월 4일 개성을 떠난 선조는 5월 8일에 평양에 도착했다. 그러나 전황이 급박하여 6월 11일에 평양을 떠났다. 당시 선조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를 놓고 논의가 분분했다. 일부는 함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는 영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흥으로 가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함흥이 건국시조 태조 이성계의 고향이자 험준한 산악지역이기에 조선 왕조로서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영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함흥도 불안하니 궁극적으로 명나라로 망명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영변으로 가야한다고 했다.[45]

이런 논란 속에서 선조는 일단 함흥 쪽으로 가기로 잠정 결정했다. 다만 함흥으로 가려면 태백산맥을 넘어야 하기에 6월 6일에 미리 왕비 의인왕후 박씨가 함흥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다.[46] 그런데 당시에 세자빈 유씨에게는 한 달도 되지 않은 젖먹이가 있었다. 즉, 세자빈 유씨는 지난 5월 12일에 해산하였던 것이다.[47] 이에 의인왕후 박씨를 비롯하여 세자빈 유씨 그리고 왕자도 함흥으로 가게 되었다.[48]

그런데 함흥으로 가게 된 왕자가 어느 왕자인지와 선조의 후궁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 세자빈 유씨가 갓 낳은 아기는 분명히 생모와 함께 함흥으로 갔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5살의 인성군과 4살의 의창군 역시 함흥으로 갔으리라 판단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성군의 생모인 정빈 민씨, 의창군의 생모인 숙의 김씨 역시 함께 떠났다고 보아야 하며, 그것은 결국 선조의 모든 배우자와 함께 미성년의 어린 왕자들도 함께 보냈다고 보는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정리하면, 6월 6일 의인왕후 박씨와 세자빈 유씨를 필두로 숙의 김씨, 정빈 홍씨, 정빈 민씨, 숙용 김씨 및 인성군, 의창군, 세자빈 유씨의 갓난아기 등이 미리 함흥으로

45) 박동량,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권 1, 6월 2일
46) 박동량,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권 1, 6월 6일
47) 정탁, 『藥圃集』 권 4, 雜著, 避難行錄, 萬曆壬辰 5월 12일(신미), "王世子嬪宮 解産".
48) 『연려실기술』 선조조 고사본말, 임진왜란 대가서수, 6월 2일, "初六日 兪泓崔滉等 侍衛中殿嬪宮王子 發向咸興".

떠났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선조가 의인왕후 박씨의 뒤를 이어 함흥 방면으로 가려고 하자, 좌의정 윤두수가 함흥보다는 영변 쪽이 안전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선조는 그 건의에 따라 영변으로 향했다.[49] 6월 13일에 영변에 도착한 선조는 6월 14일 세자 광해군과 길을 나누어 자신은 의주 쪽으로 가고 세자 광해군은 강계 쪽으로 가게 하였다. 이 결과 함흥으로 향하던 의인왕후 박씨 및 세자빈 유씨는 다시 길을 돌려 선조를 뒤따라 와서 6월 14일 선조와 합류하였다.[50] 결국 의인왕후 박씨는 8일간 선조의 파천 행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반면 세자빈 유씨 및 갓난아기는 광해군을 따라가기 위해 또다시 선조와 헤어져 6월 17일이 되어 熙川에서 세자 광해군과 합류하였다.[51] 의인왕후 박씨와 함께 함흥으로 떠났던 숙의 김씨, 정빈 홍씨, 정빈 민씨, 숙용 김씨 및 인성군, 의창군 등은 왕후와 함께 선조의 파천 길에 합류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네 번째로 피난 행렬에서 벗어난 주인공은 세자 광해군이었다. 6월 11일 평양을 떠난 선조는 6월 13에 영변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선조는 명나라에 망명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망명을 하려면 의주로 향하는 정주 쪽으로 가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함흥으로 향하는 강계 방면으로 가야 했다. 선조는 비변사 당상, 대신들을 불러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선조실록』에 의하면 선조와 대신들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

> 이날 저녁에 또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최흥원이 아뢰기를, '윤두수의 장계를 보니 왜적의 형세가 이미 위급하여 이곳에 머무르는 것도 불안합니다. 중전의 행차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운산군수 성대업이 도로를 약간 알고 있기에 그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였다. 주상이 이르기를, '중전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였다. 이곽이 아뢰기를, '중전께서는 분명 운산에 도

49) 『선조실록』 권 26, 25년(1592) 6월 11일(기해)
50) 박동량,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권 1, 6월 14일
51) "崔滉自寧邊 承命陪中殿 向咸興未至 而中路 陪嬪宮 是日 來從東宮之行". 51) 정탁, 『藥圃集』 권 4, 雜著, 避難行錄, 萬曆壬辰 6월 17일(을사)

> 착하였을 것이니 왜적과 조금 멀어졌을 것입니다.' 하였다. 최흥원이 아뢰기를, '大駕가 운산으로 가시면 내전과 서로 만나실 것입니다.' 하였다. 이곽이 아뢰기를, '지금 여기 들어온 대신들이 밖에 있을 때에 모두들 말하기를, 만약 강계로 가려면 운산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밤새도록 가면 운산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주상이 이르기를, '여러 신하들의 뜻은 모두 나를 인도하여 강계로 가려는 것인가?' 하였다. 정철이 아뢰기를, '어떤 계책이 좋은지 모르기에 이처럼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주상이 이르기를, '당초에 일찍이 요동으로 갔더라면 좋을 것인데, 의논이 일치하지 않아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처음부터 항상 왜적이 앞에서 나타난 뒤에는 피해 가기 어렵다는 일로 말하곤 하였다.' 하였다. (하략)[52]

선조는 내심 명나라에 망명할 것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날의 회의에서 선조는 요동으로의 망명을 전제하여 의주로 가고, 세자 광해군은 함흥으로 가는 것으로 타협을 보게 되었다. 이 결과 6월 14일에 세자 광해군은 선조와 헤어져 강계 쪽으로 길을 잡았다.[53] 이후 세자 광해군은 선조 26년(1593) 1월에 定州에서 선조와 재회하기까지 7개월 동안 독자적으로 움직이며 分朝활동을 벌였다.[54]

6월 14일 영변을 출발한 선조는 정주를 거쳐 6월 23일 의주에 도착했다. 이즈음 전황이 서서히 역전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순신 장군의 해군이 연승을 거두면서 왜적의 전략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게다가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나 왜적들을 공격했다. 여기에 더하여 12월 24일에 명나라의 이여송이 4만 3천여 원병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면서 전제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의주까지 파천했던 선조는 1년 반이 지난 선조 26년(1593) 10월 4일에 다시 한양에 입성할 수 있었다.

---

52) 『선조실록』 권 26, 25년(1592) 6월 13일(신축)
53) 『선조실록』 권 26, 25년(1592) 6월 14일(임진)
54) 『선조실록』 권 34, 26년(1593) 1월 20일(을해), "大駕發林畔 駐雲興館 夕次定州 是日 王世子自寧邊 先到定州 迎候大駕"

〈표 2〉 파천 중 선조 직계가족의 피난상황

대 상 자	신 분	최초 상황	중간 상황
선 조 (1명)	국 왕	파 천	파 천
선조의 배우자 (5명)	의인왕후 박씨(왕비) 숙의김씨-훗날의 인빈김씨(후궁) 정빈 홍씨(후궁) 정빈 민씨(후궁) 숙용 김씨-훗날의 순빈 김씨(후궁)	선조와 동행 선조와 동행 선조와 동행 선조와 동행 선조와 동행	6.6-14 이탈, 함흥방향 6.6-14 이탈, 함흥방향 6.6-14 이탈, 함흥방향 6.6-14 이탈, 함흥방향 6.6-14 이탈, 함흥방향
선조의 아들 (7명)	임해군(왕자)-부인 광해군(왕자)-부인 신성군(왕자)-부인 정원군(왕자)-부인 순화군(왕자)-부인 인성군(왕자) 의창군(왕자)	선조와 이별 선조와 동행 선조와 동행 선조와 동행 선조와 이별 선조와 동행 선조와 동행	시종 이탈, 근왕병 모집 6.6-14 이탈, 분조활동 5.3-8/5.29-6.13 이탈 5.3-8/5.29-6.13 이탈 시종 이탈, 근왕병 모집 6.11-15 이탈, 함흥방향 6.11-15 이탈, 함흥방향
선조의 딸 (2명)	정신옹주-남편 정혜옹주	선조와 동행 선조와 동행	시종 동행 5.4-겨울 이탈, 황해도
선조의 친형 (2명)	하 원 군 하 릉 군	선조와 이별 선조와 이별	시종 이탈, 안변 시종 이탈, 통천

임진왜란이 끝난 후인 선조 37년(1604) 6월에 선조는 임진왜란 극복에 큰 공훈을 세운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대대적으로 공신들을 책봉했다. 扈聖功臣, 宣武功臣 그리고 淸難功臣의 3공신이 그것이었다. 이 중에서 호성공신은 한양에서 의주까지 선조의 파천을 수행했던 종친과 관료들이었다.[55] 반면 선무공신은 임진왜란에서 큰 승전을 올린 장수들 및 명나라에 원병을 요청한 사신들이었다.[56] 마지막으로 청난공신은 임진왜란 중 발생했던 이몽학의 난을 진압한 사람들이었다.[57]

이 같은 3공신의 책봉은 선조가 임진왜란 극복의 주요 원동력으로서 자

55) 『선조실록』 권 175, 37년(1604) 6월 25일(갑진). "以自京城至義州 終始隨駕者 爲扈聖功臣"
56) 『선조실록』 권 175, 37년(1604) 6월 25일(갑진). "以征倭諸將及請兵糧使臣 爲宣武功臣"
57) 『선조실록』 권 175, 37년(1604) 6월 25일(갑진). "以討平李夢鶴 爲淸難功臣".

신의 의주 파천, 명나라의 지원군 파병, 관병과 의병의 승전 및 반란 진압을 꼽은 결과였다. 선조는 호성공신과 선무공신을 책봉함으로써 자신의 의주 파천 및 청병외교를 임진왜란 승리의 탁월한 선택으로 공인하였던 것이다.

선조의 파천 길에 동행했던 가족 및 외척 중에서는 4명이 호성공신에 책봉되었다. 즉, 선조의 아들인 신성군과 정원군이 호성공신 2등에 책봉되었고, 선조의 친여동생에게 장가든 안황은 호성공신 3등에 책봉되었으며, 대비인 인순왕후 심씨의 동생인 심충겸 역시 호성공신 3등에 책봉되었다. 이들 4명은 선조의 친인척 중에서 임진왜란 극복에 기여한 공로가 선조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한편 6월 14일에 영변에서 선조와 헤어진 세자 광해군은 分朝 활동을 벌이면서 전란극복을 위해 눈부신 활약을 벌였다.[58] 하지만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세자 광해군의 分朝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공신으로 책봉되지 못하다가 광해군이 즉위한 후에야 공신에 책봉되었다. 광해군 5년(1613) 3월에 책봉된 衛聖功臣 80명이 그들이었다.[59] 이들 중에는 세자 광해군의 처가 쪽 사람들, 즉 세자빈 유씨의 친인척이 적지 않았다. 이는 세자 광해군의 처가 쪽 사람들이 주로 분조 활동을 보좌하였기 때문이었다. 위성공신 1등에 책봉된 柳自新은 세자빈의 친정아버지였고, 2등에 책봉된 유희분과 3등에 책봉된 유희담은 세자빈의 친정오빠였다. 또한 2등에 책봉된 정창연은 세자빈의 외삼촌이었으며, 3등에 책봉된 유정립은 세자빈의 친정조카였다. 이들 5명은 임진왜란 극복에 기여한 공로를 광해군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

58) 임진왜란 중 광해군의 分朝 활동에 대하여는
손종성, 「壬辰倭亂 時 分朝에 관한 小考」, 『溪村閔丙河敎授 停年紀念 史學論叢』, 1988
남도영, 「壬辰倭亂 時 광해군의 활동연구」, 『국사관논총』 9, 국사편찬위원회, 1989 참조

59) 『광해군일기』 권 64, 5년(1613) 3월 12일(경오), "所謂'衛聖功臣者 錄壬辰從王於伊川全州者也 皆以義州扈從諸臣 分送爲撫軍司者 道路攀附者亦多"

〈표 3〉 임진왜란 극복에 기여한 공로로 공신에 책봉된 선조의 친인척

공신 명칭	이 름	비 고
호성공신	신성군	2등-선조의 아들
	정원군	2등-선조의 아들
	안 황	2등-선조의 매부
	심충겸	2등-대비 인순왕후 심씨의 친정동생
위성공신	유자신	1등-세자빈의 친정아버지
	유희분	2등-세자빈의 친정오빠
	정창연	2등-세자빈의 외삼촌
	유희담	3등-세자빈의 친정오빠
	유정립	3등-세자빈의 친정조카

5. 임해군과 순화군의 항전활동

세자 광해군의 분조활동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선조의 직계가족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항전활동을 펼친 주인공은 함경도와 강원도에서 근왕병을 모집하던 임해군과 순화군이었다. 그들은 포로로 잡히기 이전까지 왜적에 대항하여 다양한 항전활동을 전개하였다. 임해군과 순화군 중에서도 특히 임해군의 항전활동이 두드러졌다.

4월 30일 새벽에 임해군은 영부사 김귀영, 칠계군 윤탁연 등과 함께 창덕궁을 떠나 함경도로 향했다. 임해군의 출발에 조금 앞서서 순화군은 황정욱, 황혁, 이기 등과 함께 강원도로 갔다.[60] 5월 1일 경기도 抱川에 도착한 임해군은 그곳에서 우연히 순화군을 만났는데,[61] 다시 길을 나누어 북으로 향하였다. 5월 3일 강원도 金化에 도착한 임해군은 그곳에서 왜적이 이미 춘천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金化와 춘천은 하루 일정밖에

60) 윤탁연, 『關北日記』, 임진(1592) 4월 30일(기미)
61) 윤탁연, 『關北日記』, 임진(1592) 5월 1일(경신), "是日 順和君行次 適然相値"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 임해군은 즉시 북으로 길을 재촉해 5월 5일에는 鐵嶺을 넘어서 함경도의 安邊에 도착하였고, 이어 9일에는 德源府에 도착하였다.[62]

임해군은 5월 7일에 선조에게 狀啓를 올렸다. 5월 7일은 이미 철령을 넘은 임해군이 덕원부를 향해 가던 중이었다. 이때에 함경도는 물론 강원도, 경기도 지역에는 선조의 파천소문이 퍼져 인심이 크게 驚動하였다. 이에 임해군은 인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別樣宣諭가 필요하다는 장계를 올렸던 것이다.[63]

당시 선조는 개성을 떠나 평양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따라서 임해군이 5월 7일에 보낸 장계가 언제 선조에게 도달하고 또 언제 회답이 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임해군은 와해된 인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선조에게 장계를 보냈던 것이다. 임해군은 5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특별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즉, 勤王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함경도의 감사와 兵使를 소집하고 근왕 병력 200여 명을 파견하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윤탁연의 『關北日記』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왜적이 도성에 침입하였으니 신하의 도리 상 마땅히 奔赴해야 하는바, 奔赴 문제를 상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니 조치하는 즉시 달려 올 것을 함경감사와 함경병사에게 關文으로 통지하였다. 또한 신하의 도리 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고, 왕명을 받아 한양을 떠나오던 날 선조께서 義旅를 불러 모으라고 하신 전교에 따라, 선후로 보낼 200여 명의 군사를 장수를 정해 奔赴하게 할 것 그리고 군량을 조치할 길이 없으니 (군사들이 지나가는) 부근의 각 지방 수령들은 마음을 다해 군량을 조치하게 할 것 그리고 각 지방의 守令과 監官은 각각 그곳 창고의 곡식을 양을 헤아려 나누게 할 것 등을 경기감사, 강원

62) 류주희, 「임진왜란을 전후한 尹卓然의 활동」, 『한국사상과 문화』 28, 한국사상사학회, 2005, pp.150~152.

63) 윤탁연, 『關北日記』, 임진(1592) 5월 7일(병인), "王子 初五日踰嶺 大概人心驚動 自楊州一路 人民散亂 若不別樣宣諭 則前頭之事 極爲可慮 臣等來伏嶺外 乘輿起居 京城消息 未得聞知 西望雲天 危涕自滂事 狀啓"

감사, 충청감사에게 關文으로 통지하고, 淮陽 一路의 수령들에게도 關文으로 통지하였다.64)

위의 기록을 통해 볼 때, 임해군이 함경도에서 벌인 근왕병 모집활동은 당시의 행정조직과 군사조직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국가 조직을 통한 근왕병 모집활동이 가능했던 근거는 '신하의 도리'와 함께 '선조께서 義旅를 불러 모으라고 하신 전교'에 있었다. 또한 임해군은 근왕에 필요한 200여 명의 군사와 장수의 파견 그리고 군량의 징발 등을 경기감사, 강원감사, 충청감사, 회양일로의 수령 등에게 명령했음도 알 수 있다. 이는 선조가 임해군에게 함경도에서 근왕병을 모집하라고 명령했지만, 임해군 자신은 근왕병 모집에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함경도 이외의 행정조직과 군사조직에도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5월 8일의 특별조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함경감사와 함경 兵使를 임해군의 행차로 소집한 것이었다. 함경도 감영은 함경남도의 함흥에 있었으며, 北兵營은 함경북도의 鏡城에, 南兵營은 함경남도의 北靑에 있었다. 당시에 함경감사는 柳永立이었고 함경 北兵使는 韓克誠이었으며 함경 南兵使는 李渾이었다. 따라서 함경감사 유영립, 북병사 한극함 그리고 남병사 이진은 임해군이 5월 8일에 보낸 關文을 늦어도 5월 10일쯤 전후로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에 關文의 명령대로 했다면 함경감사 유영립, 북병사 한극함 그리고 남병사 이진은 5월 12일 전후로 임해군의 행차로 달려왔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關文을 받았는지, 또는 關文의 명령대로 임해군의 행차로 달려왔는지의 여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은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大駕가 평양에 도착했을 때에 조정의 의논이 行宮의 宿衛가 너무 허술하다고

64) 윤탁연, 『關北日記』, 임진(1592) 5월 8일(정묘), "是日 以賊入都城 臣子之義 所當奔赴 相議處置次 劃卽馳來事 關通于監司兵使 又以臣子之義 不可安坐 承命出來日 以號召義旅事傳敎 先後運二百留粮 措置無路 各其附近官 糧餉盡心措置 各官守令監官 各其倉穀 量數分給事 關通于京畿江原忠淸道監司 淮陽一路守令"

> 하여 함경남도와 북도의 兵使에게 下諭하여 '거느리고 있는 將官 중에서 그 반을 기한 안에 入朝시켜 宿衛를 갖추게 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북병사 한극함은 馳啓하기를 '병사의 임무는 事體가 막중한 것이며 또 藩胡와 서로 가까이 있어서 營門의 체면상 허술히 할 수 없다.' 하면서 거절하고 보내지 않았다. 이 장계가 도착하자 조정에서는 깜짝 놀라서 혹자는 '붙잡아다가 그 죄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혹자는 '무식한 武夫가 사체를 몰라서 그런 것이니 오늘날과 같이 板蕩한 시기를 당해서는 용서해 주는 것이 도리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그만둔 적이 있었다.[65]

선조는 5월 8일 평양에 도착하여 6월 11일까지 머물렀다. 따라서 선조가 북병사 한극함과 남병사 이진에게 보냈다고 하는 下諭는 5월 8일에서 6월 11일 사이에 작성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下諭는 임해군이 5월 8일에 보낸 關文보다 먼저 북병사나 남병사에게 도착할 수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선조가 평양에서 보낸 下諭가 함경도에서 근왕병을 모집하던 임해군을 완전히 무시하고 곧바로 북병사와 남병사에게 전달되었으리라 보기도 어렵다.

윤탁연의 『關北日記』에 의하면 임해군과 순화군이 5월 1일 포천에서 만났을 때, 근왕병을 모집하기 위한 문제로 선조에게 狀啓하는 일이 논의되었다.[66] 당시에 실제로 장계가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만약에 포천에서 5월 1일에 장계가 작성되었다면 선조가 평양에 도착하던 5월 8일쯤에는 충분히 도착할 수 있었다. 그랬다면 평양에서 선조가 북병사와 남병사에게 보낸 下諭는 임해군이 보낸 장계에 입각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임해군이 5월 7일에 보고한 장계가 참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설혹 임해군이 보고한 장계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下諭가 작성되었다고 해도, 그 하유는 임해군을 통해 북병사와 남병사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선조실록』에 의하면 숙위를 위한 將官을 보내라는 선조의 下諭에 대하여 북병사 한극함은 거절한 반면 남병사 이혼은 호

65) 『선조실록』 권 38, 26년(1593) 5월 16일(기사)
66) 윤탁연, 『關北日記』, 임진(1592) 5월 1일(경신), "事及策應之事狀啓"

응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남병사 이혼은 선조의 下諭에 앞서 임해군이 보낸 關文에 따라 임해군의 행차로 갔던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남병사 이혼은 임해군과의 논의 및 선조가 보낸 下諭에 따라 勤王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다.

『寄齋史草』에 의하면 남병사 이혼은 적병이 한양에 육박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근왕병을 일으켜 漣川으로 와서 이양원과 군사를 합하고 그 곡절을 보고하였는데, 그 보고서가 5월 19일 평양에 도착하였다.[67] 또한 『연려실기술』에 의하면 남병사 이혼은 부원수 申恪과 병력을 합해 양주의 蟹踰嶺에서 왜적과 싸워 70여명의 적을 죽였다고 하는데, 이 전투는 임진왜란 이후 관군이 올린 최초의 승전으로서 매우 중요했다.[68] 남병사 이혼이 신각과 함께 양주에서 전투를 벌인 날자는 바로 5월 19일이었다.[69] 즉 남병사 이혼은 어느 시점에서인가 근왕병을 거느리고 함경도를 떠나 5월 19일에 양주에 도착하여 승전하였던 것이다.

당시 남병사 이혼이 거느린 병력은 최소한 3천5백 명 이상으로서 임진강에서 왜적을 막던 관군 중에서는 최정예 병력이었다.[70] 이런 사실들로부터 임해군이 5월 8일에 보낸 關文을 받은 남병사 이혼이 근왕병을 이끌고 임해군의 행차에 들러 항전대책을 논의한 후 양주로 왔음을 유추할 수 있다. 결국 임진왜란 초반 남병사 이혼이 담당했던 근왕 활동은 바로 임해군의 근왕병 모집활동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임해군은 함경도 주민들의 인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대민활동을 벌였다. 예컨대 『선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67) 박동량,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권 1, 5월 19일, "南道兵使李渾 聞賊迫京城 遂起兵勤王 到漣川 與李陽元合兵 具啓曲折 朝廷遣人嘉奬之"

68) 연려실기술』 선조조 고사본말, 임진왜란 대가서수, 5월 13일, "南兵使李渾兵適至 (申)恪合陣 遇賊于楊州解峴 邀擊破之 斬首七十級 自倭犯我國 始有此捷 遠近聞之聳動".

69) 박동량,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권 1, 5월 19일, "申恪戰於蟹踰嶺 斬賊七十餘級 捷書至" 時 南報漸緊 京城小民 多有避出外方者".

70) 『선조실록』 권 26, 25년(1592) 5월 23일(임오), "南兵使又當來到 先送三千五百 最是精卒".

> 함경도로 왕자를 모시고 간 상락부원군 김귀영과 칠계군 윤탁이 馳啓하기를, '왕자들을 나누어 보내어 인심을 진정시키려는 聖念은 실로 보통이 아니시지만, 신들이 변변치 못하여 父老들을 위로하고 깨우쳐 덕의를 선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눈물을 닦으면서 우러러 절을 하고 기뻐하며 생기가 도는 것이야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건대 천만 마디의 빈 말은 조그마한 실제의 혜택만 못합니다. 本道는 근래에 군사를 징발하고 군량을 운송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집집마다 다 전쟁에 나갔고, 마구간에는 말 한필도 없습니다. 그러니 목장의 말 1백여 필을 혹은 要路의 쇠잔한 역에 지급하기도 하고, 혹은 재능은 있으면서 말이 없는 병사들에게 지급하게 하소서. 또한 함경도의 공물 및 문소전, 연은전에 진상하는 物膳 등을 감면하라는 恩命을 내리시어 백성들이 다시 생기를 찾도록 하소서.' 하였다.[71]

위의 기사가 실린 날자는 6월 4일이었다. 그러므로 위의 馳啓는 5월 말쯤 작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당시 임해군은 함경남도 지역에 있었다. 위의 기사 중에서 '本道는 근래에 군사를 징발하고 군량을 운송함으로 말미암아 집집마다 다 전쟁에 나갔고, 마구간에는 말 한필도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윤탁연의 『關北日記』와 관련해서 생각하면, 당시에 함경도에서 근왕병을 모집하게 하고 군량을 운송하도록 조치한 주체는 바로 임해군이었다. 따라서 임해군은 근왕병 모집과 군량 운송으로 함경도 백성들이 큰 고초를 겪자 그 고초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위와 같은 요청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요청대로 시행되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임해군이 임진왜란 초반에 함경도에서 근왕병 모집 또는 인심 수습을 위해 군사적 조치는 물론 행정적, 경제적 조치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조치를 취했음이 확실하다. 나아가 함경도의 상황이 급박했을 때 임해군은 함경도

71) 『선조실록』 권 27, 25년(1592) 6월 4일(임진), "咸鏡道王子陪行官上洛府院君金貴榮漆溪君尹卓然馳啓曰 分遣王子 鎭定人心 聖念所在 實出尋常 而緣臣等無狀 不能慰諭父老 宣布德意 而小民之拭淚瞻拜 欣欣生意 曷有紀極 第念千萬空言 不如一分實惠 本道近因調發軍兵 轉運糧餉 人則擧家赴戰 馬無一匹在廐 請以牧場馬百餘匹 或給要路絶替之驛 或給有才無馬之卒 且蠲革本道貢物 及文昭延恩殿物膳 使恩命出於上 而民生更得意"

지역의 수령 및 군사령관들에 대한 인사권까지도 행사하였다.[72] 결국 임해군은 함경도에서 근왕병을 모집하기 위해 군사적, 인사 행정적, 경제적 조치 등 모든 조치를 취했으며, 이런 조치들은 궁극적으로 남병사 이혼으로 대표되는 함경도 근왕병으로 귀결되었다.

그런데 임진강 방어선이 5월 27일에 와해되면서[73] 평양의 선조는 물론 함경도의 임해군 역시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었다. 임진강 방어선을 격파한 왜군은 황해도 平山의 安城驛에 이르러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로 각각 길을 나누어 따로 진격하였다.[74] 당시 함경도로 진격한 왜장은 加藤淸正이었는데, 그는 황해도 곡산을 경유하여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함경도로 들어갔다.[75] 그때 남병사 이혼은 함경도로 들어가려는 왜군이 鐵嶺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淮陽 지역에 있었으므로[76] 加藤淸正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함경도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加藤淸正의 함경도 진입은 평양의 선조나 함경도의 임해군 모두에게 커다란 위협이었다. 이 결과 선조는 결국 관북으로 가려던 계획을 바꾸어 의주로 갔다. 함경남도에 있던 임해군은 마천령을 넘어 함경북도의 鏡城으로 퇴각하였는데, 당시에 순화군은 임해군과 함께 있었다.[77]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함경도의 행정조직과 군사조직이 갑자기 와해되었다는 사실이었다.

함경도로 진입한 加藤淸正은 6월 17일에 안변에 도착하였다. 가등청정군의 일부는 안변에서 歙谷을 거쳐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였는데, 가등청정은 나머지 군을 이끌고 함흥으로 진출하여 임해군과 순화군을 뒤쫓았다.

---

72) 『선조수정실록』 권 26, 25년(1592) 7월 1일(무오), "初 李渾被執 金貴英等以便宜 除會寧府使李瑛爲南兵使".

73) 박동량,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권 1, 5월 27일

74) 연려실기술』 선조조 고사본말, 임진왜란 대가서수, 5월 27일

75) 『선조실록』 권 26, 25년(1592) 6월 1일(기축), "初 淸正行長等同渡臨津 追上行 而慮車駕或轉北行 約分路進兵 淸正勇猛冠軍 所領兵尤精悍 二將拈鬮定所向 淸正得咸鏡道 擒我民二人爲向導 一人辭以不識其路 賊斬之 一人懼而從之 從谷山地 踰老里峴, 出鐵嶺路, 嶺無守兵, 長驅以入"

76) 박동량, 『寄齋史草』 下, 壬辰日錄 권 2, 6월 12일, "李陽元敗到安邊 遣從事官金廷睦口達李渾盡殲淮陽之敵 盖聞道路之言也"

77) 『연려실기술』 선조조 고사본말, 北道之陷鄭文孚收復, "臨海順和兩王子 聞賊兵在後〈順和君初在江原道 賊入江原道 故轉向北道〉 疾馳踰摩天嶺"

이에 북병사 韓克誠이 마천령에서 가등청정을 막으려 하였으나 대패하였다. 그 전투가 7월 18~19일간 전개된 함경북도 城津의 海汀倉 전투였다.[78] 해정창 전투 패배 후, 북병사 한극학은 물론 남병사 이혼, 함경감사 유영립이 모두 도망하여 함경도의 행정조직과 군사조직은 일시에 와해되었다.[79] 이런 상황에서 임해군과 순화군은 7월에 회령으로 퇴각하였다가[80] 7월 23일에 회령 사람 국경인에게 포로로 잡혔다. 『선조수정실록』에서는 임해군과 순화군이 포로로 잡히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왜장 가등청정이 北界로 침입하니 회령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 두 왕자와 여러 재신들을 잡아 적을 맞아 항복하였다. 이로써 함경남도와 북도가 모두 적에게 함락되었다. 당초 가등청정이 고개를 넘어 왕자 일행을 끝까지 추격하니 왕자가 鏡城으로 도망하였다. 북병사 한극함이 마천령에서 항거하여 싸웠으나 海汀倉이 왜군에게 차단당하자 군사들이 패하여 도망하였다. 왕자가 진로를 바꾸어 회령부로 들어갔는데, 적병이 가까이 추격했다는 말을 듣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鎭의 土兵이 이미 모반하여 거짓으로 성을 지키겠다고 청하면서 스스로 문의 자물쇠를 간수하여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중략) 국경인이 마침내 객사를 포위하고 두 왕자 및 부인, 여종, 노비 등과 재상 김귀영, 황정욱, 황혁과 그들의 가솔을 잡아 모두 결박하고 마치 기물을 쌓아놓듯 한 칸 방에 가두었다.[81]

위의 기록을 통해 회령의 국경인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등청정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 이외의 원

---

78) 류주희, 「임진왜란을 전후한 尹卓然의 활동」, 『한국사상과 문화』 28, 한국사상사학회, 2005, PP.151~152

79) 『선조실록』 권 26, 25년(1592) 6월 1일(기축), "倭將淸正入關北 咸鏡監司柳永立被執 兵使李渾爲賊民所殺"

80) 『연려실기술』 선조조 고사본말, 北道之陷鄭文孚收復, "七月到會寧"

81) 『선조수정실록』 권 26, 25년(1592) 7월 1일(무오), "倭將淸正入北界 會寧人叛 執兩王子宰臣迎降 關南北皆陷于賊 初 淸正踰嶺 而窮追王子行 王子奔 至鏡城 北兵使韓克誠 拒戰于磨天嶺 海汀倉爲倭軍所綴 軍潰而走 王子轉入會寧府 聞賊兵追迫 欲向前 鎭土兵已謀叛佯請守城 自守門鑰 使不得出 (중략) 景仁遂圍客舍 就執兩王子及夫人女侍一行奴婢等 與宰臣金貴榮黃廷彧黃赫 竝其家屬 皆綁縛置一間房 如積峙器物"

인을『선조수정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하고 있다.

> 애초에 임해군이 사로잡히기 (이전), 김귀영 등은 편의로써 회령부사 이영을 남병사로 임명하였다. 그런데 이영은 남쪽으로 출정하는 것을 꺼려 남북도순변사가 되기를 요구했다. 이에 김귀영 등은 이영으로 하여금 (순변사를 삼아) 왕자를 배행하고 북으로 들어가게 하고, 문몽원으로 회령부사를 삼았는데 모두 사로잡히게 되었다. 김귀영은 늙고 혼미하였고, 황정욱 부자는 모두 아랫사람들을 단속하지 않아, 궁가의 종놈들은 도처에서 침학하고 소요를 일으켜 크게 인심을 잃었다. 이 때문에 국경인의 반란을 재촉하였다.[82]

위에서는 국경인이 반란을 일으킨 원인으로 김귀영의 늙고 혼미함, 황정욱 부자의 아랫사람 단속소홀 및 行朝와의 소식불통으로 인한 와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런 원인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원인은 선조가 평양을 떠나 명나라로 망명하려 한다는 소문이었다. 즉 6월 11일에 선조가 평양을 떠나 영변으로 향하면서 함경도에는 흉흉한 소문 즉 와언이 돌았던 것이다. 그것은 물론 선조가 나라를 버리고 명나라로 들어간다는 소문이었다. 가등청정의 공격에 직면한 함경도 사람들은 선조가 함경도와 조선을 버리고 명나라로 도망간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것은 결국 선조에 대한 반감 나아가 임해군에 대한 반감으로 표출되었다. 『선조실록』에서는 당시의 함경도 인심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 동지중추부사 이희득이 함경도 순찰사로서 복명하고 아뢰었다. '(중략) 北道는 왕화와 멀리 떨어져 있어 완악하고 모질고 무지하여, 원망에 의한 배반이 더욱 심하였습니다. 대가가 평양에서 播越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는 더욱 흉악한 짓을 저질렀으며, 명천과 길주의 백성들은 왕자가 향해 가는 곳을 일일이 써 붙여 놓기까지 하는가 하면, 토병들도 반란을 일으켜 혹 主將을 살

82)『선조수정실록』권 26, 25년(1592) 7월 1일(무오), "初 李渾被執 金貴英等以便宜 除會寧府使李瑛爲南兵使 瑛憚南出 求兼南北道巡邊使 陪行王子入北 以文夢轅爲會寧府使 竝被執 金貴榮老昏 黃廷彧父父子皆不戢下 宮家奴輩 到處侵擾 大失人心 以此促其叛亂"

> 해하기까지 하는 등 온 도내의 일이 매우 한심스러웠습니다. 왜적이 鏡城에서 곧바로 육진을 공격하였는데, 그 사이의 일은 차마 듣지 못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 고을의 수령들 가운데 무변 출신이라 하여도 모두 산속으로 숨어버려 호령이 통하지 않았으므로 한 도의 일을 수습할 길이 없으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하략)' 하였다.[83]

선조가 평양을 떠나 명나라로 망명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함경도의 인심은 걷잡을 수 없이 이반되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7월 18~19일의 해정창 패전으로 함경도의 행정조직과 군사조직이 일시에 와해되었다. 임해군을 수행하던 김귀영은 이영을 남북도순변사로 삼고, 문몽원을 회령부사로 삼는 등 와해된 행정조직과 군사조직을 복구하려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여기에 황정욱 부자의 아랫사람 단속소홀, 임해군의 난폭한 행동 등이 더하여져 국경인의 반란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포로로 잡히기 전에 임해군은 함경도에서 근왕병을 모집하기 위해 군사적, 인사 행정적, 경제적 조치 등 모든 조치를 취했으며, 이 결과 민심을 안정시키고 남병사 이혼으로 대표되는 함경도 근왕병을 선조에게 보내는 등 커다란 공로를 세웠던 것 또한 사실이었다. 이런 공로를 세우는 과정에서 임해군은 난폭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임해군의 난폭한 행동에는 개인적 비리나 실수도 물론 있었겠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군량과 근왕병을 모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과격한 조처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임해군이 포로로 잡힌 후 그의 모든 행동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선조 역시 임해군이 포로가 된 이유를 전적으로 임해군 개인의 비리 또는 실수 때문으로 몰아세움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이

---

83) 『선조실록』 권 30, 25년(1592) 9월 15일(임신), "同知中樞府事李希得 以咸鏡道巡察使復命 (중략) 北道 則王化絶遠 頑悍無知 怨叛尤甚 傳聞大駕自平壤播越之奇 益肆凶獰 明川吉州之民 至於王子所向之處 一一掛書 土兵亦叛 或殺主將 一道立事 極爲寒心 倭賊 自鏡城直擣六鎭 其間雖有所不忍聞之言 列邑守令 雖武弁之人 皆入山藪 號令不通矣 一道之事收拾無路 至爲可慮"

런 점에서 임해군의 항전활동은 비록 짧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임해군의 被虜 문제에서도 임해군 개인의 비리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6. 맺음말

현재의 입장에서 임진왜란 극복과 관련하여 선조의 播遷과 대명 청병외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 播遷과 대명 청병외교는 당시의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播遷은 비겁함으로 대명 청병외교는 사대주의 발로로 비난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조의 파천이 비겁함이라면 그 파천에 동행한 선조의 직계가족들 역시 특별한 주목을 받기 어렵다.

그러나 임진왜란 극복에서 명나라 지원군의 역할이 컸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선조의 파천, 대명 청병외교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선조의 파천에 동행한 직계가족들의 역할에 대하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파천에 동행했던 신성군, 정원군, 안황 등 선조의 직계가족들은 호성공신에 책봉되었다. 이들이 호성공신에 책봉된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선조가 자신의 의주파천 및 대명 청병외교를 임진왜란 극복의 탁월한 선택으로 선전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부합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선조 개인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선조의 의주파천 및 대명 청병외교를 임진왜란 극복의 탁월한 선택으로 동의했기에 호성공신 책봉이 가능하기도 했다.

선조의 파천에 동행한 직계가족은 호성공신에 책봉됨으로써 또 광해군의 분조활동에 참여한 친인척들은 위성공신에 책봉됨으로써 임진왜란 극복에 기여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반면 근왕병을 모집하기 위해 함경도와 강원도에 파견되었던 임해군과 순화군 및 수행관료들은 반란군에게

포로로 잡힘으로써 불충과 무능의 대명사로 간주되었다. 『선조실록』과 『광해군일기』 등 기왕의 역사기록에서는 임해군과 순화군의 항전활동 실패가 대체로 임해군과 순화군의 개인적 횡포 또는 무능 때문으로 기술되었다. 물론 임해군과 순화군의 개인적 횡포나 무능은 그 자체로 중요한 요인이었다.

하지만 임해군과 순화군은 포로로 잡히기 전 근왕병을 모집하기 위해 군사적, 인사 행정적, 경제적 조치 등 모든 조치를 취했으며, 이런 조치들로 말미암아 남병사 이혼의 근왕병이 파견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임진강 방어선이 돌파된 후, 가등청정이 함경도로 진입하고 선조가 명나라로 망명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함경도의 인심은 걷잡을 수 없이 이반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7월 18~19일의 해정창 패전으로 함경도의 행정조직과 군사조직이 일시에 와해되었다. 여기에 황정욱 부자의 아랫사람 단속소홀, 임해군의 난폭한 행동 등이 더하여져 국경인의 반란이 초래되었던 것이다.

임해군과 순화군이 포로로 잡힌 후에는 세자 광해군이 분조활동을 벌이면서 항전활동을 주도하였다. 여기에 전국에서 일어난 의병, 명나라 지원군의 활동 그리고 수군의 활동 등이 더해지면서 임진왜란 초반의 수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세자 광해군의 분조활동은 물론 선조의 파천과 대명 청병외교 및 파천에 동행한 선조의 직계가족, 임해군과 순화군의 근왕병 모집활동 역시 충분히 주목받을만하다.

(원고투고일 : 2011. 9. 28, 심사수정일 : 2011. 11. 10, 게재확정일 : 2011. 11. 18)

주제어 : 임진왜란, 선조, 파천, 직계가족, 광해군, 신성군, 정원군, 임해군, 순화군, 근왕병

<ABSTRACT>

A Study on the Refuge and Resist of King Seonjo's Family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in 1592

Shin, Myung-ho

We could imagine that the safety of king's family was one of the national priority in the monarchy country. of course, that was the same case in Joseon Dynasty. at the early stage of the Japanese Invasion in 1592, the Joseon Royal Forces have experienced several defeats by the Japanese Military Forces. at that time, the safety of King Seonjo and his family was the national priority. Right after the defeat of General Shin Rib in the Chungju Battle, King Seonjo's refuge was decided in order to obtain the safety of King Seonjo and his family.

The other hand, the king and his family would have direct relation with nation's destiny. If a nation might be destroyed, the king would be no more king and his family would be no more royal family. Therefore, the king and his family should take the lead in order to overcome national crisis. So King Seonjo's refuge at the early stage of the Japanese Invasion in 1592 was very important not only in connection with the safety of King Seonjo and his family but also in connection with the fighting King Seonjo and his family against the Japanese Invasion.

Right after the decision of King Seonjo's refuge, King Seonjo and his family fled to Gaeseong. At the same time, King Seonjo dispatched his two princes, who were Prince Imhae and Prince Sunhwa, to Hamgyeong Province and Gangwon Province in order to recruit the royal bodyguards. this action came from the sense of duty that the king and his family should take the lead in order to overcome national crisis.

After the Japanese Invasion in 1592, King Seonjo's family who attended the King Seonjo's refuge were installed as great contributor to the overcome of national crisis. for example, Prince Shinsung and Prince Jeongwon were installed as second contributor to the overcome of national crisis.

On the contrary, Prince Imhae and Prince Sunhwa who were dispatched to Hamgyeong Province and Gangwon Province were regarded as great disloyalty. because prince im-hae and Prince Sunhwa were caught by the Japanese Military Forces. every official records blamed Prince Imhae and Prince Sunhwa as wild and selfish persons.

But before Prince Imhae was caught, he achieved great result not only in recruiting royal bodyguards from Hamgyeong Province but also in stabilizing the situation. For example, Prince Imhae recruited about 3,500 royal bodyguards from Hamgyeong Province.

However right after the decision of King Seonjo's refuge, which were regarded as a action of exile to Ming China, the people of Hamgyeong Province felt that they were discarded by King Seonjo. So the people of Hamgyeong Province resisted and abandoned Prince Imhae. After all, Prince Imhae was caught by the Japanese Military Forces. in this matter, we could revaluate prince im-hae's recruiting activity in Hamgyeong Province.

Key Words : The Japanese Invasion in 1592, King Seonjo, King's Refuge, Immediate Family, Crown Prince Gwanghae, Prince Shinsung, Prince Jeongwon, Prince Imhae, Prince Sunhwa, Royal Bodyguard.

兩湖都巡撫營 指揮部와 日本軍 간의 갈등

신 영 우*

1. 머리말
2. 申正熙의 兩湖都巡撫使 선임과 巡撫營 幕下 구성
3. 申正熙의 對東學農民軍 認識 變化와「巡撫使 榜示文」
4. 巡撫營 先鋒 李圭泰와 일본군 간의 갈등
5. 맺음말

1. 머리말

1894년 9월 22일[1] 兩湖都巡撫使에 扈衛副將 申正熙(1833~1895)가 임명되었다. 9월 22일은 전봉준이 재봉기를 결정해서 삼례집결령을 내린 9월 10일경부터 12일이 지난 때였고, 동학 교주 최시형이 9월 18일 기포령을 내린 이후 4일만의 일이었다. 이 날부터 12월 23일까지 81일 간 신정희는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최고책임자인 순무사로 활동하였다.

신정희는 高宗代의 대표적인 武將이었다. 조선의 武官은 1894년에 여러 차례 전례 없는 곤혹스러운 지경에 처했다. 최대의 사건은 일본군이 경복궁

* 충북대 사학과 교수
1) 이하 날짜는 음력으로 표기한다.

을 기습 점령한 것을 막지 못한 것이었다. 국왕의 보위를 책임진 호위부장이었던 將臣 신정희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고종이 경복궁을 침입한 일본군에게 인질로 잡혀있는 상태를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둘째는 일본군이 경군 병영을 기습하여 무장해제를 시킨 것이었다. 광화문 바로 앞에 있던 장위영은 대항도 못해 보고 일본군에게 제압당해 모든 무기를 빼앗겼다. 왕조를 수호하는 정예군이 議政府와 六曹를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병영 경계에도 실패해서 단 한 차례의 기습에 궤멸된 책임은 1차로 군사지휘관들이 져야하는 일이었다.

셋째는 조선 영토 안에서 청군과 일본군이 전쟁을 벌이는 것을 또한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아산 앞바다에서 일본 해군이 청의 군함을 공격한 해전을 시작으로 성환과 평양에서 일본 육군이 공격전을 벌인 것은 조선 정부를 무시하는 작태였다. 조선의 무장들은 청일 양국의 군대가 국토를 유린하며 전쟁을 전개하는 사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조선 관군은 청일 양국군이 영토 안에서 벌이는 전쟁을 통해 자국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군대라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넷째는 농민들로 구성된 동학농민군의 봉기조차 진압하지 못했다. 국정의 문란과 관리들의 부패가 원인이었다고 하더라도 무장봉기한 농민군을 경군 정예병이 해산시키지 못한 1차 책임도 역시 무장들이 져야하는 것이었다. 신식무기로 무장한 경군 지휘관인 洪啓薰은 동학농민군의 세력에 눌려서 淸軍의 借兵을 건의하기까지 하였다. 고종이 청군을 차병하자고 해도 조선의 무관은 그 후유증을 고려해서 적극 반대해야 했는데 오히려 현지 지휘관이 차병을 요청하는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다. 그 결과 청군이 파병되고 잇달아 일본군도 들어와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일본군은 경복궁 침범 후 강제로 동맹조약을 체결해서 청과 전쟁을 벌이는데 조선 정부의 협력을 강요하였다. 李斗璜과 같은 조선의 일부 무관은 일본군을 도와 전투 현장인 평양까지 가서 '형세를 살피거나 敵情을 염탐' 하기도 하였다. 조선의 관군 지휘관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정을 간섭하는 일본군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기현상이 일어난 것이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군에게 타격을 준 것은 오히려 동학농민군이었다. 경상도와 충청도의 동학조직은 부산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일본군 병참지원을 방해하거나 군용전신선을 절단하였다. 더 나아가 동학농민군은 일본군의 경복궁 침범 즉시 반일전쟁을 준비하였다. 9월에 들어와서 동학농민군은 전국에 걸쳐 전면 재봉기하였다. 전라도 중심의 남접농민군은 물론 동학교단이 내린 기포령에 따라 전국에서 무장봉기한 북접농민군도 합세하였다.

일본정부는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로 결정하였다. 청일전쟁 지휘부인 히로시마 대본영은 병참선로의 수비병과 서울 용산의 주둔병에게 동학농민군 진압을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동학농민군의 진압을 전담할 후비보병 제19대대를 증파하였다. 동시에 강압적으로 조선의 관군이 일본군의 작전에 협조하도록 하였다.

조선정부도 재봉기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로 결정하였다. 수도를 지키던 경군을 충청도와 전라도로 파견하는 동시에 각 병영과 감영의 군대를 동원하였다. 경군 파견대는 통위영과 장위영 그리고 경리청 병대가 선정되었고, 일본군이 훈련한 교도중대 병력도 포함되었다. 일본은 교묘한 술책으로 관군의 지휘권을 후비보병 제19대대장 미나미 고시로 소좌가 장악하도록 하였다. 조선정부는 국왕이 인질로 된 상황 속에서 일본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경군 각 병대를 각지에서 지휘한 것은 일본군 장교들이었다.

將臣 신정희가 양호도순무사에 임명된 것은 바로 이러한 때였다. 양호도순무영을 설치하고 중군과 종사관 등 막료를 임명했지만 신정희의 처지는 곤혹스러웠다. 모든 관군은 체제상 도순무영의 절제를 받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 경군 파견대는 일본군 지휘관에게 장악되어 있었다. 경군의 무기는 경복궁을 침범당한 날에 일본군에게 모두 빼앗겨 진압군으로 파견된 병대는 그 일부를 넘겨받아 사용하였고, 탄환은 일일이 통제를 받았다.

더욱이 경군 파견대는 일본군과 동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후비보병 제19대대는 동로와 서로 그리고 중로분진대의 3대로 나누어 서울에서 삼남과 강원도지역으로 남하했는데 그에 배속되어 일본군 장교의 지휘를 받으며

활동해야 했다. 양호도순무사 신정희는 독자적인 지휘권을 갖지 못하고 일본군과 동행하는 경군의 보고에 상황파악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긴급상황에서 양호도순무사의 명령에 따라 경군 파견대의 행선지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역시 일본군의 통제 아래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호도순무영과 일본군의 관계는 좋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양호도순무영은 일본군과 함께 동학농민군을 진압해야 하는 곤욕스러운 지경에 처해 있었다. 이 글은 1894년 양호도순무영과 일본군 간에 일어난 갈등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먼저 양호도순무사로 선임된 신정희와 그의 가계 배경, 그리고 순무사의 위상에 대해 알아본 다음 도순무사 신정희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인식 변화와 「순무사 방시문」의 성격을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에 살펴볼 양호도순무영 선봉 이규태와 일본군 장교 간 갈등은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당시 일본군과 갈등을 보여주는 기록은 매우 조심스럽게 쓴 일부의 관찬 자료나 개인자료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일부 확인된 기록만을 근거로 해서 갈등 상황을 드러내는 내용으로 구성될 것이다.

2. 申正熙의 兩湖都巡撫使 선임과 巡撫營 幕下 구성

1) 將臣 申正熙의 兩湖都巡撫使 選任

신정희를 양호도순무사로 선임한 까닭은 9월 26일자로 내린 교서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2] '宿將의 뛰어난 후예'에게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책을 맡긴다는 의미가 이 교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

2) 『승정원일기』 1894년 9월 26일자. 이 교서는 經筵聽 侍讀 洪顯哲이 지어 올린 것이다.

開府하고 군사를 통솔하는 의리를 본받아 편의에 따라 다스리게 하니 兩湖의 중대한 임무이고, 都元帥에 상응하는 품계로 巡撫의 직임을 簡選하니 재상의 높은 반열이다. 그대는 직임을 공경히 수행할지니,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도다. 돌아보건대, 이 新營의 설치는 실로 匪類의 소요에서 연유하였다. 州郡에 못된 백성들이 많으니 아, 어쭙잖게 날뛰는 무리로구나. 하지만 京師에 禦侮하는 곳이 있으니, 북소리 잦아듦을 어찌하리오. 태평성대를 누린 지 오래이니, 어찌 차마 백성의 離叛을 말하랴. 의연히 성루에서 지휘하여 밤을 지새우는 나의 근심을 나눌 자 누구인가. 卿은 世家의 훌륭한 재목이며 宿將의 뛰어난 후예이다. 扈衛副將으로서 일찍부터 명망을 드러낸 것이 얼마이더냐. 전에 中營을 맡았을 때 대단한 공적을 쌓은 것을 가상히 여기고 있다. 이에 경에게 행 行兩湖都巡撫使를 제수하노니, 경은 은혜로운 명에 공손히 보답하여 신묘한 계책을 펼지어다. 列郡을 安撫할 방도를 강구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먼저 錢穀을 넉넉히 쌓아야 할 것이고, 양호를 진정시켜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는 만큼 무력을 쓰지 않고 굴복시키는 데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아, 오랑캐를 칠 方略을 세우고자 한다면 먼저 신중함을 견지한 趙充國을 익혀야 할 것이고, 旌旗의 精彩를 새롭게 바꾸고자 한다면 의당 엄격함을 숭상한 李光弼을 귀히 여겨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는 것이니, 잘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이 교서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은 ① 양호도순무사의 지위와 위상, ② 양호도순무영 설치의 연유, ③ 도순무사 신정희에 대한 신뢰, ④ 도순무사의 책무 등에 관한 것이다.

양호도순무사의 임무는 '匪類'인 동학농민군의 진압과 列郡의 按撫에 있고, 이를 위해 순무영을 설치하여 軍事를 통솔하면서 便宜에 따라 다스리라고 명시하였다. 진압군을 통솔하는 지휘부를 新營으로 구성하고 便宜에 따라 다스리라는 말은 형편에 따라 군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권한을 서울 도성에 위치해서 활동할 도순무사에게 부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군사권의 편의 행사는 정부에서 군사활동을 간여할 수 없는 먼 지역에 파견할 원정군 지휘관에게 부여하는

권한이었다.

이는 당시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조치였다. 전국에 걸쳐 수많은 농민들이 봉기하고 있었고, 여러 군현에서 관아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양호도순무사는 재량권을 부여해서 진압을 하는 한편 각 군현을 관치질서로 회복시키는 임무를 맡도록 한 것이었다.

양호도순무사는 都元帥에 상응하는 품계라고 하였다. 도원수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무를 통괄하던 임시 군사기구의 책임자'였는데 조선에서는 성종과 선조·광해군·인조 그리고 영조대에 도원수를 임명한 적이 있었다.[3] 도원수는 직함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군사를 총지휘하는 최고의 군권 장악자는 아니었다. 특정지역이나 임무를 의미하는 명칭이 덧붙여졌던 것이다. 西征都元帥나 北征都元帥 그리고 漢南都元帥나 諸道都元帥와 같이 특정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군사를 지휘하는 임무를 맡았다.

양호도순무사의 兩湖는 호남과 호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전라도와 충청도는 동학도들의 활동 때문에 정부에서 주시했던 곳이었다. 사교로 탄압하는 대상이었던 동학이 박해를 면하기 위해 포교의 공인을 요청하는 집단행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활동지역을 양호에 한정시킨 직함을 부여했지만 양호도순무사는 전라도와 충청도의 두 지역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동학농민군이 1차 봉기할 때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진압에 나선 洪啓薰의 직함은 兩湖招討使였다. 충청도의 동학농민군은 일찍 흩어져서 초토사가 충청도에서 순회할 필요는 없었지만 전라도의 동학농민군은 세력이 크고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 주로 전라도에서 머물러 있었다. 양호도순무사는 서울의 순무영에 있으면서 두 지역뿐 아니라 전국에서 동학농민군 진압을 지휘하는 권한을 갖고

3) 『성종실록』 1479년(성종 10) 11월 18일, 1491년(성종 22) 4월 1일. 外敵을 대상으로 한 도원수 임명 사례는 성종과 선조대에 있었다. 1479년(成宗 10) 尹弼商이 西征都元帥가 되어 明을 도와 建州衛 여진을 정벌한 것과 1491년(성종 22) 올적합(兀狄哈)의 침입으로 許琮이 北征都元帥가 되어 군사 2만을 거느리고 두만강을 건너 遠征을 한 것이다. 또 임진왜란의 발발 이후 金命元이 팔도도원수로서 한강 및 임진강 방어에 노력했고, 權慄은 행주대첩의 공으로 도원수에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인조대에는 도원수 張晩이 이괄의 반란군을 격파하였고, 沈器遠과 金自點 등이 도원수에 임명되었다.

있었다.[4]

순무사는 군권을 부여받아 활동하는 임시 직함이었다. 군사활동이 활발했던 조선전기에는 변방의 방어를 위해 순무사를 임명해서 근무하도록 하였고, 영조 년간에는 四道都巡撫使에 吳命恒[5], 南漢巡撫使에 金東弼[6]이 임명되어 李麟佐의 난을 진압한 바가 있었다. 영조대에 내란을 진압하기 위해 순무영을 설치한 것은 이후 內憂外患이 일어날 때 대처하는 선례가 되었다. 1811년 평안도의 洪景來亂 진압을 위해 兩西巡撫營이 설치되었는데 순무사는 李堯憲이었다.[7] 고종대에 들어와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범하여 위기가 조성되자 畿輔巡撫營을 설치하고 도순무사에 李景夏를 임명해서[8] 프랑스군의 내륙 침범에 대비하였다. 1894년에 동학농민군이 재봉기하자 兩湖都巡撫營을 세웠는데 이는 다시 "영조 때의 故事에 따라 순무영을 설치"한 것이었고, "당대에 문무를 겸비한 인재를 뽑아 그 職任을 채웠다."[9]

고종의 교서에서는 도순무사 신정희를 "都元帥에 상응하는 품계로 巡撫의 직임을 簡選하니 재상의 높은 반열"이라고 하였다. 종2품 이상 관직자를 재상으로 지칭하였는데 그 반열에 있으면서 순무사의 직함을 맡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世家의 훌륭한 재목이며 宿將의 뛰어난 후예"인 동시에 일찍부터 드러낸 명망으로 扈衛副將이 되었고, 中營인 훈련대장을 맡아 국왕의 호위 및 궁성과 도성의 경계에 공적을 쌓았다고 하였다.

신정희는 고종대의 대표적인 무장이었다. 교서에서 "卿은 世家의 훌륭한 재목이며 宿將의 뛰어난 후예이다. 扈衛副將으로서 일찍부터 명망을 드러낸 것이 얼마이더냐."라고 표현한 구절에서 그 위상이 잘 드러난다.

신정희는 19세기 순조・헌종・철종・고종대에 將臣을 역임해온 武官 閥

4) 『일성록』 1894년 9월 24일 "命匪類剿撫 幷令巡撫使辦理 議政府啓言 兩湖匪類近復蔓延於嶺南關東畿海等地云 各處勦撫事宜幷令巡撫使請一切辦理 允之"
5) 『영조실록』 1728년 3월 17일자.
6) 『비변사등록』 1728년 3월 19일자.
7) 『巡撫營謄錄』 1812년. 奎古4250-66.
8) 『巡撫營謄錄』 1866년. 奎15063; 『고종실록』 1866년 9월 8일자.
9) 「兩湖巡撫先鋒將李公墓碑銘幷序」

族가계에 속한 武將이었다.[10] 증조부인 鴻周(1772~1829)는 순조 년간에 좌우포도대장, 평안도·전라도·함경도 병마절도사 삼도통제사 배왕대장 어영대장 훈련대장과 병조참판을 역임하였고, 아버지인 櫺(初名 觀浩, 1811~1884)은 철종과 고종대에 고위 무관직을 지낸 將臣으로서 한성판윤 형조판서 공조판서 병조판서 등 요직을 역임하고 무관으로 오르기 힘든 정1품 보국숭록대부에 오른 인물이다. 흥선대원군과 고종의 신뢰를 받아 국방을 강화하는 사업에 앞장서면서 병인양요 직후의 군비강화책을 제시한 『民堡輯說』 등 국방론을 제시한 병서를 저술하였다.[11]

신정희는 헌종대에 무관으로 입사하여 고종대에 이르기까지 주요 경력을 쌓았는데 특히 고종은 公事에 엄격한 신정희를 신뢰하여 將臣으로 발탁해서 御營大將 禁衛大將 壯禦大將 前營使 後營使 統衛使 등 중요 병영을 이끌게 하였다.[12] 신정희의 관직에서 두드러진 것은 포도대장이었다. 고종은 좌우포도대장을 번갈아 맡겨서 사회 동요로 인한 각종 불법 행위를 막도록 했다. 한성판윤과 형조판서 공조판서에 이어 국왕경호를 책임진 호위부장으로 겸직하며 內務督辦으로서 軍務를 담당하기도 했다.[13]

2) 巡撫營 幕下 구성

순무사를 보좌하며 실무를 총괄하는 순무영의 中軍에는 9월 24일 許璡(1853~1932)이 선임되었다. 허진은 9월 3일 경무사에 임명되어 도성의 치안과 감옥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무청이 순무영의 활동에 일정하게 참여하게 되었다. 좌우포도청을 폐합해서 설치한 경무청은 사회기강을 세우는 사법기관으로서 '匪類의 소요'를 막는 고유의 업무를 순무영의 지휘

10) 장필기, 「鎭川 논실의 平山申氏 將臣閥族家系와 申鴻周」『역사와 담론』 57집, 호서사학회, 2010.
11) 최진욱, 「申櫺(1811~1884)의 생애와 활동」『역사와 담론』 57집, 호서사학회, 2010.
12) 「每日申報」 1932년 1월 12일자 4면기사. 雨田生, 「申年의 申氏」 "(三) 平山人이요 觀浩의 子라 儒學이 兼備하야 高宗戊寅에 大將을 任命하야 十七年間 國家의 重鎭이 되얏다" 1878년 御營大將을 시작으로 여러 군영의 대장을 역임한 신정희는 민간에 將臣과 포도대장으로 刻印된다.
13) 신영우, 「將臣 申正熙의 仕宦 이력과 활동」『역사와 담론』 57집, 호서사학회, 2010.

아래 수행하게 된 것이다.[14]

허진은 순무사 신정희 보다 20년 연하로서 유력한 양천 허씨 무반 집안의 일원이었다. 고조부 許任은 병사와 통제사를 역임했으며, 조부 許棨(1798~1866)는 경상좌도, 함경도의 병마절도사와 삼도수군통제사를 거쳐 좌변포도대장과 금위대장을 지냈다. 대원군집권기에는 공조판서를 지내고 어영대장으로 景福宮 營建都監의 제조가 된 후 판의금부사와 도총관에 올랐다.[15]

아버지 許熔[16]은 철종대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와 전라도 병마절도사를 역임하고 고종대에 들어와 남병사로 실적을 쌓아 1868년에 포도대장, 1872년에는 병조참판에 올랐다. 즉 대원군 집권기에 발탁되어 주요 요직을 역임했던 무반이었던 것이다.

허진의 장인인 任商準 역시 명문 무반가인 豊川 임씨의 일원이었다. 그는 고종대에 들어와서 철원부사 겸 방어사, 공충도 수군절도사와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를 지낸 다음 1871년에 한성우윤을 거쳐 어영대장으로 등단한 뒤 형조판서를 지냈다. 그 후 훈련대장과 한성판윤·도총관, 우변포도대장·형조판서를 역임하고 임오군란 직후 총융사·지삼군부사·친군전영사·내무협판·공조판서를 거친 다음 1894년에는 춘천유수로 부임하고 있었다. 허진은 외가와 처가까지 명문 무반가에 속한 집안으로서 대원군 집권기에 발탁되어 활동한 주요 인물 중 하나였다.

순무영의 실무 책임을 맡은 종사관에는 강화학파의 일원인 鄭寅杓(1855~1935)가 임명되어 활동하였다.[17] 정인표의 仕宦은 늦은 편이었다.

---

14) 그러나 11월 17일 중군과 경무사 직무가 서로 방해된다고 해서 경무사 직무를 그만 두게 된다.(『일성록』 1894년 11월 17일 "璡以警務使職務相妨啓請改差也")

15) 『2007년도 조사보고서 Ⅱ -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유서』, 886~892쪽

16) 허습의 증조는 兵使 許任이고, 조부는 許濈이며, 부친은 許棨이다. 1844년(헌종 10)에 宣傳官이 되었고, 1845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김해부사 파주목사를 지내고 경상좌도수군절도사 전라도병마절도사 등을 거쳐 1868년(고종 5)에는 좌변포도대장이 되었다.

17) 『일성록』 1894년 9월 24일. 이때 黃章淵과 함께 종사관에 임명되었으나 당시 외지에 있었기 때문에 전교리 洪承運이 대신 임명되었다. 하지만 홍승운도 순무영에서 활동하지 않는다. 순무영이 존재한 전기간 동안 종사관으로 주로 활약한 사람이 정인표였다.

1892년 37세에 문과에 합격해서 홍문관 부교리를 거쳐 장위영 軍司馬와 兵曹正郎 그리고 문신 겸 宣傳官을 지냈다. 1894년 7월에는 남산 노인정 회담이 열릴 때 교정청 관원으로 이에 관여하며 일본 공사의 내정간섭 현장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9월 내무아문 주사와 경연청 侍講으로 있을 때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임시지휘기구인 순무영의 종사관에 임명된 것이다.

정인표의 향리인 충청도 진천은 少論의 班鄕이자 강화학파의 한 근거지였다.[18] 汶園 洪承憲(1854~1914), 綺堂 鄭元夏(1855~1925), 淵齋 鄭閏朝(1856~1926), 溥齋 李相卨(1870~1917) 등 少論의 才士들이 초평과 덕산에 모여 살면서 선후하여 조정에 出仕하여 요직을 맡아왔다.[19] 정인표는 이들 중 가장 늦은 나이에 入仕해서 갑오년에 순무영 종사관으로 순무사 신정희를 보좌하게 된다.

홍승헌과 정원하는 일본군이 경복궁을 기습 점거한 이후 내부협판과 사헌부 대사헌을 사직하고 강화도에 들어가서 寧齋 李建昌(1852~1898) 耕齋 李建昇(1858~1924) 형제와 더불어 양명학을 강론하며 있었다. 이들 소론계 관료들이 일본세력에 빌붙어서 개혁을 추진하는 개화파들에게 적대감을 보였다.

정인표와 순무사 신정희는 同鄕이었다. 진천 이곡면 논실이 신정희의 鄕里였고, 초평면 영구리에는 정인표의 집이 있었다. 신정희의 논실 집에는 峿堂 李象秀(1820~1882)와 壺山 朴文鎬(1846~1918)와 같은 인근의 才士들이 출입하였다. 정인표가 논실 신정희 저택을 출입했는지는 기록에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이 시기에 이건창 시국관을 함께 하는 동지들인 梅泉 黃玹(1855~1910), 滄江 金澤榮(1850~1927), 海鶴 李沂(1848~1909) 등 강화학파 인사들이 서울 정동의 輔國宅과 논실 저택 등지에서 자주 만나서 시를 짓거나 술잔을 나누었던 것으로 추정하면 출입했을 가능성이 많다. 보국댁은 신정희의 아버지인 신헌 대장이 정1품 품계를 받았기 때문에 붙여진 택호이다.

---

18) 閔泳珪,「江華學 최후의 광경」『回歸』 3. 1987(『江華學 최후의 광경』 西餘文存 其一, 又半, 1994, 收錄)

19) 신영우,「한말 일제하 충북 진천의 유교지식인 연구」(『광무양안과 진천의 사회경제 변동』, 혜안, 2007 수록)

3) 巡撫營 指揮部의 反日 분위기

朝鮮王朝의 保衛武力인 무관들은 6월에 일본군이 서울에 대거 진주해서 주둔하고 한강 곳곳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20] 전혀 대응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더구나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범해도 속수무책이었고, 경군 각 병대도 기습당해서 거의 도망하고 무기를 모두 탈취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21] 서울 도성에 들어온 일본군 5사단의 위력에 조선군은 압도당해서 대항할 의지를 잃어버린 것이다.

일본군은 경복궁 인근 장위영 병영을 비롯해 각 병영을 장악하고 있었고 대궐 내에서 근무하는 관원들도 武監 몇 명 외에는 한 가지로 모두 쫓겨나고 일본군이 들어차 있는 형편이었다.[22] 무관들은 이 사태에 분개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대항할 방도도 없었을 뿐 아니라 용산에 들어온 일본군의 규모를 알게 되면 섣불리 대응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

이 때 무관 중에도 일본군과 협력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가장 두드러진 사람은 杞園 趙羲淵(1856~1915)이었다. 그는 무과 급제 후 선존관 훈련원 판관 등 무관의 주요 실직과 희천군수를 역임한 인물이었다. 1887년 신식 무기 시찰과 무기 구입하기 위해 1996년부터 중국 상하이와 홍콩 그리고 일본 오오사카와 도쿄를 둘러보고 일본의 포병공창을 다녀왔는데 이 때 중일 양국의 변화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온다. 1888년 연무공원 參理事務를 지내고, 1891년에 경상도 광무감리로 있던 조희연은 1894년 동학농민군 봉기시 진압군의 출병과 군수물자 보급을 지원하였다. 일본군이 평양의 청군을 공격하기 위해 조선정부와 공수동맹을 강제로 맺고 조선군의 출병을 요구하자 "그가 분발하여 禹範善, 李斗璜, 李範來 등을 先發隊로

---

20) 『續陰晴史』 券7 甲午 6월. "日兵來者爲一萬五六千 日增其數 環京城內外 屯軍防守 京江亦處處守之 來往行人 必盤詰放送 內轎亦揭簾看驗 詢其姓氏 以是都人疑懼"

21) 위 자료, "二十一日 日本兵入闕 圍繞內外 隔絶不通 如甲申十月事 外而卿宰諸貴家 皆派兵圍守 滿城奔竄屛跡 我國人不敢出頭 惟見日兵充斥 攔入人家 莫敢誰何 城中人皆束手望天 各營兵隊 擧皆逃散 所持器機 則皆爲日兵所奪 不知朝夕間有何禍變"

22) 위 자료, "日兵入據我軍各營 盡收器機 闕內入直官員 皆被驅逐 內人挾侍 武監留幾個外 一併趕出 日兵充斥禁中 彌滿至密 內外無辨"

派送"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영관급 무관 중에 일본군 5사단과 함께 평양으로 가서 청군과 전투를 지원해준 李斗璜(1858~1916)을 들 수 있다. 이두황은 동학농민군이 1차봉기할 때 양호초토영 중군으로 홍계훈 휘하에 있었는데 귀경한 뒤 장위영 참영관으로 일본군을 지원하는 일을 한 것이다.[23] "그는 일단의 조선인 병사를 데리고 일본군 제5사단장 노즈(野津) 중장을 찾아가 참전시켜 줄 것을 간청해서 종군하게 되었다. 그는 일본군을 따라 평양까지 들어갔는데 그의 역할은 통역 및 정탐 활동이었다. 또한 그는 청군 병사들의 시체를 매장하는 작업에 투입되어 '혁혁한 공'를 세웠다고 한다." 또 李軫鎬(1867~1943)가 주목된다. 그는 20대 후반 젊은 나이에 일본군이 훈련시킨 교도중대 중대장이 되어 그 지시를 따르게 되었던 인물이다.[24]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가 파견되었을 때 중로군과 함께 다니며 대대장 미나미 고시로 소좌의 지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순무영 지휘부는 반일 분위기 속에서 운영이 되었다. 먼저 순무사 신정희가 일본과 협력하는 자세가 아니었다. 신정희는 조선의 내정개혁을 강요했던 노인정회담 대표로 나가서 일본공사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 1833~1911)와 대립한 적이 있었다.[25] 순무사로서도 일본과 협력할 인

---

23) 이두황, 『李斗璜翁追懷錄』, 1929.
강창일, 「이두황」 http://www.bluecabin.com.ne.kr/split99/ldh.htm

24) 국사편찬위원회, 「근현대인물자료」

2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권, 三. 全羅民擾報告 宮闕內騷擾의 件 三 (9) 內政改革勸告에 대한 朝鮮政府의 反應. 일본공사가 외무대신에게 보낸 공문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이 나라 정부의 改革委員 申正熙 외 2명이 老人亭에서 회합했을 때의 議事錄이라 하면서 --- 사실과 다르거나, 혹은 그들의 이익에 관한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기재한 것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 외에 한 통을 같은 필기록이라 하면서 여러 곳에 배포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한층 더 사실을 날조·무고했으며 심지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욕설을 퍼부은 것이 기재되어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 어제 國分 書記生으로 하여금 申正熙 씨에게 가서 그 위원이 직접 썼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했으나, --- 申氏는 그것을 한 번 본 후 절대로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은 의사록을 돌린 일이 없으며 단지 구두로 각 대신에게 復命했을 뿐이므로, 그것은 어떤 자의 악의에서 나온 것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추측컨대, 위의 두 통의 문서가 다같이 위원의 손에 의해 쓰여진 것이 틀림없다고 사료되며, 그들이 새삼스럽게 모른다고 꾸며대면서 발뺌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들리는 말에 따르면, 위의 復命書를 일람한 老 大臣들은 申 氏의 일처리

물이 아니었다. 조선 관찬자료나 일본공사관 문서를 보아도 일본공사가 순무사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도순무사 신정희는 군사를 직접 지휘해서 전투현장에 가지 않았다. 동학농민군은 충청도와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무장봉기하였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으로 진압군을 집중시킬 수 없었다. 전국에서 봉기한 동학농민군을 상대하려면 경군을 이끌고 각지를 순회해야 하는데 그 경우 도순무사가 서울 도성에서 지휘 통제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도 했다.

처음 계획에는 중군 허진이 진압군 지휘관으로 출전하고 선봉에 李圭泰를 보내는 것으로 구상했던 것 같다.[26] 그러나 허진은 파견되지 않았다. 병인양요 당시 설치된 畿輔都巡撫營에서는 프랑스군과 대적할 파견병대의 선봉을 중군인 李容熙가 맡아서 지휘하였다. 이 사례를 따른다면 1894년에도 양호도순무영 중군 허진이 병대를 이끌고나가 통위영과 장위영 그리고 경리청 등 각 병대를 지휘해야 했다. 하지만 허진은 서울에 남아있었고, 선봉 이규태가 출전한 각 병대를 지휘하도록 했다. 그 까닭은 사료에 나와 있지 않다.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도록 파견된 경군 여러 병대의 하나인 통위영 병대를 지휘하는 영관 이규태가 선봉으로 경군 전체를 지휘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관군의 지휘권을 일본군 장교에게 넘겨야 하는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한다.

허진은 현직 경무사였다.[27] 이런 지위에 있는 중군이 출전한다고 해도 일본군 장교가 지휘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경군 병대까지 지휘할 일본군 장교는 후비보병 제19대대의 미나미 고시로(南小四郎) 소좌였다. 병조참판을 역임한 현직 경무사가 외국군 일개 대대

솜씨가 좋다고 크게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26) 『先鋒陣日記』 10월 초 3일. "어제 양호도순무영의 초기에, "본영 별군관 이규태를 선봉장으로 임명하여 통위영 병사 2개 중대를 거느리고 다음날 우선 공주·청주 등의 길로 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군은 대대군병을 거느리고 그 뒤를 이어 출발토록 할 것입니다."

27) 『대한제국관원이력서』

장의 명령을 받는 것은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었다.

더욱이 허진은 이노우에 일본공사가 대원군파라고 지목한 인물이었다. 대원군은 "동학당을 선동하는 비밀명령을 전하였을 때 전 경무사 李允用이 이를 정탐"하자 사소한 이유를 붙여서 "이윤용의 관직을 박탈, 자기 당 소속인 許璡을 기용해서 경무사로 삼았"다고 하였다.[28] 대원군은 청일전쟁에서 청군이 승리하여 일본군이 축출되는 것을 바라고 있었고 동시에 동학농민군의 재봉기를 부추겼다. 그 실상을 평양을 점령하고 청군진영에서 대원군의 편지를 찾아내 파악하였고, 또한 대원군의 측근들을 조사해서 '동학당을 선동'하기 위해 파견된 것을 일본 공사가 알고 있었다.[29] 심지어 "동학당이 일본군의 군용 전신선을 절단하고 兵站部를 습격하고 상인과 인부들을 학살한 것이 모두가 정부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30] 당시 대원군을 권력에서 제거하는 것이 이노우에 공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는데 대원군파인 허진이 양호도순무영 중군이 되어 경군 파견병 전체를 지휘한다면 일본군의 의도대로 동학농민군을 대적할 수 없을 것이었다.

양호도순무영의 도순무사 신정희와 중군 허진은 일본공사에게 모두 껄끄러운 상대였다. 이노우에 공사는 무관 가운데 趙羲淵과 같은 인물은 '개화당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으로 대원군이 해칠 것을 두려워한다고 하였는데 신정희와 허진은 그 반대편에 있었던 있었다. 그런 까닭인지 군사에 관한 여러 문제는 주로 외무대신 김윤식을 통해 일본군의 요구를 강요해서 관철시키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이 진압을 담당한 일본군에게 조선 관군과 지방관아에서 적극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종사관 정인표도 일본의 침략행위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시국 인식도 강화학파 학인 관료들이 가졌던 인식과 다르지 않았다. 정인표는 일본의 침략이 더욱 노골화되는 시기에 벼슬을 버리고 향리 진천에 칩거하여 은둔

---

28) 『駐韓日本公使館記錄』 5권, 五. 機密諸方往 二 (11) 井上公使의 大院君祖孫 箝制策 內申 및 東學黨 鎭撫를 위한 日兵增派 요청

29) 이상백, 「東學黨과 大院君」 『역사학보』 17, 1662; 배항섭, 「전봉준과 대원군의 '밀약설' 고찰」 『역사비평』 39, 1997.

30) 위자료, 5권, 六. 內政釐革의 件 一 (4) 大院君의 東學黨 선동에 관한 件

생활을 한다. 평생 지조를 살면서 충북관찰사 직위로 회유해도 듣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순무영에서 실무를 담당하며 구체적으로 활동한 사실은 일부밖에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순무사의 지침에 따라 동학농민군의 귀순과 재기를 막는 조처를 취하였다.[31]

3. 申正熙의 對東學農民軍 認識 變化와 「巡撫使 榜示文」

도순무영의 설치 목적은 분명하였다. '匪類'의 소요를 종식시키고 각 군현을 按撫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신정희는 순무영의 막료를 선정하고, 경군 중 가용 가능한 병력을 동원해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임무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방침을 정하고 전국에 「巡撫使 榜示文」을 전하도록 하였다. 국왕 고종이 내린 진압 명령이 있었지만 순무사의 지휘에 따라 강약의 정도가 달라질 수는 잇는 것이었다.

그런데 신정희가 동학농민군을 보는 시각은 고위 관료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심지어 강화학파들이 보는 것과는 달랐다. 그것은 신정희가 동학 지도자들을 체포해서 심문한 결과를 보고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이었다.

신정희가 관직생활에서 가장 두드러진 업적을 남긴 시기가 포도대장으로서 사회 기강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때였다. 1877년부터 1894년에 이르기까지 18년에 이르는 동안 임오군란을 막지 못한 책임으로 유배된 시기를 제외하면 거의 매년 좌변포도대장이나 우변포도대장을 번갈아 맡거나 두 포도대장 직을 겸임해왔다. 이것은 당시 매우 드문 경우에 속하는 것이었다.[32]

---

31) 신영우, 「한말 일제하 충북 진천의 유교지식인 연구」(『광무양안과 진천의 사회경제 변동』, 혜안, 2007 수록)

32) 朴銀淑, 「開港期 捕盜廳의 運營과 漢城府民의 動態」『서울학연구』 Ⅴ, 1995.

19세기 후반은 국정 문란에 따른 사회 혼란이 극심하였다. 삼정문란, 농민반란, 대원군의 개혁정책, 강화도조약, 임오군란, 청군 진주, 갑신정변 등이 잇달아서 일어났고, 자주 흉년이 닥쳐서 살기가 어려워졌다. 서울 도성에서도 사회 동요로 인한 각종 사건과 불법 행위가 발생하여 기강을 잡아야 했다. 포도대장 신정희는 치안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신정희가 관심을 집중시킨 대상의 하나가 東學이었다. 동학도들은 탄압 속에서도 교세가 증대되자 포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 교조신원운동을 벌였다. 1892년 10월 공주집회와 11월의 삼례집회에 이어 교조신원을 요구하는 복합상소를 감행하였다. 1893년 2월에 많은 동학도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광화문 앞에 엎드려 상소를 올리는 형태로 시위를 했던 것이다.

포도대장의 관할지역은 서울과 경기도였기 때문에 충청도나 전라도에서 벌어진 집회에 직접 개입하지 못했다. 하지만 서울에서 사태가 벌어지자 좌변포도대장 신정희는 이에 직접 대처해야만 했다. 포도청에서 실제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매천 황현은 "이때 성균관 유생들은 먼저 성토를 해야 한다는 여론을 내고, 신정희는 그들을 다 처형하여 난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3]고 했다. 유생들의 반응은 매우 격했다. "저 무리들은 단지 잠자는 호랑이 정도일 뿐만이 아니니, 토벌하여 죽이는 일을 잠시라도 늦추어서는" 아니 되고, "속히 그 괴수와 일당들을 찾아내어서 죽여야 할 자는 죽이고 효수해야 할 자는 효수하며 효유해야 할 자는 효유"해야 한다고 하였다.[34] 하지만 유생이 어떤 사태에 행동으로 나설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할 수 있는 것은 국왕에게 상소를 해서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방식뿐이었다.

동학도들을 탄압하는 조치는 포도청에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정희는 포도청의 포도군사들을 동원해서 동학도들을 구속하거나 처벌하지 않았

33) 『梅泉野錄』 제1권, 下(1894년 이전) 「권봉희 상소의 배경, 동학도의 복합상소」
34) 『승정원일기』 1893년 2월 25일자; 『고종실록』 1893년 2월 25일자. 전라도 무주 유생 朴齊三 상소문.

다. 포도대장 신정희만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포도대장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는 왕명도 없었다. 많은 수의 동학도들이 함께 모여서 포교를 허용해달라고 상소문으로 요구하는 것을 탄압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복합상소에 참여한 동학도들은 무사히 해산해서 돌아갈 수 있었다.

동학은 조선국가의 국정교학인 유학과 가르치는 내용과 행태가 달랐다. 경상도 일대에서 처음 발생할 때부터 유교지식인들은 邪敎라고 배척하였다. 더구나 사람들을 현혹시켜 동학에 꾀어들이는 사태를 우려하였다. 동학은 황건적이나 백련교도와 다름없기 때문에 난을 일으킬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동학도들은 동학과 유학은 다름없는 道라고 주장하였다. 복합상소문은 "동학은 유학과 대동소이하며, 최제우는 孔孟 등이 가르친 仁義禮智 위에 새로 守心定氣를 더 정했는데 그것은 誠敬信 三端으로 天地를 공경스럽게 받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유교지식인들은 聖人인 공맹의 가르침을 불변의 진리라고 보고 있는데 공맹이 깨우치지 못한 바를 최제우가 깨우쳐서 가르쳐주었다고 하였다. 오히려 "참된 선비가 거의 없고 虛文과 外飾을 숭상하며 경전을 표절하여 浮薄釣名하는 선비가 십중팔구"라면서 유생들을 공격하였다.[35]

이렇게 주장하며 소란을 피운 동학도들을 처벌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한 것은 刑政과 치안유지를 맡은 관리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공박이 빗발쳤다. 이런 상소가 계속되자 형조판서 金晩植, 참판 金貞圭, 참의 閔泳柱가 사직소를 올리는 한편 포도대장을 겸직한 한성판윤 신정희도 처벌을 자청하였다.[36]

고종은 담당 관리들을 문책하는 대신 동학을 탄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방침은 疏頭를 비롯한 우두머리는 서울 法司와 지방 관아에서 기한을 정하여 잡도록 하고, 이들을 따르는 자들은 禁斷하여 각자의 생업에 안주시킨

35) 신영우, 「1894년 왕조정부의 동학농민군 인식과 대응」『한국근현대사연구』 51, 2009 참고.
36) 『승정원일기』 1893년 2월 26일자.

다는 내용이었다. 동학에 대한 탄압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해당 관장을 논책할 것이라고 엄명하였다.[37]

서울에서 법을 관장하는 관청은 형조와 의금부 그리고 사헌부와 한성부였다. 그리고 이를 실제 집행하는 물리력을 가진 관서가 포도청이었다. 형조참판과 판서를 역임하고 지의금부사와 한성 판윤 그리고 포도대장을 잇달아 맡거나 겸직하던 장신 신정희가 동학을 금지하는 중심이 되어야 했다.

동학도들은 광화문 복합상소에 이어 보은 장내리에 대규모로 취회하여 포교를 공인하는 주장에 덧붙여서 '輔國安民'과 '斥倭洋倡義'의 깃발을 내걸고 정치개혁과 외세배격을 요구하였다. 고종은 무력으로 동학도들의 집회에 대처하였다.[38] 그래서 장위영 병대가 청주까지 내려가서 위력시위를 하자 동학도들이 해산하였다. 포도대장 신정희는 양호선무사 魚允中의 장계[39]에 따라 이름이 알려진 徐丙鶴 金鳳集[40] 徐璋玉 등 보은집회를 주도한 동학의 주요 지도자들을 추적하도록 했다. 이들은 당시 치안에 가장 위험한 인물들이었다.

이 추적은 큰 성과를 가져왔다. 보은집회의 핵심으로 지목된 주요 지도자 5, 6명이 체포된 것이다. 그 중에 徐璋玉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장옥은 동학지도부의 거물이었다. 동학이 초기 탄압을 피하여 강원도와 충청도의 산골지역을 전전하며 교세를 확대해서 사람은 많았지만 敎門의 체계가 없었는데 불교 승려 출신인 서장옥은 조직이나 의식을 일신시킨 공로자였다. 교주 최시형은 그 때문에 매우 신뢰하였다.

서장옥은 은밀히 숨어서 포교하던 동학의 활동노선을 바꿔서 교조신원운동을 거쳐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으로 전환시키도록 하였다. 이른바 동학 조직을 정치활동의 무대로 생각하는 혁신적인 지식인들이 서장옥의 권유로

37) 위 자료.

38) 『고종실록』 1893년 3월 25일자. "총리대신이 時原任將臣, 兵曹判書와 더불어 회의하여 속히 그들을 제거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39) 위 자료, 1893년 4월 10일자.

40) 전봉준은 김봉집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는데 이런 시도는 관헌의 기찰을 피하는 유력한 수단이었다.

동학에 입도하였다. 매천 황현은 봉기에 나선 동학도가 서포였고 교주인 최시형을 따르는 동학도가 법포라고 하였다.

동학 내부는 보은집회 단계에서 크게 두 계열로 분파가 이루어졌고, 김개남 손화중 전봉준 등 남접농민군을 이끌게 되는 지도자들과 가까운 서장옥은 급진계열을 대표하고 있었다. 1894년에 이르러 서장옥은 최시형에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졌고, 최시형도 이들의 급진활동을 제어하지 못하였다.[41] 서장옥의 체포는 급진계열의 중심이 사라져버린 것을 의미하였다.

동학 내부에서 서장옥의 구속은 보통 큰 사건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포도청에서는 그 중요성을 모르고 있었던 듯하다. 1894년 동학농민군의 1차 봉기가 충청도에서 호응이 거의 없이 전라도 일대로 축소되었던 것은 서장옥이 활동을 못했기 때문이었다. 서장옥이 1차봉기를 지도했으면 충청도에 세력을 가진 급진계열에 의해 여러 군현에서 전라도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것이고, 당시 상황은 매우 다른 진전을 보였을 것이다. 서장옥은 1894년 6월 28일 혹독한 심문을 받은 뒤에 좌변포도청에서 풀려났다.[42] 하지만 심한 취조 때문에 몸을 해쳐서 바로 활동할 수 없었다. 1894년 서장옥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신정희는 체포한 동학 지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학도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그 내용은 조선 내부사정을 염탐해온 일본공사관이 신정희의 말을 탐지해서 남긴 기록[43]을 통해 알 수 있다.

> 나는 작년부터 東學黨을 잡기 위해 힘을 다 했고 이미 그중 주요 인물 5, 6명을 잡아서 囚禁중이다. 그리고 나는 여러 번 그들을 심문해 보았다. 그들의

41) 『聚語』 宣撫使 再次狀啓. 서병학이 어윤중에게 한 이 말이 그 사정을 보여준다. "호남에 모인 무리들은 겉으로 보면 비록 같지만 종류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문을 만들어 걸어놓은 것은 모두 그들이 한 것이고, 형편이 매우 다르니, 원하건대 공께서는 자세하게 살펴 처리하고 우리 무리와 혼동하지 말고 옥석을 구별하십시오."

42) 조경달, 1993「1894년 농민전쟁에 있어서 동학지도자의 역할」『역사연구』 2.

43)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권, 三. 諸方機密信 一, (22) 東學黨에 관한 두 大將의 직접 대화「좌포도대장 겸 호위부장 신정희씨의 直話」. 이 보고서는 양력 1894년 5월 16일 작성된 것으로서 음력으로는 4월에 탐지한 내용이다.

말로는 따로 특별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 목적하는 바는 지방정치의 개량을 요구함에 있었으며 결코 세상사람들이 지껄이는 것과 같은 요상한 술법이니 종교이니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말하는 바로는 '우리는 이름을 기록한 보책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연 인원수가 얼마나 많은지는 아득해서 알 수 없다. 요컨대 지방 관리의 폭정에 신음하고 올바르지 않은 죄명을 얻게 된 사람이 官民 구별할 것 없이 모두 와서 이에 합세하였고 그 주장하는 바는 公明하게 지방정치를 개혁해서 무고한 백성을 이 비참한 재난에서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요점은 동학도들은 '지방정치의 개량'을 바라고 있고, 폭정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官民 구별할 것 없이' 합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학의 술법이나 가르침보다 지방정치를 개혁해서 '무고한 백성을 이 비참한 재난에서 구하는 것'이 동학도들의 목적이라는 내용이었다.

신정희가 동학이 일어난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명쾌했다. '기강이 점차 무너지고 풍속이 크게 문란해져서 저들 지방관리라는 자는 목민에 힘쓰지 않고 탐학을 일삼아서 이에 민요가 무리져 일어나 현재는 온 8道에 거의 편한 날이 없다.'고 하면서 '지방제도를 크게 혁신하고 여기에 기강을 바로잡고 풍속을 규정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동학당을 진멸하는데 마음과 힘을 다 하여도 도저히 그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문제는 정치에 있다는 판단이었다. 신정희가 핵심을 파악하고 있더라도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일본공사관의 정보는 신정희의 속내까지 들여다보았다. "申氏는 무관이므로 내정에 관여할 수 없으며 비록 내정에 관여할 수 있다 하여도 현재 국정을 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은 閔氏一家이므로 도저히 그의 말이 채용될 가망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申氏도 이를 개탄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장신 신정희가 동학의 가르침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신정희의 문집『香農集』이나 詩卷[44] 등이 발견되면 그의 글을 통해

44)『梅泉集』卷一, 詩 戊寅稿, 題申香農元戎正熙詩卷後. 황현의 이 시를 보면 신정희는 1878년(戊寅年)에 시집을 간행한 것 같다.

알게 되겠지만 지금으로는 동학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한 가지 단서가 되는 것은 신정희와 이 시기에 가까이 교류했던 인사들이 이에 관해서 쓴 글이다. 비록 신정희의 글이 아니더라도 이를 보면 그의 생각이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신정희는 무관으로 관직생활을 시작한 1849년부터 1895년에 이르기까지 47년 간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을 했다. 우선 훈련원을 비롯한 여러 병영에서 요직을 맡아서 활동했을 때 만난 무관들이 있었고, 30대에 들어와서 9년 간 40세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승지에 임명되어 당대의 유능한 인재들을 승정원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다. 40대 중반부터는 60세가 넘어서까지 포도대장으로 포교들의 기찰활동을 감독했으며, 장신이 된 뒤에는 휘하에 당대의 무관들을 지휘하였다. 형조판서와 공조판서 그리고 한성판윤과 내무독판을 맡아 국정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관직을 역임할 때 만난 인물들이 신정희에 관해 쓴 글은 찾기가 어려웠다.

신정희에 관해 쓴 글은 많이 있었겠지만 그중에서 지금 많이 남아있고 주목되는 것이 이른바 강화학파들이 쓴 글이다. 아버지 申櫾 대장이 茶山 丁若鏞과 秋史 金正喜의 문하에서 수학했던 학식이 높은 儒將일 뿐만 아니라 전권대관으로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을 때 秋琴 姜瑋를 막료로 삼았던 사실에서 보는 것처럼 신정희도 당대의 뛰어난 학자들과 교류를 했던 儒將이었다. 신정희와 관련한 詩를 짓거나 글을 남긴 사람들, 그리고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로 주목되는 인물은 秋琴 姜瑋, 寧齋 李建昌, 汶園 洪承憲, 綺堂 鄭元夏, 春耕臺 鄭寅杓, 梅泉 黃玹, 壺山 朴文鎬, 丹農 李建初, 滄江 金澤榮 등이다. 서울 정동에 있는 신정희의 저택 靑春樓閣가 群賢이 모이는 장소였다고 하는데[45] 이들이 그 주요 인사들이었다.

이들 중 동학과 동학농민군을 평가하는 명확한 글을 남긴 사람이 이건창과 황현이었다. 동학은 사교라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요지였고 언사도 매우 강경하였다. 이건창은 「請勦邪匪附陳勉疏」에서 1893년 봄 魚允

45) 『韶濩堂詩集』 定本卷二, 癸未稿, 上香農申大將軍 正熙. "靑春樓閣萃群賢 橫槊吟詩月滿天 馬隊卽今非講肆 不堪回首白門前。公家今爲洋使館"

中이 보은집회를 해산시키러 가서 올린 장계를 보고 이를 매도하였다. 亂黨을 民黨이라고 不正하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었다. 수만 명이 둔취해서 깃발을 세우고 축성을 한다면 이는 亂民으로 보아야 하고 반드시 誅戮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46] 황현은 동학은 유언비어를 전파해서 커진 邪學에 불과하고 복합상소도 '한 번 농락을 부려보자는 속셈'으로 벌인 것이었는데 고종이 효유해서 물러가게 했기 때문에 당시의 양반 유생들의 언론은 울분에 쌓여 있었다고 하였다.[47] 황현이 1894년 동학농민군의 봉기에 관해서 기록한 내용은 더욱 강경하였다.[48] 모든 동학농민군 가담자들은 제거 대상이었고, 관군이나 민보군이 동학농민군을 학살하는 轉聞을 당연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신정희가 포도대장으로 동학 지도자들을 추적했을 때에는 이들과 생각이 다름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광화문 복합상소 때 강격한 주장을 편 것이라든지 동학당을 체포하여 강력히 처벌했던 것은 그런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기강을 잡으면 민요가 그칠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동학지도자를 체포해서 이들의 세력 확대 배경과 동학농민군의 봉기 원인을 파악한 뒤에는 생각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정치의 혁신 없이는 빈발하는 민요를 막을 수 없다고 절감했다는 것이다.

신정희의 활동을 보면 1893년까지 동학도들의 불법행위를 금지해서 기강을 세우고 풍속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강화학파와 같은 생각이었다. 사교로 본 동학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당시 상소문을 올리던 유생들과 동일하였다. 1894년 봄 동학농민군이 무장봉기했을 때에도 강력히 진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황을 주시하였다.

하지만 동학도들을 모두 진멸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강화학파와도 견해가 달랐다. 재야 유생이나 문관의

---

46) 『明美堂集』 卷七, 「請剿邪匪附陳勉疏」

47) 『梅泉野錄』 제1권, 「동학도의 복합상소」 : 신영우 「한말 일제하 충북 진천의 유교지식인 연구」 『광무양안과 진천의 사회경제변동』, 혜안, 215~217.

48) 金容燮, 「黃玹(1855~1910)의 農民戰爭 收拾策」, 1984(『역사와 인간의 대응』, 한울에 수록).

강경한 言辭와 실행력을 가진 實權 武將의 판단이 같을 수는 없었다. 그는 무장봉기를 선동한 동학지도자와 이에 가담한 백성들을 구분하였다. 이른바 수괴는 처벌하고 단순가담자는 효유해서 귀순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었다.

신정희는 헌종 철종 고종 三朝에 걸쳐 사환했던 무장으로서 왕조와 국가의 안정을 무엇보다 중시하였다. 고종도 신정희의 헌신에 기대하고 있었다. 1894년의 혼란기에 신정희는 주목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 그렇지만 신정희는 이때 전권을 장악한 순무사가 아니었다. 일본군이 개입해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병력을 파견하였는데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였던 것이다.

4. 巡撫營 先鋒 李圭泰와 일본군 간의 갈등

일본군과 일선에서 협력해야 하는 지휘관은 선봉 이규태였다. 이규태는 1862년에 무과에 급제해서 선전관을 거쳐 訓鍊院 主簿·判官·僉正을 맡고 都摠府 都事·戶曹 佐郞·都摠府 經歷을 역임한 전형적인 군 지휘관이었다. 청주 영장과 內禁衛將 등을 지낸 다음 경리청과 장위영에서도 참영관과 정영관으로 병정들을 지휘한 바 있었다.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파견된 주요 병대를 지휘해본 경험이 있는 적임자였다. 그런데 선봉 이규태도 일본군과 잘 협력이 되지 않았다. 사실상 일본군에 예속되어 굴욕을 받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선봉 이규태가 통위영 병대를 지휘하여 도성을 나가 수원에 머물러 있던 초기인 10월 12일에 순무영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령이 왔다.[49]

49) 『巡撫使各陣傳令』 傳令先鋒將李圭泰, 甲午十月十二日.

전령 선봉장 李圭泰에게 보냄
일본군사가 내일 출발하려고 한다. 잠시 수원부에 머물러 있다가, 그 일행이 도착하기를 기다려서 서로 의논하여 노정을 확실히 정하여 아뢰도록 하라.
1894년 10월 12일 (印)
兩湖都巡撫使 (花押)

이미 출동한 경군 병대의 지휘관에게 행군을 수원에서 멈추고 일본군이 도착하는 것을 기다려서 행군 노정을 확정하도록 한 것이었다.[50] 이것은 독자적으로 행군도 하지 못하게 한 명령이었다. 실제로 이규태는 수원에 며칠 간 수원에 머물러서 일본군이 오기까지 기다렸다.

그뿐 아니었다. 선봉에게 일본군과 만나서 지시를 받는 것은 물론 숙소와 음식 공급까지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었다.[51] 이에 따라 이규태는 행군로에 있는 지방관아에 지시해서 숙소와 음식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 비용은 조선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었다. 순무영에서 내린 명령에는 '두 나라의 큰일에 관계되기에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는

50) 『巡撫先鋒陣謄錄』 1894년 10월 15일자.
51) 『巡撫先鋒陣謄錄』 1894년 10월 17일자. "일본 군대가 내일 평택읍에 숙소를 정하려 할 때 음식을 공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이 기록에 의거하여 하나하나 미리 준비하였다가 군대가 읍에 들어오기를 기다려서 즉시 물품을 올리도록 하라. 시간에 임박하여 구차하고 궁색한 폐단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라는 뜻으로 관가의 아전과 향임에게 엄하게 명령하라. 이 일은 두 나라의 큰일에 관계되기에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해서 군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별도로 각별히 명령하라."; "선봉진이 보고하는 일입니다. 휘하의 각 소대와 어제 도착한 일본 군대가 우선 무사히 숙박하였고, 오늘 진시 경에 함께 출발하여 진위에 도착하여 유숙할 계획이므로 사정을 보고합니다."; 직산 겸 평택현감과 신창현감 겸 운량관에게 보내는 감결. "내일은 마땅히 成歡站에서 유숙할 것이니 이를 거행하도록 하라. 일본 군대도 또한 마땅히 모두 주둔하여 유숙할 것이니, 숙소와 물건을 마련해 올리는 일은 後錄에 의거하여 낱낱이 준비하도록 지시하여 때를 당하여 황급해 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관군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을 각 酒幕에 나누어 맡겨 혹시라도 뒤섞여 어지러워지는 일은 없게 하라. 이것은 모두 두 나라의 군사업무와 관계되니 하나라도 혹 잘못 접대한다면 저절로 법률로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 각별히 더욱 두렵게 생각하고 조심하여 삼갈 것이며, 감결이 도착한 일시는 신속하게 보고하라." "숙소는 관아나 민가 중에서 몇 백 명을 수용해서 접대할 수 있는 곳을 골라서 군불을 때놓고 기다려서 관병(官兵)과 일본 군대에게 각각 그 처소를 나누어 정해주어 혼잡하게 탈이 생기는 일이 없게 하라."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10월 17일 일본군에게 공급할 품목을 보면 땔감과 말먹이까지 포함되었다.

日本 군대에게 마련해 올릴 물품 품목

백미(白米): 매 끼니마다 市場 말로 15말
큰 소 뒷다리: 1개
무: 300개
닭과 계란 등 요청하는 것에 따라 올릴 것
김치: 2동이
간장: 1동이
장작(長斫): 3바리
말 먹일 짚: 3바리 방사(房舍)가 있으면 그 옆에 둘 것
먹을 물은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 미리 준비하고 기다릴 것

경군의 위상은 일본군의 보조역할을 하는 것으로 격하되었다.

경군 각 병대는 일본군과 동행해서 남하하도록 하였다. 이규태는 공주공방전에 참여해서도 일본군 서로분진대를 지휘한 모리오 가이찌(森尾雅一) 대위의 지시도 따라야 했다.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못한 경군 파병 병대 지휘관 이규태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선봉 이규태는 일본군과 관련한 문제를 도순무사 신정희에게 공식문서가 아닌 私信으로 알리고 있다.[52] 이규태가 도순무사 신정희에게 알린 불만 내용은 몇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일본군이 경군의 진퇴를 결정해서 주는 불편이다. 여러 군현에서 급보를 보내와도 경군을 즉각 파견하지 못했다. 일본군이 특정한 지역에 머물고 있으라고 하면 하는 일이 주둔하고 있어야 했다. 그동안에 할 일이 없는 병사들이 민폐를 끼치는 일도 일어나고 있었다. 급하게 출동해야 할

52) 「先鋒陣上巡撫使書(附雜記)」

경우 미나미 소좌 등 일본군 장교에게 간청해야만 했다.[53]

둘째는 탄환을 통제받는 일이었다. 일본군은 빼앗아간 무기 일부를 돌려줘서 경군이 출진할 수 있도록 했으나 탄환은 철저히 통제해서 전투 때마다 경군의 탄약 사용량까지 파악하였다. 이규태가 도순무사 신정희에게 직접 탄환 공급을 요청했어도 순무영이 보유한 탄환이 없었고, 또 일부 급히 마련하여 보내준 탄환도 일본군이 가로채서 제대로 주지 않았다.[54] 일본군이 준 탄환 중에는 크기가 다른 것이 있었다.[55] 이런 탄환을 사용하면 명중시키기 어려웠다.

셋째는 일본군이 동학 가담 혐의를 받는 지방관들을 함부로 체포 고문하는 문제였다. 특히 미나미 소좌가 維鳩에 사는 前珍山郡守 吳鼎善을 체포해서 제재를 가한 것은 국권을 유린하는 심각한 문제였지만 경군 지휘관이 이를 제어할 수 없었다. 이규태는 외국군대가 들어와서 지방관을 감금해서 심문하거나 고문을 하는 것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넷째는 체포한 동학농민군 지도자를 일본군이 탈취해가는 일이었다. 일본군은 여러 차례 '거괴'를 체포하면 일본공사관에 넘겨서 문초를 받을 수 있게 하라고 강력히 요청하였다. 김개남을 전라감영에서 처형한 뒤에는 '포로 탈취'가 더 심해졌다. 관군이 붙잡은 전봉준과 손화중 그리고 최경선은 일본군이 빼앗아갔다. 이규태는 '우리의 臣民'이 국법에 의해 처결되지 못하

---

53) 「上巡撫使書」

54) 위자료, "지금 탄환이 넉넉하지 않은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큰일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일본군 진영의 標를 얻었으나 실어올 때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근심스럽습니다. 그 사이에 공주와 천안에 있는 탄환을 얼마간 들여다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썼으나 지금은 적합한 彈子가 없기 때문입니다" "탄환의 일은 지금 가부간에 말씀이 없으신데, 요청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돌아보니 어찌 할 수가 없고 실제로 변통할 방도가 없습니다. 日館(일본공사관)에 이러한 탄환이 없다면 말할 수가 없고, 지금 청나라 사람이 남긴 탄환으로 비록 구차하게 사용하지만 쓰임에 맞추기가 어려우니 이것을 어찌하겠습니까?"

55) 위 자료, "청나라 사람이 남긴 탄환이 천안과 공주의 2개 읍에 몇 만개가 있다고 하나 애초에 모양이 맞지 않아 있는 것이 없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할 만합니다. 竹山수령이 얻은 5~6상자는 모슬총에 사용하였습니다. 統衛營은 늘 70~80개를 사용했으나 經理廳은 10여 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이 일본인이 준 모양이 맞지 않은 탄환을 잠시 나누어 주었을 뿐입니다."

고 일본군이 구금하는 것을 불만으로 생각하였다.

다섯째는 선봉 이규태가 순무영에서 파견한 병대 전체를 통제하는 현지 지휘관이었는데 교도중대는 미나미 소좌가 지휘하는 일본군 중로분진대와 동행했기 때문에 논산에 이르기까지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56] 그래서 군수물자를 보낼 때도 확인이 안 되었다. 이규태는 일본군과 같이 있을 때는 지휘관으로서 실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군 서로분진대를 지휘했던 모리오 대위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관군이나 관리들까지 동학당이라고 공세를 취했다. 심지어 충청감사 朴齊純까지 동학당과 내통했다고 의심하였다.[57] 공주공방전 직후 즉시 추격을 하자는 모리오 대위의 지시를 거부한 이규태는 더한 의심을 받았다. 미나미 소좌는 이규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여기서 이야기 하기는 곤란하고 혹 실례될지도 모르지만, 小官이 한 마디 해야 할 일이 있다. 미리 이같이 양해를 구해놓고 이제부터 公州城이 여러 겹 포위되었을 당시의 성 안의 상황을 설명하겠다. 처음에는 사수하라는 명령을 지켰지만 적의 세력이 수그러지는 징후가 보이자, 성 안에서는 치고 나와 격퇴하자는 의견이 생겨, 곧 의결하여 담당 부서를 각각 정했다. 그런데 막상 치고 나올 때에 즈음하여, 統衛兵 隊長은 앞에서 이 협의에 찬동하고 각 장교와도 부서를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대의 지휘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우리군대 장교들은 대단히 분개했다. 중대장 森尾 大尉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지휘관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홀로 성 안에 겹겹이 포위되어 있어서 지휘관의 명령을 받을 길이 차단되어 위급존망의 형편이므로 임기응변 책을 취할 도리 밖에 없다. 네가 만약 억지로 우리의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강제로 너를 우리 지휘

56) 위 자료, "敎導兵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 합세해서 함께 나가도록 하는 것은 뜻대로 하기 어려울듯하여 매우 한탄스럽습니다."

57) 미나미 소좌는 「東學黨 征討略記」(駐韓日本公使館記錄 6권, 二. 各地東學黨 征討에 관한 諸報告)에서 "監司는 내통하지도 않고 또 가담하지도 않은 자라는 內命이 있어서 그가 東學徒와 조금도 관계가 없는 자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모리오대위의 보고를 통해 파악했던 내용이다.

> 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더 힐문하여 이르기를, "네가 정녕 우리의 지휘를 따를 의사가 없다면 우리 역시 고려해 볼 바가 있다. 최후의 決答을 듣고자 한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그가 비로소 겨우 우리의 명령을 따르겠노라 했다. 그러나 그 얼굴색은 몹시 불만에 찬 듯 했다.

지휘권을 위임 받은 미나미 소좌도 아닌 일개 중대장이 통위영 장위영 경리청 3개대대 규모를 지휘하는 이규태에게 협박까지 한 것이다.[58] 이런 사실을 도순무사 신정희에게 보고[59]하였으나 신정희도 대안이 없었다.

미나미 소좌는 12월 2일(양력 12월 28일) 이노우에 공사에게 지방관을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면서 이규태를 가장 심한 말로 비난하였다.[60] "동학당 토벌선봉군대장 李圭泰 위의 사람은 열렬히 동학당에 가담한 사람이며 모든 처사가 애매모호하고 지휘관의 명령을 왜곡, 이제까지 한 번도 전투 일선에 나선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 전투 중에 자기 편의대로 숙소에 돌아오는 등 제멋대로 일을 처리하며 군대에서는 해로운 인물이므로, 대장 이규태를 소환하시어 빨리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이규태를 '열렬히 동학당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정도였다.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요청을 받은 이노우에 공사는 김윤식 외무대신에게 즉각 강력히 이규태의 소환을 요구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고 도순무사 신정희에게 전달했을 터이지만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해

---

58) 그후 이규태는 마지못해 일본군에 협조하였으나 통위대 병사만 내보내고 직접 나가서 지휘를 하지 않아 또 일본군의 불만을 샀다.(위 자료, "이 위급한 때에 병사만을 내보내고 자기 자신은 안에 숨어 있으니 무슨 용무 때문인지는 몰라도 將帥로서의 本職을 헛되게 하고 있음이 아닌가? 비록 병사를 내보냈다 한들, 이를 지휘하는 上官이 없으면 이것은 오합지졸일 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59) 「上巡撫使書」, "일본인이 巡營을 핍박한 일은 이미 封章을 했고 또한 적어서 의정부에 보냈으므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廢務하고 모든 일에 갈등을 빚으니 한탄스럽습니다. 일본인이 이처럼 거리낌 없는데 小人에게 있어서는 어찌 말할 게 있겠습니까?"

6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권, 五. 東學黨에 關한 件 附巡査派遣의 件 二 (30) 東學徒鎭定에 관한 諸報告 및 意見具申 2) 意見具申.

나간 경군 지휘관을 도중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신정희는 이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도순무사 신정희에 대한 이노우에 공사의 불만이 이 때문에 가중되었을 것이다.

미나미 소좌가 지시를 잘 따라서 선호했던 인물이 장위영 병대를 지휘한 李斗璜이었다. "이에 반해 壯衛隊長 같은 이는 쳐 나아가기로 한 의논이 있자 처음부터 한마디의 반대도 하지 않았으며, 또한 말하기를 어떠한 지휘라도 오로지 그 명에 따를 것이라 하였다. 이 사람은 본시 竹山府使로서 이름은 이두황이라 했으며 우리 군대의 지시에 잘 따랐다. 經理營兵의 隊長도 역시 가타부타 한 마디 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의 지휘에 따른다고 말하였다."

이두황은 1894년 4월 홍계훈이 장위영과 沁營 군사를 지휘해서 진압군을 보낼 때 隊官으로 전라도에 파견된 인물인데 일본군이 파견되어 청군과 평양성 전투를 벌일 때 노즈 미치츠라(野津道貫) 소장의 5사단을 따라가 정탐 지원을 한 바가 있었다.[61] 죽산부사로 임명되어 장위영 병대를 이끌고 진압에 참여하였는데 보은 장내리와 목천 세성산의 동학근거지를 초토화시키고 충청도 서해안 일대의 동학농민군을 제압한 다음 공주공방전 이후 논산전투부터 일본군과 합류하고 있었다.

도순무사 신정희는 차선택을 선택하였다. 이두황도 선봉으로 또 임명하는 방안이었다. 이규태는 좌선봉으로 전과 같이 통위영을 이끌며 경리청과 교도중대를 지휘하도록 했고, 이두황은 우선봉으로 임명해서 그 지휘에서 벗어나게 한 조치였다.[62] 원평과 태인전투 이후 대규모로 집결한 동학농민

61) 한국근대인물자료 이두황. "日淸戰爭시 일본 장교가 훈련시킨 2개 한국 兵隊 중 제2대대장으로 野津 제5사단장을 隨行. 일본군과 함께 평양에 가서 산하의 형세를 살피거나 敵情을 염탐"

62) 「순무사각진전령」 傳令左先鋒 李圭泰에게 보냄(1894년 11월 26일). "이번 11월 25일 임금께 '적의 무리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선봉 이규태를 좌선봉으로 임명하고, 장위영 영관 이두황이 여러 차례 전공이 있으므로 우선봉으로 임명하여, 이들에게 방면을 나누어 섬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아뢰었다. 임금께서 전교하기를, '윤허한다.'라고 하셨다. 이에 전령하므로 전령이 도착하는 즉시 통위영·경리영·교도소 3진의 장관 이하 병정들을 그대로 거느리고 전과 같이 절제하며, 우선봉과 함께 자세히 논의하여 담당할 방면을 나누고 날짜를 정해 적을 섬멸하라."

군과 전투를 하지 않고 각 군현의 동학지도자를 체포하거나 추적하는 단계에서 이런 조치는 별 의미가 없었다. 경군 각 병대는 소규모로 나누어 일본군 중대나 소대로 이루어진 지대와 전라도 남단을 순회하고 있었는데 미나미 소좌가 행군과 활동까지 일일이 지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군의 실제 지휘관은 미나미 소좌와 각 지대의 일본군 장교였다. 이두황은 장흥을 비롯한 전라도 남단을 다니며 동학농민군 참여자를 대규모로 체포하여 학살하는데 어떤 제약도 받지 않았다.

도순무사 신정희는 「순무사 방시문」에서 약속한대로 귀순한 동학농민군을 생업에 안정시키는 것을 강조하였다. 여러 차례 전령을 보내 민간에 해를 입히지 말고 백성들이 생업에 안정되게 종사하도록 만들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도순무사의 지시는 말단에서 이행되지 않았다. 동학농민군 가담자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전라도 남단에서 대학살을 지휘하던 일본군은 그 책임을 경군과 민보군에게 돌렸다. 그래서 진압이 완료되기도 전에 소모사와 토포관 등 임시군직을 철폐하라고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것은 일본공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양호도순무영을 혁파하는 것을 의미했다. 동학농민군이 패산한 뒤에 민심안정책이 필요했으나 일본공사는 껄끄러운 상대였던 신정희가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장 먼저 조처한 것이 도순무영을 혁파하고 軍務衙門의 지휘를 받게 한 것이었다. 도순무사 신정희는 12월 23일 江華留守에 임명하는 형태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63] 중군 허진도 같은 날 通津府使에 좌천되어 역시 도성을 떠났다. 이노우에 일본공사의 강요가 아니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

12월 27일에는 참모관 소모사 소모관 토포사 별군관 등 임시군직도 혁파하였고, 각지에서 활동하던 민보군도 해산시켰다.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잔무는 산적해 있었는데 이는 일본공사에게 잘 협력해왔던 조희연을 군무대신에 임명해서 수습하도록 하였다. 신정희에게 내린 강화유수 교지의 내

63) 『고종실록』 1894년 12월 23일자; 『승정원일기』 1894년 12월 23일자.

용은 이례적인 것으로 당시의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을 암시하고 있다.[64]

강화유수로 부임해서 근무하던 중 1895년 6월 18일 향년 63세로 세상을 떠났다.[65] 이후 「甲午軍功錄」에 올랐다.[66]

---

64) 周官에는 다스리는 자리를 중히 여겨 이 직임을 설치하여 울타리로 삼았고, 宋 나라에서는 유수의 자리를 높이 여겨 이에 선발되는 자는 문과 무를 겸비했다. 어떤 이가 이에 합당하겠는가. 예부터 적임자를 찾기 어려웠도다. 오직 경은, 한 몸에 이 땅의 안위를 짊어지고서 명망은 태산과 북두성처럼 중하도다. 조상의 발자취를 이어 백성들을 편히 다스리는 태평의 시대를 누리고, 아비의 학업을 이어 군사를 운용하는 능력을 겸비하였도다. 詩書와 禮樂을 좋아했던 晉 나라 대부인 郤穀과 같은 높은 풍도를 지녔으며, 雅詩를 부르며 投壺를 즐겼던 東漢의 장군인 祭遵보다도 넓은 도량을 지녔도다. 사방에 시험해 보고서 내가 그대의 업적을 가상히 여기고 있으며, 삼대 왕을 거치면서 그대의 계책은 능히 장하였도다. 생각건대, 이 커다란 강화도는 참으로 바다를 방비하는 요충지로다. 金城湯池의 장엄한 형세는 하늘이 내린 험준함이고, 성곽과 해자는 수륙이 교차함이니 나라의 방패막이 되는도다. 眞殿을 風雲이 길이 보호하고 있으니 이곳은 제2의 서울이라 불리우고, 명산에 史籍이 깊이 보관되어 있으니 세상에서는 外閣이라 부르고 있다. 그러니 이곳을 맡김에 있어 매우 신중히 하여, 반드시 명망과 실제를 겸비한 자를 등용해야 한다. 이에 경에게 行江華留守 兼 鎭撫使를 제수하노니, 경은 힘써 훌륭한 계책을 펼쳐 공경히 총애어린 명에 따르라. 두루 진무하여 속히 비적을 소탕하고, 깨끗이 물리쳐 속히 성과를 보고하라. 여러 해 많은 군사를 거느리면서 나만 수고롭다는 탄식을 하겠지만, 대대로 이곳을 맡아 다스림은 또한 보기 드문 영광이로다. 나라의 방비를 믿고 맡기는 것을 조정의 노성한 신에게 의지하노니, 이목을 모으는 깃발과 북소리에 성곽의 모습은 화려하게 거듭날 것이다. 아아, 신하를 아는 이는 임금만 한 이가 없으니, 생각건대 경이 아니면 불가하도다. 백성이 있고 사직이 있으니, 자, 그대는 가서 공경히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국경을 지키고 백성을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아, 어찌 이리도 늦게 오셨는가'라고 노래하게 하라.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는 바이니, 잘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65) 「官報」 4746호, 隆熙 4년 8월 2일. 시호는 靖翼, 武肅, 孝靖 중에서 정익으로 결정되었다. 故判書申正熙謚號望 靖翼〔寬樂令終曰靖思慮深遠曰翼〕 落點 武肅〔折衝禦侮曰武執心決斷曰肅〕 孝靖〔慈惠愛親曰孝寬樂令終曰靖〕

66) 영관 이상 군공을 인정 받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巡撫使 申正熙 從一品 卒逝 /中軍 許璡 從二品 /軍部協辦 權在衡 從二品 /從事官鄭寅杓 六品 /左先鋒李圭泰 三品 卒逝 討平兩湖, 軍民咸頌。 /郡守 成夏永 三品 牛金之役, 挺身先登。/前巡撫參謀官 注書 朴鳳陽 九品前主事 倡義守城殺賊無算 /前經理領官 具相祖 三品參領 松山·牛金, 屢著戰功。 /前統衛領官 張容鎭 三品參領 牛金·論山, 屢著其功 /前壯衛領官 元世祿 三品寶城郡守 屢著戰功, 畿湖賴安。 /前經理隊官 李相德 四品副尉 公州·舒川, 殲賊數百 /前壯衛領官 尹喜永 三品 連戰兩湖, 殺賊數百。前寧海府使 申泰休 三品參領 巡哨領邑, 勦捕群匪。

5. 맺음말

양호도순무사 申正熙의 활동에 관한 연구에서 1차사료가 되는 자료는 순무영의 일체 공문서를 모아놓은 謄錄이 되어야 하는데 이 같은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한창 활동을 하는 중에 갑자기 해산이 되어서 동학농민군 진압을 마무리하는 여러 조치는 말할 것도 없고 등록조차 만들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巡撫先鋒陣謄錄』『巡撫使各陣傳令』『兩湖右先鋒日記』등 파견 병대에서 작성한 자료들이 1차사료가 되고 있다. 신정희의 문집『香農集』도 찾지를 못해서 신정희와 교류했던 인사들의 문집 등을 통해 단편들을 확인하는 정도이다. 그런 까닭에 신정희의 활동과 신정희의 글을 통해서 정리해야 하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정희는 증조부 申鴻周와 아버지 申櫾을 이어 將臣이 된 儒將으로서 고종의 신임을 받아 오래 동안 捕盜大將을 역임해서 사회 기강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었다. 주변에 당대의 재사들이 모여들었다. 정동에 있던 저택은 이건창 홍승헌 황현 김택영 박문호 등 뛰어난 문장가들이 모여서 교류를 했던 장소였다. 이들 중에는 강직하기로 이름난 강화학파들이 있었는데 詩文을 보면 매우 가까이 지냈던 것을 알 수 있다.

강화학파들은 동학을 부정 일색으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인식과 신정희의 견해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 동학도들의 집회와 동학농민군들의 활동을 '지방정치의 개량'을 요구해서 일어난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서장옥 등 동학지도자를 심문해서 동학도들을 보는 인식이 바뀐 것이었다. 동학도들의 집회에 대해 정계의 원로들은 설유해서 해산시켜야 한다는 온건론을 펴고 있었다.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던 신정희는 이러한 온건론에 동조하게 되었다.

1894년은 조선의 武將으로서 견딜 수 없는 수모가 계속된 해였다. 이해 봄 지방농민들의 반란에 불과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지 못했다. 고종이 淸軍을 차병한 것은 관군에 대한 불신을 보여준 것이었다. 가장 큰 사건은

일본군이 경복궁을 기습 점거한 것이었다. 이것은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빠진 사실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러나 관군은 일본군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였다. 일본에 대한 저항은 동학농민군의 재봉기로 시작되었으나 관군은 일본군의 보조역할을 하면서 진압에 가세해야 했다. 조선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병기를 도둑질하여 공적인 재물을 약탈하고 성을 공격하여 관리를 해치는 등 반역' 행위를 하는 동학농민군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신정희는 관군을 동원해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할 책임을 맡은 임시 최고 지휘관인 양호도순무사에 임명되었으나 파견 병대의 지휘권은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의 대대장인 미나미 고시로 소좌에게 넘겨주어야 했다. 일본군에게 무기와 탄약을 통제받고 지휘권까지 장악당한 경군 파견 병대의 위상은 격하되었다. 일본군은 전투력이 미약한 경군을 '구사해서' 동학농민군과 전투를 벌여나갔고 우금치와 연산 그리고 원평과 태인 등 여러 지역에서 승리하였다.

양호도순무영의 도순무사 신정희는 일본이 내정개혁을 강요했던 이른바 노인정 회담의 조선측 대표로서 이노우에 공사와 격론을 벌인 반일 武將의 상징이었다. 중군 허진은 淸軍이 일본군을 물리치기를 기대했던 홍선대원군의 일파로서 경무사에 임명된 인물이었다. 도순무영이 파견한 경군 병대를 이끌던 선봉 이규태는 일본군 장교에게 지휘 받는 것을 거부해서 기피 대상이 되었다.

내정 간섭을 자행하던 일본공사 이노우에는 양호도순무영을 해산시켜도 동학농민군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일본공사의 강요에 의해 12월 23일 도순무사 신정희는 군권을 상실하고 江華留守로 전임되었다. 중군 허진도 통진부사로 좌천되어 도성을 떠나야 했다. 아직 동학농민군이 완전히 진압되지 않은 시기에 순무영을 해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신정희는 「순무사 방시문」에서 동학농민군 참여자가 귀순하면 보호해주고 생업에 안정시킨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다. 전라도 남단에서 벌

어진 동학농민군에 대한 대학살은 이런 와중에서 벌어진 것이었다. 조선정부의 마지막 수습책임은 일본에 적극 협력하던 군무대신 조희연이 맡게 되었다. 조희연은 일본군의 의도대로 동학농민군을 철저히 진압하는 것에 협력하였다. 그리고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군을 위무하기 위해 군무대신 조희연은 문무관료 20여 명을 이끌고 대련을 방문하였다.

(원고투고일 : 2011. 9. 15, 심사수정일 : 2011. 11. 10, 게재확정일 : 2011. 11. 18)

주제어 : 신정희, 순무영, 양호도순무사, 동학농민군, 일본군, 대원군, 이규태, 일본군 장교와 충돌, 순무영 해산, 강화유수

<ABSTRACT>

The Conflict of Military High Command of Sunmuyeong and The Japanese Army

Shin, Young-ou

In this article, I reviewed the aspect of the General Shin Chung-hee(申正熙)'s career and activities in 1894. He was Commander in Chief of Sunmuyeong(巡撫營) suppressed the uprising of the Donghak Peasant Army. His father Shin Heun(申櫶) and great-grandfather Shin Hong-ju(申鴻周) were well known in the military field as well. They were the famous generals in the late Joseon Dynasty.

As a commander in Chief of Sunmuyoung, Shin Chung-hee was placed in a difficult situation. First and most importantly, the Japanese was captured Gyeongbokgung(景福宮) by the army where the king lived and interfered in the domestic affairs of Joseon Dynasty.

The second serious problem was the Donghak Peasant Army rose in arms in all parts of the country. They raised their standard before embarking on the uprising. Their ultimate goal was to expel the Japanese out of the Joseon.

The high ranking government officials of the Joseon Dynasty, however, had been distrusted the Donghak Peasant Army's activity and morality. The Donghak Peasant Army extorted money and food from the local yangban(兩班)s every day since spring, 1894.

Shin Chung-hee realized that the Donghak Peasant Army wanted to reconstruct the state and transform society; on the other hand, as a general of the Joseon Dynasty, he had to ended the national disorder.

The staff officers of the Commander-in-Chief of the Sunmuyound was

within the sphere of the Daewonkun(大院君). The Japanese hated Daewonkun.

The Japanese army got under arms like a breechloading rifle which was a very powerful new weapons. The regular army of the Joseon dynasty has a role as an assistant because the officer of the Japanese army take hold the right to command. Shin Chung-hee, the commander in Chief of the Sunmuyoung, could not in the vanguard of the operation.

The Sunmuyeong and the Japanese Army were not on the same wavelength. Meanwhile, one of the chiefs of the Sunmuyeong, Lee Gyu-tae (李圭泰) came into conflict with officers of the Japanese Army. The Japanese army called on disband the Sunmuyeong. On December 27, the Sunmuyeong was dismissed and the General Shin Chung-hee was appointment to the Ganghwayusu(江華留守).

Key Words : Shin Chung-hee, Sunmuyeong, a Commander in Chief of Sunmuyeong, the Donghak Peasant Army, the Japanese Army, Daewonkoon, Lee Gyu-tae, Conflict with Officers of the Japanese Army, Dismiss, Ganghwayusu

남북전쟁의 성격에 관한 연구

- 북부의 총력전을 중심으로 -

박 계 호*

1. 머리말
2. 총력전에 관한 이론과 발전
3. 남북전쟁 시 북부의 총력전
4. 맺음말

1. 머리말

『손자병법(孫子兵法)』 제1편 시계(始計)에는 '전쟁은 국가의 커다란 일로써 삶과 죽음이 여기 있으니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兵者 國之大事 死生之地 存亡之道 不可不察也)'라는 글귀가 나온다. 2000여 년 전에 이미 손자가 강조하였듯이 전쟁은 국민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중대한 일로 국가지도자(이하 지도자)는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정치와 외교, 군사 등을 활용하여 이를 억제해야 한다. 그러나 억제에 실패하여 전쟁이 발발하였을 경우에는 국가총력전(Total War, 이하 총력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요소를 통합하고 지도해서 승리해야 한다.

총력전이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

* 육군대령, 육군대학 교관 및 평가실장 근무, 충남대 박사과정 수료

을 동원해서 싸우는 것을 말한다. 프랑스의 정치사상가인 '레이몽 아롱(Raymond Aron)'은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총력전 양상이 나타나서 그 양상은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절정에 이르렀다고 하였다.[1] 남북전쟁은 미국이 1766년 독립이후 85년이 경과하면서 그동안 내재되어 있었던 남북의 경제력 차이와 노예제도 등이 원인이 되어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는 예상을 넘어 4년이 넘게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북부가 초기의 열세를 만회하고 총력전으로써 승리하였다.

중동전에서 이스라엘이나 6·25전쟁 시 남북한도 승리를 위하여 총력전을 실시하였다.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발발한다면 승리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 총력전 연구는 미흡하다. 총력전에 관한 책자는 1935년에 독일의 루덴도르프 장군이 작성한 것을 1975년에 번역한『국가총력전』, 일본인 '다까하시 하지메(高橋 甫)'가 작성한 것을 1975년에 번역한『현대총력전』, 1981년 '코우케츠 아츠시(纐纈 厚)'가 작성하였으나 아직 번역되지 않은『총력전체제연구』, 그리고 1·2차 세계대전사 같은 전쟁사 책자에서 총력전을 일부 소개하는 정도로 포함하고 있을 뿐[2] 국내에서 별도로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책자는 없다. 또한 총력전 관련 학위논문도 찾아볼 수 없고, 부분적으로 연구된 일부의 논문이 군사 간행물 등에 게재되어 있기는 하나[3] 앞으로 이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

1) Raymond Aron, The Century of Total War(Boston: The Beacon Press, 1960), p.19.

2) 총력전 내용을 포함하는 전쟁사에 관한 책자로는 육군대학,『세계전쟁사(상)』(대전: 육군인쇄창, 2004); 육군본부,『20세기 전쟁양상』(대전: 육군인쇄창, 2002); 정하명 외,『세계전쟁사』(서울: 도서출판 황금알, 2004)와 번역서로는 마틴 폴리, 박일송 옮김,『제1차 세계대전사』(서울: 생각의 나무, 2008); 존 키건, 조행복 옮김,『제1차 대전사』(서울:(주) 청어람 미디어, 2009) 및 류한수 옮김,『제2차 대전사』등을 참조. 그 외 원서로는 Jaremy Black, The Age of Total War 1860~1945(London: Prager Security International Inc. 2006); N. F. Dreisziger, Mobilization for Total War(Ontario: Wilfred Laurier University Press, 1980) 등을 참조

3) 한국에서 총력전에 관한 연구는 종전에는 주로 (구)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주관하여 발행하는「비상대비논총」에 일부 논문을 수록하였으며, 현재는 이마저 중단된 상태이다. 개별적인 총력전에 관한 연구논문으로는 하재평,「한국전쟁시의 국가총력전」,『군사』, 제3호, (서울 : 신오성기획인쇄사, 2001); 장형섭,「근대 일본의 총력전 구상과 제국국방방침」,『군사』, 제70호, (서울: 신오성기획인쇄사, 2009) 등이 있기는 하지만 총력전

고 생각한다. 특히 한반도에서 만약 다시 전쟁이 발발한다면 총력전 양상을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런 관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더욱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남북전쟁시의 북부의 총력전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에서는 남북전쟁의 승패원인을 군사사 측면에서 북부 군사지도자의 탁월성을 강조하는 관점과 남부군 수뇌부의 군사 지도력을 비판하는 관점의 글이 있기는 하지만,[4] 아직 총력전 관점에서의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먼저 총력전에 관한 이론의 발전을 간략히 살펴보고 남북전쟁 시 북부를 중심으로 지도자의 리더십과 국민의지, 정치와 외교, 재정 및 경제, 상비군사력, 예비전력, 과학기술, 사회문화 등을 총력전 관점에서 분석해서 교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총력전에 관한 이론과 발전

1) 총력전의 개념 및 기원

'전투는 군인이 하지만 전쟁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라는 이 말은 언뜻 보기에는 매우 단순하게 보이지만 총력전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말로 이해가 된다. 현대전에 있어서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는 한 전투의 승패는 군인들에 의해 좌우되지만 국가의 존망과 전쟁의 승패는 국가의 모든 요소들을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동원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서 전 국민들의 참여는 승패의 핵심적 요인이 된다. 국가의

의 본질을 연구한 논문이라고 하기에는 당시 국가의 지도자와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력, 예비전력 등 총력전 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다.

4) 이주천, 「남북전쟁과 그랜트의 군사지도력: 빅스버그 회전을 중심으로」『서양사론』, 제107호, (한국서양사학회, 2010) 및 「남부연합군 패인론: 로버트 리의 지휘력과 군사전략을 중심으로」『미국사연구』, 제18집, (한국미국사학회, 2003) 참조.

존망과 전쟁의 승패는 국민이 얼마나 승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가 그 정도에 따라 좌우되며, 그것은 곧 총력전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총력전이란 국가가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으로, 총력전이란 용어가 책자에 최초로 등장한 것은 프로이센의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가 저술한 『전쟁론(Vom Krieg, On War)』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5] 1차 대전 중 프랑스의 클레망소(Georges Clemenceau) 수상이 1917년 7월 22일 의회연설 중에 총력전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고 한다.[6]

총력전 양상은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최초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1차 세계대전에서 본격화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에서 절정에 달하였다.[7] 총력전 양상은 이미 남북전쟁으로 그 기원을 찾아올라갈 수 있지만, 이 용어가 최초로 문헌상에 등장한 것은 1차 대전이 끝난 뒤 독일의 루덴도르프(Erich von Ludendorff) 장군이 1935년 그의 저서 『총력전(Der Totale Kriege)』에서 사용하면서부터이다.[8]

즉, 루덴도르프 장군은 그의 저서에서 "1차 세계대전은 과거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전쟁 당사국의 군대는 서로 상대방 섬멸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국민자신들도 (전투장비나 탄약과 물자의 생산, 정비나 보급 및 수송, 의무지원 등 다양한 전투근무지원 활동을 통해서) 전쟁수행

---

5) Richard A. Preston & Sydney F. Wise, *MEN IN ARMS* (New York: Prager Publisher, 1970), pp.240~241.

6) 가토 요코, 박영준 옮김, 『근대 일본의 전쟁논리』(파주: 태학사,2003), pp.190~191. 이 책자에 의하면 프랑스의 '레옹 도데'가 간행한 「총력전론」에서 프랑스의 클레망소 수상이 총력전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고 한다.

7) Roger Chicker, 「World War Ⅰ and the Theory of Total War: Reflection on the British and German Cases 1914~1918」, *Great War, Total War*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36. 총력전의 양상이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처음 나타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다. 프랑스의 '레이몽 아롱(Raymond Aron)'은 총력전 양상이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최초로 나타났다고 하였지만, 미국의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남북전쟁이 그 기간이나 목표 및 양측 경제력의 동원정도에도 불구하고 총력전이란 용어를 사용하면 남북전쟁을 근본적으로 잘못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8) Erich von Ludendorff, 최 석 번역, 『국가총력전』(서울: 공화출판사, 1972), pp.20~21.

에 관여하게 되었으며, 전쟁은 자신에게로 지향되었다. 국민들은 전력을 다하여 군의 후방을 담당하고 …"라고 하여 바야흐로 총력전이 국가 간 전쟁 양상을 지배하게 됨을 표현하였다.[9]

영국의 처칠(Winston Churchill) 수상도 프랑스가 독일군의 침공으로 1940년 6월 13일 항복하자 "어떤 비용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얼마나 길고 어려울지라도 승리 없이는 생존도 없다"라고 전쟁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영국의 모든 자원은 물론 미국의 지원까지 최대한 이용하여 총력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그러한 결과로 승리하였다.

2) 총력전 등장 배경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한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으로 생산방식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과거의 수공업 위주에서 기계가 발명되고 제품을 생산함에 따라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것은 국민들의 생활방식에서도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으며 전쟁방식에서도 변화를 촉진하였다. 산업혁명과 더불어 증기기관이 발명되었고 철강생산에 대한 새로운 공법과 기술이 발전되어 이를 바탕으로 다량의 무기와 탄약의 생산이 가능해 졌다.[10] 철도가 건설되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병력과 전투장비와 물자를 먼 곳으로 이동하거나 집결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기관총과 전차와 비행기, 잠수함이 전장에 등장하였고, 무선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원거리 통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양한 구경의 포병화기와 폭발력이 강한 탄약 및 신관의 발전으로 포병이 위력을 발휘하였고, 전차와 항공기, 포병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전략과 전술의 발전으로 전쟁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다양한 전투장비와 탄약이 개발 및 사용되고 여기에 새로운 전략

---

9) Ludendorff, 『국가총력전』, pp.20~21; Evan Mawdsley, *World War II*(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p.46~47.

10) Preston & Wise, *MEN IN ARMS*, pp.241~243.

과 전술의 발전으로 전쟁양상이 변화하면서 단순히 기존의 상비 및 예비전력 등 군사 분야의 우세만으로 승리하기는 어렵게 되었고, 따라서 정치, 외교, 경제, 과학기술, 사회문화 등 비군사적인 분야도 군사 분야와 결합하여야만 승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군인은 전투원(Combatants)으로서 전장에 투입되었지만, 또한 모든 국민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비전투원(Non-Combatants)으로 전투장비와 탄약과 물자의 생산과 정비 및 보급, 의무와 수송 등 전투근무지원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또는 식량증산을 위하여 동원되었다.

뿐만 아니라 산업시설은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투장비와 탄약, 물자를 생산하기 위하여 신설되거나 확장되었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었으며, 동원업무를 담당할 정부기구도 신설되거나 확장되었다. 정부나 군대, 국민의 모든 행위와 활동이 전쟁에서 승리라는 유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제되고 관리되며 운영되는 등 총력적으로 대응을 하였던 것이다.

미국의 남북전쟁에서는 제조업의 발전으로 대량생산의 기반이 갖추어지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소총으로부터 기관총은 물론 화포, 초기단계의 어뢰나 기뢰 등이 발명되고 적을 탐지하고 관측하기 위해서 초보적인 정찰기구가 사용되었으며, 초기단계의 잠수함이 등장하여 해전에서 사용되었다.[11] 장기간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병력과 장비 및 물자가 소요되고 이로 인하여 상상을 초월하여 천문학적인 전비가 소요되는 전쟁

---

11) Aron, *The Century of Total War*, p.19. '레이몽 아롱(Raymond Aron)'은 미국의 남북전쟁을 총력전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즉, 남북전쟁에서는 새로운 발명과 제조업의 발전으로 신무기와 대포가 사용되었고 더불어 탄약의 사용이 급증하였다. 전신도 사용되어 지휘가 용이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부비트랩(Booby Trap)'도 사용되었다. 새로운 발명품들이 전장에서 활용되었고, 국가의 모든 자원들이 무자비하게 동원되었다. 이런 점을 들어 남북전쟁을 총력전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반면에 Paul Kennedy는 남북전쟁이 20세기적 차원에서의 산업화한 첫 번째의 총력전으로써, 그 이유를 남북의 인구와 자원의 불균형, 산업생산능력의 차이, 전비조달에 있어서의 남부의 불리함 등으로 북부가 승리할 수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Paul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 Economic Change and Military Conflict From 1500 to 2000*(New York: Random House, 1987), pp.179~182.

으로 변하면서 북부는 승리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전쟁양상은 1·2차 세계대전에서 절정에 달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쟁에 참여한 국가는 정치와 경제, 외교, 군사, 과학기술 등 전 분야에서 총동원(Total Mobilization)과 총력전체제로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어느 국가가 이러한 총력전 체제를 조기에 갖추고 그 역량이 큰지에 따라 승패는 결정되었다.

3) 총력전관련 주장 및 영향요소

(1) 루덴도르프의 총력전

루덴도르프 장군은 1차 세계대전에서 힌덴부르크(Paul von Hindenburg)가 지휘하는 독일군의 1군단 참모장으로서 참전하여 1914년 8월 타넨베르크(Tannenberg) 전투에서 러시아군을 대파함으로써 힌덴부르크 장군과 더불어 독일국민의 우상이 되었던 인물이다.

제1차 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16년 말 힌덴부르크가 팔켄하인(Erich von Falkenhayn) 장군의 뒤를 이어 참모총장이 되자 루덴도르프 장군은 참모차장(병참감 겸무)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는 1차 대전에서의 경험과 국방에 관한 제반 문제들을 정리하여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수년전인 1935년에 『총력전(Der Totale Kriege, Total War)』이라는 책을 발행하였다.

그는 총력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신적 단결과 국가의 경제력 및 지도자를 중요한 요소로 언급하였다.[12] 그는 국민의 정신적 단결과 관련하여 "총력전에서 군대의 강약은 국민의 정치적, 경제적, 정신적 강약에 의해 좌우되며, 국민의 정신력은 대단히 장기간에 걸친 전쟁에서 생존투쟁에 필요한 단결력을 군과 국민에게 부여하고, 또한 국민존망을 위하여 전쟁에서 최후의 결정을 주는 것이다"고 하였다.[13]

---

12) Ludendorff, 『국가총력전』, pp.11~14.
13) 위의 책, pp.35~37.

그가 언급한 국가의 경제력은 전쟁지속능력으로, 군이 필요로 하는 전투장비와 탄약과 물자의 생산과 보급을 위한 군수공업과 국민의 기본적 생활유지를 위한 식량과 생필품, 연료의 공급, 재정동원과 화폐수급 조절을 통한 전비조달을 말한다.[14]

총력전을 수행할 지도자는 국가의 '총수(總帥, Feldherr)'로서 총수는 평시 국민적 단결을 기초로 총력전 수행을 위하여 재정과 경제동원을 준비하고 식량과 연료, 생필품 등 국민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군대가 전쟁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나 물자의 준비 등 전쟁준비에서 지도자가 해야 할 역할을 강조하였다.[15]

〈표-1〉 루덴도르프가 주장한 총력전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정신적 단 결	군대의 강약은 국민의 정신적 단결에 의해 좌우됨 ※ 총력전의 중심은 국민임
국가의 경제력	재정동원과 전비조달, 무기·탄약·식량 등의 생산과 조달, 전쟁지속을 위한 연료 확보, 전시 군수공업의 문제 등
지도자	전쟁지도자(총수)로서의 자질(두뇌, 의지, 담력)과 전쟁지도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총수의 역할 등

출처: 루덴도르프 저, 최 석 번역, 『국가총력전』(서울: 공화출판사, 1972)

(2) 다까하시 하지메의 현대총력전

일본인 '다까하시 하지메(高橋 甫)'는 1975년 『현대총력전(現代總力戰)』에서 현대전에 있어서 총력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력요소를 무력과 정치전력, 사상전력, 경제전력으로 구분하였다.[16] 무력(武力)은 총력전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력으로 병력을 기초로 장비와 물자 등을 포함하는 상비전력을

14) 앞의 책, pp.69~85.
15) 위의 책, p.214; Mawdsley, *World War Ⅱ*, p.47.
16) 다까하시 하지메(高橋 甫), 국방대 안보문제 연구소 역, 『현대총력전』(서울: 공화출판사, 1975), pp.88~89.

말하며, 정치(政治)전력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지도자의 전쟁지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력이고, 사상(思想)전력은 승리를 확고히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의 정신력이며, 경제(經濟)전력은 전쟁지속을 위한 경제적인 힘과 능력을 말한다. 다까하시는 총력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전력들이 상호 효과적으로 작용할 때 가능하다고 하였다.

〈표-2〉 다까하시 하지메의 총력전력 구조

구분	무 력	정치전력	사상전력	경제전력
내용	상비군 (인적·물적 자원)	사회·정치구조 좋은 정치 전쟁지도 능력	장수기능 군대의 武德 국민정신 국민여론	국토넓이, 인구규모, 국민경제 구조, 전시경제 규모, 전시국민생활, 전시무역, 정치력

출처: 다까하시 하지메 저, 국방대 안보문제 연구소 번역, 『현대총력전』(공화출판사, 1975), pp.113~235(요약).

(3) 코우케츠 아츠시의 『총력전체제연구(總力戰體制硏究)』

일본의 '코우케츠 아츠시(纐纈 厚)'는 『총력전체제연구(總力戰體制硏究)』 책자에서 총력전의 내용과 특징을 무력전의 성격의 변화와 경제·공업동원 비중의 확대, 사상·정신동원의 중요성 등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17]

그는 무력전의 성격을 적을 섬멸하는 '섬멸전략'과 군사력 소모를 강요하여 적의 전쟁능력을 마모시키는 '소모전략'으로 구분하였는데, 섬멸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 군사력과 더불어 전략물자의 비축과 다수의 기간부대 유지, 병역기간의 연장과 공격적 병기체계, 군사자산의 증강을, 그리고 소모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전을 전제로 결전 시까지 병력(예비전력)의 보존을 강조하였다.[18]

경제·공업비중의 확대는 지금까지의 전쟁형태에서 볼 수 없었던 막대한 군수물자의 소요로 이를 생산하기 위해 공업생산의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

17) 코우케츠 아츠시(纐纈 厚), 『總力戰體制硏究』(東京: 文永印刷株式會社, 1981), pp.12~13.
18) 위의 책, pp.96~97.

며, 군수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국내의 정치적 혼란의 발생, 전·후방 식별 곤란, 국민에 대한 가혹한 조건의 부과 등으로 말미암아 국민생활이 대단히 어렵게 되기 때문에 사상과 정신동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4) 합동참모본부『합동기본교리』의 국가총력방위

합동참모본부의『합동기본교리』에서는 국가총력방위(國家總力防衛)의 요소를 지도자의 리더십과 국민의 의지, 정치· 외교, 경제· 과학기술, 사회 및 문화를 제시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사 분야의 고유역량과 총력전 요소의 활동을 유기적이고 상호 보완적으로 조직하여 국내외로부터 위협과 무력침략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19]

『총력전』이나『현대총력전』,『합동기본교리』,『총력전체제연구』모두에서 총력전을 위한 제 요소를 대체적으로 상비군사력이나 예비전력, 경제력과 같은 유형적 요소와 더불어 지도자의 리더십이나 정신력과 같은 무형적 요소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들 요소들이 상호 긴밀히 연계하여야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총력전에서 승리는 어느 한 분야에서의 '절대적 우위(Absolute Superiority)'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요소들이 '조화(Harmony)'되어야만 가능함을 총력전의 역사가 시작된 남북전쟁으로부터 1·2차 세계대전과 중동전이 증명하고 있다.

총력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가 균형되게 발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비군사력이나 예비전력, 경제력과 같은 유형적인 분야에서의 우위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리더십과 국민의 결연한 의지나 과학기술력, 사회문화적 요소 등 무형적인 분야에서의 우위도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평시 국력의 조직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

19) 합동참모본부,『합동기본교리』(서울: 대한기획인쇄, 2009), pp.32~33.

3. 남북전쟁 시 북부의 총력전

1) 당시 미국의 일반정세

남북전쟁은 남북 간의 대립원인이 되었던 노예문제가 없었다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남부인에게는 그들의 재산이자 노동력 제공의 핵심인 노예제도를 보존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으로 그들은 연방의 자유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20]

1860년 11월, 합중국 대통령 선거에서 노예해방을 주장하는 공화당의 링컨후보가 당선되자[21] 그해 12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제일 먼저 연방을 탈퇴하였고[22] 이어서 연방을 탈퇴한 남부의 앨라배마, 미시시피 주 등 6개 주는 서로 연합하여 1861년 2월 4일 앨라배마 주의 몽고메리(Montgomery)에 모여 '아메리카 연합(Confederate States of America, CSA, 이하 남부연합)'을 조직하고[23]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헌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데이비스(Jefferson Davis)를 대통령으로 추대하였다.[24]

---

20) 정미선, 『전쟁으로 읽는 세계사』(서울: 은행나무, 2010), pp.242~243. 남부 대통령 데이비스는 남부가 연방을 탈퇴하는 이유를 첫째,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면에서 남부가 북부에 의해 압도당하고 있다는 남부인들의 피해의식과 둘째, 북부가 주도하는 의회가 남부인 생활방식을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 셋째는 노예가 해방되면 흑인과 백인의 결혼이나 백인여성에 대한 겁탈 등으로 남부가 광란의 상태로 된다는 것을 들었다. 따라서 남부는 연방을 탈퇴해야만 노예해방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링컨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독립을 선언한 것이다.

21) James Street, *The Civil War*(New York: Dial Press, 1953), p.18. 당시 대통령 후보에는 4명이 있었다. 공화당의 링컨 후보, 민주당에는 더글라스(Douglas)와 브레킨리지(Brekinridge), 그리고 존 벨(Jones Bell) 등 3명의 후보가 있었다. 선거 결과는 링컨후보가 186.6만 표, 민주당의 더글라스 후보가 137.5만 표, 브래킨리지 후보가 84.5만 표를 획득함으로써 링컨이 당선되었다.

22) Archer Jones, *Civil War Command and Strategy*(New York: The Free Press, 1992), pp.1~2. 당시 남부 연합이 연방정부로부터 분리 독립을 선언하자 부캐넌(James Buchanan) 대통령은 남부 연합의 불법성을 비난하였지만, 미 육군은 병력이 소규모(16,000여 명)로 이를 저지할 힘이 없었다.

23) Street, *The Civil War*, pp.26~27. 택사스 주가 1861년 4월 23일 추가로 합류함으로써 7개주가 되었다.

24) Jay W. Simson, Naval Strategy of the Civil War(Tenn. : Cumberland House Publishing Inc. 2001), p.11; 한국미국사학회, 『사료로 읽는 미국사』(서울: 궁리출판, 2006), p.33. 당시 미 대통령은 부캐넌(James Buchanan)은 미국이 노예문제로 남북으

연방정부와 남부연합의 대립이 첨예화되는 가운데 갈등은 마침내 1861년 4월 12일 새벽 연방군이 수비 중이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섬터요새(Fort Sumter)에 남부연합군(이하 남부군)이 포격을 가함으로써 역사적인 남북전쟁(Civil War)은 시작되었다.

〈표-3〉 1861년 개전당시 북부와 남부연합의 비교[25]

구 분	북 부 연 합	남 부 연 합
지 도 자	Abraham Lincoln	Jefferson Davis
참여 주	18개주	7개주(1861년: 4개주 추가)
인 구	1,850만여 명	900(이중 흑인 350만)만여 명
생 산 액	15억 달러	1.55억 달러
제조업체	10만여 개소(노동자 110만)	2만여 개소(노동자 11만)
철도길이	20,000마일	9,000마일

출처: 신태영, 『아메리카 전쟁』 (서울: 도남서필, 1987), p.193.

남북전쟁은 1·2차 대전이나 중동전, 한국전과 같은 국가 간의 이념적 대립이나 종교·민족적 대립 등이 아닌 한 나라에서 그것도 정치적으로 같은 제도권 안에서 노예해방이라는 특정한 문제가 갈등을 야기하면서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26]

로 분리되어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새로 출범하는 링컨 행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25) 남북전쟁 당시 인구에 관한 자료는 책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Paul Kennedy는 1860년 미국의 인구를 3,140만 명(*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 p.178)이라고 하고 있고, James Street는 북부의 인구가 2,195만여 명으로 남부는 850만여 명(*The Civil War*, p.42)이라고 하고 있다. 〈표-3〉에서는 1861년의 인구를 2,750만 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당시 유럽 이민자들의 계속되는 유입과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인구 통계의 어려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철도가 중요하였던 이유는 당시 대량의 병력과 물자를 철도를 이용하여 광범위한 지역으로 이동해서 운용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북부는 철도를 따라 전선을 가설해서 지휘용이나 군수지원을 요청하는 용도로도 사용하였다.

26) Donald Snow, 권영근 옮김, 『미국은 왜 전쟁을 하는가?』 (서울: 연경문화사, 2003), p.99. 남북전쟁의 원인에 대한 의견이 잘 일치되지는 않는 것 같다. 일부에서는 노예제도에 대한 갈등설과 북부지역의 산업 체제를 남부지역에 강요하는 과정에서 남부와 북부

여기에 당시 산업혁명의 여파로 대량의 무기와 탄약의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남·북부군은 산업혁명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총력전을 실시, 처절한 싸움을 벌여 막대한 전비소요와 엄청난 인명의 손실 및 광대한 국토가 황폐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남북전쟁은 본질적으로 노예해방 문제가 발단이 되어 발발했으나 북부 주민과 남부연합 주민의 싸움이었기에 국민전쟁의 성격을 내포했으므로 총력전의 기원이 되었다. 양측은 모두 자신들이 정의의 전쟁을 하는 것으로 확신하였다. 북부는 노예제도의 폐지와 연방정부의 보존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싸웠고, 남부연합은 노예제 유지를 명분으로 내세워 분리 독립을 원했다.[27]

남북 간에 타협으로 전쟁을 회피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지만, 링컨은 노예해방을 반대하는 회담에는 자신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여 타협을 거부했고,[28] 남부는 노예제도 폐지를 조건으로 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원했으나 링컨은 이를 거부하였다.

남부연합과 북부에 있어 전쟁방지를 위한 협약이나 타협은 양측의 현저한 견해차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고,

남북은 어느 한쪽이 무조건적으로 항복하거나 아니면 남부가 승리해서 노예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연방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쟁이 발발한 것이다.[29]

의 갈등설, 각각의 주(州)들이 갖고 있었던 권리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서 발생하였다는 의견 등으로 남북전쟁의 원인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주장으로 농업에 기반을 둔 남부와 산업에 기반을 둔 북부의 경제적 차이 및 남부의 노예제도가 북부로 확산될 경우 북부에서 자유로운 백인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흑인노예들로 인하여 위협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노예제도를 반대하였다는 주장도 있다.(엘런 브링클리, 황혜성 외 옮김,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2)』(서울: 청아문화사, 2005), pp.124~125.

27) Preston & Wise, *MEN IN ARMS*, p.247.

28) Simson, *Naval Strategy of the Civil War*, pp.11~12. 프린스턴 대학의 역사학자인 맥퍼슨(James M. McPherson)에 의하면 노예문제에 관하여 링컨 대통령은 처음에는 중도적이었으며, 남부의 노예제도를 불법화할 의도는 없었다고 한다.

29) Preston & Wise, *MEN IN ARMS*, p.247.

2) 전쟁 경과 및 결과

남북전쟁은 1861년 4월 12일 새벽에 남부군이 북부군의 섬터 요새에 포격을 가함으로써 시작되었다.[30] 방어적 입장에 있었던 남부가 오히려 선제공격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16,000여 명에 불과하였던 연방군의 대부분은 인디언들과 전투를 위해 서부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은 75,000여 명의 지원병을 모집함과 동시에[31] 전쟁을 조기에 끝내기 위해서는 남부의 해상을 봉쇄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남부의 해상봉쇄를 명령하고 경제적 압력을 가하도록 지시하였다.[32]

이러한 지원병 모집 조치에 반발하는 남부와[33] 대립이 격화되면서 전쟁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때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켄터키와 메릴랜드, 미주리는 연방으로 아칸소와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와 버지니아는 남부연합으로 가담하였다.

북부군과 남부군의 전쟁은 1862년 7월의 불런(Bull Run) 강의 전투와 그해 4~7월의 리치먼드 (Richmond) 전투, 1863년 7월 1~3일 남북전쟁의 최대전투라고 불리는 게티즈버그(Gettysburg) 전투[34]와 1862년 12월~1863

---

30) Jones, *Civil War Command and Strategy*, pp.1~2.

31) 위의 책, p.2; J. F. C. Fuller, Grant and Lee: A Study in Personality and Generalship(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2), pp.31~32. David Donald, 남신우 옮김, 『링컨 2』 (서울: (주)살림출판사, 2003), p.25. 전쟁발발 초기에 링컨 대통령이 7만 5천여 명의 시민병을 소집한 것은 남부를 대상으로 하여 정상적인 법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없었기 때문이며, 이는 곧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이를 지지하였는데, 당시 링컨 행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던 민주당의 어느 상원의원 조차도 연방정부의 존속을 위해 링컨을 지지하면서 전 국민의 단결을 주장하였으며, 민주당원에게도 대통령을 지지하도록 설득하였다.

32) Brian H. Reid, *The American Civil War*(London: Cassel & Co, 2000), pp.64~65.

33) James M. McPherson, *Battle Cry of Freedom: The Civil War Er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pp.276~277. 예를 들면 남부연합의 켄터키 주에서는 남부의 주를 진압하려는 사악한 목적을 위하여 병력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였고, 테네시 주에서도 연방정부에 단 한명의 병사도 보낼 수 없지만 남부의 권리와 남부를 위해서라면 5만 명이라도 보낼 수 있다고 하였다. 아칸소와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주도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34) Fuller, *Grant and Lee: A Study in Personality and Generalship*, p.286.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북부군은 88,289명이 참전하여 전사 3,155명, 부상 14,529명, 실종 5,365명이

년 7월 4일까지의 빅스버그(Vicksburg) 회전[35] 등에서 일진일퇴를 하면서 진행되었다.[36] 1864년 3월에는 북군의 그랜트(Ulysses S. Grant) 장군이 부대를 지휘하여 미시시피 강 전투에서 남부군을 격파하였으며, 그해 5월에는 북부군이 남부의 모빌(Mobile) 항을 해상에서 봉쇄하여 유럽으로 목화수출을 차단함으로써 자금줄을 막고 탄약과 의류, 의약품 수입을 금지시킴으로써 남부를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궁지에 빠지게 하였다.

마침내 1864년 5월 그랜트 장군이 북부군 총사령관으로서 대공세를 시작하여 차례로 남부도시들을 함락시키고 남부군의 마지막 저항거점인 애포머톡스(Appomattox)마저 점령하여 1865년 4월 9일 남부군의 리(Robert. R. Lee) 장군이 항복함으로써 전쟁은 끝났다.

3) 북부군의 총력전 준비와 실시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예해방을 주장하는 링컨이 당선되자 남북간에 노예해방 문제를 포함하는 잠재돼 있던 문제들로 인하여 남부의 여러 주정부가 연합하여 연방정부에 저항함으로써 시작된 남북전쟁에서는 최초로 총력전 양상이 나타났다. 이 전쟁에서는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능력과 재정 및 경제력, 과학기술력, 지도자의 리더십 등 이른바 총력전 요소들이 승리를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입증하였다.[37]

발생하였으며, 남부군은 75,000명이 참전하여 전사 3,903명, 부상 18,735명, 실종 5,425명이 발생하였다. 남북전쟁에서 가장 많은 전·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된 전투로 기록되고 있다.

35) 빅스버그 회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주천, 「남북전쟁과 그랜트의 군사지도력: 빅스버그 회전을 중심으로」, p.56 참조

36) Fuller, *Grant and Lee: A Study in Personality and Generalship*, pp.286~287에서 남북전쟁시의 주요 전투 기간과 참전인원 및 전·사상자, 실종자 등에 관한 자세한 자료를 참조

37) Preston & Wise, *MEN IN ARMS*, p.243.

(1)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지만 통합과 관용을 중시한 지도자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링컨 대통령이 기울인 노력은 무엇인가? 특히 남북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닌 같은 한 국가 내에서 발생한 내전이었는데, 그렇다면 링컨 대통령은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억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또한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연방정부의 최고책임자로서 전쟁을 승리로 종결시키고 남북을 다시 연방국가로 통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남부연합이 데이비스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병력을 모집하여 군대를 만들고 연방정부의 무기를 탈취하여 무장하자 링컨 대통령은 남부의 분리와 독립추진에 대하여 취임연설을 통해 강력한 경고의사를 밝혔다.[38] 링컨은 자신이 해야 할 정치적 목표가 연방정부의 붕괴를 막고 합중국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39]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발발하자 북부군의 목표는 남부군을 항복시키고 남부연합 정부를 해산시켜 원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었다. 헌법이 북부연방의 입장에 있었고, 연방정부로부터의 남부의 이탈은 용인될 일이 아니었다. 만약에 어느 한 주의 탈퇴라도 용인해주면 도미노(Domino) 현상으로 연방탈퇴를 추구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남부의 연방정부 탈퇴를 적극적으로 만류해야만 했으나, 그렇다고 북부군이 남부의 분리 독립을 억지할 수 있을 정도로 군사적으로 반드시 유리한 위치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링컨은 전쟁초기 단계에 민주당원들의 주도에 의해서 야기되는 광범위한

38) 한국미국사학회, 『사료로 읽는 미국사』, pp.163~166.

39) 김형곤, 『미국 대통령의 초상』(서울: 도서출판 선인, 2003), pp.71~74. 링컨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연방의 붕괴를 막으면서 보존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따라서 자신의 목표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갔다. 링컨에게 있어 남북전쟁은 민주주의 생존의 시험대로 보았고, 따라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되었다. 따라서 전쟁기간 중 취한 강력한 조치에 따라 때로는 폭군이라는 소리도 들었지만, 이에는 상관하지 않고 연방정부 존속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전쟁반대 여론에 직면하여 이를 타개해야만 되었는데, 이를 위해서 반전인사들을 체포하여 신속히 재판받도록 하였고, 징집을 반대하거나 국가의 명령에 불복하면 군법회의에 회부시켰다. 링컨은 남북전쟁을 '반란(Rebellion)'이라고 판단하여 의회에 선전포고도 요청하지 않은 채 병력을 전장으로 보냈으며, 정규군 확대와 남부의 해상봉쇄를 명하기도 하였다.[40] 어떻게 보면 링컨의 이러한 조치는 의회를 무시하거나 독단적인 조치로 보일수도 있었지만 이런 것은 연방정부의 붕괴를 막으면서 승리를 위한 신념에서 우러난 조치이기도 하였다.

노예해방 문제가 전쟁의 주원인이 되기는 하였지만 링컨은 아직 전쟁이 진행 중이던 1863년 1월 1일 노예해방을 선언하였는데, 이는 노예해방이 연방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며 남북전쟁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합법적인 전쟁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노예해방은 1865년 1월 북부에서 수정헌법을 채택하여 전쟁이 끝나던 12월 각 주가 여기에 비준함으로써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었다.[41]

링컨이 처음부터 전쟁을 잘 지휘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처음 전쟁에 임하여 국민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표가 없었고 그렇다고 유능한 지휘관을 식별해낼 능력도 부족하였으며, 그런 결과로 전쟁이 발발한 2년 동안은 거의 승리를 하지 못하였다.[42]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정치가이자 군통수권자로서 링컨은 군 지휘관을 임명함에 있어 민주당이나 공화당 등 당적을 가리지 않고 능력에 따라 임명하였다. 변호사 출신 대통령으로서 링컨의 전쟁지도력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였으나 그는 그가 신뢰할 수 있는 군사 지도자를 끊임없이 찾아 나섰다. 마침내 링컨은 그랜트 장군을 찾아 1864년 3월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였으며,[43] 그랜트는 이러한 믿음에 부응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

40) Jones, *The Civil War*, p.40; 앨런 브링클리,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2)』 (서울: 청아문화사, 2005), pp.130~131. 당시나 지금이나 전쟁선포권은 의회에 있다.
41) 한국미국사학회, 『사료로 읽는 미국사』, p.170.
42) Snow, 『미국은 왜 전쟁을 하는가?』, p.114.
43) Preston & Wise, *MEN IN ARMS*, p.248. 그랜트 장군이 처음부터 모든 전투에서 승리

끌었다.[44] 링컨은 자신을 조롱하였던 민주당의 스탠턴(Edwin Stanton)을 전쟁성 장관으로 임명하였고, 그는 전쟁에 필요한 병력과 무기와 물자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여 승리로 견인하였다.[45] 인재를 능력에 따라 선발하고 철저히 활용하는 링컨이었던 것이다. 대통령 본인도 주요한 전투가 벌어질 때는 전신사무소(여기서는 War room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였음)에서 거의 살면서 전신(Telegraph)을 활용, 전쟁을 지휘하였다.[46]

링컨은 전쟁 중 영국 역할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만약, 영국이 남부군을 지원한다면 전쟁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을 우려하여 영국의 개입 가능성에 강경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영국이 북부군의 남부해역 봉쇄를 존중하게 하였다.

링컨은 지도자로서 결정을 내리는 데는 느렸지만 심사숙고한 끝에 확신을 얻게 되면 옳은 방향으로 조금도 주저함 없이 전진했다. 전쟁이 끝난 후 남부인에 대한 사면과 흑인노예를 제외한 모든 재산은 원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기로 약속도 하였다.

링컨은 전후 파괴된 지역의 재건을 위하여 전쟁이 끝나기 전인 1863년 12월에 재건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남부의 고위관리를 제외하고

를 한 것은 아니다. 그랜트는 링컨에 의해 선택되어 장군으로 진급되었고, 빅스버그 전투에서 대승으로 서부군단장으로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864년에는 북부군의 총사령관이 되었다. 주변에서 그를 시기하는 목소리가 많았으나 링컨은 그랜트를 계속 비호하였다. 1864년 5월 리치먼드 전투에서 남부군에 대패를 당하기도 하였지만 끝내 그랜트는 리 장군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냈다. 1864년 7월 링컨이 다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을 시 사람들은 그랜트 장군이 후보로 더 되기를 바랐으나 그랜트는 자신을 믿어준 링컨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였다. 그는 앤드류 존슨(Andrew Johnson)에 이어 18대 대통령으로서 재임(1869. 3. 4~1877. 3. 4)하였다.

44) 이주천, 「남북전쟁과 그랜트의 군사지도력: 빅스버그 회전을 중심으로」, p.85. 그랜트 장군은 남북전쟁에서 남부군을 추적하여 섬멸하는 이른바 섬멸전략(Annihilation Strategy)을 구사하여 북부가 승리는 하였지만, 대규모의 사상자 발생으로 이른바 도살자(Grant the Butcher)라는 불명예스런 이름을 얻게 되었다.

45) Doris K. Goodwin, 이수연 옮김, 『권력의 조건』 (서울: 21세기 북스, 2007), p.11. 공화당 출신인 링컨 대통령은 유능한 라이벌들을 당파에 구분 없이 등용하였다. 민주당 출신으로 웰스(Guidan Wealth)는 해군장관, 블레어(Montgomery Blare)는 우정장관, 스탠턴(Edwin Stanton)은 전쟁장관으로 임명된 것이 그 예이다. 링컨의 자신감과 관대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46) Eliot Cohen, 이진우 옮김, 『최고사령부』 (서울: 가산출판사, 2002), pp.54~57.

는 연방정부에 충성을 맹세하고 노예제 폐지를 받아들이면 일반사면을 하겠다고 하였다. 전쟁이후 미국의 통합과 폐허가 된 남부의 재건 및 남부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조기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던 것이다. 사실 전쟁이 끝나면 북부의 공화당 출신들은 남부의 분리주의자들에게 철저한 복수를 주장하였는데 이를 막아준 것이 관용의 링컨이었던 것이다.[47]

국민들은 노예를 해방하고자 하는 그의 열성에 감동을 하였고 존경심을 표했으며, 그는 국민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게 행동하였다. 링컨은 그런 신념으로 전쟁을 지도하였으며, 북부의 주민들은 이에 동조하여 남부의 분리주의자들인 반대세력과 전투를 하였고, 마침내 미국에서 노예해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였던 것이다.

링컨의 리더십은 국민이나 야당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설득하였고, 국민들을 진심으로 감동시키는 정직과 진솔함의 정치를 하였으며, 노예해방을 추진하면서 결코 정치적인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융통성과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북부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단연 링컨의 탁월한 리더십이 남북전쟁에서 북부군의 승리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48] 오늘날 링컨에 관하여 저술된 책만 7,000여 권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는 링컨의 업적에 대한 위대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49]

---

47) James Taranto, 최광열 옮김, 『미국의 대통령』 (서울: 도서출판 바움, 2008), p.125.

48) Donald, 『링컨 2』, pp.77~83. 본 논문은 링컨의 리더십을 승리의 주요한 원인으로 제시하지만, 그렇다고 링컨이 처음부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였던 것은 아니다. 전쟁기간 중 링컨은 당시 국무장관, 공화당원 등 사방으로부터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비난도 받았으며,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등 많은 어려움도 겪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강력한 반면에 관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49) 또 다른 책자에서는 링컨에 관한 책자가 16,000권, 남북전쟁에 관한 책은 5만여 권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미국의 역사가인 도널드(David Donald)는 "남북전쟁에 직접 참여한 장군들의 수보다 이 전쟁을 연구하는 역사가들이 더 많다. 장군들보다 역사가들이 더 호전적이다"고 하였다고 한다.(강준만, 『미국사 산책 3: 남북전쟁과 제국의 탄생』 (서울:

한편 남부의 지도자 데이비스는 남부연합의 대통령이 되자 그는 남부의 각 주가 요구하는 주장에 따라 남부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병력을 분산 운용해야만 하는 방어적 입장을 취하면서 전력을 집중하여 운용할 수 없었다.[50] 여기에다 그는 민간관료들은 물론 군부의 장성들과도 갈등을 빚으면서 불협화음으로 남부연합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였다.[51] 여러모로 링컨과 대조적인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비록 남부에 리 장군이 있어 전쟁을 유리하게 전개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지도자의 지도력 부족을 장수가 채워 넣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2) 링컨 행정부를 지원한 북부 연방의회의 정치

남북전쟁은 노예해방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내전이었다. 당시 북부의 일부에서는 남북전쟁이 노예해방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연방의 분리를 막기 위한 전쟁이라는 주장도 없지 않았지만 남북전쟁은 미국의 헌법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전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취임식을 갖기도 전에 남부에서는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처음으로 연방을 탈퇴하였고, 이어서 미시시피, 플로리다, 앨라배마, 조지아, 루이지애나 주가 연방을 탈퇴하여 1861년 2월 4일 앨라배마에서 노예제도를 합법화하는 헌법을 채택하면서 데이비스를 대통령으로 추대하였다.[52]

남부군이 연방군 섬터 포대에 대한 포격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연방의회

인물과 사상사, 2010), pp.56~57). 미국의 역사에서 남북전쟁과 이를 주도하여 승리로 이끈 링컨에 관한 이야기가 그만큼 미국인의 뇌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50) 이주천, 「남북전쟁과 그랜트의 군사지도력: 빅스버그 회전을 중심으로」, p.61.

51) 이주천, 「남부연합군 패인론: 로버트 리의 지휘력과 군사전략을 중심으로」, p.96. 당시 남부에서는 국무장관 2명과 국방장관 3명이 대통령과 갈등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사임함으로써 갈등이 표출되는 내홍을 겪었다.

52) 브링클리,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2)』, p.119. 남부 6개주의 연방탈퇴 선언은 링컨이 대통령으로 취임(1862년 3월 4일)하기 이전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당시 대통령이던 부캐넌이 남부 6개주의 연방탈퇴를 방지해야만 되었으나 그는 손을 놓고 있었으며, 링컨이 취임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는 민주당이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링컨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병력을 모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징병법을 제정하여 병력충원을 용이하게 해 주었다. 전투를 위한 장비나 물자를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북부군이 승리하는데도 기여하였다.

연방의회에서는 전쟁기간 중 '전쟁집행위원회'를 만들어 링컨의 전쟁전략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북부군이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만약 연방의회가 전쟁발발의 정치적 책임을 링컨에게 물어서 분란을 초래하였다면 전쟁승리는 물론 연방정부의 해체도 막지 못하였을 것이다.

링컨도 노예해방을 위한 원칙을 고수하여 남부의 분리 독립과 노예해방에 대한 맞바꿈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예해방은 유럽 도덕주의자들이 전쟁에 개입할 명분도 주지 않았다. 비록 영국이나 프랑스가 남부의 면화를 수입하여 남부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 국가가 남부의 노예제도를 동조해줄 수 있는 입장도 되지 못하였으며, 이것은 북부가 전쟁을 해 나감에 있어 정치적·윤리적·도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남부에서는 각주가 주의 권한(州權)을 주장하다보니 북부에 비하여 힘이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3) 유럽의 개입을 방지한 북부의 외교력

미국은 1823년 이래 이른바 먼로주의(Monroe Doctrine)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아메리카 대륙이 유럽의 식민지 대상이 될 수 없고, 유럽 국가들도 아메리카의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미국도 유럽 국내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 국가들이 남북전쟁 개입에 대한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당시 유럽의 열강들이 남부를 지원하여 개입한다면 북부의 연방정부로서는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됨은 분명하였다.

당시 영국이나 프랑스는 대체적으로 남부에 호의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북부가 산업이 발전하면서 점차 영국이나 프랑스에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하자 북부가 약화되기를 바랐던 것과, 또한 이들 국가들이 남부로부터 다량의 면화를 구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영국이나 프랑스가 남부를 지원하여 개입하면 북부는 승리를 보장할 수 없었다.

영국이나 프랑스는 남부군이 사용할 무기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북부군은 이를 차단하고자 남부의 면화수출 항구를 봉쇄하기도 하였다. 북부가 전쟁을 조기에 끝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남부가 영국과 프랑스에 면화를 수출해서 전쟁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방지해야만 되었다.

사실 남부는 열악한 경제기반과 인력부족에도 불구하고 남부의 광범위한 지역을 방어해야만 되었기 때문에 이 난관을 타개할 목적으로 남부를 지원할 동맹국이 필요하였으며, 그 수단은 영국이나 프랑스의 공장들이 필요로 하는 면화를 이용하는 것이었지만 이들 두 나라는 남부의 이런 뜻을 들어주지 않았다.[53] 심지어 남부는 면화의 수출을 통제하여 영국과 프랑스의 지원을 유도하고자 노력을 하기도 했으나 이는 남부의 예측을 벗어나면서 별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54] 인도나 이집트에서 생산하는 목화가 수입되었기 때문이었다.

남부의 지도자들은 영국과 프랑스의 지원을 얻고자 외교관을 런던과 파리에 파견하기도 했으며, 영국 조선회사에는 상선을 가장한 전투용 선박을 주문도 하였다. 어떻게 하든 영국이나 프랑스를 남부 편으로 가담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이다. 이를 인지한 북부는 영국에 외교관을 파견하여 남부를 국가로 인정하는 조치를 막기 위한 활동을 했으며, 링컨 대통령의

53) 강준만, 『미국사 산책 3: 남북전쟁과 제국의 탄생』, p.95. 당시 영국은 면화 수입량의 70%를 미국 남부로부터 수입하여 방직사업을 하면서 4~500만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는데, 만약 미국 남부로부터 면화수입이 중단되면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될 것으로 보아 남부는 이러한 영국의 약점을 이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영국에는 면화재고가 충분히 있었고, 인도와 이집트 등지에서도 수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부의 계산은 빗나갈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영국에 흉년으로 면화의 수입보다 북부에서 생산하는 밀이 더 필요한 이유도 있었다.

54) Snow, 『미국은 왜 전쟁을 하는가?』, pp.116~117.

강력한 경고 외에도 당시 국무장관도 만약 영국이 남부를 독립국으로 승인하면 전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55]

남부는 유럽의 지원을 받고자 여러 노력을 했지만, 남북전쟁이 유럽 강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는 국제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국내문제로서 미국은 유럽문제에 관심이 없으니 유럽도 미국의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는 주장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전쟁에 개입할 명분이 없었다.

당시 남부연합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영국은 중립을 선언하고 있었지만, 상황에 따라 남부를 지원하고자 유리한 정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상황이 끝내 남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부를 지원할 명분이 없었다. 또 영국의 동향에 따르던 프랑스도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교적 환경이 북부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었다.

1863년 1월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을 선언함으로써 북부는 자신들이 수행하는 전쟁의 대의명분을 대내외에 천명하였고, 국제적으로 노예제도에 반대하던 남부연합은 부도덕한 집단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노예제도를 반대하던 영국도 남부군을 더 이상 지지할 명분이 사라졌고, 프랑스도 영국을 따르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남부가 국가로서 국제적 승인을 받을 기회는 영영 사라진 것이다.

영국이나 프랑스가 남부를 지원하여 개입할 수도 있었던 전쟁에서 양국이 국제여론을 의식하여 개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제전쟁으로 발전될 수도 있었던 남북전쟁을 국내전쟁으로 국한시킨 것은 북부의 외교적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남부를 압도한 북부의 재정·경제력

미국의 산업은 1820년대로부터 1830년대에 이르는 동안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었고, 남북전쟁이 발발할 무렵에는 수많은 제조업체가 대부분 북부군의 지역인 북동부에 위치하여 공산품의 2/3을 생산하고 있었다. 이 기간

55) 차상철, 『미국외교사』 (서울: 비봉문화사, 1999), pp.161~163.

중 북부지역의 공장에서는 기계부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공작기계를 제작하고 절삭기를 발명하여 산업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었다.[56]

이러한 기술적 혁신과 풍부한 자원으로 북부의 산업이 제조업 위주로 발달하여 농업위주의 남부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부유하였고, 인적자원 면에서도 북부는 인구가 2,000만여 명을 상회하는데 비하여 남부는 흑인노예를 포함한다고 해도 900만여 명에 불과함으로써 비교가 되지 못하였다.[57]

전쟁이 발발하기 전년도인 1860년 북부에는 풍부한 인력과 자원 및 자본을 바탕으로 10여만 개의 제조업체가 활발하게 생산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남부에는 2만 여개에 불과한 업체들이 그나마도 대부분 북부로부터 기술과 인력을 지원받고 있는 형편이었다. 무기를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철강도 북부의 펜실베니아 한곳에서만 연간 58만 톤을 생산할 무렵 남부는 고작해야 3.7만여 톤을 생산할 정도였다.[58]

매사추세츠와 펜실베니아 2곳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가치가 남부연합 전체가 생산하는 상품가격의 두 배를 넘었으며, 매사추세츠 주 한곳에서 생산하는 상품이 남부 11개 주의 생산량보다도 많았으며, 뉴욕 주에서만 해도 연간 3억 달러의 제품을 생산하였는데, 이것은 남부의 미시시피나 루지애나와 앨라배마, 버지니아 등의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 4배나 많을 정도였다.[59] 이렇게 북부는 풍부한 자원과 제조업의 발전에 힘입어 미합중국 생산량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재정능력이나 경제력에서 남부를 압도하고 있었다.

당시 병력과 물자를 수송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철도는 북부지역에 2만 마일을 건설되었고 전쟁 중에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었지만, 남부지역은 9,000마일에 불과하였다. 전쟁이 발발하여 북부가 소총을 생산할 수

---

56) 한국미국사학회, 『사료로 읽는 미국사』, pp.472~474.

57) 미국의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1790년에는 약 400만 명, 1820년에는 1,000만 명, 1830년에는 1,300만 명, 1840년에는 1,700만 명, 1860년대에는 3,000만여 명에 달하고 있었다. 미국의 인구는 출생에 의한 자연증가 외에도 유럽으로부터 지속적인 이민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58)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 p.180.

59) ibid.

있는 시설을 대폭 확장, 170만여 정을 생산하는 동안 남부연합은 시설의 미비로 소량을 생산하였고, 북부에는 선박용 동력기관을 생산하는 시설이 수십 개인데 비하여 남부에는 이런 시설도 없었다.[60]

이런 산업생산력의 차이로 북부 해군은 671척의 군함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중 236척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건조된 증기기관식 선박으로 이 군함들이 미시시피 강과 테네시 강에서 병력이나 물자를 수송하는 등으로 활용되어 철도와 더불어 북부군의 작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또한 북부는 전쟁기간 중 7,800여 문 이상의 야포를 생산하여 북부군에 보급을 하는 동안, 남부는 비록 원자재를 갖고 있기는 하였지만 야포를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고 강제적으로 생산을 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지만 만족한 결과는 얻지 못하였다.[61]

북부가 풍부한 지하자원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제조업이 발전하였는데 비하여 남부는 목화를 위주로 하는 농업이 발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정이나 경제면에서 불리하였으며 결국 이것은 전쟁을 지속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전비를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주었다.

북부가 전쟁을 지속하면서 전비를 조달하고 소총과 야포나 함정 등의 전투장비와 군수물자 생산량을 늘리고 철도와 증기기관을 이용한 선박으로 적시에 병력을 수송하고 물자를 보급하는 동안, 남부연합은 전투장비나 군수물자의 생산은 물론 보급과 이를 수송할 철도나 증기선 등 모두가 부족하여 남부군이 전쟁을 지속하려는 의욕을 좌절시켰다.

북부는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만드는 등 세금을 징수하거나 공채를 발행하는 등으로 전비를 조달하면서도 경제를 더욱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이 기간 중 탄약의 생산뿐만 아니라 철도건설, 철강생산, 농업생산 등 많은 분야에서 성장을 지속하여 전쟁이 끝날 무렵에 북군병사들은 미 육군의 역사상 가장 잘 먹고 물자를 보급 받을 정도까지 되었다고

60) ibid.
61) (구)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세계동원의 역사』 (서울: 전광인쇄정보, 2004), pp.188~189.

할 정도였지만, 반면에 남부는 면화수출 차단으로 인한 전비조달의 어려움과 화폐남발로 오히려 인플레이션만 야기시켜 경제가 파탄이 났다.[62]

경제적인 면에서 남북전쟁은 어느 편이 전쟁수행을 위하여 대량으로 소요되는 장비와 탄약 및 물자를 생산하여 적시에 보급을 할 수 있었는가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북부는 재정이나 경제적인 우위에서 이런 이점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63] 반면에 남부연합군은 전쟁기간동안 물자의 부족으로 어려운 전쟁을 해야만 되었다.[64]

전쟁기간 중에 남부에서는 식량공급 부족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도 발생하였다. 남부에서는 밀가루가 부족하여 당시 남부군 봉급이 10달러일 때 밀가루 1배럴이 80달러에서 연말에는 200달러가 되었고, 한 때는 800달러까지 치솟아 남부사람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였다.[65] 주민들은 입을만한 옷을 700달러 이하에서 살 수 없어서 누더기 옷들을 입어야만 하였고, 매일 밤에는 소와 돼지, 가금류 등의 도난도 빈발하였다.[66] 면화수출도 북부의 해상봉쇄로 차단되어 전비조달마저 어렵게 되자 남부의 전쟁성(War Department) 관료는 국가의 재정이 돌이킬 수 없는 파산상태로 가고 있다고 하였다.[67] 전쟁이 지속되면서 남부연합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었고, 주민 생활도 곤궁해지면서 일부에서는 폭동도 발생하였으며, 전쟁의 지속마저 어렵게 하였던 것이다.

"북부의 총칼이 남부를 와해시킨 것 보다는 북부의 달러가 남부를 더 빠

62)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 p.181.

63) 남북전쟁 당시의 재정능력과 경제력은 전쟁비용의 조달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전쟁에서의 승리에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하였다. 당시 남북이 1861년으로부터 186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투입한 전비는 북부가 약 31.83억 달러(2008년도 가격으로 약 451.9억 달러)이고, 남부연합이 투입한 전비는 약 10억 달러(2008년 가격으로 152.4억 달러)로 총 41.8억 달러(2008년도 가격으로 604.4억 달러)에 달하였다.(미 국무부, Stephen Daggett, *CRS Report for Congress: Cost of Major U.S. Wars*, 2008. 7. 24, p.2). 많은 전비를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북부가 남부에 비하여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64) Fuller, *Grant and Lee: A Study in Personality and Generalship*, pp.33~34.

65) 박정기, 『남북전쟁(상)』 (서울: 도서출판 삶과 꿈, 2002), pp.172~173.

66) McPherson, *Battle Cry of Freedom: The Civil War Era*, p.691.

67) Street, *The Civil War*, pp.48~49.

르게 정복하였다"는 어느 남부군 장교의 탄식은 당시 남부연합 주민생활의 어려움, 재정과 경제적인 면에서의 곤란 등을 표현한 말이다.

(5) 초기의 열세를 극복한 북부의 군사력

남북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미 육군의 정규군 병력은 16,000명에 불과할 정도로 규모는 작았다. 이렇게 미국이 정규군 병력을 많이 보유할 필요성이 없었던 이유는 영국식 군사전통인 상비군의 증대가 국민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와 아메리카 대륙이 유럽대륙과 분리되어 유럽대륙에서처럼 열강들과의 전쟁에 말려들어갈 위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남북전쟁 초기단계에는 남·북부군 공히 전투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특히 북부의 준비가 미흡하여 지휘관이나 병력의 규모에서 남부에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하였다. 북부군에도 웨스트포인트 출신이 없지 않았으나, 남부군 출신중에 다수의 장교들은 웨스트포인트 출신으로 군사적 경험을 이용하여 지휘하였다. 링컨이 연방군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원했던 리(Robert E. Lee) 장군은 남부군 사령관으로 갔고,[68] 그 외에도 경험이 많은 장군들도 남부연합에 가담하고 있었다. 반면에 북부군은 정치가 출신이나 군사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지휘관을 맡아서 부대를 지휘하다보니 초기단계에 자주 패할 수밖에 없었다.[69]

전쟁이 진행되면서 1862년 4월까지의 전투에서 북부군은 제대로 전투를 하지 못하였다. 병력의 규모나 이를 지휘할 지휘자들의 경험 등에서 남부군에 비하여 불리하였던 것이다. 1863년에 제정된 징병법의 불평등으로 부자들은 돈(300달러)을 내고 다른 사람들을 징집시키자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징집반대 시위가 폭동으로 발생하기도 하였다.[70]

---

68) 링컨은 리 장군에게 연방군 지휘권을 주고자 했으나, 리 장군은 자기 고향인 버지니아 주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이를 거절하고 떠나서 남부군에 합류하였다.(Donald, 『링컨 2』, pp.28~29; 이주천, 「남부연합군의 패인론: 로버트 리의 지휘력과 군사 전략을 중심으로」, pp.124~125.

69) 박정기, 『남북전쟁(상)』, pp.34~36.

70) Street, *The Civil War*, p.89.

징집으로 북부군에 입대하였던 병사들 중에서는 20만여 명이 탈영하였고, 9만여 명의 북부인은 징집을 피해서 캐나다로 도망가는 경우도 발생하였다.[71] 여러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북부를 주축으로 하는 연방정부는 2,000만여 명의 인구 가운데 200만여 명을 동원하여 남부군과 전투를 벌인 결과 36만여 명의 전사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승리하였다.

여기에 북부는 노예해방을 목적으로 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흑인도 14만여 명을 전투원으로서 또는 병참이나 보급부대 등에 편성하여 연방군복을 입히고 전투에 참여시켰는데, 이를 두고 링컨은 훗날 흑인병사들이 전세를 바꾸어 놓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72] 또한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즉, 1861년으로부터 1865년까지 80만여 명에 이르는 이민도 유입되어 작은 힘을 보태었다.[73]

반면에 연방정부의 노예해방에 반대하는 남부의 플로리다, 앨라배마, 루지애나, 택사스 등 남부연합은 900만여 명(흑인 350만여 명 포함)의 인구 가운데 백인위주로 100만여 명을 동원하여 25만여 명의 전사자가 발생하고 패하면서도 흑인의 전투참여를 철저히 배제하였다. 오로지 백인들만으로 부대를 편성하였고, 백인만으로 전투를 하였지 북부처럼 흑인까지 동원하여 총력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 더욱 문제가 되었던 것은 당시 남부에서는 주권론(州權論)이 우세하여 전쟁을 하기위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갖출 수 없었고, 각 주는 자기 주 방어를 위해 병력을 운용하다보니 광범위한 지역에서 병력의 분산운용으로 치명적 패인을 제공하였다.[74]

당시 남부군이나 북부군의 작전지역은 매우 광범위하였다. 주요 전투지역인 버지니아와 조지아 주 등의 지역이 유럽지역만큼이나 넓었지만, 인구는 매우 희박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승리를 위해서는 병력과 장비 및 물

71) 강준만, 『미국사 산책 3』, pp.110~111.
72) 김도균, 『세계사를 뒤흔든 전쟁의 재발견』(서울: 도서출판 삶과 꿈, 2006), pp.42~43.
73)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 p.180.
74) Fuller, *Grant and Lee: A Study in Personality and Generalship*, pp.35~36. Fuller는 각 주의 권한(州權, State Rights)이 전쟁의 원인뿐만 아니라 남부연합의 주된 패인(敗因)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자를 얼마나 빨리 이동시키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북부군은 철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남부군은 철도를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였고 새로운 철도를 건설할 능력도 부족하였으며, 운용할 인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였다.[75] 그래서 남부군에서는 앨라배마와 조지아 주에 버지니아 전쟁터로 보낼 식량을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수송을 못해서 남부군의 병사들이 굶는 상황까지 발생하여 전투력을 저하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북부군은 철도를 따라 가설되어 있는 전신을 이용하여 전투현장에서 지휘소로 병력을 요청하고 물자를 조달하는 것은 물론 지휘소에서는 상황의 변화에 부응하여 적시에 새로운 명령을 하달함으로써 전쟁을 주도해 나갔다.[76] 전함은 철갑으로 함체를 둘러싼 장갑함을 만들고 회전식 포탑을 설치하여 360도 전 방향으로 사격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증기기관식 쾌속정을 건조하여 사용하였고, 심지어는 초기단계이기는 하였지만 어뢰와 기뢰까지 만들었다.[77]

남북전쟁이 발발할 당시에는 지원병에 의하여 병력을 충원하고 있었으며, 남부군을 진압하기 위해 병력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1792년 제정된 '시민법'이었다. 그러나 이 법으로는 부대가 필요로 하는 병력을 충원하기 어려워 링컨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포고령을 공포하여 지원병을 모집하였고, 의회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6개월에서 3년까지 50만 명의 지원병을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도 했다.

---

75) Preston & Wise, *MEN IN ARMS*, pp.250~251. 예를 들면, 북부군은 1863년 11월 23,000명의 병력과 포병화기, 차량 등을 1,200마일 떨어진 곳으로 종전 같으면 도로로 3개월 걸릴 것을 철도를 이용함으로써 일주일 만에 이동하였다. 북부군은 국가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민간철도원을 통제하고 철도를 활용함으로써 작전상 제기되는 이동문제를 해결하였다.

76) 1860년에는 미국에 약 2만 9,000마일의 철도가 이미 건설되어 있었고, 철도를 따라 5만 마일 이상의 전선이 가설되어 전신으로 병력과 물자를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황을 보고하고 전달하는 등으로 활용되었다.

77)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 p.180.

1863년 3월에 마침내 의회는 강제적으로 병력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을 제정하여 사실상 젊은 성인 남성 모두를 징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대규모에 대한 법적제한을 철폐하는 조치를 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로 총 292만여 명의 소집요구에 200만여 명이 입대하여 부족한 병력을 충원하였다.[78]

(6) 북부의 우세한 예비전력의 동원능력

예비전력이란 전시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인 모든 능력을 말한다. 가용한 예비전력의 용량(用量)능력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전쟁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큼을 말한다. 남북전쟁에서 예비전력 동원능력의 척도가 되는 인구나 경제력의 규모, 산업생산 능력 등에서도 북부가 압도적으로 유리하였다.

북부는 남부연합에 비하여 인구에서 2배가 넘었기 때문에 더 많은 규모의 인적자원을 동원할 능력이 있었고, 북부의 제조업 발전에 힘입어 재정과 경제면에서도 압도적인 우세에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물자를 생산하고 동원함으로써 우세한 전쟁지속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전쟁 초기단계에 미국은 16,000명의 현역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대부분은 서부지역에서 인디언들과 전투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실제 전투에서의 주역은 직업군인이 아닌 동원된 시민들로서 그 숫자는 자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략 북부군은 일부의 흑인을 포함하여 20~45세의 남자들을 대상으로 약 200만여 명, 남부군은 흑인을 제외한 백인만으로 약 100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게 연방정부는 병력을 동원하기 위하여 징병법을 만들고 병력을 동원하여 보충을 해 나갔지만, 또한 문제점도 없지 않았다. 당시 징병법은 20~45세의 남자를 소집하여 3년간 근무를 하였는데, 부유층에게는 병역의무 대신 군대에 가기 싫으면 300달러의 비용을 대고 면제를 받거나 자기대신

78) (구)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세계동원의 역사』, pp.159~162.

복무할 대리자를 입영시키는 것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위화감을 주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79]

또한 병력소집에 반대하는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되면서 특히 노동자나 이민자들 및 전쟁자체를 반대하는 민주당원들의 반대로 인하여 시위가 발생하고 폭력으로 비화되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면 1863년 7월 뉴욕에서 발생한 폭동으로 100여 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연방군이 출동해서 이를 진압해야만 되었다.[80] 이러한 역경을 이겨내면서 예비전력을 동원하여 승리를 할 수 있었다.

남북전쟁에서는 여성도 처음에는 방적공으로 동원되어 군복을 제조하거나 관공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남성들의 빈자리를 채워 일을 하였으며, 어떤 여성들은 전쟁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활동을 하였다. 점차 야전병원에서도 간호사들로서 간호업무를 하는 등으로 간접적으로 전쟁을 지원하였으며, 일부이기는 하지만 전장에서 병력의 이동을 파악해서 보고하는 등으로 스파이 임무를 수행한 여성들도 있었다.[81]

북부는 남부에 비하여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투장비나 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 시설에서도 압도적이었으며, 재정능력에서도 우세하였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북부는 전쟁을 하면서도 철도를 건설하고 증기선을 제작하였고, 화포를 개량하고 물자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 대량생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산된 물자를 철도나 증기선을 이용하여 전선으로 수송하였다.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산업생산시설과 능력을 확대하면서 전쟁을 하였던 것이다.

남부는 북부의 1/2도 안 되는 인구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 농장이나 공장, 주물공장 등에서 인력을 동원해 가면서 산업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하게 되자 무기와 탄약의 생산부족을 초래하여 장기전 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

79) 박정기, 『남북전쟁(하)』 (서울: 도서출판 삶과 꿈, 2002), pp.187~189.
80) 브링클리,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2)』, p.129.
81) 해군본부, 『전쟁백과사전』 (대전: 해군인쇄창, 2007), p.283.

북부는 인적자원의 우세 외에도 풍부한 지하자원과 제조업시설에 과학기술력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남부를 압도하는 풍부한 예비전력 가용자원과 동원능력을 바탕으로 전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북부군이 유리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7) 재정 및 경제력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용한 북부의 전투장비 양산 능력

남북전쟁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인명살상을 동반한 전쟁으로, 남·북부군 합하여 62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부상자만 해도 50만여 명에 달하였다.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군사기술의 발전, 즉 무기와 탄약을 만드는 기술이 진화된 결과에다 철도와 전신을 이용하여 요망되는 장소로 신속히 병력과 장비를 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북부는 인구 규모면에서 남부에 비하여 2배 이상으로 많았다. 과학기술력도 남부보다 상대적으로 발전되어 제조업의 우위로 재정과 경제력에서도 절대적으로 앞서 있었다. 매사추세츠 주의 연방정부 병기공장에서는 나사나 금속부품을 자르는 선반과 주물을 깎는 데 사용되는 만능 절삭기를 제작하였고 연마기를 만들어 규격화된 병기를 만들 수 있었다.[82] 그러한 결과로 북부는 무기의 97%를 포함하여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다수의 장비나 물자를 생산하고 있었으며, 이에 필요한 철강 재료도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었다.

북부군은 당시 카빈식 소총과 개머리판 장전식 소총을 개발하여 남부군에 커다란 피해를 입혔으며, 북부군이나 남부군 모두 초기 단계의 기관총을 만들어 실험적으로 사용하였다.[83] 북부군은 발달된 철도를 이용, 병력과 물자를 신속히 수송하여 남부군에 비하여 상대적인 집중과 우세를 달성하였고, 전신을 이용하여 전투현장의 지휘관을 지휘함으로써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갔다.[84] 초보적이기는 하였지만 북부군은 정찰기구도 만들어 가

82) 한국미국사학회, 『사료로 읽는 미국사』, p.473.
83) 신태영, 『아메리카 전쟁』, p.213.
84) Cohen, 『최고사령부』, pp.52~57.

스를 주입하고 남부군의 진영을 정찰할 목적으로 사용도 하였다.

북부군은 1862년 거대한 강선포인 패롯 건(Parrot gun)을 만들어 당시로서는 장거리인 10km까지 사격할 수 있는 대포로 사용하였다.[85] 또한 북부군은 모니터(Monitor) 호를 장갑함으로 만들고 상부에 회전식 포탑을 설치하여 전함이 방향을 바꾸지 않고도 360도 전 방향으로 함포를 발사할 수 있게 하였다.[86] 스웨덴 출신의 존 에릭슨(John Ericson)은 스크류 프로펠러를 고안하여 함정에 부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증기기관식 쾌속선을 건조하여 병력이나 물자수송은 물론 전투에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87]

이렇게 남북전쟁은 과거의 전통적인 전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산업혁명 시대의 발전된 과학기술이 도입된 전쟁이었다. 미국의 역사학자인 맥퍼슨(James M. McPherson)은 그의 저서인「동란의 시대-남북전쟁과 재건(Ordeal by Fire: The Civil War and Reconstruction)」에서 다음의 10가지를 남북전쟁에서 나타난 최초의 사례로 들었는데, 그것은 ①철도와 전신의 광범위한 사용 ②장갑함간의 해전 ③나선식 야포와 경화기의 광범위한 사용 ④연발총의 사용 ⑤기관총의 실험적 사용 ⑥2인 이상의 승조원이 탄 잠수정 사용 ⑦관측용 정찰기구의 사용 ⑧미국역사상 최초의 징병제 도입 ⑨참호전의 시행 ⑩군수품의 대량생산과 사용[88] 등이다. 여기서 제시된 10가지 사항들의 대부분은 북부군에 관련되는 것으로 이러한 것들이 승리의 뒷받침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

85) 어니스트 볼크먼, 석기용 옮김,『전쟁과 과학, 그 야합의 역사』(서울: 아미고, 2003), p.295.

86) 김철환,『전쟁 그리고 무기의 발달』(서울: 양서각, 1997), p.90.

87) 볼크먼,『전쟁과 과학, 그 야합의 역사』, pp.290~291.

88) 신태영,『아메리카 전쟁』, p.208. 남북전쟁 시 1863년 12월 31일부터 다음해 1월 2일까지 3일간 진행된 스타운즈 리버(Stowns River) 전투에서 북부군 보병이 발사한 탄환이 200만발을 웃돌았으며, 포병이 발사한 포탄은 2만 307발, 양군이 사용한 탄약의 총 중량은 37만 5천 파운드라고 한다. 그만큼 남북전쟁은 당시로서는 과거의 어느 전쟁에서보다 많은 장비가 생산되고 이에 따른 대량의 탄약과 물자가 소모된 전쟁이었다.

(8) 흑인과 백인의 통합을 지향한 북부사회

북부는 노예해방이라는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단결한 가운데 인구 규모와 군사력이나 재정과 경제력, 과학기술력 등 모든 면에서 전반적으로 우세하여 초기 작전의 실패에도 불구 후반기 들면서 전쟁을 주도해 나갈 수 있었다.

반면에 남부는 남부인구 900만의 5%도 안 되는 백인지주들이 400만여 명의 흑인노예들을 해방하는데 반대하면서 여러 주가 연합하여 북부의 연방정부에 대항하였지만 인구와 군사력, 재정·경제력, 과학기술력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열세하였으며 따라서 전쟁을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북부는 노예해방을 기치로 전쟁을 하면서 흑인들도 인간적인 대우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노예들은 이러한 북부의 노력에 대하여 같은 전투원 또는 보급이나 병참 등의 전투근무지원병으로서 참전하여 남부군 격파에 힘을 보탰다. 정치인들도 노예제도 해방을 앞장서서 주장하였으며, 통합된 사회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여기에다 북부가 노예해방을 기치로 내세웠고 남부가 이에 반대하여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부로부터 노예해방을 부르짖는 다수의 흑인들이 북부로 도주하여 인구에서 북부의 1/2도 안 되는 남부에 또 다른 타격을 안겨 주었다.

남부는 북부에 비하여 재정이나 경제력이 부족하여 전비조달이 어렵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폐를 남발하였다. 이것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여 남부사람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고 전투의지를 약화시키는 부작용도 초래하였다.

산업화된 시대에 있어 전쟁을 하는 양측은 전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총과 포, 탄약을 생산해야만 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금속이 소요되기 마련인데 당시의 생산량에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시민들은 이미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던 식기나 농기구 등은 물론 교회의 종 등 공공의 시설 중에서도 전쟁과 관련이 없거나 일상에 필요하지 않은 금속제 물건들은 총과 포, 탄약을 만들기 위하여 모두 헌납하였다.

4. 맺음말

남북전쟁은 미국이 독립이후 남북 간에 축적된 정치와 경제 및 사회적인 문제에다 노예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연방권력과 주 권력이 충돌하여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시작된 전쟁으로, 1861년 4월 12일에 시작하여 1865년 5월말까지 4년 1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 남북의 지도자들이나 언론들은 대부분은 전쟁이 몇 개월 안에 단기전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그렇게 장기간에 걸친 전쟁이 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다.[89]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전쟁이 예상외로 장기전으로 가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동원되어 처음에는 어설픈 가운데 훈련을 하면서 부대를 만들고 전투를 시작하였다.

전쟁은 북부를 중심으로 하는 연방군의 승리로 끝났으나 그 대가는 엄청났다. 먼저 당시 남북의 인구 3,000만여 명 가운데 약 260만여 명(북부 160만, 남부 100만)이 동원되어 약 62만여 명(북부: 36만, 남부 26만)의 희생자와 50만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주 전장지역이었던 버지니아를 포함하는 많은 지역도 폐허로 변하였다. 링컨 대통령은 1865년 1월 노예제도를 폐지하였고, 그로부터 노예는 해방되었다.[90] 그러나 링컨 대통령은 전쟁 종결을 얼마 앞두고 그해 4월 14일 남부의 한 청년에 의하여 암살되었다.

전쟁 후 미국은 남북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1870년대에는 전쟁 전보다 제조업 생산이 2배에 이를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었다. 미

89)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New York Times」는 "남부에서의 소요는 30일 이내에 진압될 것이다"고 하여 남부연합의 북부에 대한 포격과 도발을 전쟁이 아닌 소요로 표현하였고, 그 기간 또한 단기간이 될 것임을 예상하였다. 「Chicago Tribune」도 "전쟁이 2~3개월이면 끝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다고 한다. 링컨이 처음 모집한 7만 5천 명의 병력도 이런 3개월 정도의 전투기간을 감안한 것이었다. 반면에 북부군의 셔만(Sherman) 장군은 "남북전쟁이 어떤 정치가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장기전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였는데, 불행하게도 셔만 장군의 예측이 적중하였다.

90) 노예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하는 수정헌법은 상원에서 1864년 4월에 통과되었으며, 하원에서는 1865년 1월에 통과되었다. 그러나 주정부의 3/4이 비준하는 1865년 12월 6일에 가서야 효력을 발휘하면서 그날부터 노예는 공식적으로 완전히 해방되었다.

국은 남북전쟁 이후 안으로는 더욱 강력한 미합중국을 건설할 기초를 다졌고, 밖으로는 다가오는 1·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주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반과 역량을 서서히 다져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국가 간의 전쟁보다는 한 국가 내에 잠재하고 있었던 갈등과 특정한 문제, 즉 노예해방이라는 문제로 인하여 내전의 성격으로 진행된 남북전쟁을 지금의 국가 간 총력전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평가하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합동기본교리」에서 제시하고 있는 총력전 요소를 이용하여 남북전쟁 당시 전쟁양상에서 나타난 현상을 각각의 요소와 연관시켜 평가해 볼 때 북부가 승리할 수 있었던 다섯 가지 이유를 지적해 볼 수 있다.

첫째, 링컨의 정치지도력이다. 링컨은 노예해방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여 북부를 단결시키고 전쟁지도 및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랜트라는 적절한 군사 지도자를 발탁하였으며, 당적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고 운용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둘째, 연방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의 결속력이다. 정부의 노예해방이라는 정치적 목적 및 이에 동조하는 북부의 결속력과 북부사람들의 승리에 대한 강인한 의지가 승리의 밑거름이 되었다. 셋째, 북부의 제조업을 바탕으로 하는 재정능력 및 경제력과 과학 기술력의 우위를 들 수 있다. 넷째, 북부의 인적·물적 자원 등 예비전력의 규모와 동원능력에서의 우위이다. 다섯째, 모든 인적·물적 분야에서 우세한 요소를 적절히 이용하여 북부가 총력전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결국 승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91]

반면에 남부연합의 패인은 지도자 데이비스의 지도력 부족과 남부연합의 국력 즉, 인구와 자원, 재정 및 경제력, 예비전력 동원능력, 과학기술력 등에서의 상대적 열세 외에 중앙집권적 통치를 할 수 없었던 정치구조 등이

91) 이주천, 「남부연합군 패인론」, pp.129~130. 남북전쟁에서는 북부가 인구, 재정 및 경제력, 자원, 과학기술력 등 전반적으로 우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면서 4년씩이나 끌다가 승리한 이유는 당시 이러한 우세를 전쟁초기에 조직적으로 동원하거나 운용하지 못한 점, 적은 인구에 비하여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작전, 북부 연방에서 링컨 행정부의 무능한 행정에 대한 비판, 작전을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한 노력의 부족 등이 어우러진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당시 북부의 그랜트 장군은 남부군이 전쟁을 1년만 더 지연시키면서 북부를 지치게 만들었다면 북부는 싸움을 포기하고 분리에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92]

미국의 남북전쟁은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한 첫 번째 대규모의 전쟁(Great War)으로 제조업에서 기술적인 발전의 효과와 대량생산능력이 어떻게 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동시에 전쟁지속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본과 자원 및 생산시설 등 경제적인 요소들의 중요성 증가와 더불어 재정·경제적으로 우세한 국가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93] 남북전쟁은 총력전 양상이 구비해야 할 기준을 분명하고도 명백한 형태로 충족시킨 최초의 전쟁이었던 것이다.[94]

(원고투고일 : 2011. 9. 15, 심사수정일 : 2011. 11. 10, 게재확정일 : 2011. 11. 18)

주제어 : 총력전, 지도자 리더십, 국민의 의지, 정치, 경제, 외교, 상비전력, 예비전력, 과학기술, 사회문화, 전쟁지속능력. 연방정부, 남부연합

92) 앞의 책, pp.127~128.
93) Preston & Wise, *MEN IN ARMS*, p.247.
94) Snow, 『미국은 왜 전쟁을 하는가?』, p.97.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 of the Civil War
- Focusing on the Total War -

Park, Gye-ho

The Total War is the War which a nation takes to achieve a triumph with all national strength. The advent of theory of Total War began with the book 'Total War of Nation' written by Ludendorff from Germany in 1935. Thereafter, Dakahashi Hajime from Japan wrote the book 'Modern Total War' and we are using the term 'All National Power Defense' in the Joint Standard Doctrine. There are something different in the meaning of each of them, however, they are all commonly dealing with the concept of the Total War.

In this paper, I wrote about how the Total War was done by the Federal Army in the Civil War from the point of view of application of the Joint Standard Doctrinal Theory.

To win in the Total War, the leader of the nation should show his leadership to integrate all elements of the national power and the people must concentrate their will to overcome on the extreme situation. Politicians also have to endeavor to concentrate the people's will and the economic power as well as the reserve strength should perform the role in sustaining the war.

Moreover, the diplomatic efforts of the government should be set to get the international support and assistance, and the power of science & technology should possess the intellectual power to produce combat equipments and materials that can support the aspect of the war. Also, the people's emotion and the social culture should support the triumph of

the war. At the Total War aspect in which all national elements are mobilized, systematizing national power and the leadership to do it are very important.

In the Civil War, the Federal Army got the triumph by accomplishing of above-mentioned conditions generally. Even though there are still some debates whether the Civil war is a Total War or not, it was the war that the Federal Army achieved the victory by overcoming the inferiority at the beginning of the war on the basis of the superior financial and economic power, mobilizing ability of reserve forces, and the developed science and technology, as well as the leadership of President Lincoln. With that victor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day is in existence.

Key Words : Total War, Leadership, People's Will, Politics, Diplomacy, Economy, Science, Reserves Forces, Sustainability. Federal Government, Confederacy

6·25전쟁의 승패인식 재조명*

한 관 수**

1. 서 론
2. 전쟁의 승패에 대한 인식 및 평가요소
3. 6·25전쟁의 도발주체와 승패 평가요소
4. 6·25전쟁의 승패 평가요소별 분석
5. 결 론

1. 서 론

6·25전쟁이 멈추자 양측은 각각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김일성은 그들이 "남한의 북침을 저지했고, 세계 최강의 미국에게 역사상 첫 패배를 안겨준 전쟁"임을 자랑했다. 반면 남한의 이승만은 "북한의 남침을 물리치고, 남한 정부의 전복을 막았기 때문에 승리한 전쟁"이라고 주장했다.[1)]

* 이 논문은 2011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교수

1) 양영조·남정옥, 『알아봅시다! 6·25전쟁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2쇄), p.146. ; United States Security Agreements and Commitments Abroad, *Symington*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6·25전쟁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와 전문연구서 및 논문들은 "6·25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참혹한 동족상잔의 전쟁이었다." 또는 "6·25전쟁은 무승부의 전쟁이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2] 대부분의 일반 국민도 그 같은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6·25전쟁의 무승부 이론'은 국내·외에서 정설(established theory)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기존의 '무승부 이론'을 뒤집는 새로운 해석이 나왔다. 2011년 초에 발간·배포된 『2010국방백서』(이하 국방백서)의 내용이 그것이다. 국방백서는 이제까지의 통설과 다르게 "6·25전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라는 주제로 6·25전쟁의 성격과 결과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 "6·25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지원을 받아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으로 국제전이면서 내전(內戰)과 같은 성격의 전쟁'이었다."
> "6·25전쟁은 동족상잔의 비극이었지만 대한민국이 유엔 참전국과 함께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한 '세계자유수호전쟁'이며,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전쟁'이었다."[3]

국방백서의 내용은 6·25전쟁 발발 60주년을 기해 6·25전쟁에 대한 평가를 역사적 차원에서 접근해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것이다. 그것은 곧 '6·25전쟁의 결과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평가'가 변화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최초로 기존의 '무승부' 이론을 뛰어넘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새로운 해석은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받지 못해 6·25전쟁 전문연구자들 조차도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Hearings vol.Ⅱ Parts 6,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1971, pp.1519~1524.

2)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나남출판, 2002, p.21, 703.

3) 국방부, 『2010국방백서』, 대한민국 국방부, 2010, p.249.

있다. 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도 기존의 '무승부' 이론이 그대로 교육되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올바른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전문연구자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후세에게 교육되지 못 한다면 그것은 한낮의 스쳐가는 구름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새롭게 평가된 내용을 국방백서의 부록에 슬쩍 끼워 넣는 식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국민과 전문연구자들에게 적극 알려 학계의 활발한 토론과 검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일상적인 주입식 교육보다는 토론과 검증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국민과 후세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가 더욱 클 것이기 때문이다.[4)]

본 연구는 그 같은 맥락에서 6·25전쟁 이후 미국이 치른 베트남전쟁과 걸프전 및 이라크전쟁의 사례를 통해 6·25전쟁이 무승부의 전쟁인지, 또는 승리한 전쟁인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베트남전쟁·걸프전쟁·이라크전쟁의 사례를 제시한 후 전쟁의 승패인식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요소를 선정할 것이다. 이어 제3장에서 제시된 6·25전쟁의 도발주체와 승패 평가요소의 영향을 반영해 제4장에서 6·25전쟁의 승패인식에 대해 선정된 평가요소를 적용 단기적·장기적, 미시적·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2. 전쟁의 승패에 대한 인식 및 평가요소

1) 전쟁의 승패 인식의 사례

전쟁의 승패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부분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강화조약, 또는 휴전 등으로 전쟁이 마무리된 후 내려지는

4) 국방백서의 해당부분을 집필했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변화된 6·25전쟁의 평가에 대해 정부차원의 추가적인 연구나 발표는 계획되어 있지 않다."며 "학계연구자들의 활발한 토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것이 일반적인 사례다.[5] 그러나 전쟁은 손자병법(孫子兵法)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국가와 국민의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兵者 國之大事 死生之地 存亡之道)이기 때문에 전쟁이 종결되었다하더라도 그 파급효과에 따라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연원이 되었던 지난날의 전쟁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재평가하게 되면서 승패의 판정이 엇갈리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와 같이 종전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서 승패에 대한 판정 또는 인식의 변화가 생긴 대표적인 전쟁으로 미국이 주도했던 베트남전쟁(1965~1973)과 이라크전쟁(2003)을 꼽을 수 있다. 걸프전쟁(1990~1991)도 유사한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위에 제시한 사례들은 모두 미국이 주도한 전쟁으로 구체적인 상황이나 내용이 우리의 현실과 같을 수는 없다. 따라서 6·25전쟁의 승패인식을 재조명하는데 관련되는 내용 위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베트남전쟁의 경우

1965년 7월, 존슨 미국 대통령은 전투병력을 대거 베트남에 파병하면서 '베트남전쟁의 미국화(Americanization of the Vietnam War)' 전략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때부터 미국은 베트남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베트콩 및 북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을 굴복시키는 전략을 추구했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은 1968년 1월 31일 시작된 베트콩과 북베트남의 '뗏(Tet)공세'[6]를 계기로 다시 '베트남전쟁의 베트남화(Vietnamization)'로 선회했다.[7] 전쟁을 남베트남 정부가 주도하고 미국은 지원한다는 개념이었다.

그때부터 미국은 베트콩과 북베트남을 굴복시키기보다는 협상을 통해 명

5) 전쟁의 종결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최북진, "사례를 통해 본 전쟁종결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 박영준, "전쟁의 종결과 영향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정치학회, 2007. ; 구영록, 『인간과 전쟁: 국제정치이론의 체계』, 법문사, 1977, pp.168~180.

6) 뗏(Tet)공세 : 1968년 1월 31일,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에 의해 남베트남 전역에서 감행된 전면공세를 말한다. 과거에는 음력 설날 공세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구정(舊正)공세'로 불렀다. 떳(Tet)란 베트남어로 설을 뜻한다.

7) 최용호, 『한권으로 읽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p.94~109.

예로운 철수전략을 추구했다. 북베트남과 평화협상은 1968년 5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제1차 본회담이 열렸지만 미국의 의도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북베트남을 적극 지원하고 있던 중국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렇지만 당시 미국은 6·25전쟁에 개입한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한 후 그들을 대륙에 가두는 봉쇄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8] 중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과 화해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1971년 '핑퐁외교'를 시작으로 1972년 닉슨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중국과 수교의 길을 텄다.

미국의 거듭된 양보로 평화협정은 1973년 1월 27일, 유엔 사무총장의 입회하에 조인되었으며, 1월 28일 08:00부(현지시간)로 발효되었다. 평화협정의 발효에 따라 미국의 개입으로 10년 가까이 계속되었던 제2차 베트남전쟁(항미전쟁)은 막을 내렸다. 그해 3월까지 남베트남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되었던 미군 등 우방국의 군대는 모두 철수했다. 그때부터 베트콩과 북베트남을 상대로 하는 전쟁은 남베트남 정부의 몫이었다.[9]

여기까지 상황으로 만으로 본다면 미국은 베트콩과 북베트남을 굴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반면 협상과정에서 그들에게 많은 양보를 했지만 일단 평화협정이라는 장치를 마련 한 후 철수했다. 따라서 미국이 패배한 것도 아니다. 또한 미국은 "남베트남을 기지로 삼아 중국대륙을 봉쇄한다."라는 전략을 변경하긴 했지만 중국과 화해한 마당에 그들에 대한 봉쇄전략도 어차피 수정되어야 했다. 따라서 미국이 공산주의자들을 굴복시킨 것과 평화협정으로 철수한 것을 비교해 본다면 미국의 국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당시로서는 '무승부' 정

8) 중국은 1950년 10월 19일, 한반도의 6·25전쟁에 개입한 후 그해 10월과 11월 2차례의 공세로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진출한 국군과 유엔군을 38도선까지 패퇴시키고, 이어 12월 말 제3차 공세를 감행해 서울을 점령한 후 평택~삼척을 연하는 선까지 진출했다. 중공군의 엄청난 파괴력에 놀란 미국의 전쟁지도부는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한편 중국과 휴전을 모색했다. 그러나 중국은 자유진영의 제안을 단호하게 뿌리쳤다. 자유진영은 낙담했지만 제8군사령관 릿지웨이(Matthew B. Ridgway: 1895~1993) 장군의 썬더볼트(Thunder Bolt)작전 성공으로 수원을 연하는 선을 회복하면서부터 한반도의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되찾았다. 그리고 중국을 강력히 응징하기로 결의했다. 그것이 1951년 2월 1일, 유엔에서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한 후 대륙봉쇄정책을 강화하게 된 배경이었다.

9) 최용호, 『물어보세요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pp.33~35.

도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했다.

그러나 미군과 자유진영의 연합군이 철수 한 후 2년이 지난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이 베트콩과 북베트남에 의해 점령되고 말았다. 그러자 미국이 수행했던 베트남전쟁에 대한 평가도 달라졌다. 무승부가 패배로 굳어진 것이다. 그때부터 "6·25전쟁은 미국이 무승부를 기록한 최초의 전쟁이었으며, 베트남전쟁은 최초의 패배를 기록한 전쟁이었다."는 평가가 정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베트남전쟁의 사례와 같이 전쟁의 승패에 대한 평가는 전쟁이 끝나거나 또는 멈추어진 시점의 평가와 일정시간이 지난 후 전후복구 등의 상태를 감안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즉, 전쟁의 승패에 대한 평가기준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베트남전쟁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전쟁과 미국에 대한 평가는 또 다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베트남은 공산화통일 이후 1978년 캄보디아 점령, 1979년 중국과 전쟁에서 승리 등으로 군사적 위세를 과시했지만 그로 인해 고립주의를 자초하게 되면서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후 베트남은 1986년 12월, 당시로서 혁명적인 도이머이(Doi Moi) 정책을 채택해 개혁·개방과 함께 시장경제체제를 과감하게 도입했다.

이어 베트남은 1995년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했다. 이제 미국은 베트남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달러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오히려 베트남이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미국의 투자와 참여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그렇다면 1975년 남베트남이 패망하면서 미국에게 씌워진 '역사상 최초의 패배'라는 굴레는 벗겨질 수 있는 것인가? 현재까지 그 같은 평가는 논리의 비약이 될 것 같다. 그러나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검토할 가치가 충분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2) 걸프전쟁의 경우

1990년 8월 2일 02시, 이라크군이 쿠웨이트를 기습 침공해 07시경 쿠웨이트시티의 정부청사와 왕궁을 점령했다. 이어 이라크는 8월 28일, 쿠웨이트 임시정부와 합의에 따라 쿠웨이트를 이라크의 19번째 주로 편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라크가 같은 이슬람국가인 쿠웨이트를 침공한 것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물론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이 이슬람국가를 침공한 적은 있었다. 그는 아랍국가의 맹주를 자처하며 1980년 9월, 동쪽의 이란을 침공해 8년간의 전쟁을 치렀다. 두 나라는 민족과 종교에서 이질적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란은 이슬람국가이긴 했지만 수니파인 후세인과 달리 시아파를 믿으며, 인구의 97%가 페르시아족 등 비 아랍계였다.

후세인은 1988년 유엔의 중재 하에 이란과 정전협정을 체결했지만 전쟁의 후유증이 엄청났다. 800억 달러의 부채와 엄청난 국방비, 42만여 명의 인원 손실은 후세인 정권의 존립을 위협했다.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

그는 경상북도 정도의 크기에 240만여 명의 인구를 가진 작은 나라 쿠웨이트를 표적으로 삼았다. 그는 쿠웨이트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협정을 무시하고 더 많은 석유를 채굴하면서 유가하락으로 130억 달러의 손해를 입혔으며, 국경부근의 유전에서 24억 달러어치의 석유를 도굴해갔다고 강변했다. 그로인해 수차례의 국경분쟁이 발생했으나 쿠웨이트의 국민과 정부는 계속되는 이라크의 도발에 둔감해져있었다. '양치기 소년의 늑대소동'과 같은 격이었다.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기습 점령하자 유엔은 이라크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즉각 발표했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군에게 기지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며 이라크 응징에 적극 나섰다. 미국, 영국의 파병결정과 함께 이집트, 터키, 모로코 등 이슬람국가의 파병결정이 줄을 이었다.

후세인은 쿠웨이트를 점령한 후 '아랍민족주의'와 '석유자원'을 무기화해 대항할 경우 유엔과 미국이 쉽사리 개입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그의 행위에 대해 "목표는 쿠웨이트, 목적은 이스라엘"이라고 천명하며 자신의 군사행동을 '반 이스라엘, 반미 대결'로 몰아가려했다. 그러나 아랍국가들이 이라크 응징에 참가하면서 후세인의 구도는 무너지고 말았다.

후세인은 지지세력 구축을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9월 10일에는 앙숙이었던 이란과 재 수교(修交)에 합의했다. 미국의 걸프만 진출을 견제한다는 공동의 이해 앞에 과거의 원한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국제관계에서 이상보다 현실적인 국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지상군이 1991년 2월 14일 공격을 시작했으나 이라크군의 저항은 미미했다. 지상군이 바그다드를 향해 진격을 계속하자 2월 25일 후세인은 항복을 선언하고, 유엔의 중재를 요청했다. 이어 파월 미 합참의장은 부시 대통령에게 "더 이상 싸울 상대가 없다."고 보고했다. 부시 대통령은 2월 28일 08시부로 종전을 발표했다. 다국적군이 후세인 정부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바그다드 진입 직전에 멈춘 것은 후세인을 제거할 경우 아랍민족주의를 자극할 우려와 이란의 호메니를 견제할 구심점이 없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10]

걸프전쟁과 같이 상대의 심장부를 점령하지도 않고, 전쟁지도부를 제거하지도 않은 채 종결한 전쟁도 승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이다. 쿠웨이트의 원상회복이라는 전쟁의 목적을 확실하게 달성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후세인의 응징을 주장하는 일부 강경파는 반쪽짜리 승리라며 부시 대통령의 전쟁지도를 비난했다. 그러나 2003년 이라크 전쟁을 거치면서 부시 대통령의 전쟁지도와 걸프전쟁의 승리는 더욱 빛을 발휘하고 있다.

(3) 이라크전쟁의 경우

미국은 2001년 9월 11일 뉴욕에서 발생한 9·11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응징한데 이어 2003년 3월 20일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시작

10) 송인영, 「5사(事)7계(計)로 본 걸프전쟁의 평가 및 분석」, 『군사 제45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203~213.

했다. 후세인 대통령을 추종하는 정예의 이라크 군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미군은 100만 명이 넘는 이라크군을 단숨에 격파하고 불과 20일 만인 4월 9일 바그다드를 점령했다. 이어 후세인의 추종자들을 제거하고 과도정부를 수립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5월 1일 종전을 선언함으로써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후세인은 2003년 12월 13일, 자신의 고향 티크리트 부근의 동굴에서 체포되었다. 미국이 조종하는 이라크 과도정부는 재판절차를 거쳐 2006년 12월 30일, 후세인의 교수형을 집행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은 과거 걸프전쟁에서 거두지 못했던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라크전쟁이 걸프전쟁의 마무리라는 평가에 걸프전쟁의 승리가 빛을 바래는 듯 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후의 상황이었다.

이라크 안정화작전에 돌입한 미군은 무장세력이 된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쳤다. 그로 인해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공격 40여일 만에 전쟁의 종료, 즉 전쟁의 승리를 선포했지만 미국은 안정화작전이라는 더 큰 전쟁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미국은 결국 2010년 8월 31일, 오바마 대통령이 또 다시 종전을 선언하고 미군의 철수를 발표했다. 미국은 이라크공격을 시작한 2003년 3월 20일부터 오바마 대통령의 종전선언까지 7년 5개월여 동안 4천4백여 명의 미군이 전사하고, 9천억 달러의 전쟁비용을 소모했다.[11] 그러고도 미국의 의지를 달성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2003년 5월 부시의 종전선언이 승리를 의미한 것이었다면 오바마의 그것은 '무승부' 또는 '미국의 우세'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베트남전쟁의 경우처럼 이라크 친미정권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반미무장단체의 무력에 의해 붕괴된다면 이라크전쟁의 결과는 미국의 패배로 인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같은 이라크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걸프전쟁의 승리가 더욱 값진 것으로 다가오고 있다.

---

11) 「국방일보」 보도, 2010년 9월 2일자 9면

2) 전쟁의 승패 평가이론과 분석요소 및 적용방법

위에서 사례로 제시한 베트남전쟁 · 걸프전쟁 · 이라크전쟁의 승패에 대한 평가는 다분히 당시 상황과 국제정세를 감안한 정성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경기에는 경기의 규칙(rule)과 그 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는 심판(umpire)이 있어 승자와 패자에 대한 객관적인 판정이 선언된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 결과에 승복한다. 그러나 국가 간 또는 무장단체 간의 전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쉽지 않다.

고대의 전쟁은 대부분 집권세력 간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를 상대방의 집권세력에게 강요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승패가 판가름 났다. 그 요인은 상대방의 무장세력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하거나 영토, 특히 수도를 점령해 상대 집권세력의 저항의지를 박탈하는 것이다. 이 경우 상대방의 집권세력을 제거하거나 또는 강화조약에 의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함으로써 승자와 패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다.

그 후 1800년대 나폴레옹에 의해 국민개병제가 도입되면서 총력전체제의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승패의 양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까지도 연합군이 추축(樞軸)국으로부터 항복을 받아 냄으로써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따라서 전쟁에서 승자와 패자를 명확하게 가려내지 못한 경우는 대부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쟁, 그 중에서도 6 · 25전쟁이 그 단초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론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전쟁론(Vom Kriege)을 집필한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 1780~1831)도, 간접접근 전략을 제시한 군사이론의 대가 리델하트(B. H. Liddell Hart: 1895~1970)도, 전쟁연구(A Study of War)를 집필한 퀸시 라이트(Quincy Wright: 1890~1970) 교수도 승자와 패자를 판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12]

---

12)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도 제4편 전투의 제7장에서 "전투의 승패, 또는 전투의 승패결정"을 제시하고 있지만 승패의 판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퀸시 라이트 교수의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전쟁관련 연구자를 중심으로 전쟁의 결과를 사전에 도상(圖上)에서 예측하고,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한 워게임(war game) 기법들이 개발되면서 객관화된 승패의 기준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13] 그 예로 손자병법에서 제시한 5사7계(五事七計) 등의 요소를 적용해 전쟁의 결과를 예측해보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다.[14] 부분적으로는 앞서 제시한 전쟁의 종결조건과 시기에 관한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15]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전쟁의 대비태세와 개전의 명분, 전쟁수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전쟁의 승패를 판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전쟁의 승패 평가는 객관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별도의 요소를 선정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국제정치와 그 수단 중 하나인 전쟁의 분석은 국가를 행위의 단위로 보는 거시적 분석(macro analysis)과 함께 특정집단 또는 개인을 단위로 보는 미시적 분석(micro analysis)이 있을 수 있다.[16] 따라서 본 연구의 평가방법도 사안에 따라 거시적·미시적 분석을 혼용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 위의 베트남전·걸프전·이라크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미시적으로는 전쟁목적의 달성여부, 거시적으로는 전쟁의 명분과 전쟁이 전후 국가발전과 국제관계에 미친 영향분석이 될 것이다. 이를 요소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쟁목적의 달성여부다. 클라우제비츠가 전쟁론에서 전쟁의 목적과

전쟁연구(A Study of War)는 1979년 육군본부 군사연구실에서 『전쟁연구 병서연구 제7집』으로 번역 출간했다.

13) 진범주, "워게임 운용과 전쟁의 승패: 베트남전과 걸프전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pp.22~47.

14) 송인영, 「5사(事)7계(計)로 본 걸프전쟁의 평가 및 분석」, 『군사 제45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203~232. ; 국중태, "손자병법을 통한 전쟁의 승패 결과 분석: 5사·7계 및 궤도를 중심으로", 해군대학 학생장교 논문, 1995, pp.171~210. ; 박용호, "전쟁의 승패에 미치는 영향분석: 조직론적 연구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pp.10~125.

15) 최북진, "사례를 통해 본 전쟁종결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pp.28~79.

16) 구영록, 『인간과 전쟁: 국제정치 이론의 체계』, 법문사, 1977, p.3.

수단으로 제시한 "적의 전투력, 적의 영토, 적의 의지"를 주요소로 선정할 수 있다.[17] 이 부분에 전쟁의 명분을 포함해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장기적·거시적 관점의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쟁의 목적 평가는 순수하게 클라우제비츠가 제시한 내용으로 한정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자신의 무력에 의해 상대방의 무장세력을 격파하고, 영토를 점령해 상대의 항복을 받아 내는 순서로 평가가 필요하다.

전쟁의 목적달성 여부는 시기적으로 통상 전쟁이 진행되는 중간에 또는 전쟁 직후에 적용되는 평가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상대의 병력 및 산업시설에 대한 피해 정도, 영토의 점령, 특히 적국의 수도 점령여부, 전쟁지도부의 항복 및 체포 여부 등이 될 것이다. 이러한 요소와 분석은 다음의 두 번째 요소에 비해 비교적 협의의 미시적 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전쟁의 명분과 전후 국가발전 및 국제정치에 미친 영향이다. 전쟁의 명분은 전쟁의 목적에 포함될 수도 있고 별도의 항목으로 분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쟁의 영향과 함께 제시한 것은 그 평가가 보다 장기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쟁의 명분이 합당했느냐와 전쟁이 미친 영향은 보다 장기적, 거시적 관점의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전쟁의 승패인식에 대한 평가는 단기적, 미시적으로 전쟁의 목적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과 함께 보다 장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전쟁명분의 타당성과 전후복구 및 국가발전, 국제관계의 증진 등의 전쟁이 미친 영향을 종합해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위의 요소 외도 다양한 평가요소와 방법을 적용해 복합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6·25전쟁을 포함해 전쟁의 승패인식에 대한 복합적이고 계량화된 평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17) Carl von Claisewitz, 김만수 역, 『전쟁론(제1권)』, 갈무리, 2006, p.84.

3. 6·25전쟁의 도발주체와 승패 평가요소

"전쟁을 어느 편에서 먼저 시작했느냐?" 즉, 도발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은 전쟁의 전반적인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8] 전쟁의 도발주체에 따라 전쟁의 목적과 명분은 물론 승패의 판정과 전쟁의 성격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의 성격은 전쟁의 목적과 명분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종속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전쟁의 가장 상위개념으로 전쟁의 성격에 따라 전쟁목적이 선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전쟁의 목적과 성격을 각각의 요소로 선정해 이중으로 분석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전쟁의 도발 주체를 전쟁의 목적 및 명분과 함께 분석한다면 전쟁의 성격은 자연스럽게 규정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국방백서도 앞서 서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6·25전쟁의 도발주체를 먼저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쟁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 "6·25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지원을 받아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으로 국제전이면서 내전(內戰)과 같은 성격의 전쟁'이었다."

국방백서가 발간되기 전, 대략 1990년대 초까지 만해도 6·25전쟁에 대한 해석은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적 시각에 따라 제각각이었다. 즉, "전쟁의 도발주체를 누구로 보느냐"의 시각을 놓고 "북침이다, 남침이다, 남침을 유도했다." 등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왔다.[19] 남침설 내에서도 "김일성이 주도

---

18) 소련의 스탈린도 전쟁의 도발책임을 중요시했다. 북한의 김일성이 1949년 초부터 그에게 남침전쟁의 승인을 집요하게 요청지만 그는 미국과 충돌을 우려해 김일성의 요청을 매번 거절했다. 대신 스탈린은 이승만 군대가 북침을 해올 경우 반격에 한해 전면전쟁이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19) 『한국전쟁의 기원』으로 남침유도설 즉 수정주의 이론을 제기한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누가 한국전쟁을 시작했나에 대한 질문에는 답할 수가 없다(Who started the Korean War? This question cannot be answered)"라고 했다. :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하고 스탈린이 지원했다."는 주장과 "스탈린의 사주를 받아 김일성이 꼭두각시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난무했다.

전쟁의 배경에 대해서도 "공산주의의 침략에 대한 집단안보 차원의 전쟁이었다."라는 해석에서부터 "해방이후 지속되어온 한반도 내에서의 이념적 갈등의 연장이다."라는 평가가 있는가하면, "내전에 대한 강대국의 개입이다."라는 등의 다양한 평가가 있다. 따라서 위에 제시된 국방백서의 내용에 대해 그 타당성과 배경을 다음과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6·25전쟁은 김일성이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지원을 받아 일으켰다는 것이다. 과거에 제기되었던 "북침설, 남침설, 남침유도설"의 논란은 1994년 러시아를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에게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극비자료로 관리되고 있던 6·25전쟁 관련문서를 제공하면서 종지부를 찍었다고 할 수 있다.[20] 나아가 최근엔 러시아 및 중국의 교과서에도 남침사실이 수록된 것을 확인한바 있다.[21]

따라서 남은 문제는 도발의 주체가 "스탈린이냐, 김일성이냐"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도 관련문서의 공개에 따라 김일성이 누차 스탈린에게 남침의 승인을 간청했으며, 김일성의 제안을 만류하던 스탈린이 1950년 4월 초에 남침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된바 있다.[22] 따라서 "도발주체가 김일성이며 스탈린과 마오쩌둥은 김일성의 후견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내용의 『2010국방

20) 외교통상부 사료, "한국전쟁관련 소련 극비외교 문서(2)", 암호전문, 군사편찬연구소 사료실, 1998, p.1.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크레믈린을 방문했을 때 당시 엘친 러시아대통령이 구 소련정부의 극비외교문서를 제공한 것은 통상적인 외교관례를 넘는 파격적인 조치였다. 러시아 그 같은 파격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그들의 국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해있었다. 1991년 북방외교를 추구하던 노태우 정부가 구 소련정부에 3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따라서 엘친 대통령은 한국과 차관상환 문제를 유리하게 타결하면서 추가적인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극비외교문서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다.

21) 1974년 발간된 러시아의 대학교재는 6·25를 '북침'이라고 기술하고 있었으나 2008년 발간된 신판교재는 '남침'으로 정정했다. ; 「조선일보」 보도자료, 「전쟁기념관」 6·25전쟁 60주년 전시자료

22) 예프게니 바자노프, 나딸리아 바자노바 공저,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도서출판 열림, 1998, pp.53~54.

백서』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6·25전쟁이 "내전인가, 국제전인가"의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 비교적 앞선 시기에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했던 김학준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동서 양대진영의 냉전이 그 축소판인 한반도에서 열전으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국제전에 내쟁(內爭) 이 겹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는 동서의 국제냉전이 남북의 국내내쟁을 가져오고 남북의 국내 냉전이 국제냉전을 악화시키면서 양자가 상승·복합작용을 거듭한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23]

김학준의 설명에 따르면 "한반도 외부의 국제적 여건이 세력팽창의 돌파구로 한반도를 택함으로써, 6·25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그러나 한반도의 전쟁이 강대국들의 정책목표에 일치하는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전쟁을 시작할 당사자들이 없었다면 전쟁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특히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스탈린 역시 미국과 같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보지 않아 북한의 지원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런 스탈린의 입장이 바뀐 것은 1950년 1월에 들어서였다.[24] 따라서 6·25전쟁은 한반도 내부에는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었고, 김일성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쟁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반영해 국방백서는 6·25전쟁의 성격에 대해 "국제전이면서 내전과 같은 성격의 전쟁"으로 다소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다. 따

---

23) 김학준, 「한국전쟁」, 『군사 제20호: 한국전쟁 제40주년 특집』,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90, pp.34~35.

24) 기광서(조선대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1946~1948년까지 북한에 대한 소련의 지원은 무성의했다. 예를 들어 스탈린은 1947년 10월 4일자 내각회의 결정을 통해 북한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군의 유지비를 북한이 부담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 놓았다. 스탈린의 그 같은 결정은 자국의 전후복구가 시급했고, 동유럽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 기광서, 「한국전 개입에 나타난 스탈린의 역할 실상」, 『군사 제63호: 6·25전쟁 기념 특집』,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pp.89~90 ; 외교통상부 사료, "한국전쟁관련 소련 외교극비문서(4)", 암호전문, 1998, pp.17~33.

라서 국방백서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한다면 6·25전쟁은 '한반도 내부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발생한 국제전적 내전'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25]

4. 6·25전쟁의 승패 평가요소별 분석

일반적으로 6·25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동족상잔의 참혹한 전란"으로 평가된다. 그중 "동족상잔의 참혹한 전란이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이었다."라는 내용은 보다 객관적이고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 장차 유사한 사태의 예방과 민족통합을 위한 교훈으로 삼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제시된 평가요소를 적용해 분석하되 전개 순서를 바꾸어 전쟁의 명분, 전쟁의 목적, 전쟁의 영향 순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전쟁의 명분

전쟁의 명분은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따라서 전쟁명분은 무력을 사용해 상대를 완전하게 제압한 경우에도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시비를 불러 일으켜 먼 훗날까지 전쟁의 승패를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합당한 명분은 국민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며 적의 사기를 저하시켜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반대의 사례도 발생하게 된다. 유사한 사례는 동서고금의 전쟁사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배경이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초기부터 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

25) 최용호, 『6·25전쟁의 실패사례와 교훈』, 육군본부, 2004, pp.451~452.

그러나 전쟁 개입에 관한 명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결정적인 시기를 기다려 오다가 1941년 12월, 일본군의 진주만기습을 계기로 비등해진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참전을 선언했던 것이다. 1965년 베트남전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960년을 전후해 미국은 자신들이 베트남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4년 8월, 통킹만에서 자국의 함정이 북베트남 어뢰정의 공격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왔던 것이다.

6·25전쟁 시 북한이 내세운 명분은 "미제의 식민지인 남반부를 해방시킨다."는 소위 적화통일전략이었다. 따라서 그들이 주장하는 남침전쟁은 이념전쟁인 동시에 통일전쟁이면서 "남반부를 미제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시킨다."는 독립전쟁의 완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전쟁의 명분은 앞서 설명과 같이 국민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하며 상대방의 지도층을 제외한 대대수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타당한 명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남침명분은 김일성 등 북한 집권세력의 의지였을 뿐 북한 주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 국제사회의 지지도 소련과 중국 등 소수 공산권국가에 한정된 것이었으며, 그들이 진정으로 한민족의 통일을 원해서라기보다는 냉전구도 속에서 미국과 자유진영을 의식한 결과였다.

한편 김일성과 박헌영 일당은 남한의 주민들이 그들의 전쟁명분에 동조해 그들이 남침을 시작하면 대규모 무장봉기로 호응할 것을 기대했으나 그것은 오판이었음이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남침도발은 소수의 집권층과 소련·중국 등 일부 공산권국가의 지지를 얻는데 국한된 것으로 타당한 전쟁명분을 구비했다고 볼 수 없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한다. 따라서 "북한의 남침전쟁이 성공했다면 그들의 전쟁명분도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가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산화 통일된 중국·베트남 등의 사례를 볼 때 고려할 가치가 없는 궤변이라고 할 수 있다.

2) 전쟁의 목적

전쟁은 그 목적과 성격에 따라 제국주의전쟁(영토확장, 식민지쟁탈, 이권확보), 독립전쟁, 통일전쟁, 종교전쟁, 이념전쟁, 권력쟁탈전쟁(종족, 권력획득을 위한 내전 등), 그리고 다른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전쟁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26] 지구상의 어떤 지역에서도 위의 분류와 같이 다양한 목적을 가진 전쟁이 발발할 수 있으나 한반도와 주변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발생 기능성이 높은 전쟁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를 완전히 점령해 자신의 일부로 흡수하는 것이다. 베트남전쟁 시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점령해 사회주의공화국을 수립한 사례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해 이라크의 19번째 주로 편입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는 통일전쟁, 권력쟁탈전쟁, 이념전쟁 등과 복합된 목적을 가진 전쟁이 발생했다. 6·25전쟁 시 김일성이 달성하고자 했던 그와 목적도 유사했다.

둘째, 상대의 일부지역, 또는 자원을 탈취하는 제한전쟁의 경우다.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벌어진 1894년의 청·일전쟁, 1904년의 러·일전쟁과 같은 사례다. 1945년 정부수립 이후에도 전면전쟁의 전초전과 같은 양상을 가진 국지전쟁이 개성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했다.

셋째, 상대를 식민지화하거나 또는 위성국으로 만들기 위한 전쟁, 또는 앞으로의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전쟁으로 1627년의 정묘호란과 1636년의 병자호란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 시도될 가능성이 있는 형태의 전쟁이다.

이상과 같은 3가지 형태의 전쟁을 고려할 때 전쟁이 "어느 쪽의 의지로 시작되었는가!"의 문제는 전쟁의 승패를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전쟁을 도발하는 공격자는 명확한 전쟁목적을 선정한 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할 것이며, 방어자의 입장은 상대의 도발을 저지해야

---

26) 온창일, 『전쟁론』, 집문당, 2008, pp.21~42. 구영록, 『인간과 전쟁: 국제정치 이론의 체계』, 법문사, 1977, pp.147~180.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쟁의 목적달성 여부는 전쟁을 도발한 공격자(攻者)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6·25전쟁 시 북한의 도발목적은 위에 제시한 첫 번째의 형태와 같이 남한을 완전히 점령해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27] 따라서 수세적 입장에 있던 남한의 응전목적은 당연히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전쟁의 목적과 그에 따른 전쟁의 성격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변화될 수 있다. 6·25전쟁 기간 중 남북한 모두의 전쟁목적은 그런 변화를 거쳤다. 그러나 전쟁 초기 즉 개전 당시에 선정된 전쟁의 목적은 전쟁의 결과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개전 당시 북한의 전쟁목적을 중심으로 전쟁결과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28]

(1) 전투력의 파쇄 및 전쟁의 피해

전쟁은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상대방의 굴복을 강요하는 폭력행위다.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해 폭력행위(무력)를 수단으로 적의 무장력을 격파하고 적의 저항력의 기지가 되는 영토를 점령해 저항의지를 말살하는 것이다.[29] 따라서 전쟁은 가공할 파괴력을 지니게 되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면서 영토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그 피해는 전투에 참가하는 군 병력은 물론 주민들의 생명과 생존의 배경이 되는 재산과 환경까지도 파괴하기 때문에 그 피해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 특히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알아내는 것은 더욱 어렵다.

최근에는 정밀장비 및 수단을 이용한 공중관측 등으로 상대방의 움직임과 현상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전쟁에 임하는 군인과 이를 지원하는 국민들의 사기를 위해 아군의 피해는 줄이고 전과는 부풀리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있다. 6·25전쟁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

2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제1권)』, 2001, pp.133~137.
28) 외교통상부 사료, "한국전쟁관련 소련외교극비문서(2)", 암호전문, 1998, pp.1~4.
29) Carl von Claisewitz, 김만수 역, 『전쟁론(제1권)』, 갈무리, 2006, p.84.

않았다. 휴전 후 58년이 지났지만 그 피해를 정확하게 계량화된 수치로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많은 유사 통계자료가 난무하기 마련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국방백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피해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제시된 통계자료 중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표 1〉 6·25전쟁의 피해현황

국군 및 유엔군 인명피해 단위: 명

구 분	계	전사·사망	전상·부상	실종·포로
계	776,360	178,569	555,022	42,769
한국군	621,479	137,899	450,742	32,838
유엔군	154,881	40,670	104,280	9,931

※ 공산군 피해(추정): 1,773,600여 명(사망·부상: 1,646,000명, 실종·포로: 127,600명)

민간인 피해 단위: 명

계	학살·사망	부상	납치·행방불명	실종·포로
990,968	373,599	229,625	387,744	피란민: 320만, 전쟁미망인: 30만, 전쟁고아: 10만

※ 북한민간인 피해(추정): 150만여 명

자료: 국방부, 『2010국방백서』, 대한민국 국방부, 2010, p.249.

위의 자료를 기초로 6·25전쟁 기간 중 남·북한의 피해를 비교해 보면 북한의 피해가 훨씬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북한의 인구가 남한의 1/2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북한에 미치는 피해 정도는 남한의 그것과 결코 비교될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남한의 피해통계는 그 동안의 각종자료를 통해 계속 보완해 왔기 때문에 사실과 근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북한의 그것은 추정치에 불과해 정확한 비교가 어렵다는 제한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쟁의 양상

을 고려할 때 남한의 피해는 대부분 적의 전투병력 및 무장세력과 직접적인 충돌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반면 북한지역에는 유엔공군에 의한 무자비한 폭격이 전쟁기간 내내 계속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피해는 남한의 그것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였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남침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9월 28일 수복 시까지 3개월 동안 북한의 치하에서 미처 피난길에 나서지 못한 많은 시민이 학살을 당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반면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 등 북한의 인구 밀집 지역을 지배한 기간은 북한의 그것에 비해 훨씬 짧았다. 따라서 국군 및 연합군이 북한지역을 지배하는 동안 발생한 민간인 피해는 북한이 남한에서 저지른 악행과 결코 비교될 수 없는 수준이다.

인명피해에 추가해 재산 및 기간시설의 피해도 엄청났다. 남한지역에서만 해도 당시 화폐기준으로 320억 달러로 추정되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북한지역의 피해는 더욱 심각했다. 당시 북한지역은 남한에 비해 공업화가 훨씬 앞서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산업시설은 유엔공군의 좋은 표적이 되었다. 따라서 재산 및 기간시설의 피해도 북한의 피해가 훨씬 더 심각했을 것임은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북한의 피해는 인명중시 사상 면에서 자유진영보다 그 강도가 덜한 공산주의자들에게 항복을 강요할 정도의 큰 충격을 주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유엔공군의 공중공격이 워낙 치열했기 때문에 김일성의 인내도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는 1951년 후반기부터 조기휴전을 간절히 원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30]

결과적으로 북한은 클라우제비츠가 제시한 전쟁의 목적 중 상대 전투력의 파쇄 및 전쟁의 피해요소로 평가해 볼 때 남한에 비해 그들 자신의 피해가 훨씬 컸다. 따라서 그들은 전투력의 파쇄 및 전쟁의 피해요소에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전투력의 파쇄 및 전쟁의 피해가 전

30) 기광서, 「한국전 개입에 나타난 스탈린의 역할 실상」, 『군사 제63호: 6·25전쟁 기념 특집』,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pp.106~108 ; 외교통상부 사료, "한국전쟁관련 소련외교극비문서(4)", 암호전문, 1998, pp.17~33.

쟁의 승패 판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 영토의 점령

전쟁 시 영토는 전투력을 생산해 내는 기지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따라서 상대방의 영토 점령은 상대가 전투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기지를 박탈하는 것이며, 자신의 전투력을 생산하는 기지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전 영토를 점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도를 점령하는 것은 심리적인 면에서 그 영향이 지대하다.

남침을 감행한 북한군의 목표는 8월 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해 남한의 전 영토를 석권하는 것이었다. 그 같은 목적에 따라 북한군은 개전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해 3개월 동안 주민들을 통치하면서 10만여 명의 전투병력과 30만여 명의 노무자를 동원해 전선해 투입했다. 따라서 북한군은 1950년 8월부터 9월 중순까지 아군의 낙동강방어선 공격에 투입된 병력의 절반 정도를 서울에서 징집한 병력으로 충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인천상륙작전으로 3개월 만에 서울을 수복한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지역으로 진격해 1950년 10월 19일, 평양을 점령했지만 12월 4일 중공군에게 밀려 철수했다. 따라서 아군의 북한지역 점령은 기간이 너무 짧았고, 유엔군과 이승만 정부의 군정체계 조차도 정비되지 않아 북한지역에서 전투력을 동원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 또한 그럴 의도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아군의 철수과정에서 65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피란민이 남쪽으로 피란함으로써 북한군의 잠재적인 전투력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이어 1951년 중공군의 제6차 공세(5월 공세) 이후 휴전이 논의되면서 양측은 현재의 휴전선 인근에서 치열한 고지쟁탈전에 돌입했다. 그 결과 아군이 개성을 포기한 대신 동부지역에서 38도선을 넘어 북상함으로써 보다 많은 영토를 차지한 채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두고 볼 때 북한은 클라우제비츠가 제시한 전쟁의 목적 중 영토의 변화 그 자체로서 6·25전쟁의 승패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큰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을 도발했던 북한의 목표가 "남한을 미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 적화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이었음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전쟁목적은 달성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3) 전쟁의 의지

1950년 4월, 스탈린과 회담한 김일성과 박헌영은 그들이 남침을 감행할 경우 남한지역에서 30만여 명의 게릴라가 그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호언했다. 아울러 그들이 서울을 점령할 경우 남한의 전쟁지도부가 항복하거나 또는 강화협상에 응해올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 달리 남한지역에서 북한군을 지원하는 조직적인 게릴라활동은 발생하지 않았다.[31] 이승만 정부도 부산까지 피란하기는 했지만 조기에 북한군과 협상하거나 나중에라도 항복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물론 유엔군의 참전이 예상보다 조기에 성사되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일 수도 있지만 남한의 전쟁지도부가 북한군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남한 주민의 대다수도 결코 북한 체제에 동조하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군은 초전에서 남한의 전투병력 대부분을 무력화하고 1950년 8월 초에는 낙동강일대까지 진출하면서 남한영토의 대부분을 점령했지만 남한의 전쟁지도부와 주민들의 저항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특히 휴전을 결정한 미국의 전략에 대해 이승만이 자신의 정권을 걸고 끝까지 반대하면서 반공포로를 석방해 6월 초로 예상되고 있던 정전협정 조인을 불발시키기도 했던 것이다. 반면 김일성은 1951년 후반기부터 휴전의 조기성사를 원했던 것으로 볼 때 북한군은 전쟁목적을 당성하지 못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클라우제비츠가 제시한 전쟁의 목적 중 전쟁수행 의미 면에서 북한은 남한에서 많은 동조자가 발생해 그들을 지원하는 게릴라

31) 외교통상부 사료, "한국전쟁관련 소련외교극비문서(3)", 암호전문, 1998, p.29.

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남한의 전쟁 지도부와 주민의 저항의지를 조기에 말살 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그들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했다.

이상과 같이 북한은 클라우제비츠가 제시한 전쟁의 목적 즉 3개 요소 중 어느 하나도 그들의 도발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따라서 전쟁의 목적에 의한 단기적·미시적 평가에서도 김일성과 북한이 그들의 승리를 주장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3) 전쟁의 영향

(1) 남한에 미친 영향

6·25전쟁은 남한의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따라서 전후(戰後) 남한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유사 이래 가장 급진적인 변화를 겪어야만 했다. 전쟁으로 인해 강요된 변화요인들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모두에게 시련을 안겨준 부정적인 면이 컸다. 그러나 남한의 국민과 정부는 그것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했다. 전쟁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이 같은 변화요인과 결과를 분야별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외교의 변화다. 정치적으로 6·25전쟁은 남한의 반공보수의 토대가 되었다. 10만여 명에 불과했던 국군은 60만 대군으로 급격히 성장했다. 경찰력도 증강되면서 안보체제가 강화되었다. 안보우선주의가 힘을 얻게 되면서 반공노선은 지위를 더욱 강화했다. 따라서 6·25전쟁 이전 남한사회에 남아있던 사회주의 노선이나 민주사회주의노선은 모두 공산주의와 같은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흑백논리적 풍조 속에서 중도주의 노선의 기반이 약해졌다.

외교적으로는 남한의 친미·친서방화·친UN화를 촉진시켰다. 특히 미국은 한·미안보동맹을 통해 후견국의 위치를 굳혔으며, 한 동안 국내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대외정책은 미국의 세계정책을 그대로 따랐으며, 미국의 반공정책보다 더욱 강경한 반공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 같은 대·내외적 상황에서 6·25전쟁 직전까지도 지지기반이 취약했

던 이승만 대통령은 전후 자신의 정권을 강화해 나갈 수 있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국적인 휴전반대운동을 장기간 주도하고 반공포로를 과감히 석방하는 등의 과정에서 스스로를 국부(國父)화하는 등으로 1952년 부산 정치파동에서 얼룩진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그는 1952년 제2대 대통령의 당선에 이어 1956년 제3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장기 독재의 길을 열었다.[32]

둘째, 사회·문화·의식의 변화다. 6·25전쟁은 남한인구의 재배치를 몰고 왔다. 전쟁이전부터 시작되어 1950년 12월 북진했던 국군과 유엔군의 철수대열을 따라 대규모의 북한주민들이 월남했다. 이어 1950년 1월의 1·4후퇴로 인해 중부권 인구가 대규모로 강제 이동됐다. 이어 전후복구가 시작되면서 도시화로 인한 인구이동으로 남한 주민은 종래에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지역에 정착한 인구와 북한에서 월남한 주민들이 뒤섞여 향약(鄕約)과 같은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양반(兩班)제도에 의한 뿌리 깊은 봉건체제도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전화(戰禍)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존의 신분질서가 붕괴되면서 국민은 새로운 것을 갈망하게 되었고 그것은 문화·의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기독교가 과거 대원군시대에 형성되었던 거부감을 극복하면서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도 전쟁에 의한 문화·의식구조가 급격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다.[33] 최근 긍정적·부정적인 요소로 평가되고 있는 '빨리빨리 문화'도 전후에 형성된 행동양식이었다.

셋째, 경제·생활의 변화다. 전쟁의 참화는 열악한 상태에 있던 국가 기간사업 시설과 함께 개인의 재산까지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다. 대다수의 국민이 미국 등 자유진영의 원조물자에 의존해 생활해야 할 만큼 빈곤은 극에 달했다. 그 같은 어려움은 국민의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게 했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생활전선에 나서야 했다. 과거의 기득권에 안주하다가는

32) 김학준, "한국전쟁", 『군사 제20호: 한국전쟁 제40주년 특집』,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90, pp.40~41.

33) 한신대학교 학술원 신학연구소, 『한국 개신교와 한국 근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 한울아카데미, 2003, pp.20~39.

굶어죽기 십상이었다.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기반상실과 함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도시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은 의식주를 해결하기에도 벅찼다. 이로 인해 1960년대까지 국가의 경제정책은 국민들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의 정책이었다. 그 과정에서 과거의 봉건주의적 잔재가 무너지면서 시장경제 질서에 의한 산업자본이 새롭게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미국 등 우방국의 지원은 경제발전의 기초를 제공했다. 4·19혁명과 5·16군사정변 등의 정치적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반공보수주의에 입각한 정치적 안정도 국민과 국가의 경제적 도약을 위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전란이 가져온 심리적 불안과 초조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고한 반공이념을 심어 주어 반공보수정부의 기치에 적극 동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1961년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부는 6·25의 연장선상에서 베트남파병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유입된 막대한 외화를 원동력으로 삼아 경제발전의 기치를 높이 들게 되었다. 한국이 오늘날과 같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배경이 6·25전쟁의 참화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것은 〈표 2〉와 같이 남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GNP)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 남북한의 국민소득(1인당 GNP) 변동 추이

(단위: 달러)

구분	1953	1955	1957	1959	1965	1969	1975	1977	1980	1985
남한	67	67	74	81	105	210	594	1,011	1,597	2,242
북한	58	66	85	117	162	194	415	520	766	766
대비	1.2	1.0	0.9	0.7	0.6	1.1	1.4	1.9	2.1	2.9

자료 : 통계청, 『대한민국50년의 경제사회상 변화』, 서울, 통계청, 1998, p.304.

결과적으로 6·25전쟁은 한국이 오늘날과 같은 국가의 위치를 확보하고 경제대국으로 발전하게 된 시발점이 되었다. 물론 그것은 1945년 해방과 1948년 건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후 한국의 정치·사회·문화·경제 등 모든 면에서 국민과 국가를 역동적으로 작동하게 만들어 비약적인 속도의 발전을 거듭하게 될 수 있었던 배경에서 6·25전쟁을 제외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북한에 미친 영향

북한 역시 남한 만큼은 아니지만 6·25전쟁의 영향은 지대했다. 그 첫 번째는 김일성의 독재체제 구축이다. 전쟁 이전부터 많은 주민들이 월남하기 시작했지만 북진했던 국군과 유엔군의 철수대열을 따라 공산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남으로 대거 이주함으로써 김일성은 쉽게 독재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김일성은 정권 내의 도전세력을 제거하는데 6·25전쟁을 활용했다. 그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인 1953년 7월 30일, 부수상 겸 외상 박헌영과 사법상 이승엽을 비롯한 전 남로당 간부 13명을 체포했다. 그들에게 씌워진 죄명은 "미제와 공모해 정권을 전복한 후 자산계급의 민주정부를 수립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정권 창설 시부터 최대의 도전세력이었던 국내파를 제거하는 계기로 삼았던 것이다.[34]

이어 1956년에는 '8월 종파사건'[35]을 계기로 연안파와 소련파를 제거함으

34) 박헌영 일파를 체포한 김일성과 그의 추종세력은 박헌영을 제외한 12명을 재판에 회부해 8월 6일 10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박헌영에 대한 재판은 계속 미루어 오다가 2년 후인 1955년 12월 3일 기소되어 12월 15일 사형이 선고되었다. 그날 이후 북한에서 남로당 계열의 김일성 경쟁세력은 완전히 제거되었다. : 김창희, 『북한 정치사회의 이해』, 법문사, 2006, pp.55~57.

35) '8월 종파사건'은 북한 역사상 유일무이한 조직적인 반 김일성운동 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사회는 김일성 비판세력이 완전히 제거되었고, 김일성 일파는 김일성 중심의 명실상부한 단일지도체제를 확립했다. 이에 따라 북한지도부는 1958년 3월 6일 로동당 제1회 당대표자대회를 소집해 종파청산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반종파투쟁을 마무리했다. :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pp.77~79. : 김창희, 『북한 정치사회의 이해』, 서울, 법문사, 2006, pp.58~61.

로써 김일성 1인 독재체제를 완성했다. 그 과정에서 김일성이 내세운 명분은 반미주의였다. 미국을 최대의 원수로 설정하고 남한을 미제가 강점한 식민지로 규정한 다음 미제의 추방을 통해 식민지 해방을 위해 자신과 북한 로동당에 절대복종할 것을 강요했던 것이다. 이처럼 김일성은 6·25전쟁을 자신의 독재체제를 구축하는데 철저하게 활용했다.

김일성 독재하의 북한은 강력한 행정력과 강제동원력을 발동해 조기에 전후복구사업에 착수함으로써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 시기에 북한은 사회주의화 정책을 더욱 가속화해 1958년까지 기존의 개인경영 상공업과 개인농업을 없애고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했다. 사회구조를 완전한 사회주의체제로 바꾼 것이다.

그 과정에서 1965년 북한의 국민 1인당 GNP는 남한의 105달러에 비해 165달러로 월등히 우세했다. 그러나 공산주의체제는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초기의 전후복구 시기에는 유용한 수단이 되었지만 변화하는 사회와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없었다. 따라서 북한은 1965년을 정점으로 점차 남한에 뒤지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식량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오늘날과 같은 독재 및 세습체제가 구축될 수 있었던 것은 김일성이 6·25전쟁을 활용해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한 결과였다. 또한 김정일의 선군정치 등 군사모험주의 역시 6·25전쟁으로부터 연유된 것이며, 경제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남한이 6·25전쟁에 의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활용했다면 북한은 정적의 숙청과 독재체제 구축 등 부정적인 측면에서 작용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국제정치 및 역학구도에 미친 영향

6·25전쟁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의 세력구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중에서 공산주의 확산의 불길을 잡는데 크게 기여했다. 스탈린이 "남침을 감행하겠다."는 김일성의 간청을 승인한 것은 공산주의를

남한까지 확산시켜 소련의 위성국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신속한 참전결정도 공산주의 확산의 불길을 진화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6·25전쟁을 세계사적 측면에서 본다면, 불안정했던 세계질서가 6·25전쟁을 통해 냉전체제를 구축하고, 냉전체제하에서 안정을 찾게 된 전쟁이었다. 그 결과 도미노처럼 번져가던 세계 공산화의 물결이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을 계기로 그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따라서 6·25전쟁은 베트남전쟁과 함께 세계 공산화의 불길을 진화하는데 기여한 전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6·25전쟁이 남·북한과 국제정치에 영향을 고려할 때 어느 편이 승리하고, 어느 편이 패배했는가의 답은 명확해진다. 결국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세계10권의 경제대국으로 부상(浮上)하게 된 배경과 북한이 국민들의 식량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세습·독재체제의 국가로 전락한 배경이 모두 6·25전쟁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5. 결 론

전쟁의 승패에 대한 평가는 종전 또는 휴전의 시점에서 전쟁의 목적달성 여부에 따라 가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전쟁은 국민과 국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전쟁의 명분과 영향까지 감안한 평가도 반영되어야 한다. 6·5전쟁의 승패에 대한 평가도 같은 맥락에서 재해석 되어야 한다.

6·25전쟁이 정전협정에 의해 멈춘 후 양측은 각각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했지만 최근의 평가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참혹한 동족상잔의 전쟁이었다."라는 개념에 기초해 '무승부'라는 평가가 정설로 되어 있다. 이 같은 평가는 정전협정의 시점에 근거를 둔 평가다. 또한 동족 간에 발생한 아픈

상처를 덮어두자는 정서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예방하고 민족의 장래를 위한 교훈으로 삼기위해서는 전쟁의 책임과 영향 등에 대한 평가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방백서는 6·25전쟁 60주년을 기해 6·25전쟁에 대한 역사적 차원의 재해석으로 과거의 '무승부 주장'과 다르게 6·25전쟁을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전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국방백서의 재해석은 국민은 물론 전문연구자들에게 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방백서에 수록된 6·25전쟁과 관련된 내용은 보다 심도 깊은 토론과 검증을 통해 국민과 연구자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의 목적에서 제시한 '상대 전투력의 파쇄, 영토점령, 저항의지 말살' 등의 3개 요소와 함께 전쟁의 명분, 전쟁이 국민과 국가에 미친 영향 등을 중심으로 6·25전쟁의 승패인식을 재조명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전쟁의 목적 달성 여부다. 전쟁을 도발한 북한군은 개전 초기 국군의 주력을 무력화하고 서울을 점령하면서 기세를 올렸지만 남한의 주민과 전쟁지도부의 저항의지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전쟁의 3개 목적 중 어느 것도 달성하지 못했다.

둘째, 전쟁의 명분이다. 전쟁의 명분은 자국의 주민은 물론 상대의 주민들에게도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제시한 명분 즉 "미제의 식민지상태에 있는 남조선의 해방"이라는 명분은 김일성 등 소수 북한 지배층의 주장이었을 뿐 남한의 주민은 물론 북한의 주민들에게 조차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셋째, 전쟁의 결과가 국민과 국가발전에 미친 영향이다.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남한은 전쟁에 의해 야기된 변화를 역동적으로 수용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반면 북한은 전쟁의 결과를 반대파를 제거하는 구실로 삼아 김일성 독재 및 세습체제를 구축했다. 이어 김일성과 김정일로 이어지는 군사적 모험주의는 국민들의 식량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로 만들고 말았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감안해 볼 때 『2010국방백서』가 제시한 6·25전쟁의 성격 및 승패에 대한 평가는 적절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논문의 주제에서 의문을 제시한 것처럼 '무승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국민 모두에게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토론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면서 전쟁에 대한 인식과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원고투고일 : 2011. 9. 5, 심사수정일 : 2011. 11. 10, 게재확정일 : 2011. 11. 18)

주제어 : 6·25전쟁, 전쟁의 성격, 전쟁의 목적, 전쟁의 명분, 전쟁의 영향, 전쟁의 평가, 전쟁의 결과, 전쟁의 교훈, 정전협정, 2010국방백서

<ABSTRACT>

Spoils of War: Revisiting the Outcome of the Korean War

Han, Kwan-soo

After the Korean War (1950～1953), both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North Korea (NK) have claimed they won the war. However, more recently the war has been evaluated as "the tragedy of fratricidal war without neither a winner nor a loser". That is, it is widely accepted now that the war finished a tie.

In contrast, according to The Defense White Paper 2010, in which the war was reinterpreted in commemoration of its 60th anniversary, the victory belonged to liberal democracy.

This study attempts to add new light to the outcome of the Korean War. By sharing ideas used by the famous German military theorist, Carl von Clausewitz, this study develops three factors as a means to analyze the war. Clausewitz believed in putting the enemy out of action, occupying enemy territory, and annihilating the will of resistance, while focusing on the justification of war with respects to the effects of the war on the people and the nations involved. From these beliefs, the following three factors are created in order to re-analyze the Korean War.

Analysis of NK's accomplishments show that NK military forces dominated Seoul, destroying the main forces of the ROK troops. However, NK failed to accomplish any of three major objectives of war as mentioned earlier. NK could not break the resistant will of the ROK people and their leaders.

Furthermore, the NK justification of war, "the liberation of ROK from the USA" was not convincing enough even to their own people. It was a

justification insisted solely by a few NK leaders including Kim Il-sung.

Lastly and most importantly, the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the war on the people and nations involved show that ROK rapidly rose as one of the ten global economic powers by actively accepting democratic changes, whereas NK established a system of power succession by eliminating all political opposition. This military adventurism taken by Kim Il-sung and followed by Kim Jung-il resulted in the rogue state nation which is plagued by hunger and poverty.

These results support the evaluation of the war suggested in The Defense White Paper 2010. Therefore, it is hoped that the ROK Government will share this knowledge with its people and encourage them to take part in active discussions in order to raise awareness of ROK's past and current national security issues.

Key Words : Korean War,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War, Objectives of War, Justification of War, Effects of War, Evaluation of War, Lessons Learned from War, Cease-fire Agreement, The Defense White Paper 2010.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지상군 철수결정 시 북한 군사력 평가에 관한 연구: 국방부 및 군부의 평가 변화를 중심으로*

조 관 행

1. 서 론
2.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결정과 국방부의 철수주장
3. 합참/육군의 군사력 평가: 제한적 철수에서 보완조치 조건 철수 인정
4. 태평양 사령부의 군사력 평가: 철수 반대
5. 주한미군의 군사력 평가: 철수 반대
6. 결 론

1. 서 론

주한미군 철수정책은 1977년 1월 20일 카터 대통령이 취임한 후 1주일 만에 검토를 지시하고 계획한 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행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 이 논문은 저자의 국방대학교 군사학 박사논문인 "카터 행정부의 대한반도 군사안보정책에 관한 연구" 중 3장 주한미군 철수 결정: 1977. 1~7의 일부내용이며, 이를 부분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주한미군은 주한미지상군을 의미합니다.

결정되었다. 이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의 협조와 군부(military authorities)의 군사적 평가보다는 대통령의 지시와 행정부의 논의가 우선시되었다. 카터 대통령 이전의 정부에서는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국방부 및 군부 모두 이에 대한 군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1]

미 국방부는 카터 행정부 취임 이전과 취임 초반에는 주한미지상군이 한반도에서 억지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매년 초반에 발간되는 연례국방보고서를 통해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왔다. 1977년 1월 10일『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US News and World Report)』는 "미 국방부가 어떠한 주한미군 철수나 재배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카터 차기 대통령의 철수 계획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미국의 결의를 보여주고 침략을 저지하는 임무를 띠고 있으며 미 본토에 지원기지를 갖는 것보다 더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철수계획이나 한강 이남으로의 재배치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였다.[2]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군사적 측면으로 평가하였던 군부도 철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주한미군의 입장은 1977년 초반의 국방부 입장과 동일하였다. 1977년 1월 10일 베시(John William Vessey Jr.) 주한미군사령관은『워싱턴 포스트』에 "남침 회랑에 배치된 2사단이 철수하면 전쟁재발의 위험성이 커진다"고 경고하였으며, 1월 11일 웨이즈너(Maurice Weisner) 태평양 사령관은 "한국군의 전투력 증강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계속 주둔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3] 이와 같이 베시 주한미군사령관과 웨이즈너 태평양사령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2사단이 한국방위의 필수적인 군사력임을 역설하였으며,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4] 그리고 1977년 1월 25일 상원군사위 증언에서 브라운 합참의장은 "주

1) 국방부가 행정부의 입장에서 정치적 입장을 강조하였지만, 군부는 합참이하의 군 조직으로 정치적 입장보다는 객관적인 군사적 평가를 강조하였기에 국방부와 군부로 구분하였음.
2)『경향신문』(1977. 1. 10).
3)『중앙일보』(1977. 3. 15).
4)『경향신문』(1977. 3. 10).

한미지상군의 철수에 찬성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하였다.[5] 이처럼 카터 행정부 이전과 취임 초반에는 행정부 입장인 국방부와 군사적 측면에서 평가하였던 군부가 동일하게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카터 행정부가 시작되고 철수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합참은 카터 행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특히 국방부는 군사적인 평가를 강조하는 군부의 입장을 수용하기보다는 미 행정부의 입장에서 정치적인 평가에 집중하고 카터 대통령의 의견에 조율하였다.

합참도 군사적 측면의 평가를 주장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결정에 순응하였다. 합참은 적정한 철수 규모를 7,000명 수준으로 보며 군사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결국 주한미지상군 철수에 대해, 미 공군과 해군 및 병참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감당할 만한 위험(Acceptable Risk)으로 인식하며 미 행정부의 결정을 따르게 되었다. 국방부와 합참의 입장과는 다르게 태평양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객관적인 군사적 평가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하며, 주한미군 철수 반대 의견을 밝혔다. 즉, 군부의 최상위 기관인 합참과 다르게 지역사령부의 입장에서 태평양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북한의 군사적 능력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강조하며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미 군부 내에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미 군부의 최상위 기관인 합참의 결정에 따라, 미 군부는 결국 철수에 따른 보완조치 확보를 전제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수용하게 되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카터 행정부가 1977년 주한미군철수 결정을 하면서 검토하였던 북한 군사력 평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며, 이러한 군사력 평가가 주한미군 철수결정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변화되어가는 것을 규명할 것이다.[6]

---

5) 『경향신문』 (1977. 1. 29).

6) 주한미군철수와 관련하여 카터 행정부의 북한군사력 재평가가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주장한 많은 연구물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 논문은 기존의 논문들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보다 최근에 비밀해제 된 한미 외교사료 등을 중심으로 국방부와 군부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북한 군사력에 대해 평가하였다.

2.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결정과 국방부의 철수주장

1) 카터 행정부의 철수배경과 철수결정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은 닉슨 독트린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 닉슨 행정부는 베트남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냉전 수행의 두 축인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국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닉슨 행정부의 대아시아정책은 동아시아 동맹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역할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핵에 의한 위협을 제외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스스로 협력해서 대처해야 하며, 미국은 차후에 베트남전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하려고 한다는 닉슨 독트린을 1969년 7월 25일 괌에서 발표하였다. 미국은 남베트남의 국방력을 강화시키면서 베트남으로부터 미 지상군을 철수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주한미군의 철수와 함께 한국군의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닉슨 독트린 이후 한미 간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7)]

카터 대통령은 유럽을 아시아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하였다. 즉, 미 지상군의 직접적인 투입보다 미 해군과 미 공군 등의 지원을 통해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무력분쟁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무엇보다도 소련에 대한 유럽방위를 전략적으로 우선시하였다. 그리고 외국에 대한 군사개입을 반대하였던 맥가번 의원의 고립주의적 경향을 추종함으로써, 카터는 보다 광범위한 지지 기반을 얻으려고 하였다.[8)]

카터는 워싱턴 베트남전과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는 기존의 정치를 청산하려 했다. 카터는 워싱턴의 외부에서 대통령이 된 첫 번째 인

---

7)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jsessionid=1LXC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검색, "닉슨 대통령의 괌독트린 선언"(검색일: 2011. 5. 22).

8) 김용식, 『희망과 도전』, (서울: 동아일보사, 1987), p.417.

물로 정치적인 지지자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출현은 특히 진보 분야의 대중들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주었다.[9] 카터 행정부 이전 닉슨-포드-키신저의 외교정책이 현실정치를 강조하고 세력균형을 고려한 반면, 카터 대통령은 기본적 가치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기대하며 인권신장을 외교정책의 중심으로 맞추었다.[10]

카터는 이상주의와 도덕성을 강조하였으며 인권의 향변을 외교정책의 중심으로 삼았으며,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11] 카터 대통령은 혼란을 겪고 있는 미국사회에 인권과 평화에 대한 공약으로 이상주의를 실현하고자 했으며 국제공동체를 확대시키고자 노력하였다.[12] 그리고 세계를 상호의존의 관계로 보았으며 미국이 협력적인 국제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주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무력의 사용보다는 인권과 협상이 중요하며 윤리적인 리더십과 예방외교에 기반을 둔 외교정책으로 변화시켜 국제적인 변화를 추구하고자 했다.[13] 카터 대통령은 1977년 6월 노트르담(Notre Dame) 대학 졸업식에서 인권과 외교정책(Human Rights and Foreign Policy)에 대해 연설하면서 미국의 정책이 변하지 않는 도덕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인류에 봉사하기 위한 정책임을 강조하였다.[14]

카터는 1975년 1월 16일 대통령 입후보를 선언한 지 1개월 만에 『워싱턴

---

9) Jerel A. Rosati, *The politics of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Holt, Rinehart and Winston: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1999), p.102.

10) Glenn P. Hastedt, *American Foreign Policy, Past, Present, Future* (New Jersey: Pearson Education, Inc., 2006), p.59.

11) Daniel S. Papp, Loch K. Johnson, and John E. Endicott, *American Foreign Policy: History, Politics and Policy* (New York: Pearson Education, Inc., 2005), p.174.

12) Jerel A. Rosati(1999), p.89.

13) Jerel A. Rosati(1999), p.35.

14) Jimmy Carter, "Human Rights and Foreign Policy," Commencement Speech Given at Notre Dame University (June, 1977) 결론 부분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Our policy is based on an historical vision of America's role. Our policy is derived from a larger view of global change. Our policy is rooted in our moral values, which never change. Our policy is reinforced by our material wealth and by our military power. Our policy is designed to serve mankind. And it is a policy that I hope will make you proud to be Americans."

포스트』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희망하고 있으며,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계획은 1975년 1월 28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의 오찬과 1975년 동경을 방문한 이후에, 결국 주한미지상군의 단계적인 철수로 한정되어졌다.[15] 1976년 3월 17일 카터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한국에서 핵무기를 완전히 철수하고 4~5년 내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16]

카터는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직전에 비공식적인 국가안보회의를 통해 한국문제를 새로운 정부의 최우선적인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17] 카터는 이러한 인식하에 대통령 취임 이후,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한 선거공약을 바인더 형식으로 작성하여 카터 행정부의 정책 결정 지침으로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에 배포하였다. 그리고 행정부는 정책 결정 지침들이 배포된 이후 수개월간 선거공약의 범위 내에서 정책적 문제들을 다루었다.[18]

카터 대통령은 1977년 1월 26일 대통령검토각서 13호(Korea)를 통해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재래식 전력을 감축하기 위해 가능한 방안들을 3월 7일까지 검토 완료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 방안에 대해 정부 각 부처 간에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 중이었던 1977년 2월 1일 카터대통령의 선거공약인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몬데일(Walter Mondale) 부통령의 동경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정책으로서 처음으로 공식화되었다. 몬데일 부통령은 일본 수상 후쿠다(Takeo Fukuda)와의 회담에서 "한국문제를 다룸에 있어 한반도의 안정을 강조하였으며, 미 지상군의 단계적인

15) Hubert H. Humphrey and John Glenn, *U. S. Troop Withdrawal from the Republic of Korea: A Report to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nited States Senate* (Washington: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8), p.19.

16) "주한미군 철수정책에 관한 주요 일지," 『주한미군 철수(감축)문제, 1979 전5권』 등록번호 13101. Roll No. 2009-39-13, p.152.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17) 황정일(역), 『알려지지 않은 역사』 (서울: 중앙 M&B, 1999) p.49. 특히, 이 당시에는 박동선게이트 등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의 반한 감정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었다.

18) Hubert H. Humphrey and John Glenn, *U. S. Troop Withdrawal from the Republic of Korea: A Report to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nited States Senate* (Washington: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8), p.19.

철수는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이후이며, 주한미공군의 계속적인 한국주둔과 한국군의 자주국방능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발표하였다.[19]

대통령검토각서 13호(Korea)에서 강조된 것은 감축에 대해 가능한 방안들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었다. 1977년 1월 미 합참은 대통령 당선자였던 카터와의 면담을 통해 주한미지상군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카터는 합참에 주한미군 철수 결정이 미치게 될 군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요청하지 않았다.

대통령검토지시 13호 실행과 관련하여 각 기관에서 올라온 건의들을 조정하기 위해 정책검토위원회(Policy Review Committee: PRC)가 1977년 4월 21일에 개최되었다. 그리고 1977년 4월 27일에 카터 대통령이 주재했던 국가안보회의가 열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77년 5월 5일에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결정이 발표되었다. 카터가 결정한 철수계획은 합참이 제안하였던 1982년까지 7천 명의 병력을 철수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카터 대통령은 5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4~5년에 걸쳐 신중하게 미 지상군을 철수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공표하였다.[20]

2) 국방부의 군사력 평가: 행정부 입장에서 철수 주장

카터 행정부 이전의 미 국방부 문서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책과 함께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카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이전인 1976년 1월 27일에 보고된 미 국방부의 연례보고서(Annual Defense Department Report, FY 1977)에서 분석된 "동북아의 상황"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에 대해 동

19) "주한미군 철수정책에 관한 주요 일지," 『주한미군 철수(감축)문제, 1979 전 5권』 등록번호 13101. MF Roll No. 2009-39-13, p.152(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20) Samuel S. Stratton, *Review of the Policy Decision to Withdraw United States Ground Forces from Korea*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8), pp.7~8.

북아와 한반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북한에 대한 억지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의 군사력 불균형 측면에서 북한의 군비증강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공격 시 한국은 미군의 지원을 통해서 방어할 수 있으며, 미2사단과 미 공군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군사적인 평가도 강조하고 있다.

> "미 지상군은 남북한 군사력 균형의 억지와 안정 효과를 갖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분별이 없는 것이고, 지난 20여 년간 동북아에서 미국이 가져온 안정성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21] (중략) "미국은 우리의 전력을 배치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전념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공약을 유지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를 도울 것이고, 주한미지상군의 주둔은 한국을 지원하고 북한의 공격에 대한 강력한 억지책이 될 것이다."[22]

> "동북아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으며, 북한은 군사력증강에 매진하였으며, 대략 GNP의 15%를 충당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식 소련의 공군무기와 지상군 장비를 갖추었고, 탱크와 대공포와 항공기의 수적인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공격한다면, 한국은 방어적인 위치에서 미국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때 북한에 대해 방어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은 2사단과 주한미공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미군 전력들은 동북아의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23]

이러한 국방부의 평가는 카터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카터대통령의 당선 직후 발표된 미 국방부의 보고서에도

---

21) Statement of The Honorable Donald H. Rumsfeld Secretary of Defense, *Annual Defense Department Report FY 1977* (Washington: Secretary of Defense, 1976), p.Ⅴ.

22) Secretary of Defense, *Annual Defense Department Report FY 1977* (Washington: Secretary of Defense, 1976), p.9.

23) Secretary of Defense(1976), pp.16~17.

1976년에 언급되지 않았던 한국군의 지속적인 전력증강을 통해 주한미군을 추가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977년 1월 17일 보고된 미 국방부의 연례보고서(FY 1978)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목표는 한반도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함과 함께 한국에서의 분쟁방지, 한국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능력과 자신감 증진을 통해 한국이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 5개년 군사력증강계획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군의 지속적인 전력증강이 주한미군의 추가적인 감축 방안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적절한 수준의 미군 전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하였다.[24] 이와 같이 카터 행정부 이전에 작성된 연례국방보고서에서는 주한미군을 북한의 위협에 대해 대처하고 전쟁을 억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카터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국방부의 시각은 변화되었으며, 이는 브라운(Harold Brown) 국방장관의 청문회 증언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다. 브라운 장관은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의 부분에 대한 답변에서 미 공군과 미군의 병참지원이 있으면 한국 지상군이 북한에 대해 대처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977년 2월 22일 브라운 국방장관은 FY 1978년 예산 수정안·FY 1979년 인가요구와 관련하여 의회에서 미 지상군보다 미 공군과 군수지원이 더욱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전쟁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북한이 공격할 경우 한국을 지원해야 하며, 한국의 지상군은 북한 지상군의 병력과 능력과 동등하지만 성공적인 전방방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수지원과 전술공군이 필요하다."[25]

---

24) Secretary of Defense(1976), p.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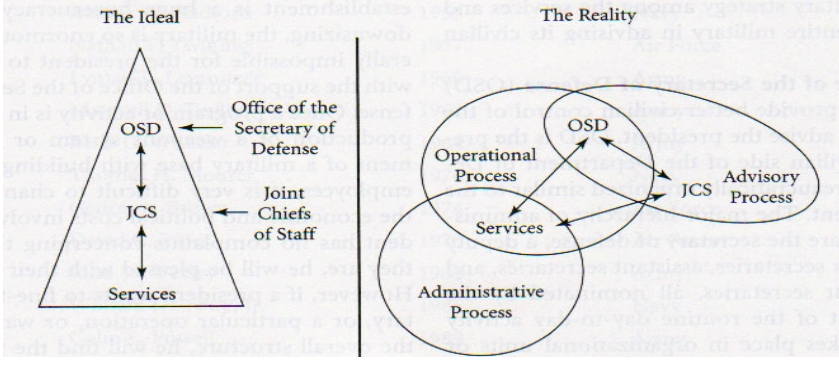
25) "미국 주요 인사들의 한국안보관계 발언," 『주한미군 철수(감축) 일지 및 자료, 1975~'78』 등록번호 11788, MF Roll No. 2008-33-9, p.276.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즉, 국방부는 이전의 미 행정부의 입장과 다르게 한국 지상군이 미군의 적절한 지원이 있으면 북한에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국방부는 카터 행정부가 시작되자 기존의 군사적인 평가보다는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정치적인 입장에서 북한 군사력에 대해 판단하였다.

3. 합참/육군의 군사력 평가: 제한적 철수에서 보완조치 조건 철수 인정

3장에서 5장까지는 주한미군철수 결정 시 이루어진 북한 군사력 평가에 대해 행정부의 입장이었던 국방부와 구별하여 합참이하의 조직인 군부(Military Authorities)로 구분하여 분석할 것이다. 《그림 3-1》의 왼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선상으로 미 합참(JCS: Joint Chiefs of Staff)은 국방부(OSD: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지만, 미 국방부와 미 합참은 일방적인 지시 및 수용관계임과 동시에 일정 부분 서로 독립적인 기관으로 작용해왔다.

《그림 3-1》 미 국방부의 정책 프로세스



Jeral A. Rosati, (1999), p.179 그림 참조.

특히 국방부와 군부를 구분하여 북한 군사력 평가에 대해 다루는 것은, 국방부는 정치적인 측면을 강조한 반면, 합참을 포함하여 합참이하의 조직인 태평양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등은 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의 군사력을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행정부 입장이었던 국방부와 합참 이하의 군부가 갖는 평가의 잣대와 기준이 상이하였다.

주한미군 철수 결정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가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국방부와 합참은 철수정책에 대해 각각 다르게 인식하였다. 합참이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관련해서 국방부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정책결정이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의 의회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1977년 1월 25일 상원군사위원회에서 FY 78 국방예산 관련 증언에서 브라운(Harold Brown) 국방장관과 조지 브라운(George Brown) 합참의장은 주한미군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브라운 국방장관) "미국은 대한방위공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한미군문제는 검토되어야 하며, 한국의 공군보다 북한의 공군이 강하기 때문에 미 공군이 지속적으로 주둔해야 한다."
>
> 스테니스(Stennis)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에 찬성하는가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브라운 합참의장)은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하지 않는다."[26] 그리고 "한반도에서 미 전투부대의 주둔이 북한의 공격을 억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정성이 증대된다."[27]

이와 같이 합참의 북한 군사력 평가는 국방부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었다. 국방부가 미 지상군의 주둔 없이 미 공군과 병참지원을 통해 한국이 전방

---

26) "'77. 1. 25. FY 78 국방예산에 대한 해롤드 브라운 국방장관과 조지 브라운 합참의장의 상원 군사위 증언(요지)," 『주한미군 철수(감축): 미국 의회에서의 논의, 1977, 전3권』 등록번호 10566, MF Roll No. 2007-26-12, p.28.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27) "미국 주요 인사들의 한국안보관계 발언," 『주한미군 철수(감축) 일지 및 자료, 1975~'78』 등록번호 11788, MF Roll No. 2008-33-9, pp.274~275.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방어(forward defense)[28]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 반면, 합참은 미 지상군 전투부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합참은 한국군에 대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철수를 수용하는 입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1977년 1월 26일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검토각서 13호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 방안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합참에 요청하였다. 대통령 검토각서를 통해 군부에게 요구한 것은 철수로 인한 군사적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가능한 철수 방안이 무엇인가로 한정되었다. 로저스(Bernade Rogers) 육군 참모총장은 "합참의 참모들은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주한미군 철수의 가능성에 대해서만 요청을 받았다. 그리고 주한미지상군을 감축시키기 위해 가능한 방안이 무엇인지 합참이 검토하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29]

육군도 주한미군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1977년 3월 4일, 미 육군장관 클리포드 알렉산더(Clifford Alexander)와 육군 참모총장 로저스(Bernade Rogers)는 FY 1978 육군의 상황에 대한 진술문에서 미 육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 "한반도에서 미 육군의 주둔은 동북아의 지역균형에 필수적이며 지역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고, 북한에 군사지원을 하는 소련과 중국에 억지책을 제공한다."[30]

---

28) Comptroll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Factors Affecting The Withdrawal of U.S. Ground Combat Forces from The Republic of Korea*, 1979, 6. 1. (Washington: Comptroll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1979), p.6. 한국방어에 대한 연합계획은 1974년 유엔사령관에 의해 개발된 전방방어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며, 1977년 6월에 합참에 의해 승인되었다. 그 개념은 한국방어계획의 기초이며 두 가지 전제조건에 기초한다. ①서울의 방어는 한국방어에서 중추적인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서울의 손실은 서울에 대한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 충격을 줄 것이고, 한국 육군의 붕괴를 촉진시킬 것이다. ②북한의 중요한 목표는 서울의 고립 또는 빠르게 서울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전방방어 개념은 가용한 모든 지상군 화력과 집중적인 공중지원을 대량으로 사용하며 북한군을 최대한 파괴하여 서울의 북쪽에서 적을 멈추게 하는 것으로 구상됨.

29) Samuel S. Stratton(1978), pp.7~8.

30) "미국 주요 인사들의 한국 안보 관계 발언," 『주한미군 철수(감축) 일지 및 자료,

1977년 3월 4일 미 육군성 보고 내용 중 한국관련 부분에 대한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한 미 육군은 동북아 지역균형에 긴요하며, 북한은 거의 경고 없이 한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가능하며, 주한미군은 중국과 소련의 북한 군사지원을 방지할 수 있으며,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군사력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을 조급하게 변화시키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31]

이처럼 카터 행정부 초반에 미 육군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동북아지역 균형에 필수적인 요소로 보았으며, 이는 국방부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었다. 또한 합참도 주한미지상군을 전부 철수시키지 말고 제한적인 철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합참은 1977년 3월 7일 국방장관에게 약 7천 명의 미지상군을 1982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합참의 건의 이후인 1977년 3월 9일 카터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나의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정책검토위원회, 국가안보회의 모임을 거쳐 1977년 5월 5일에 대통령의 철수 결정이 발표되었다. 이후, 1982년까지 7천 명 이하로 제한하여 주한미지상군을 감축하자는 합참의 제안은 거부되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32]

결국, 주한미군의 주둔이 중요하며 제한적인 철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합참과 육군의 입장은 보완조치를 통해 주한미지상군의 철수를 인정하는 태도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합참과 육군의 입장 변화는 합참의 참모였던 로저스 육군 총장의 1977년 7월 13일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975~78』 등록번호 11788, MF Roll No. 2008-33-9, p.277.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31) "77. 3. 4. 육군성 보고 중 한국관계 요약," 『주한미군 철수(감축): 미국 의회에서의 논의, 1977, 전 3권』 등록번호 10566, MF Roll No. 2007-26-12, p.58.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32) Samuel S. Stratton(1978), p.8.

(로저스 육군 참모총장) "합참이 카터 대통령의 4~5년 기간 중의 철군 주장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1978년 9월까지 7천명만을 철수하고 그 이후의 추가적인 철수는 그 때 가서 한반도의 군사정세를 보아 결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였다."[33]

"1977년 1월 중순에 대통령 당선자 카터가 합참 멤버를 면담할 때, 철수에 대한 위험을 논의하면서 합참은 1) 한국이 경제 및 정치적으로 자력방위가 가능하게 되고 2) 한일에 대한 방위공약 지속, 3) 미국이 계속 태평양 세력으로 잔존하고 한국을 방위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했으며 '82년 말까지 7,000명 정도를 한국방위에 지장 없이 철수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1982년 9월에 가서 다시 정세판단을 하며, 그 이전에도 계속 검토한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5월 5일에 PD-12호를 통해 철수결정이 구체화되었으며, 합참의 건의와는 다른 것이었다. 그 내용은 합참의 건의보다 철수규모가 크고 기간이 짧은 것이었다."[34]

"(철수에 대한) 이론적 근거(Rationale)는 설명된 바 없다. 철수에 따른 전쟁재발 가능성에 대해 현 상태보다는 전쟁위험이 증가될 것이나 우리가 말한 대로 태평양 세력으로 잔존하고 방위조약 의무에 따라 한국에게 신빙성 있는 방위공약을 지속하고 한국군의 군사능력을 제고할 보완조치를 철군 완료 전에 취한다면 4~5년 내의 철군 계획은 해볼 만한 것이다. 1976년 후반에 북한 전력에 대한 재평가가 있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비공개 회의에서 밝힐 것이다. 5월 6일 주한미군사는 철군 계획 집행 제출지시를 받고 집행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계획 집행 시기는 금번의 SCM에서 결정될 수 있다. (중략) 속이 상하는 일은 이 문제 전체가 비밀에 싸여 있고 대통령과 국방장관만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이다. 대통령과 군사지도자들 간 지금처럼 간격이 있는 예는 없었다. 국방장관은 국가이익보다는 자기자리 보전에 더 마음을 쓴다. 한국문제나 B-1문제에서 그렇다. 합참의장의 생각은 보완조치가 완결되지

33) 『중앙일보』(1977. 7. 14).
34) "착신전보(USW-07264)," 『주한미군 철수(감축): 미국 의회에서의 논의, 1977, 전 3권』 등록번호 10567, MF Roll No. 2007-26-13, pp.263~265.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아니하는 한 최종철군 집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무책임한 도발가능성에 대해 미군 철수 이전은 물론이고 그 이후로도 한국군은 증강되고 미국의 안보공약이 있으므로 북괴의 남침은 어리석은 짓일 것이다. 지금이 철수해야 될 때로 판단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1) 미군을 영구주둔시킬 생각이 없다는 점, 2) 한국의 경제발전 및 자위능력, 3) 미국의 방위공약 준수 결의, 4) 한국의 방위능력을 약화시키지 아니하겠다는 점에서의 의회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는 점, 5) 미중공관계와 중소관계 변화 등 주변정세의 변화 등이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제1의 위협은 구주에 있으므로 구라파 주둔과 한국 주둔군을 비교하기는 곤란하다."[35]

로저스 육군 참모총장은 "합참이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구상에 대해 반대하고 그 대신 미 지상군의 20%와 미사일 부대만을 5년에 걸쳐 철수할 것을 건의하였다"고 말했다.[36] 로저스 육군 총장은 "1982년까지 7천 명의 미 지상군 병력을 단계적으로 철수하자는 감축안을 제출하였으나 수락되지 않았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지원다짐과 한국군의 전투력 증강 도모가 이룩되고 미국이 계속 아시아·태평양 세력으로 존재한다면 북괴의 남침 위협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37]

카터 행정부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지고, 한국과의 한미연례안보회의가 개최되기 며칠 전 합참의장의 증언을 통해 합참의 입장이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주한미군의 제한적 철수 입장에서 철수로 인한 공백해소를 위해 한국군에게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합참의 입장은 1977년 7월 14일 하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브라운 합참의장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35) "착신전보(USW-07264)," 『주한미군 철수(감축): 미국 의회에서의 논의, 1977, 전 3권』 등록번호 10567, MF Roll No. 2007-26-13, pp.266~269.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36) 『중앙일보』 (1977. 7. 14).
37) 『경향신문』 (1977. 7. 14).

"미 의회가 한국군 전투력 증강을 승인하지 않고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한다는 것이 합참본부의 견해이며, 그럴 경우 합참본부는 주한미군 철수를 분명히 반대할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가 결코 전쟁을 유발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때보다는 위험이 다소 가중될 것으로 본다. 합참본부는 카터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정책 추진에 있어 여러 방안을 권고했으며 카터 대통령은 이 가운데 신중하게 감군한다는 방안을 받아들였다."[38]

"주한미지상군 철군 계획은 합참이 카터 대통령에게 건의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그러나 카터 대통령의 철군 계획에는 자신의 경고가 참작되어 있다. 미국은 여전히 필리핀, 일본 및 서태평양 해상에서 주요 군사력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전쟁을 저지할 수 있는 태평양 세력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 4월 26일 국가안보위원회(NSC) 회의에서 합참의 견해를 대통령에게 충분히 밝힐 기회를 가졌다."[39]

1977년 1월 25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브라운 합참의장이 한반도에서 미 전투부대의 주둔이 북한의 공격을 억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정성이 증대된다고 증언한 것[40]과 7월 14일 하원 군사위원회의 증언을 비교하였을 때, 합참의 입장이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 지상군 전투부대의 역할을 강조하여 철수의 규모를 7,000명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완조치를 통해 주한미지상군의 전체철수를 인정하는 입장으로 변화하였다. 합참의 이러한 인식은 1977년 6월 9일 브라운 합참의장의 의회증언을 통해서도 이미 나타났다.

---

38) 『경향신문』(1977. 7. 15).
39) 『경향신문』(1977. 7. 16).
40) "미국 주요 인사들의 한국안보관계 발언," 『주한미군 철수(감축) 일지 및 자료, 1975~78』, 등록번호 11788, MF Roll No. 2008-33-9, pp.274~275.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합참의 의견은 싱글로브 장군의 견해와 다르다. 합참은 카터 대통령이 말한 계획대로 하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공약을 계속 유지하고 태평양 세력으로 남으면서 한반도의 안정을 파괴하지 않고 지상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41]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합참의 입장은 이와 같이 브라운 합참의장과 로저스 육군 참모총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합참은 카터 행정부 이전과 초반에는 주한미지상군 철수를 지지하지 않고 부분적인 철수만을 제안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합참의 입장은 철수로 인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한 것으로 변화되었다.

4. 태평양 사령부의 군사력 평가: 철수 반대

태평양사령부는 철수에 대한 논의가 통보되기 전부터 일관성 있게 주한미군철수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를 주장하였다. 1977년 1월 27일 태평양사령관 모리스 웨이즈너 제독은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북한은 현재 심각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한국과의 분쟁을 일으킬 위험을 가진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괴의 남침을 저지할 수 있게 되더라도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 미군은 계속 한국에 주둔할 것이다."[42]

태평양사령부는 철수에 대해 1977년 2월 2일에 처음으로 통보를 받았다. 이 당시 합참의 철수 관련 계획위원회(Plans Directorate)가 PRM-13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태평양사령부의 계획위원회에게 알려준 것이었다. 1977년 3월 10일에서 4월 26일까지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주한미

41) 『중앙일보』 (1977. 6. 11).
42) 『중앙일보』 (1977. 1. 29).

군의 현상유지는 방안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태평양사령부는 세 개의 방안 1980년 12월, 1981년 7월, 1982년 6월을 철수의 목표시점으로 검토하였으며, 이 세 가지 방안 중 가장 먼 시점인 1982년 6월보다 한 달 뒤인 7월에 철수가 완료되는 것을 최소의 위험으로 분석하였다.[43]

1977년 3월 11일, 웨이즈너 태평양사령관은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해서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반대하였으며, 북한의 공격을 효율적으로 억지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한국의 군사력 증강계획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뒤지지 않기 위해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북한 공군이 극동지역에서 가장 커다란 규모의 공군력의 하나이며, 주한미군의 주둔을 통해 북한의 공격을 효율적으로 억지할 수 있다."[44] 또한 "8·18사건과 마야게즈(Mayaguez) 사건[45]의 교훈처럼 소련과의 대결에서 전진배치군(Forward deployed forces)은 매우 중요하며, 2사단의 서울이남 배치는 경비의 증가와 함께 훈련장소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46]

태평양사령부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합참에 보고하였다. 우선, 1977년 5월 2일, 1978년 말에 한국으로부터 10,000명의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검토(안)은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라고 합참에 보고하였다. 미 지상군과 한국 지상군은 서로 보완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데, 10,000명의 미 지상군이 급격하게 철수하는 것은 억지능력에 차이를 만들 것이고

---

43) CINCPAC of 1977, *Commander In Chief Pacific Command History*, Vol I 1977 (Hawaii, Camp H. M. Smith, 1978), p.42.

44) "미국 주요 인사들의 한국 안보 관계 발언," 『주한미군 철수(감축) 일지 및 자료, 1975~78』, 등록번호 11788, MF Roll No. 2008-33-9, p.278.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45) 1975년 5월 12일에서 15일까지 미국과 크메르 루즈(Khmer Rouge) 사이에 벌어진 베트남전의 마지막 전투.

46) "77. 3. 11. 미 태평양사령관 Weisner 제독의 상원 국방위 증언 중 한국관계 부분(요약)," 『주한미군 철수(감축): 미국 의회에서의 논의, 1977, 전3권』 등록번호 10566, MF Roll No. 2007-26-12, p.64.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이 공격할 위험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았다.

주한미지상군이 철수하게 될 경우, 한국군이 보유해야 할 탱크 및 대전차 능력, 공중기동, 감시, 목표 획득과 정찰, 지휘통제 및 전쟁비축물자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리고 한국군이 성공적인 방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휘통제 능력, 근접항공지원 및 항공차단 능력, 전시비축물자 확보, 공대공 능력 증대, 군사력 현대화 등이 필요함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또한 한미 간의 지휘체계에 대해서는 현재의 유엔사 체제와 함께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47]

1977년 5월 5일 한국으로부터 10,000명의 주한미지상군 철수 계획에 대하여 태평양사령부가 합참에 보고한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1978년 말까지 10,000명의 미 지상군 병력을 철수하는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방안이며, 짧은 기간 내에 한국군이 장비를 사용하고 훈련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방안을 선택할 경우 남북한 간 전쟁발발의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 보고에 따르면, 1975년에 제시된 한국군전력증강계획은 1980년에 완성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주로 구형 장비가 이양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이미 한국군전력증강계획 중 83%가 시작되었지만, 단지 8~10%의 외형적인 장비만이 전달되었을 뿐이라고 분석되었다.[48]

1977년 5월 11일 태평양사령부는 합참에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하고 시기를 조절하기 위한 정치적·군사적 판단을 하려면 한국과 일본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주한미군 철수 시기를 분석함에 있어서 1980년 12월까지 주한

47) Cable to JCS from CINCPAC, "Planning Options for Korea," May 2, 1977. Department of Defense Joint Chief of Staff Message Center, Secret. DDRS. 1978년 말까지 주한미군 10,000명을 줄이는 것과 관련된 합참 전신 내용(Joint Chiefs of Staff cable).

48) Cable to JCS from CINCPAC, "Planning Options for Korea," May 5, 1977. Department of Defense Joint Chief of Staff Message Center, Secret. DDRS. 주한미군 10,000명 감축에 대한 합참 전신 내용.

미지상군 전체를 철수시키는 첫째 방안은 한반도 평화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1980년 6월에 남아 있는 지상군 전력을 독립된 여단으로 재구성하여 단지 6개월 후에 철수시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분석하였다. 무엇보다도 한국군은 이러한 시간에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을 달성할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다는 단점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로 1982년 7월까지 철수하는 방안은 한국군이 요구하는 훈련수준을 달성하려고 노력하지만, 한국군 능력을 고려해보았을 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미군의 철수가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방안은 한국에게 심각한 훈련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다. 미 지상군 전력을 신속하게 감축시키는 것은 한국군의 능력을 고려하였을 때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래도 첫 번째 방안인 1980년 12월까지 철수하는 것보다 1982년 7월까지 철수하는 방안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래서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갖고 있음을 확신시키기 위해 최대한의 융통성 있는 범위 내에서 철수 스케줄을 조절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철수에 대한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조절을 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과 사전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49]

1977년 5월 14일 웨이즈너 태평양사령관은 상원의 비밀 청문회에서 주한미지상군 철수는 북한에 미국의 대한지원결의가 약화되었다는 오판을 주어 그들의 대남 도발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전술핵무기 철수에 강력히 반대하였다.[50] 이처럼 태평양사령관은 의회의 청문회를 통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선상의 보고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반대를 강조하였다. 하지만 만약 철수하게 된다면 중요한 보완조치들을 통해 철수로 인한 악역향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

49) Cable to JCS from CINCPAC, "Planning Options for Korea," May 11, 1977. Department of Defense Joint Chief of Staff Message Center, Secret. DDRS. 한국과 관련하여 태평양사령관이 합참에 보고한 전신으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방안과 시점, 한국과 일본에 의해 취해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조절 등이 포함됨.

50) 『중앙일보』(1977. 5. 14).

1977년 5월 17일 태평양사령부는 합참에 주한미군 철수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에서 주한미지상군 철수가 태평양에 있는 우방국과 적국에 대해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철수는 아시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미국의 결의를 약하게 만드는 증거로 인식될 것으로 보았다. 어떠한 행동도 철수에 대한 심리학적·정치적·경제적·군사적 효과를 상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군사연습(Military Exercises), 임시방편적 해결책(Quick Fixes), 한미 간의 지속적인 관계증진(Permanent Improvement), 군사영역 이외에서의 조치 등 네 가지 영역에서의 조치들이 주한미군 철수로 인한 악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중요한 군사연습의 증대 측면으로, 한국에서의 중요한 군사연습에 있어서 지지를 증대하고자 하였다. 한반도 전구에서 매년 52개의 연례연습이 실행되고 있는데 5개의 연습(Team Spirit, Foal Eagle, Ulchi-Focus Lens and two Bltex's)은 규모가 있는 연습이었고, 나머지 47개는 한국에서의 통상적인 연습이다. 1) Team Spirit와 유사한 거대 규모의 연례 FTX를 추가하며, 매년 본토나 하와이에서 미 육군 1개 여단 또는 사단 규모가 전개되어야 하며, 3단계에 걸쳐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이러한 전개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의 철수와 함께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2) 47개의 일상적인 연습 중, 35개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3) Team Spirit 연습과 두 개의 계획된 연합연습에 적어도 한 개의 추가적인 연합상륙연습을 고려, 4) 미 본토의 미 해군과 해병대의 전개를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합연습에서는 한국군의 능력증강보다는 임무완수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중요한 연습의 공개적인 공표를 통해 동맹국과 적대국에게 한국에서의 방위공약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미국의 억지책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본토와 태평양사령부 주둔 부대가 한국으로 일시적 전개를 하는 방안으로 1) 전천후 공격을 위해 F-111 전투기는 한국전개에서 우선순위로 보았다. 2) 한국으로 전술항공통제체제 전력들의 주기적인 전개를 추천하고 있다. 한국은 전방 항공통제 포스트가 부족, 이동 레이더와 TACP 능력이 부족한데, 이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3) 모든 가능한 7함대 전력

과 함께 팀스피리트 연습에 참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한반도 지역에서 TG 작전 및 연습 능력을 추천하고 있다. 또한 EASTPAC으로부터의 전력증강은 우발계획의 일부에 대해 시험할 수 있고, 일본에서의 지원시설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4) 한국으로 해병상륙부대 전개를 추천하였다. 이 전력은 독자적으로 중요한 연습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5) 한국의 포항과 예천을 통해 미 해병대와 미 전술공군의 전개하는 것은 연습의 지원과 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6) 한국에 B-52가 증강하는 것을 추천하였다.
셋째, 실제적인 보완조치 측면으로 군수지원의 증강, 안보지원의 증진, 추가적인 공중전력 제공, 쌍무적인 기획, 해군력 증강, 태평양사령부의 지상대응전력으로 한국지상군에 유용성 등을 강조하였다.
넷째, 군사영역 이외에서 미국의 조치로 이러한 추가적인 미국의 조치는 지상군 철수를 보완할 것으로 보았다. 1)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전 세계에 천명하는 국가지도자의 명확한 선언, 2) 한·미안보공약이 손상되지 않고 남아 있음을 강조, 3) 미국은 북한의 공격에 대한 봉쇄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함의와 함께 한국에서의 미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강조, 4) 한국 경제와 군사에 대한 신뢰할 만한 선언을 통해 중요한 국가권력의 이미지를 건설, 5) 일본에게 한국정부와의 정치적·경제적·기술적 활동을 통해 한국과 함께 일본의 이익이 되며 한국과의 상호작용을 보여줌을 강조하였다."[51]

태평양사령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게 공약의 증거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1977년 6월 21일 웨이즈너 태평양사령관은 미6군사령부에서 개최된 오찬에서 "태평양의 도전"에 대한 연설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소련은 극동에 50만 명의 병력과 1,200기의 공군력과 500척의 함정세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공은 1,100척의 함정과 80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태평양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고, 북한의 전투력은 위협 수준이며, 김

51) Cable to JCS from CINCPAC, "Withdrawal Offset Measures-Korea," May 17, 1977. Department of Defense Joint Chief of Staff Message Center, Secret. DDRS. 주한미군 철수 효과와 관련하여 태평양사령관이 합참에 보고한 전신내용.

일성이 남한적화를 공언하고 있어 한반도 정세는 불안하다. 또한 한국의 경제성장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며, 태평양의 평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4~5년 내에 한국군 현대화를 위해 미국의 공약과 원조지원을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눈에 보이는 방위태세만이 미국의 방위의지를 증명하는 억지력이 될 수 있다"[52]

이처럼 태평양사령부는 카터 행정부가 들어선 이래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통보되기 전부터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군사위원회의 청문회 등을 통해 철수 반대를 증언하였다. 그리고 합참으로 보낸 군사력 판단 보고서를 통해서도 주한미군 철수 반대 의사를 피력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군사위협이 심각함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미군의 주둔이 억지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태평양사령부의 입장은 합참처럼 보완조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지만, 철수에 대해 수용할 만한 위험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철수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5. 주한미군의 군사력 평가: 철수 반대

베시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 군사력 위협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하였기 때문에,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이 위험하며 비현실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53] 주한미군사령부는 1976년 말에도 여전히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에 위협적인 존재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주한미군사령부의 싱글로브 장군은 1976년 12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예상되는 경고시간과 관련된 정보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전의 평가에 따르면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며칠 또는 일주일정도 소요되는 것임에 반해, 북한 대

52) "착신전보(SFW-0620)," 『주한미군 철수(감축): 한·미국(행정부) 간 협의, 1977, 전7권』 등록번호 10577, MF Roll No. 2007-27-9, p.77.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53) 김용식, 『희망과 도전』 (서울: 동아출판사, 1993), p.435.

공포와 전차부대의 전방전개, 그리고 전투기의 지하 갱도화된 배치 등이 이루어졌으며, 미중앙정보부와 국방정보국의 새로운 북한 군사력 평가에 따르면 북한이 공격을 준비하는 데에는 12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54]

이와 같은 정보를 토대로,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특히 주한미군 참모장인 싱글로브 장군은 "1977년 4월 27일에서 30일 사이에 주한미지상군 모두를 철수하기로 한 방안을 통보받았으며, 주한미군사령부는 여러 철수 계획에 대해 평가해줄 것만을 요청받았다. 그리고 제안된 주한미군 철수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요청받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싱글로브 장군은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철수로 인해 야기될 심각하고 불리한 영향을 지적하였으며 주한미군 철수 결정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요구하였지만 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55]

이에 앞서 베시 주한미군사령관은 1977년 초 카터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계획된 주한미군철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심각하게 가중시킬 것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56] 베시 주한미군사령관은 3월 워싱턴을 방문하여 중요한 모임에 참석하였으며, 주한미군 철수안에 대해 카터 대통령과 논의할 기회가 있었다. 백악관의 모임에서 베시 장군은 최근의 북한 정보판단에 대해 신중하게 설명하였으며 북한의 명백한 공격적인 의도에 대한 증거를 강조하였다. 하지만 카터 대통령은 베시 사령관이 설명하는 동안 무표정하게 대응하였다.[57] 이처럼 주한미군사령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주한미군 철수 결정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다. 즉, 철수에 대한 결정이 거의 이루어진 시점에 통보를 받았으며, 주한미군 철수 결정 과정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

54) John K. Singlaub(1991), p.382.
55) Samuel S. Stratton(1978) p.8.
56) Samuel S. Stratton(1978) p.8.
57) John K. Singlaub(1991), p.383.

주한미군사령부는 1977년 미 8군 연례보고서(USFK/EUSA Annual historical report)의 정보판단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무엇보다 한국에 위협이 되는 요소는 북한 육군(North Korean Army)으로 451,000명의 현역 병력과 함께 효율적이며, 잘 훈련받고 지속적인 현대화 과정을 겪은 매우 통제된 군으로 8개의 군단과 20개의 사단과 3개의 기동사단과 5개의 기갑사단과 4개의 보병여단과 5개의 증원사단과 5개의 기갑여단과 전투 지원부대들로 구성되었다. 14개의 보병사단과 1개의 보병여단과 2개의 기갑여단으로 구성된 3개의 군단은 비무장지대 근처에 전개되어 있으며, 2개의 전통적인 축선인 철원 축선과 개성-문산 축선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기갑사단이 비무장지대 근처에 전개되었다. 4개의 군단은 예비와 해안방어를 목적으로 동·서해에 각각 2개씩 배치되었으며, 특공대와 게릴라로 구성된 특수 8군단은 지역이 할당되지 않았으며, 지·해상을 통해 한국으로 침투하여 공격하도록 되어 있었다.

북한은 1971년 이래 기계화와 기동성과 화력 측면에서 전력증강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2,025대의 탱크 등을 보유하여 한국보다 2.3배, 포병 면에서는 2배 정도의 전력우세를 보유하였다. 북한은 국내기술로 소련 또는 중국모델의 탱크와 포, 다련장 로켓과 대형차량과 대공포와 총류 등을 생산하며 이러한 자산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다.

북한군은 전력증강과 예비기동 능력 면에서 우수하고, 후방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사단이 전쟁발발 48시간 이내에 비무장지대에 도달할 수 있으며, 120만에서 210만의 준군사조직이 동원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한 육군의 능력과 병력이 매우 위협적임과 함께 한국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이 47,000명의 북한 공군으로 비무장지대에 가깝게 전개되어 여러 종류의 다수 전투기가 기습공격을 할 수 있으며 북한 공군은 609대의 전투기를 보유하여, 수적인 면에서 한국 공군보다 월등하였다. 북한은 21개의 주 활주로를 포함하여 63개의 활주로를 보유하였으며, 이중 15개가 전투기와 폭격기 기지용으로 지하에 항공기를 보관할 수 있게 설계되어 유사시에 보호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전체적인 위협을 평가해보면, 북한이 보유한 군사력은 방어적

> 인 측면을 벗어나 공격적인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군사적 능력은 방어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다. 북한이 보유한 지해공군의 장비와 화력자산은 한국에 비해 월등하다. 한국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불안정이 야기되거나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공약 약화, 중국 또는 소련으로부터 새로운 지원을 받게 될 때 북한은 공격을 개시할 수 있고 90일간 외부의 지원 없이 전투작전을 지속할 수 있다."[58]

이 정보보고서의 핵심적인 주장은 북한의 전력이 공세적이며, 한국보다 우월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90일간 중국과 소련의 지원 없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며 북한의 지상군이 가장 커다란 위협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주한미군사령부의 보고서와 유사한 북한 군사력에 대한 평가는 베시 사령관을 통해서도 강조되었다. 1977년 4월 28일 베시(Vessey) 사령관은 한국전 관련 특파원들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로 인한 전쟁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5년 이내 한국으로부터 미 지상군 33,000명의 철수는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김일성으로 하여금 27년 전에 일으켰던 것과 같이 2번째 전쟁 개시를 부추길 수 있으며, 북한이 1970년 이래 지상군 탱크전력을 3배 그리고 공군력의 크기를 1/3정도 증가시켰고 이러한 증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59]

1977년 4월 29일에도 베시 사령관은 유엔군사령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4~5년에 걸쳐 주한미지상군을 철수하기로 한 카터 대통령의 정책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

---

58) "U.S. 8th Army Intelligence Portions of Annual Report, 1972~87, 78. Ch. Ⅳ: Intelligence," Don Oberdofer Files, Box No 3, pp.34~39. (국사편찬위원회).

59) "미국 주요 인사들의 한국안보관계 발언,"『주한미군 철수(감축) 일지 및 자료, 1975~78』등록번호 11788, MF Roll No. 2008-33-9, pp.279~280.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관).

"내 지휘 하에 있는 3만 3천 명의 미군이 철수할 경우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아지며, 나의 이러한 견해를 상관들에게 이미 전달했다."[60]

주한미군사령관의 이러한 인식은 태평양사령부에 보낸 전신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1977년 4월 29일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안보위협과 한국군의 전력이 갖고 있는 취약점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태평양사령부에 보고하였다. 특히, 1978년 말까지 4,300명의 병력 또는 10,000명의 병력을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10,000명을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한국의 전력이 갖고 있는 취약요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한국군 전력의 취약점으로 현재 한국 지상군의 탱크 전력은 노후되어 있으며, 공격용 헬기 전력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공중 기동 전력도 매우 심각한 부족상태임을 나타내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500MD 공동생산 프로그램도 최대로 요구하는 수치인 415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100대밖에 생산하지 못함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군의 전력증강프로그램은 190대가 필요한 UH-1H에 대해서도 85대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북의 공격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한 감시 레이더의 배치가 필요하며, 서울 접근로의 탐지를 위해서는 2개가 필요한데, 군사력 증강계획에는 아무 것도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지휘통제 능력의 부족으로 한국군의 지휘통제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으며, 탄약 및 비축물자가 미 군수지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수준까지 갖추어져야 함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지휘구조에 있어서 3가지 방안(단일 국가의 지휘로 분리, 현재의 지휘구조 유지, 한미연합지휘체제)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 중 한미연합지휘구조를 합참이 승인할 것이며, 이 지휘구조가 가장 합리적인 대안구조이다."[61]

---

60) 『중앙일보』 (1977. 4. 29).

61) Cable to CINCPAC from COMUSK "Planning Options for Korea," Apr 29, 1977. Department of Defense Joint Chief of Staff Message Center, Secret. DDRS.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안보적 위험에 대해 주한미군사령부에서 태평양사령부로 보낸 보고 전신(Cable).

1977년 5월 5일 북한에 대하여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가에 대해 주한미군사령부에서 합참에 보고하였는데, 남북한 간의 포병전력 비교를 통해 한국군이 갖고 있는 능력과 취약점에 관해 분석하였다.

> "한국이 보유한 155mm 곡사포의 발사범위는 14,600m로 105mm의 11,500m보다 길며 강력한 보복발사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리고 북한의 122mm가 갖는 15,300m와 152mm가 갖는 12,400m에 필적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50m 폭의 살상반경은 북한의 주요 목표물을 공격함에 있어 중요한 화력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한국 육군은 수리와 교체가 용이한 새로운 체제의 155mm를 만들 수 있으며 로켓보조추진장비를 통해 거의 20km의 발사범위를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육군이 보유한 군단포병자산이 부족한 단점을 들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미국의 5개 군단이 80개 포병대대를 갖고 있음에 반해 한국은 29개의 포병대대만을 갖고 있다."[62]

이는 주한미군의 전력에 비해 한국군의 전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주장과, 주한미군 철수 시에 한국군에게 남게 될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고였다. 그리고 며칠 후인 1977년 5월 9일, 주한미군 철수 시기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사령부가 태평양사령부에 4단계의 일괄적인 계획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 보고에서 궁극적으로 잔류하는 병력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철수하는 시기를 1980년 12월로 설정하는 것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 "1단계는 78년 12월 31일까지 6,000명의 병력이 철수하는 것이었으며, 2단계에서는 80년 7월 31일까지 추가적으로 9,000명이 철수하는 것이었다. 3단계에서는 1단계와 2단계 철수 이후 남아 있는 전력이 80년 12월이나 81년 7월 또는 82년 6월까지 철수하는 것이며, 4단계 전력은 궁극적으로 잔류하는 전

62) Cable to CINCPAC from COMUSK "Firepower capability of South Korea," May 5, 1977. Department of Defense Joint Chief of Staff Message Center, Secret. DDRS. 한국이 북한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화력을 갖추었는가에 관해 주한미군사령부에서 태평양사령부로 보낸 전신(Cable).

력으로 분류하였다. 3단계 철수의 시기에 대해 분석하면서 80년 12월에 철수하는 방안은 매우 심각한 위험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63]

1977년 5월 15일 주한미지상군 철수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사령부는 태평양사령부에 어떠한 것도 주한미지상군 철수를 완전하게 상쇄할 수는 없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상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으며, 이를 위해 주한미지상군 전력이 보유하고 있는 억지와 필요한 전투능력을 한국군이 보유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한국에 필요한 것으로 탱크 전력의 현대화, 대전차 능력 증강, 지상탐지레이더와 탱크 획득, 한미연합능력과 동일한 수준의 헬기공수능력, 한국 대공포의 실제적 증가, 전시탄약비축 등의 지상군 능력증강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군의 억지능력과 미국의 결의를 보여주는 가장 최선의 보완조치로 적어도 매년 여단규모의 미 육군이 하와이 또는 미 본토로부터 한국에서의 연합연습에 참여하기 위해 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을지 포커스나 팀스피리트와 포 이글 등이 있는데, 특히 팀스피리트는 중요한 증원전력을 실제적으로 전개시키고 있다. 그리고 미 육군 전투부대를 포함하여 규모 면에서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지난 2년간 작은 규모의 한미연합연습[64] 등이 이루어져 왔는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의회의 승인을 요구함에 있어서, 나토에게 주어진 것과 같이 SEC 514 FAA에 대한 똑같은 예외조항을 한국에게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국방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 조치로 1) A-10, F-15, F-16, F-111과 AWACS와 같은 최첨단 시스템을 한국에 전략적으로 배치하며, 공동으로 계획된 연습 또는 부대 훈련의 실시, 2) 한국에서 B-52 임무수준을 증가시키고 서해에서 7함대 작전수행 증가, 3) 오키나와에서 전개하고 있는 미 해병의 훈련주

63) Cable to CINCPAC from COMUSK "Plannign Options for Korea," May 9, 1977. Department of Defense Joint Chief of Staff Message Center, Secret. DDRS. 구체적인 주한미군 철수 일정과 관련하여 철수 패키지와 관련된 주한미군사령부에서 태평양사령부로 보낸 전신 내용.

64) ASWEX, MIMEX, 상륙 연습, COPE JADE, COPE STRIKE, CAPSTAN BRAGON 등의 연합연습이 행해졌다.

기와 규모 확대, 4) 첨단무기 시스템과 탄약과 하드웨어 등이 판매되고 배달될 수 있도록 현재 한국에 적용되고 있는 최첨단 기술발표 정책이 수정되어야 한다."[65]

태평양사령부에서 합참에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사령부의 보고서는 주한미군 철수로 인해 생기는 부족분을 상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주한미군 철수로 인해 유발되는 문제점은 이러한 보완조치들로도 해결될 수 없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군의 현대화 계획이 주한미지상군의 주둔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완료되어도 한국군은 북한군에 비해 여전히 열세라고 판단하였다.

1977년 5월 25일 싱글로브 소장은 미 하원 군사소위원회에서 주한미군 철수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증언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우위로 인해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철수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 설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최근 수년 동안 북한의 전투력이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군 현대화 계획이 완료된다 해도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은 이루어질 수 없다. 한국군의 현대화 계획은 미 지상군의 계속 주둔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8년으로 연장된 이 계획이 완료되어도 북한의 군사적 우위는 지속될 것이다. 북한의 증강된 군사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76년 8월에 내려졌다고 말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철수에 찬성하였던 주한미군 장교와 관리들이 그 이후 미군 철수 반대로 입장을 바꾸었다. 북한은 탱크를 지난 수년 동안 5백대에서 2천 대로 늘리고 수송기를 60% 증강하고 야포를 3배로 증강시켰다.[66]

"북한이 미그 19기 등의 항공기를 소련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이러한 북한의

65) Cable to CINCPAC from COMUSK "Withdrawal Offset Measures-Korea," May 15, 1977. Department of Defense Joint Chief of Staff Message Center, Secret, DDRS. 주한미군 철수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사령부에서 태평양사령부로 보낸 전신.

66) 『중앙일보』(1977. 5. 26).

> 무력증강은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김일성의 대남침략을 자극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군의 전투력 증강이 북괴와 대등하게 되려면 앞으로 적어도 8년이 소요될 것이다.
> (주한미군 철수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가라는 로빈 비어드 하원의원의 질문에 대해) "주한미군이 4~5년에 걸쳐 철수할 것이라는 통보를 지난 4월 방한한 로저스 육군참모총장에게 들었으며, 그 때에 철수 이유와 목적에 대해 설명을 받지 못했다"[67]

주한미군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스틸웰 장군도 현재의 주한미군사령부의 입장과 동일한 의견을 나타냈다. 1977년 5월 20일 스틸웰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지상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철수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다.

> "주한미군 철수가 한국에서 군사적인 충동 가능성을 재고시킨다는 싱글러브 소장의 견해에 일반적으로 동의한다. 주한미군 철수가 남북한의 무력대결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믿는다. 미 공군이나 해군이 지상군의 북한 남침 억지력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믿지 않는다."[68]

6. 결 론

카터 행정부 초기에 이루어진 주한미군 철수정책은 군부의 의견, 즉 군사적 평가가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은 카터 행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의 산물이었다. 합참을 포함하여 군부는 일반적으로 주한미지상군 주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합참은 철군으로 인한 부족분에 대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철수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행정부의 입장이었던 주한미지상군의 철수를 수용하게 되었다.

---

67) 『경향신문』 (1977. 5. 26).
68) 『경향신문』 (1977. 5. 21).

《표 6-1》 국방부 및 군부의 주한미군 철수 입장

구 분	국방부	합참/육군	태평양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카터 행정부 이전	주한미군 주둔 필요	주한미군 철수 반대	주한미군 철수 반대	주한미군 철수 반대
카터 행정부 철수 결정 시	주한미군 철수 찬성	주한미군 철수 수용 (보완조치 조건)	주한미군 철수 반대	주한미군 철수 반대

《표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카터 행정부 이전 국방부를 비롯한 모든 부서들이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카터 행정부의 집권 이후, 국방부는 군부의 군사적 평가보다는 행정부의 정치적 입장에서 판단하였으며, 합참/육군도 행정부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보완조치를 조건으로 하는 주한미군 철수를 수용하였다.

국방부는 미 행정부의 국방정책을 책임지는 중요 국가기관으로 이러한 국방정책은 행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카터 행정부가 정권시작부터 추진하였던 주한미군철수라는 정치적 목적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국방부는 기존의 철수반대라는 입장을 변화시켰다. 또한 국방부와 함께 워싱턴에 위치하였던 합참과 육군의 지휘부도 이러한 카터 행정부의 정치적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태평양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카터 행정부의 정치적인 목적달성보다는 지역사령부로서 객관적인 군사적 판단을 우선시 하였고 이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반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철수반대는 2년 후에 이루어진 철수중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주한미군 철수의 1차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여러 정보기관에서 평가한 북한의 군사적 능력, 즉 주한미지상군이 철수해도 미 공군 등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지상군이 북한군을 격퇴할 수 있다는 군사적 평가는 카터 행정부로 하여금 의회와 군부를 설득하고 주도적으로 정책을 전개할 수 있게끔 하는 2차적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국방부의 주한미군철수정책 수용과 미 합참과 육군 등 미군부의 북한 군사력 평가 변화[69]가 미 행정부의 철수정책 의지와 함께 주한미군철수 결정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고투고일 : 2011. 9. 29, 심사수정일 : 2011. 11. 10, 게재확정일 : 2011. 11. 18)

주제어 : 카터 행정부, 주한미군, 철수, 북한 군사력 평가, 국방부, 군부

69) 태평양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지속적으로 주한미군철수를 반대하였다. 하지만 주한미지상군철수에 있어서, 군부의 최상위 기관인 합참과 육군이 제한적인 철수입장에서 보완조치를 전제로 한 철수수용으로 입장을 변화하였기 때문에 군부의 군사적 평가가 변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

<ABSTRACT>

A Study on North Korea Military Evaluation During Carter Administration Decision Making towards the US Troops Withdrawal Policy

- Focused on Evaluation Change of DoD and Military Authorities -

Cho, Kwan-haeng

The US troops in the Carter administration withdrawal policy was examined and executed just week after the presidential inauguration. Although most government organizations including the Department of Defense had regarded the station of USFK necessary, the Department of Defense admitted the withdrawal policy from the political perspective in the Carter Administration. However, military authorities had various thought on the evaluation on North Korea's military capability. Meanwhile, CINCPAC and USFK continued to oppose the withdrawal but JCS and the US Army had opposed the withdrawal before the Carter Administration, changed their position to admit the withdrawal on the condition that there should be compensatory measures for the USFK withdrawal.

In conclusion, the primary factor for the withdrawal policy was the Carter Administration's political volition, and the secondary factor was the military evaluation that the ROK Army can defeat North Korean Army without the USFK's Ground force if US Air Force's support is pertinent. Here we can find out that the Carter administration's political volition and the military's evaluation alteration on North Korean military capability played a key role in deciding the USFK withdrawal policy.

Key Words : Carter Administration, US Troops, Withdrawal, North Korea, Military Evaluations, Department of Defense (DoD), Military Authorities

스뜨렐비쯔끼 대령 - 조선주재 초대 러시아 육군무관

빠블로프*/김종헌** 역

1. 서 론
2. 스뜨렐비쯔끼의 부임과 그의 첫 임무
3. 대한제국에 관한 스뜨렐비쯔끼의 정보수집 활동
4. 결 론

1. 서 론

조선주재 러시아 육군무관('육군정보원')에 임명된 4명 중 초대무관[1]이었던 총참모부 소속 스뜨렐비쯔끼 대령은 19세기와 20세기 경계의 한러관계

* 빠블로프 드미트리 보리소비치(Павлов Дмитрий Борисович, 1954년생) - 역사학 박사, 러시아정교 성티호노프 인문대학 교수(모스크바 소재).
**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연구교수

1) 스뜨렐비쯔끼의 후임자들은 다음과 같다. 즉, 1902년 8월에 한국주재 육군무관으로 임명된(서울 착임은 1903년 2월 11일) 총참모부 소속의 폰 라아벤(Л.Р. Фон Раабен, 1871~1904) 중령. 1903년 10월부터 근무한 근위대 대위(1903년 말부터 총참모부 소속의 중령) 뽀타뽀프(Потапов), 1903년 11월 29일에 임명된 총참모부 소속 대령 네츠볼로도프(А.Д. Нечволодов, 1864~1938) 등이다. 그러나 네츠볼로도프는 러일전쟁의 개전과 일본의 한국 점령으로 인해 근무지에 착임하지는 못했으며, 극동에 도착한 즉시 러시아 만주주둔군 참모부에 배속되었다. 이후 만주군 참모부의 명령에 의거하여 전쟁 기간 동안 한국에서 일본을 상대로 정찰-파괴 작전을 지휘했다.

와 관련된 인물이었으나, 오랜 시간동안 잊히고 과소평가되었다. 그가 한국 땅에 머문 6년 반(1896년 8월부터 1903년 2월까지) 동안 한러관계는 역동적이고도 극적으로 전개되었다. 1896년부터 1898년까지 한국과 러시아는 전례 없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절멸되었다. 이후 '베조브라조프 일파'의 '사립' 삼림회사라는 위장막 밑에서 시도된 팽창정책은 양측의 의심과 불신을 증폭시켰다. 스뜨렐비쯔끼라는 인물은 이런 거대한 사건의 그늘 속에 있었으며, 러시아 역사학에서도 1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2000년대에 들어서야 그에 관한 연구물들이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2]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뜨렐비쯔끼의 한국 내 업무가 지닌 강점은 조명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그의 약점만이 과장되었으며, 러시아와 한국의 현실이라는 흐름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그의 모든 활동은 편파적으로 해석되고 평가되었다. 러시아의 대조선 정책 노선이 지닌 특성과 전망에 관한 그의 관점은 전혀 고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와 부족한 점을 보충하려는 시도다.

스뜨렐비쯔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중 개연성을 갖춘 것은 공식적인 사무 처리의 자료를 연구하여 마련된 사료적 토대가 빈약했다는 점이다. 역사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스뜨렐비쯔끼가 서울에서 총참모부로 발송한 총 300~350개에 달하는 기밀 보고서 중에서 십분의 일에 불과하다. 또한 이 문서들은 러시아국립군사사문서보관소(РГВИА) 내의 다양한 문서군 산하에 그것도 다수의 문서철 안에 분산, 보관되어 있다. 이 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은 상기 문서보관소의 문서군 448('한국'전집), 문서군 400(총참모부) 그리고 문서군 846(군사업무 문서보관소) 등에 집중되어 있다. 본 주제와 관련된 다른 종류의 사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

2) 다음을 보시오: *Добычина Е.В.* О происках Токио в Корее на рубеже XIX-XX вв. испр авно докладывал в С.-Петербург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дполковник И.И. Стрельбицки й //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ий журнал. 2004. № 3; *она же.* Российские военные агенты н 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о реорганизации разведслужбы в регионе в 1901-1902гг. // Военн о-историческийжурнал. 2010. № 8.

2. 스뜨렐비쯔끼의 부임과 그의 첫 임무

1896년 1월 27일(2월 8일, 이하 괄호 안이 서양력 - 역자) 러시아는 상대국에 문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서울주재 '육군무관'의 직책을 신설하고, 거기에 이반 이바노비치 스뜨렐비쯔끼(Иван Иванович Стрельбицкий) 대령을 임명했다. 당시까지 페테르부르크(Петербург) 현에 있던 35세의 러시아 장교는 니꼴라예프(Николаев) 기병학교를 거친 뒤, 총참모부 산하 니콜라예프 학술원을 2등급으로 졸업하여 자까스삐스까야(Закаспий ская) 주와 (제2동시베리아보병여단 소속으로)시베리아에 근무했으며, 여러 달 동안 페르시아(1889년과 1891년), 몽고(1894년), 한국(1894년) 그리고 만주 등지에서 정찰업무를 수행했다. 서울에 착임하는 그 순간까지 스뜨렐비쯔끼는(1895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한만국경 지대에서 다시 정찰 업무에 임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1896년 5월에 대령으로 승진했다. 향후 군사 지지학자(地誌學者)로서 스뜨렐비쯔끼의 활동은 바로 이곳, 즉 유럽의 평론가들 사이에서 간혹 '극동의 이탈리아'라고 명명되었던 한국의 북쪽과 북동쪽에 집중되었다. 스뜨렐비쯔끼는 1896년 7월 15(27)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자격에서 서울로 향했다.

1896년 1월 고종은 일본인들의 간책으로부터 보호받고자 러시아군 분견대를 자신의 나라로 파견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바로 그것이 러시아 군부가 조선에 상주 대표직을 설치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였다. 동년 2월 고종은 비밀리에 러시아 공관으로 이어했으며, 곧 이어 러시아 대리공사를 통해 '조선군의 조직'을 위해 군사교관들과 자기 개인의 군사고문을 서울로 파견해 달라고 페테르부르크에게 부탁했다. 이런 조치가 러시아의 수도에서는 "자기 나라의 운명을 러시아에 맡긴다"는 고종의 결심에 대한 증표로서 받아들여졌다.[3] 1896년 봄 조선은 모스크바의 대관식에 (유럽 국가로의)첫

3) РГВИА. Ф. 448. Оп. 1. Д. 9. Л. 1. - Доклад военному министру начальника Главного штаба генерал-адъютанта Н.Н. Обручева. С.-Петербург, 9 апреля 1896 г.

번째 해외 사절단을 파견했다. 본 사절단의 단장이었던 민영환은 자기 군주의 위와 같은 계획을 구두로 증명하고 구체화시켰다. 민영환이 러시아 외무부 및 육군부에서 협상한 결과 동년 여름에 페테르부르크는 조선으로 군사고문과 교관단원들을 파견하는데 동의했다. 군사고문에 임명된 이는 당시 총참모부 소속 중에서 극동 상황의 최고 전문가였던 뿌짜따(Д.В. Путята) 대령이었다. 그는 연아무르 군관구 소속의 군부대 내에서 교관들을 직접 선별해야만 했다. 1896년 10월 3(15)일, 한국 사람들이 '군사사절단'이라고 명명한 러시아 군사교관 일행은 포함 '그레먀쉬(Гремящий)'에 승선하여 비밀리에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서울로 향했다.[4] 뿌짜따를 제외하고도 '사절단'에는 두 명의 청년 장교, 군의관 그리고 10명의 하사관이 포함되어 있었다. 민영환의 사절단 역시 그들과 함께 모국으로 귀국했다.

페테르부르크는 서울에 '육군 무관'이라는 직책을 신설하면서 조선 왕국의 군사력 상태를 파악할 의도가 없었던 것 같다. 당시 조선의 군사조직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었다(러시아 육군부는 한반도를 여행한 장교들의 기밀보고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다). 고종의 왕실 내에 뿌짜따와 그의 피후견인들이 등장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조선의 군사 상태를 보다 완전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주재 육군무관은 더욱 전체적이고 광범위한 과제를 부여받았다. 그것은 작게는 조선, 그리고 크게는 극동에서 러시아의 군사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었다.

러시아 군사이론가들은 한반도가 '러시아 시베리아 국경의 최동단 측면'인 동시에 극동지역 군사력을 상대로 한 일본인들의 작전용 교두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5] 따라서 러시아 사령부는 순수한 지리적 관점에서 러시아의 연해주 그리고 향후 러시아가 중국 북동지역, 즉 만주를 점령할 경우, 한반도는 그곳에 배치될 러시아군에 대한 남쪽으로부터의 잠재적

4) РГВИА. Ф.448. Оп. 1. Д. 9. Л. 21 - Донесение полковника Д.В. Путяты в Военно-ученый комитет Главного штаба. Сеул, 18/30 октября 1896 г. № 82.

5) РГВИА. Ф. 448. Оп. 1. Д. 9. Л. 353 об. - Всеподданнейшая записка полковника Д.В. Путяты. С.-Петербург, 6 ноября 1897 г.

위협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조선에는 도로가 많이 부족하고 복잡한 산악지형으로 인해 병참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낮은 경제적 잠재력, 지역적 후진성 그리고 적은 인구 등을 감안할 때 조선에 러시아군이 대규모로 주둔할 수 없음은 물론, 전장으로 이용하기에도 적절하지 못한 곳이라고 평가했다. 한반도에서의 단독 지배를 주장하는 이웃 일본의 입장도 고려되었다. 1895년 러시아의 걸출한 군사 분석가였던 오브루체프(Н.Н. Обручев)는 "장래 러시아가 태평양에서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려면" 러시아는 반드시 북만주와 함께 '두만강 하구와 세스타꼬프(Шестаков, 전진만/前津灣-역주) 항을 포함하는 조선 북부의 일부 지역(육군대신은 이 부분과 이후 뒷부분에 밑줄을 그었다-저자 주)'을 점령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러시아가 조선왕국과 평화롭게 지내야만 하는 만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조선의 다른 지역에서 일본이 행사하고 있는 배타적 영향력을 '무력화시켜야' 했다.[6)]

러시아 육군 사령부의 이런 견해와는 달리 러시아 해군은 조선의 남부에 위치한 부동의 편리한 항만을 태평양 분함대의 기지로 삼기에 이상적인 장소로 보아, 그곳을 갈망하며 주시하고 있었다. 당시 러시아의 최고 군사정책결정권 내에서는 이미 1880년대 중반에 조선이 먼저 제기했던 문제, 즉 조선에 대한 보호관계의 설립이 합목적적인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7)] 그러나 이러저러한 전략적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조선의 현재적 상황을 전면적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난 뒤에 조선을 조사하고 연구해야만했다.

러시아 군사 지도부는 이웃한 조선의 정치적 상황, 국가 조직, 왕실 내부와 수도 및 각 지방에서의 상황, 재정과 경제 상황, 통치권과 사회 내 다양한 계층의 분위기에 관해 실로 피상적인 관념을 지니고 있었다. 군사적 목

---

6) РГВИА. Ф. 447 (Коллекция «Китай»). Оп. 1. Д. 69. Л. 4 об-5, 6. - Записка генерал-адъютанта Н.Н. Обручева о задачах Росси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1895 г.

7) Подробнее об этом см.: *СимбирцеваТ.М.*«Загадочный»баронфонМеллендорфиего«прорусская»деятельностьвКорее(1882-1885)//ВопросыисторииКореи.Петербургскийнаучныйсеминар.2001.СПб.,2002.С.25-44;*ПакБ.Д.*РоссияиКорея.Изд.2-е.М.,2004.С.145-147.

적에 유용하고 신뢰할만한 한반도지도조차 없어서, 대부분의 연안선 형태는 추측에 의한 것이었으며 다수의 만과 도서들은 묘사되어 있지도 않았다. 총참모부 소속의 장교들 중에서 육로 여행가들(알프딴/В.А. Альфтан/, 소꼬브닌/М.А. Соковнин/, 까르네예프/В.П. Карнеев/, 스뜨렐비쯔끼)이 여행 도중 촬영한 것, 여행기 그리고 한 줌에 불과한 보고서 등이 1896년 봄까지 러시아 총참모부 아시아과가 한국과 관련하여 실제 보유하고 있었던 모든 것이었다.

외무부와는 달리 육군부는 자신이 파견하는 해외 주재관에게 문서의 형태로 훈령을 하달하지 않았다. 심지어 스뜨렐비쯔끼의 부임 직전, 그와 지휘부 간에 이루어진 대담내용 조차 문서로 작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부임 직후 스뜨렐비쯔끼가 발송한 보고서를 보면, 페테르부르크에서 받은 그의 임무가 무엇인지 매우 명확해진다. 그 중 가장 확실한 것은 뿌짜따 대령의 일행에게 유리한 근무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의 의미는 일상생활의 편리함이 아니었다. 뛰어난 관찰자였던 뿌짜따의 표현을 빌면, 러시아 군사전문가 '일행'이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국내의 정치적 난관을 해결한다고 습관적으로 일본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위정자들에게 국왕이 의지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었다."[8] 달리 표현하면, 스뜨렐비쯔끼는 '러시아를 상대로 한 일본의 음모'를 폭로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학자인 도비치나/Е.В. Добычина/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음모를 현지에서 무력화시켜야만 했다.

1896년 10월 10(22)일 러시아 대리공사 베베르(К.И. Вебер)와 스뜨렐비쯔끼가 제물포에서 뿌짜따와 그 일행을 맞이했다. 이들 일행이 서울로 향하는 중간에 조선의 고관들과 국왕의 특사가 합류했다. '러시아 군사사절단'은 환대 속에 서울로 향해, 다음날 국왕을 알현했다. 동년 11월 초 교관들은 대대 규모의 군부대 교육에 착수했다. 이 대대는 1897년 2월 국왕의 환궁 이후 그의 개인 경호부대가 되었다가, 후일 근위대의 지위를 하사 받았

8) РГВИА. Ф. 448. Оп. 1. Д. 9. Л. 21. – Донесение полковника Д.В. Путяты в Военно-ученый комитет Главного штаба. Сеул, 18/30 октября 1896 г. № 82.

다. 뿌짜따 대령은 조선에 도착한 첫 날부터 조선군 개혁을 조언하는 국왕의 군사고문에 임명되었으며, 특명 전권을 하사받았다. 한 마디로 스뜨렐비쯔끼는 조선에서 자신의 첫 번째 중요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3. 대한제국에 관한 스뜨렐비쯔끼의 정보수집 활동

1) 대한제국 정세에 관한 스뜨렐비쯔끼의 정보수집 활동

스뜨렐비쯔끼의 다음 행보는 조선의 사회정치적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는 총참모부로 발송하기 위해 작성한 첫 번째 보고서에서 조선 상황을 상세하게 언급했다. 그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네 개 '정파('민족적 대중', '미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들의 활동을 분석하면서, 국왕의 아버지이자 이전의 섭정이었던 '대원군', 영의정 '김병시', 외무대신 '이완용', 국왕(스뜨렐비쯔끼의 견해에 따르면 당시 국왕은 능력을 갖추었지만 진정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러시아의 협력자는 아니었다), 서거한 민왕후, 새로운 미국 시민권자 필립 제이슨(독립협회 설립자) 그리고 다른 이들 등, 중요한 위정자와 사회 활동가들의 현재와 최근의 활동이 갖는 성격을 설명했다. 조선 '지식인들의 상황'에 관한 러시아 육군무관의 주요 결론은 "자주적인 내정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전적으로 민족 공동의 자산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후의 사건들이 증명해주는 바와 같이 이런 결론은 전적으로 적절한 평가였다.

그러나 스뜨렐비쯔끼는 상기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위와 같은 마음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한반도를 러시아 제국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예언했다. 즉,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조만간에 이 나라를 점령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독립된 조선을 건설하겠다는 모든 시도는

단지 미봉책에 불과할 것인바, 그런 미봉책 뒤에는 언제나 군사적 간섭이라는 환영이 버티고 서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러시아에 의한 보호관계 수립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면서, 러시아 군사고문과 미국 교관단이 조선에 공존하는 상황이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만큼("이 모든 것은 그 자체로서 조선에 대한 궁구한 영향력을 보다 충분히 비중 있게 보장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불안정한 것이라고 보았다. 스뜨렐비쯔끼는 한반도 점령을 향한 단계로서 이런 행보의 실현성과 그 결과를 동시에 고찰했다. 즉 "모든 자료에 따라 보건데, 예를 들어 보호관계와 같은 종류의 보다 더 공고하고 정확한 형태의 러시아 영향력 구축은 인민 대중으로부터 어떤 방해도 받지 않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조선 내정과 관련된 문제에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필수적이며, 고래의 종교와 오래된 관습 그리고 심지어 편견, 과거의 통치 형태 등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9] 전체적으로 보아 러시아 육군무관의 논리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가 '조선에서 누리고 있는 배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이용해야만 하며, 향후의 병합을 고려하여 조선이 자신의 보호국임을 지체하지 않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스뜨렐비쯔끼는 이 경우에 있을 도쿄의 불가피하고도 강력한 반응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총참모부에서는 다른 성향이 지배적이었다. 뿌짜따의 보고서 그리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려 했던 러시아 외무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1896~1897년 조선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훼손하거나 그 영토를 점령하지 않는 상태에서 군사교관이라는 제도의 도움을 받아 조선에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평화롭게 조선에 침투한다는 계획이 힘을 얻었다. 따라서 페테르부르크에서는 스뜨렐비쯔끼의 생각에 대해 시큰둥하게 반응했다. 군 고위 관료 중에서 한반도 내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러시아 대대 병력을 즉각 상륙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이는 태평

9) РГВИА. Ф. 448. Оп. 1. Д. 10. Л. 81 об., 85об-86, 102. - Рапорт полковника И.И. Стрельбицкого в Главный штаб. Сеул, 10/22 января 1897 г. № 1.

양 분함대장이었던 해군소장 두바소프(Ф.В. Дубасов) 뿐이었다.[10] 하지만 황제 니콜라이 Ⅱ세는 당시(1897년 12월) 서울로 향한 신임 러시아 공사(마튜닌, Н.Г. Матюнин)에게 개인적으로 훈령을 하달하여, 조선 왕국의 독립 유지가 페테르부르크에게 가장 소망스러운 것인바, 러시아는 조선의 점령도 그리고 보호관계의 수립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11]

스뜨렐비쯔끼는 지도부의 회의적 견해를 포착한 뒤, 러시아의 전략적 대조선 정책에 관한 자신의 다음 보고서에서는 더 이상 이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조선의 최근 역사 그리고 조선 국가 기구의 기능, 궁궐의 도덕과 관습, 종교와 신앙생활, 사회정치생활 그리고 재정경제생활 등의 구조와 특성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첨가하며 조선의 '절박한 정치적 문제'를 분석하는데 집중했다. 1897년 5월 스뜨렐비쯔끼는 페테르부르크에 수입과 지출 목록이 포함된 조선의 차년도 예산에 관한 정보를 발송했다(총액이 4백 2십만 달러에 약간 못 미쳤음). 1898년 초 지도에 표시를 해 가며, 국영광산 일람표를 보고했고, 1897-1898년에는 한반도에서의 철도와 전신선 부설 과정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올렸다. 1898년 11월에는 1894~1895년의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의 조선 내 행군로를 측량하여 56장의 측량도를 보고했다.[12] 1897~1898년 스뜨렐비쯔끼는 러시아 군사 고문과 교관을 둘러싼 상황, 즉 국왕, 궁정파 그리고 조선 정부의 그들에 대한 태도, 일본, 대영제국 그리고 미국의 공식대표들이 그들의 활동을 상쇄시키려고 취한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목격했다. 일본과 영국 외교관의 책동은 예상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인 동료들의 음모로 인해 스뜨렐비쯔끼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즉 "미국은 조선에서 결코 중립세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정한 상황 하에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적대세력입니다."[13]

---

10) РГВИА. Ф. 448. Оп. 1. Д. 10. Л. 173. – Копия телеграммы в Главный морской штаб контр-адмирала Ф.В. Дубасова. Владивосток, 27 декабря 1897 г.

11) Цит. по: *ЛукояновИ.В.* «Не отстать от держав...». Росс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конце XIX – начала XX вв. СПб., 2008. С. 266.

12) РГВИА. Ф. 846. Оп. 2. Д. 111. Л. 3.

13) РГВИА. Ф. 448. Оп. 1. Д. 10. Л. 128 об. – Рапорт И.И. Стрельбицкого в Главный штаб. Сеул, 25 мая/6 июня 1897 г. № 33.

스뜨렐비쯔끼는 다양한 형태의 군사통계 자료를 수집하는 것 이외에도, 프리아무르 군관구 참모부와 서울주재 러시아 공사관이 하달한 모든 종류의 일회성 명령(기본적으로 전자의 그런 명령들은 조선과 만주 국경선에서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 접경지역을 조선 측으로부터 지지학적으로 측량하는 것이었다. 후자의 명령에 따라 스뜨렐비쯔끼는 1897년 12월 목포항과 인접한 지역의 지형을 관찰했다)을 수행해야만 했다. 또한 자기 직속 상부의 명령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1898년 3월 랴오둥반도 조차에 대한 러청조약이 체결된 직후 스뜨렐비쯔끼는 "조선, 예를 들면 평양으로부터 뤼순 항에 대한 석탄을 공급하는 문제를 연구해 보라"는 육군대신 쿠로파트킨(А.Н. Куропаткин)의 명령을 하달 받았다.[14] 스뜨렐비쯔끼는 1898년 6월 '평양탄광'의 조사 결과를 페테르부르크에 전문으로 발송했다. 그는 전문을 발송하기 전에 러시아 전함에서 한국 석탄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평양에서 채취한 시료를 이미 뤼순 항으로 발송했다.

스뜨렐비쯔끼는 이런 모든 정보를 수집하면서 적지 않은 난관에 부딪쳤다. 이에 대해 그는 서울에서의 일상적 근무 조건에 대해 1902년에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즉, "조선에는 통계도, 군사·경제·의회 등등의 그 어떤 보고서도, 정통한 언론도, 지방으로부터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습니다. 심지어 정치적 측면에서 중도적인 집단도 존재하지 않아서, 그런 집단을 통한 정보의 수집도 불가능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보유하고 있었던 모든 자료들은 50년이나 된 진부한 것이거나, 의심할 바 없이 가공된 자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이곳에서는 극도로 빈틈없는 실질적인 검증 없이는 황제의 칙령, 국가예산, 세관 보고서 및 기타의 문서들조차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15] 스뜨렐비쯔끼는 공식정보의 부족을 개인적인 관찰, 자신의 정보원과 서울 관료세계의 대표들 또는 유럽 거류지에 살고 있는 '노인'들로부터 입수한 자료로 보충했다. 러시아 육군무관 스뜨렐비쯔끼의 자발적인 심

14) РГВИА. Ф. 448. Оп. 1. Д. 8. Л. 50. – Записка генерал-лейтенанта А.Н. Куропаткина. С.-Петербург, 23 марта 1898 г.

15) РГВИА. Ф. 400. Оп. 4. Д. 319. Л. 3 об. – Рапорт И.И. Стрельбицкого в Главный штаб. Сеул, 17/30 сентября 1902 г. № 78.

복 중에는 프랑스 가톨릭 선교단의 단장이었던 뮤텔(Мютель) 예하(猊下)도 있었는데, 스뜨렐비쯔끼의 표현에 따르면 그는 '조선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인물 중의 한 명'이었다.[16]

일본이 조선을 상대로 전쟁을 준비한다는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소문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와 관련된 출장, 번역[17], 정보원을 통해서 '우연히' 입수한 비밀지도와 평면도 그리고 개요도의 사본 작성, 총참모부에 발송할 방대한 양의 비밀보고서 작성, 재정·경제 결산서 사본 작성 등 문서 작성과 잡다한 일들로 인해 스뜨렐비쯔끼는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했다. 비밀첩보도 주요 업무였다. 첩보활동에는 한국인들이 주로 참가했는데, 스뜨렐비쯔끼는 한중 국경에서의 상황을 관찰하기 위해 조선의 북부로 혹은 일본이 상륙작전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에 따라 한반도의 남부와 서부로 그들을 파견했다. 그는 조선군 최고수뇌부에서 일하는 상주첩보원을 보유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조선정부의 관원들이 지닌 정보 수준이 위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보았던 것 같다.

2) 군사 지지학자 스뜨렐비쯔끼의 활동

1898년 봄 서울의 상황이 급격하게 변했다. 1897년에 스뜨렐비쯔끼가 이미 지적한 바 있는 대한제국 정부 내의 애국주의, 궁정 음모 그리고 타 열강의 압력 하에 대한제국은 러시아가 교관을 소환하도록 만들었다(뿌짜따 대령은 1897년 8월에 이미 조선을 떠났다). 러시아 공사관은 대한제국의 이런 행동에 대한 일종의 '응징' 차원에서 '대한제국 북부의 점령'을 제안했는데, 러시아 육군대신은 전문을 발송하여 대한제국의 "국내 문제와 정치적 문제에 간섭하지 말 것" 그리고 현 상황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지 말 것

16) РГВИА. Ф. 448. Оп. 1. Д. 10. Л. 86 об.

17) 스뜨렐비쯔끼가 페테르부르크로 발송한 외국 출처의 원문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것은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철도 문제에 관한 일본 의회 내에서의 토론을 러시아어로 번역한 문건이다. 스트렐비치키는 동아시아의 언어를 모르는 상태에서(그는 영어와 프랑스어만을 구사했다) 한국어와 일본어로 작성된 문서들을 익히기 위해서 통영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등을 하명했다.[18] 그 다음날, 즉 1898년 3월 31일(4월 12일) 육군무관은 "대한제국의 국내 문제와 정치적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과 업무를 "군사 분야로 엄격히 한정 지으라"는 명령을 접수했다. 본 명령에 따라 스뜨렐비쯔끼는 "한반도를 전장이라는 측면에서 연구하고 지도와 한반도를 묘사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만 했다.[19]

스뜨렐비쯔끼는 지도제작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는 포시에트(Посьет) 만-기린-묵덴-함흥을 연결하는 총 길이 5천 베르스타(1베르스타는 1,067미터-역주)의 노선을 25베르스타:1 축적의 지도로 작성하려 했다. 그가 이 작업을 마친 것은 1900년 9월이었는데, 그는 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수집한 문서들이 단지 "한 지역의 정확한 지도를 위한 자료이자, 그 지역의 교통로와 군사지리적 특징을 개요도에 옮겨 놓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했다.[20] 한반도 북부의 지도제작 계획 역시 실현하지 못했다. 그 원인이 스뜨렐비쯔끼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결과적 볼 때 일본과의 개전 직전에 러시아 총참모부가 "우리 수중의 한국 지도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전반적으로 개관하는 수준에서 조차 이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증언했으며, 스뜨렐비쯔끼는 자신에게는 살인적 행위와 같은 이런 평가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21] 러시아 육군 지휘부는 도쿄주재 러시아 무관에게 하명하여 일본 참모부와 장교들이 과거에 작성한 한반도 지도를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서울 체류 당시 군사용 한국지도를 작성한 것이 스뜨렐비쯔끼의 공적이라고 평가한

---

18) РГВИА. Ф. 448. Оп. 1. Д. 10. Л. 178 об., 186. – Шифрованная телеграмма И.И. Стрельбицкого в Главный штаб. Сеул, 5/17 марта 1898 г. и ответ начальника Азиатской части Главного штаба генерал-майора В.У. Соллогуба от 30 марта/11 апреля 1898 г.

19) РГВИА. Ф. 400. Оп. 4. Д. 319. Л. 3. – Рапорт И.И. Стрельбицкого в Главный штаб. Сеул, 17/30 сентября 1902 г. № 78.

20) РГВИА. Ф. 846. Оп. 2. Д. 111. Л. 21. – Объяснительная записка И.И. Стрельбицкого к 25-верстной маршрутной карте. Сеул, 2/15 сентября 1900 г.

21) РГВИА. Ф. 400. Оп. 4. Д. 319. Л. 41-41 об. – Справка по Главному штабу о положении дел в Корее. С.-Петербург, 13 июля 1903 г. 본 문서에 대한 각주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즉, "이런 견해는 조선주재 전임 군사 정보원의 성명과 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역사학자 도비치나(E.B. Добычина)의 주장은 옳다고 보기 힘들다.

스뜨렐비쯔끼는 러시아 육군 수뇌부의 명령에 의거하여 1898년 중반 이후부터 대한제국의 군사력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1899년부터 1902년 사이에 스뜨렐비쯔끼는 1899년 1월과 7~8월, 1900년 중반 그리고 1902년 말 등 당시의 상황에 따라 대한제국 육군의 구조, 통치체제, 무기, 훈련, 군수, 구성, 병력 등을 조사하고 거기에 전개도와 다양한 종류의 표를 첨부한 시리즈 형태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참모부에 제출했다. 그가 대한제국 육군을 관찰하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였는데, 당시 대한제국 육군은 그래야 할 만큼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었다. 스뜨렐비쯔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899년에 대한제국의 군사력은 장교 200명에 병사 8,500명이었다.[22] 그러나 1902년 말에는 이미 대부분 잘 훈련되고 무장한 1만 5천 명의 병력이 있었다. 1902년에만 관리비용을 포함하여 부대 유지에 국가 예산의 4/1 또는 2백 8십만 엔 이상(1890년대 후반 육군이 사용한 금액은 대한제국의 국가 예산과 같은 수치였다. 그러나 절대계산에서는 2~3배 적어서 1백~1백 2십만 엔을 넘지 않았다)이 지출되었다. 유럽 관찰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1890년대 중반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오합지졸'[23]로 여겨지던 대한제국 군대에서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사기의 앙양'이 관측되기 시작했다.[24] 1900년에 조직된 한국 육군총참모부 지휘관(민영환)은 근시일 내에 정규군을 10만 명으로 증강시키겠다고 했다.

스뜨렐비쯔끼는 격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해 이전에 수행했던 이론적인 분석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 그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스뜨

---

22) РГВИА. Ф. 400. Оп. 4. Д. 317. Л. 19-28 об. - Отчет И.И. Стрельбицкого в Главный штаб о состоянии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Кореи к началу 1899 г. Сеул, 4/16 января 1899 г. № 1.

23) 다름 아닌 'rabble'인데, 당시의 서울주재 영국 총영사 조르단(J.N. Jordan)은 사적인 교신에서 한국의 군대를 이렇게 평가했다. - Цит. по: *Lensen, George A.* Balance of Intrigue: International Rivalry in Korea & Manchuria, 1884-1899. Tallahassee: University Press of Florida, 1982. Vol. II. P. 889.

24) РГВИА. Ф. 400. Оп. 4. Д. 321. Л. 287-288. - Всеподданнейшая записка А.Н. Куропаткина с приложением перевода статьи из газеты «The China Telegraph". С.-Петербург, 16 января 1901 г.

렐비쯔끼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예기치 못한 대규모 군사적 사태에 압도되지 말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았다.[25] 1901년 1월부터 1902년 5월까지의 16개월 동안 스뜨렐비쯔끼는 육군부에 겨우 8건의 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총참모장은 스뜨렐비쯔끼가 앞으로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관해' 매월 최소한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더 자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즉, 한국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었다.[26] 그러나 명령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더욱 엄격한 조치가 이어졌다. 즉 1902년 여름 사하로프(Сахаров) 장군은 스뜨렐비쯔끼의 소환을 요청했다. 그는 스뜨렐비쯔끼를 라아벤 중령으로 교체해야만 하는 이유를 러시아 황제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즉 "극동에서 정치적 사건의 전개과정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아시아 국가들의 군사조직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파견된 우리 정보원들은 특별한 에너지와 관찰능력을 지녀야만 합니다."[27] 1902년 8월 28일 니콜라이 II세는 그의 교체를 윤허했다. 그러나 한국의 군사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 조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1903년 1월말까지 스뜨렐비쯔끼를 서울에 체류시켜야 한다는 총참모부의 제안도 받아들였다. 1903년 2월 11(24)일 임무를 수행 중이던 육군무관은 자신의 업무를 라아벤에게 이관한 뒤 러시아로 귀국했다(스뜨렐비쯔끼의 마지막 보고서는 2월 13/26/일 총참모부에 발송되었다).

---

25) РГВИА. Ф. 400. Оп. 4. Д. 319. Л. 5. – Рапорт И.И. Стрельбицкого в Главный штаб. Сеул, 17/30 сентября 1902 г. № 78.

26) РГВИА. Ф. 400. Оп. 4. Д. 319. Л. 13. – Отношение начальника Главного штаба генерал-лейтенанта В.В. Сахарова полковнику И.И. Стрельбицкому в Сеул. С.-Петербург, 15 мая 1902 г. № 1581.

27) РГВИА. Ф. 400. Оп. 21. Д. 3002. Л. 2 -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доклад начальника Главного штаба генерал-лейтенанта В.В. Сахарова. С.-Петербург, 23 августа 1902 г. № 41 с пометой о «высочайшем соизволении». В том же представлении начальник Главного штаба ходатайствовал об отзыве полковника Г.М. Ванновского, «военного агента» в Токио.

4. 결 론

서울주재 육군무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스뜨렐비쯔끼의 활동을 결산하면서 인정해야만 하는 것은 한국의 전반적인 정치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여 개괄서를 작성했다는 점이다. 그 덕분에 러시아 육군부는 한러관계가 수립된 이후 처음으로 한국의 상황이나 일상생활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스뜨렐비쯔끼가 사회·정치 및 재정·경제적 문제에 관심을 보인 덕분에 그의 보고서들은 한·러 양국 간에 이루어진 문화적 교류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의 보고서는 한국정치사나 한러관계사 연구를 위해 소중한 사료로 남게 되었다. 순수하게 군사적 분야에서, 특히 지도제작과 한반도에 주둔 중인 일본군에 관한 정보수집에서 스뜨렐비쯔끼의 업적은 보잘것 없었다. 1901년 봄 러시아 총참모부는 "한국에서의 공격적 군사행동을 위한 일본인들의 군사력과 자금, 그리고 한국에서 일본군의 상륙 예상 기간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스뜨렐비쯔끼가 조사한 통계와 군사용 지지학 자료들을 인용하지 않았는데, 바로 위와 같은 이유에서였다.[28]

1903년 6월 말 스뜨렐비쯔끼는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여, 총참모부 소속으로 '잠시' 근무했다. 그가 극동에서 획득한 지식, 경험 그리고 관계 등은 러시아군부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 스뜨렐비쯔끼는 참모부에서 자신의 업무를 부여받지 못했으며, 극동 업무에도 더 이상 관여하지 못했다. 러일전쟁이 최고조에 달했던 1904년 봄 총참모장은 에티오피아의 황제 메넬릭(Менелик)의 요청에 따라 영국·이집트의 국경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스뜨렐비쯔끼를 경험 있는 정찰가로 보아 군사지지학자인 알렉세예프(Я.И. Алексеев) 대위와 함께 아비시니아로 파견했다.[29] 스뜨렐비쯔끼는 북아프리

28) РГВИА. Ф. 846. Оп. 2. Д. 111. Л. 35. – Справка генерал-квартирмейстера Главного штаба генерал-майора Я.Г. Жилинского. С.-Петербург, 21 марта 1901 г.

29) РГВИА. Ф. 400. Оп. 21. Д. 3002. Л. 47 -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й доклад начальника Главного штаба генерал-лейтенанта В.В. Сахарова. Петербург, 8 марта 1904 г. № 8 с пометой о «высочайшем соизволении».

카에서 1904년 10월까지 활동한 뒤, 에티오피아 2등 훈장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아비시니아로부터 모국으로 귀국한 스뜨렐비쯔끼는 총참모부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 배치되었다. 그는 1905년 5월 제2급양계 장군의 관리국 산하 군사통계과, 1904년 6월에는 수석통치부, 1907년 12월에는 1877-1878년의 러터전쟁 기록을 위한 군사사위원회에서 각각 파견 근무했다. 결국 스뜨렐비쯔끼는 더 이상 진급하지 못했으며, 그의 마지막 러시아 수훈 훈장 '수여식'도 1904년에 이미 받았던 (성 스타니슬라브 3등)훈장을 주는 초라한 것이었다. 1911년 34년간 복무했던 스뜨렐비쯔끼는 '억지 이유'를 핑계 삼아 퇴역했다. 그는 퇴역과 동시에 소장으로 진급하면서 소장 제복을 받았으며 매년 지급받는 연금의 액수도 1,613루블로 '인상'되었다(그러나 이 액수는 그가 복무 중에 받았던 연봉 3,750루블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30] 1914년 스뜨렐비쯔끼는 21세의 딸 에카테리나(Екатерина)와 18세의 아들 게오르기(Георгий) 그리고 안드로니코바(Андроникова) 공작녀를 미망인으로 남겨둔 채 향년 54세로 생을 마감했다.

(원고투고일 : 2011. 10. 1, 심사수정일 : 2011. 11. 10, 게재확정일 : 2011. 11. 18)

주제어 : 스뜨렐비쯔끼 대령, 한러 관계, 1890년대~1900년대, 러시아 육군무관

30) См.: РГВИА. Ф. 409. Оп. 2. Л/с 7822. О производстве с увольнением от службы чи слящегося по Генеральному штабу полковника Стрельбицкого.

<ABSTRACT>

Colonel Strel'bitchki' I.I
- The First Russian Military Attach'e to the Korea -

Kim, Jong-heon

The article based on the Russian military-historical archive's documents, represents a scrutiny of the first Russian military agent in Korea Colonel I.I. Strel'bitskii's activity in Seoul in 1896-1903 with the Russo-Korean interrelations of the above period standing as a background of his mission. The author argues that Strel'bitskii's contribution to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been historiographically miscalculated, mainly having dealt not due to the military sphere in a proper sense than to the cultural communication and "inter-recognition" of the two neighboring countries.

Key Words : Colonel I.I. Strel'bitskii, Russo-Korean Interrelations, 1896~1903, Russian Military Agent

연구소 동정

1. 학술교류 및 협력활동

○ 한·러 군사 학술세미나 공동 개최

- 기간/장소 : '11. 10. 9 ~ 14 / 러시아 총참모대 군사학술연구소
- 참가인원 : 군사사부장 외 연구원 3명
- 활동내용 : 1) 한·러 군사학술 협력회의 및 사료수집방안 논의
  2) 군사학술세미나 주제 발표/토의
  * 논문주제 : 6·25전쟁기 외국군의 역할

○ 6·25전쟁 국군포로 관련 현지조사

- 기간/장소 : '11. 11. 19 ~ 28 / 러시아 크로스노야르스크 등
- 조사인원 : 국방사부 조성훈 연구원
- 활동내용 : 1) 강제노동수용소 생존자 및 관련 연구자 면담
  2) 강제노동수용소 현지조사 등

○ 한·일 전사 워크숍 참가

- 기간/장소 : '11. 11. 22 ~ 26 / 일본 방위연구소 전사연구센터
- 참가인원 : 전쟁사부장 외 연구원 3명
- 활동내용 : 1) 한·일 공동 전사연구 주제 발표/토의
  2) 군사사 관련 사료 공유 및 교류협력방안 논의

2. 전적지 답사

○ 일 시 : '11. 10. 19(수)

○ 장 소 : 철원 '철의 삼각지' 일대

(제2땅굴 - 평화전망대 - 월정리역 - 백마고지 - 노동당)

○ 참 석 : 연구소 전직원

○ 활동내용 : 해당지역 6·25 전사 발표 / 현지토의

3. 인사 이동

○ 육아휴직 : 기획운영실 7급 이행자('11. 10 ~ '12. 9)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 정영선('11. 10 ~ '12. 9)

○ 장교전역 : 전쟁사부 중령 우기범('11. 11. 30)

자료 기증은 군사사 연구의 생명입니다.

<정보자료실 제공>

군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최적의 자료 보존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생생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료기증안내>

◇ 수집대상자료

- 전사자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에 관한 피아 작전관계 문서, 지도, 사진 등 전사자료와 참전증언 자료
- 군사사 자료 : 군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군사문헌, 고증 사료

◇ 수집방법

- 소장자료를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소장자료 제공 의사를 알려 주시면 출장 방문하여 수령하겠습니다. (비제공 자료는 복제 후 반환)

※ 기증해 주신 자료는 영구 보존되며 장병 및 국민들에게 공개 활용됩니다.

◇ 연락처

- 주 소 : (㉾140-02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
- 전 화 : (일반) 02)709-3188, 3199
  (군) 900-1686, 1688

<자료이용안내>

◇ 공개자료 종류

- 장 서 : 역사, 군사도서 등
- 사 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 국방, 군사사, 수기 등
- 기 타 : 학술논문, 수기, 회고록, 간행물 등

◇ 장 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전쟁기념관 4층)

◇ 이용시간

- 평 일 : 09:30~17:3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주 소 : www.imhc.mil.kr
- 주요내용 : 소장도서목록, 연구소 역대발간서적 원문서비스,
  거제도포로수용자/호국전몰용사공훈록 DB 검색 등

신간 도서 소개

구 분	내 용
군사(軍史) 제80호 • 군사사부 • 신국판 • 2011. 9. 15. 	군사 전문 학술지인 '군사(軍史)' 제80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신라 하대 군제의 변화와 그 붕괴', '고려 말 김성우 부대의 왜구토벌에 관한 군사학적인 검토', '조선전기 군 사상자에 대한 보상제도 연구', '이순신 지휘통솔과 배경의 실천적 특징' 등 총 8편의 논문이 수록되었으며 연구소 동정과 자료기증 및 자료이용 안내, 그리고 투고안내에 대해 부록으로 수록되었습니다.
기효신서(紀效新書 上) • 군사사부 • 신국판 • 2011. 9. 29. 	전통 군사사상과 전략전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군사문헌 자료집과 번역서를 지속적으로 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 격퇴의 유일한 대안으로 수용되었던 '절강병법(浙江兵法)'의 이론서·교리서인 '기효신서(紀效新書)'(上) 번역본을 출간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번역본은 지난 1998년 「군사사연구 자료집」 제6권으로 영인발간한 '기효신서(상)'을 대본으로 삼아 번역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軍史』誌 投稿案內

1. 원고 내용 및 범위

가. 국내외 군사정책/전략 · 군사제도 · 전쟁/전투에 관한 역사적 내용

나. 한국의 국방 및 안보와 유관한 정치사 · 외교사 · 軍事史 분야에 관한 내용

다. 가 · 나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서평, 연구동향, 자료소개, 연구논문 번역 등

라. 기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활동과 부합되는 글

※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2. 원고 작성 요령

가.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과 원어는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표기함.

나. 원고 분량은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다. 註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각주 번호는 반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각주의 표기는 저자, 「논문」, 『게재지 또는 저서』,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의 순서로 함.

(예 : 홍길동, 「00에 관한 연구」, 『군사』 제8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99~101쪽)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 『軍史』誌를 참조하기 바람.

3. 투고 요령

가. 원고는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한글 파일(000.hwp)이어야 하며 원고 제출은 E-mail로 전송하여야 함. 단,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는 MS워드 사용 가능

(군사지 편집위원회 E-mail : imhc2@mnd.go.kr)

나. 전송시 인적사항, 연락처, 논문 초록(국문·영문, 각 A4지 2매 이내), 주제어(Key Word) 10단어(국문·영문) 등이 명기된 '투고신청서'와 '저작물이용허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양식은 연구소 홈페이지 '연구소 소식' -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다. 공동집필의 경우, 대표집필자 명의로 '투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집필자는 각주에 표기함.

4. 원고 심사 및 고료

가. 원고의 게재 여부는 당 연구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함.

나. 접수된 원고는 게재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당 연구소에 귀속됨.

5. 발간시기 및 원고 접수기간

연간 4회 발간(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함. 따라서 1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3월에, 4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6월에, 7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9월에, 그리고 10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12월에 게재함.

6. 문의/연락처

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우편번호 : 140-02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誌 편집위원회

- 전화 : 02-709-3198(박광순)
- FAX : 02-709-3111
- E-Mail : imhc2@mnd.go.kr

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www.imhc.mil.kr

내용 : 연구소 소개, 소식, 정보자료실(소장도서, 인명DB 검색 등), 신간안내, 회원모집

연구윤리예규

군연-예16
제정 2007. 7. 1
부분개정 2008. 12.1
부분개정 2009. 1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본 연구소 내 연구편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사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사료·사진·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

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5 조(운영위원회 및 기능) 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③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⑤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 6 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기획운영실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기획운영실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8 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 9 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 조사는 운영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소장이 임명(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은 부·실장 또는 해당 분야 전공 연구원으로 하며, 필요시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할 수 있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

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 3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6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① 최종 보고서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7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운영위원회는 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기획운영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軍史』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08년 선정)

□ **편집위원장**
서인한(군사편찬연구소)

□ **편집위원** (가나다순)
기광서(조선대학교)
김종수(군산대학교)
김태국(연변대학교)
백기인(군사편찬연구소)
심헌용(군사편찬연구소)
오영섭(연세대 이승만연구원)
이민웅(해군사관학교)
이재범(경기대학교)
진석용(대전대학교)
김영관(제주대학교)
김창석(강원대학교)
박영준(국방대학교)
신명호(부경대학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이명환(공군사관학교)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성훈(군사편찬연구소)

□ **편집간사**
박광순(군사편찬연구소)

軍 史 2011/12(第81號)

2011年 12月 9日 印刷
2011年 12月 15日 發行

發行處 國防部軍史編纂硏究所
(우편번호: 140-02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TEL : 709-3198 FAX : 709-3111
發行人 崔 北 鎭
印刷處 국군인쇄창(11129761)

本誌에 실린 論文內容은 當 硏究所의 公式見解가 아님.